

면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6호

2026년 5월

목 차

▣ 특집논문 ▣ 정읍 황토현 전적 위치 고증 및 기념공간 재구성

정수환 황토현 전투의 전개 과정과 전투지의 위치 재검토 3

조광환 황토현 전적의 기념사업 추이 81

백진 정읍 황토현 전적의 사적 가치 증진을 위한 121
정비계획 연구

▣ 일반논문 ▣

전경목 근대 전환기의 부안현의 모습과 새로운 인간형의 출현
- 기행현의 『홍재일기』를 중심으로 - 207

▣ 자료소개 ▣

조재곤 『민장책(民狀冊)』(甲午十二月 日) 해제 247

영인본(影印本) 341

Journal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

Vol.6

2026. May

▣ 부 록 ▣

연구소 소식	347
위원회 명단	35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354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	378
연구소 발간 자료	385

황토현 전투의 전개 과정과 전투지의 위치 재검토*

정수환**

〈목 차〉

머리말

- I. 황토현 전투 관련 선행연구검토와 연구의 방법
- II. 황토현 전투의 전개 과정의 이해
- III. 황토현 전투 문헌에 소개된 지명과 지형에 관한 주요 자료 검토
- IV. 충청남도·전라남북도 사료채방 복명서 (조선사편수회, 1934) 자료 분석
- V. 황토현 전투 전개 과정과 위치 재검토 종합 분석 결과

맺음말

〈국문초록〉

황토현 전적지는 1981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 유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 위치 또한 문헌 기록과 구전에 의존하여 전해지고

* 이 논문은 『정읍 황토현전적 종합정비계획(2023)』 연구 수행결과의 일부이며, 『정읍 황토현 전적 위치 고증 및 기념 공간 재구성을 위한 학술 연구 (2025년 10월)』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 수료,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사

있어 명확히 규명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실제 전투가 벌어진 장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새롭게 확인된 「충청남도·전라남북도사료채방 북명서(1934)」와 이를 둘러싼 논의를 계기로, 황토현과 만석보 등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의 위치가 잘못 전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황토현 관련 문헌과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하여 전투지의 지리적 맥락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적으로 지정된 영역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당시 전투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장소였는지를 재평가한다. 특히 「충청남도·전라남북도사료채방 북명서」에 나타난 ‘황토치’의 위치를 중심으로, 기존 학계의 이해와 차이를 분석하고 그 공간적 의미를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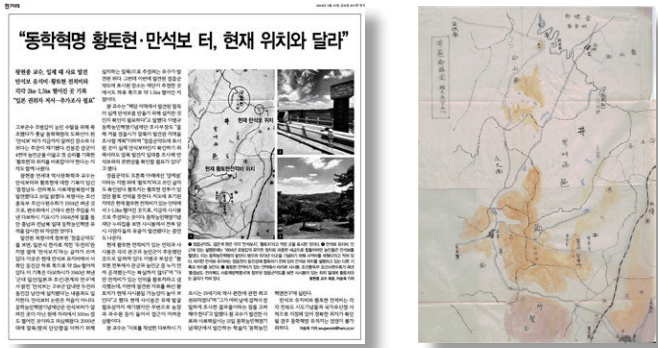
분석 결과, 새롭게 제시된 북명서 사료는 기존 학계의 주요한 틀과 근본적으로 상충하지 않으며, 오히려 두승산 동쪽 지류에 황토현이 존재했음을 강화해 주는 자료로 생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황토현이라는 것을 단순히 한 봉우리로 인지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그러나 많은 문헌에서 여러 봉우리를 포함하여 기술한다는 점에서 전투의 배경이 된 황토현 자체를 과거 1910년도 기준 고부군 우덕면 내 두승산 동측편 산 일대 영역 전체를 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이런 확장된 개념을 통해 황토현 전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현 사적지 입지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향후 유적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어 : 동학농민혁명, 황토현 전투, 황토치, 이경호, GIS

머리말

황토현 전적은 1981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유구가 확인된 바 없으며 그 위치 또한 기록과 구전에 의존해 전해질 뿐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전투가 벌어진 장소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상태이다. 특히, 2024년 새로 발굴된 「충청남도·전라남북도사료채방 북명서(조선사편수회, 1934)」를 계기로 황토

현과 만석보 등 동학 관련 유적의 위치가 잘못 전해져 왔다는 논의가 제기되면서, 위치 재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¹⁾²⁾ 새로운 사료 발굴로 논의가 확대된 만큼, 기존 황토현 전투 관련 문헌과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투지의 지리적 위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영역 및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위치가 이 당시 전투 상황 속에서 어떤 장소였는지 재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충청남도·전라남북도사료채방 복명서(조선사편수회, 1934)」에 기재된 ‘황토치’와 기존 학계의 이해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상이한 견해 간 간극을 줄이고 황토현 전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향후 유적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림 1〉 황토현 논란 기사(좌), 조선사편수회의 충청남도 전라남북도사료채방 복명서의 정읍 지역 지도(우)

- 1) 왕현중, 2024, 「충청남도·전라남북도사료채방복명서(조선사편수회, 1934)」, 『동학농민혁명 연구』 2, 동학혁명기념재단, 349~387쪽.
- 2) 이승욱, 2024, 「동학혁명 유적지, 알려진 것과 다르다…조선총독부 새 기록 발견. 동학군 황토현 전투 장소·소병갑 수탈 상징 만석보, 1934년 조선총독부 기록 현재 유적비 위치와 달라」, 한겨레 신문기사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142870.html), 2026.05.11.

I. 황토현 전투 관련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방법

1. 선행 연구 검토

황토현 전투의 전개 과정과 전투지 위치를 집중적으로 고증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신순철·이진영(1998), 이이화(1999) 등의 저술은 황토현 전투를 1차 동학농민전쟁의 큰 흐름 속 주요 사건으로 그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였다. 이후 '황토현 전투' 자체를 집중하여 진행된 연구는 조광환(2011), 조성운(2013), 류태길(2014), 조광환(2020), 홍상표(2023) 등의 연구가 있으며, 연구자들은 시대별로 추가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투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에 집중했다.

이 가운데 조광환(2020)의 연구는 풍부한 1차 사료³⁾ 및 향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황토현 전투 과정을 설득력 있게 재구성한 바 있다. 당시 확보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문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황토현 전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류태길(2014)의 「황토현 전투의 재구성」 역시 황토현 주변 지역의 지명과 향토 구술, 구전 내용을 바탕으로 작전 추정도를 제시함으로써 전투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된다. 다만 위 연구들이 2014년, 2020년에 진행된 만큼, 새로이 발굴된 사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겠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최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중심으로 관련 사료의 발굴과 번역이

3) 조광환(2020)은 『동학사(東學史)』, 『종리원사부동학사(宗理院史附東學史)』, 『김기술 문서』(金箕述 文書), 『동도문변(東徒問辨)』, 『영상일기(嶺上日記)』, 『갑오약력(甲午略歷)』, 『석남역사(石南歷事)』, 『임하유고』(林下遺稿), 『동비토록(東匪討錄)』, 『수록(隨錄)』, 『양호초토등록(兩湖招討附錄)』, 『양호전기(兩湖電記)』, 『동학농민전쟁연구 1(기쿠치 겐조)』, 『주한 일본공사관 기록』, 그리고 이진우의 『지명과 구술: 향토 자료를 통해 황토현 이해하기』 등을 검토하여 황토현 전투를 재구성하였다.

지속되고 있다. 신규 사료도 발굴되는데, 앞서 언급한 「충청남도·전라남북도 사료채방 북명서(조선사편수회, 1934)」가 새롭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 더해 새롭게 확보된 1차 사료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황토현 전투 위치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충청남도·전라남북도사료채방 북명서(조선사편수회, 1934)」에서 기재된 ‘황토치(黃土峙)’의 지정학적 위치가 기존 학계의 황토현 전투지에 관한 이해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의 범위를 황토현 전투 전개 과정과 주요 전투 지점의 위치검토에 집중하여 설정하였다.

먼저 황토현 전투 전후에 관한 이해를 위해 문헌 검토를 진행했다. 황토현 전투의 전개 과정은 조광환(2020)의 연구를 사전 이해의 기반으로 삼았다. 여기에 더해 한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 아카이브에서 ‘황토현’ 및 관련 키워드를⁴⁾ 검색하여 확보한 1차 사료 전체를 전면 재검토하였고, 조광환 연구(2020)에서 검토되지 않은 자료를 추가로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中 「전라도 고부민요일기」(동학농민혁명 신 국역 총서 16권 상 수록)가 추가되었다. 또한 전투가 벌어졌던 1894년 시기 주변 조선시대 지도 7점, 일제강점기 지도(조선지형도, 지적원도), 현대 지도(1957, 1963, 1967, 1970, 1980, 1990), 향토 및 구술자료들을 확보하여 문헌상 드러난 사건의 주요 위치를 표기하였다. 앞서 언급한 수집한 자료의 전체 목록은 다음 <표 1>와 같다.⁵⁾

4) ‘두승산(斗升山)’, ‘도교산(道橋山)’ ‘고부’, ‘황토’ 등의 지명과 주요 인물 ‘이경호’의 명칭 검색하여 문헌을 추출하였다.

5) 1차 사료의 대부분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 온라인 아카이브 상에서 접근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논문 작성에 있어 대부분의 1차 사료는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의 번역본을 대부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직접 확인한 자료에 대해서는 참고문헌 상 사료아카이브 주소 URL을 달아두었다.

〈표 1〉 연구분석 주요 자료 목록

대분류	소분류	자료명
1차 자료	동학 농민군 측	- 오지영. 『동학사(東學史) 초고본』 - 남원군종리원. 『종리원사부동학사(宗理院史附東學史)』 - 권병덕. 『갑오동학란』 - 『시천교중역사』 - 『동학도중역사』 - 김낙봉. 『김낙봉이력(金洛鳳履歷)』
	관군 측	- 『동비토록』 1894년 초 7일 진시; 초7일 진시. 초 10일 초토사; 4월 13일; 13-일 진시완백; 15일 진시 전라감 사의 비밀전보 - 『수록』, 4월초 8일 계초; 영문에서보낸 기별; 4월 17일; - 『양호전기(兩湖電記)』, 1894년 4월 초 갑인. - 『양호초토등록(兩湖招討謄錄)』 승정원에서 열어보십시오 (1894년 4월 9일;4월 12일) - 전라감영. 「완영에서 작성한 전라도 고부민란 시초(1894년 4월)」 - 최영년. 『동도문변(東徒問辨)』 중 「백산패적변」
	지역유생	- 김기술. 『김기술문서(金箕述 文書)』 「1894년 12월 일 태 인 고현내면 백성 김기술」 - 김방선. 『임하유고(林下遺稿)』 「1894년 9월」 - 김재홍. 『영상일기(嶺上日記)』 「1894년 4월」 - 박문규. 『석남역사』(石南歷事)』 「1894년 1월」 - 정석모. 『갑오약력(甲午略歷)』 「1894년 봄」 - 황현. 『오하기문』 「고부전투와 관군의 패배」
	일본 측	- 외솔회, 1974, 동학 혁명 실화 자료 - 황토현(黃土峴) 전 투 기록. 나라사랑, 15, 209-209. (※기쿠치 겐조 보부 상 취재 기록과 동일) - 간나미 하야토. 『갑오조선내란시말』 「백산의 교전」. 동 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5. 63-67 - 무로다 요시아야 & 파계생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 中 「전라도 고부민요일기」.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16권).
2차자료	학술논문	- 조광환, 2011, 「황토현 전투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동 학농민혁명의 기억과 역사적의의』, 전북사학회, 2011 - 조성운, 2013, 「황토현전투의 전개와 역사적 의의」. 『한 국민족운동사학회』, 77, 2013.12 - 류태길, 2014, 「황토현 전투의 재구성」 『녹두꽃. 동학농 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2014년 여름 6호. - 조광환, 2020, 「황토현전투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 『동학농민혁명 126주년 기념 학술대회』

대분류	소분류	자료명
		- 홍상표, 2023, 「1894년 황토현 전투의 재구성», 『2023년 제2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고지도	조선시대 지도	- 비변사인방지도(備邊司印 方眼地圖, 1740년대) - 광여도(廣輿圖, 1737-1776) - 해동지도(海東地圖, 1750년대 초) 고부 지도 - 여지도(輿地圖 중 2권 조선 도별도, 1789-1795) - 지승(地乘, 1776-1787) 중 고부군 -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1861) - 1872 지방지도(1872年 郡縣地圖, 고부)
	지적원도 (1915)	-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우덕리 지적원도』(0-30). -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하학리 지적원도』(0-25). -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상학리 지적원도』(0-19). -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망제리 지적원도』(0-32). -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신월리 지적원도』(0-22). - 『전라북도 정읍군 이평면 도계리 지적원도』(0-28).
	지형도	- 朝鮮總督府 [編] “朝鮮五万分一地形圖. [20-2-3] : 井邑(群山三號)” 陸地測量部 大正13년 (제작 1914-1917, 배포 1924년) - 1957, 1963, 1967, 1970, 1980, 1990 수치지형도
현대 데이터베이스	-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도. - 흙토람 토양환경지도	
향토 지명 참고 자료	- 이평면지편찬위원회. 2022. 이평면 백년사. 정읍시청 - 류태길, 2014, 「황토현 전투의 재구성», 『녹두꽃.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2014년 여름 16호.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적지 정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황토현 전투 전개 과정에서 언급된 주요 지명 및 위치를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y Information System) 소프트웨어인 QGIS를 통해 좌표화 한 뒤 중첩·분석하였다. 또한 기존 사적 지정 범위와 새로 발굴된 사료채방 복명서상 기재된 위치를 함께 표시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 성과를 종합하는 동시에, 현재 차이를 보이는 황토현 전적의 위치에 관한 해석의 간극을 좁히고자 하였다.



〈그림 2〉 연구 조사 방법론 (출처 : 연구자 작성)

II. 황토현 전투 전개 과정의 이해

1. 제1차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동학농민혁명은 크게 제1차와 제2차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되곤 한다. 제1차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음력 기준) 고부농민봉기와 함께 3월 무장에서 기포한 후 4월에 황토현 전투 대승 이후 5월 전주성 점령 및 전주화약을 통한 농민군 해산까지의 사건 등이 포함되고, 제2차 혁명은 같은 해 9월 재기포 이후부터 우금티에서의 패배, 대둔산 최후항전 및 동학 지도자들의 체포와 교수형 등으로 막을 내린다.⁶⁾ 이런 큰 흐름 속에서 벌어진 ‘황토현 전투’는 제1차 혁명의 핵심 사건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따라서 황토현 전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1차 혁명의 황토현 전투 이전과 이후 전개 과정을 소상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요 사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https://www.1894.or.kr/main/?menu=144>), 2026.03.31.

1892년 부임한 고부군수 조병갑(趙秉甲)은 극심한 수탈로 고부 군민들을 고통에 빠뜨렸다. 농민들이 모여 조세 감면을 호소했으나 수탈은 멈추지 않았고, 이에 분개한 농민들은 1894년 1월 말목장터에서 봉기하여 고부 관아를 점령하였다. 사건 직후 조선 정부는 조병갑을 체포하고, 당시 전라감사였던 김문현(金文鉉)에게 감봉 조치를 내렸으며, 박원명(朴源明)을 임시 고부 군수에 부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진정된 농민들이 해산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정에서 장흥 부사였던 이용태(李容泰)를 안핵사(按覈使)로 파견하였는데, 이용태 또한 조병갑과 마찬가지로 역시 고부에서 학정을 자행하였다. 이에 따라 1894년 3월 20일 전봉준(全琫準)·손화중(孫華中)·김개남(金開南) 등 동학 대접주들을 중심으로 농민들은 무장(茂長)에서 기포하였고,⁷⁾ 같은 해 음력 3월 26일 무렵 백산(白山)에서 결진하였는데,⁸⁾ 동학농민군은 전라북도 여러 군, 읍을 점령하며 관군과 전투를 전개하였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조정은 ‘홍계훈(洪啓薰)’을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로 임명하고 경군을 파견하였다.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전라감사 김문현은 이경호(李璟鎬)를 필두로 하여 영병(營兵) 및 보부상 부대, 그리고 향병(향토의병)으로 구성된 전라감영군을 파견하였다. 진압군과 동학농민군은 음력 1894년 4월 6일 오후 4월 7일 새벽 정읍·고부 경계에 위치한 황토현에서 격돌했으며, 이때 동학농민군이 대승을 거두었다.⁹⁾ 황토현 전투에서의 대승은

7) 『수록』, 「무장현에서 동학인포고문을 베껴 올린다 [茂長縣贖上東學人布告文]」.

8)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일지-189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6&time=5#>), 2026.05.11.

9) 『수록』, 「영문에서 보낸 기별」

“4월 초 7일 오시(午時)에 낸 금구현의 보고에, 저들 무리들이 고부 황토산 영진으로 진을 옮겼다고 하며, 또 황토산 아래에 진을 쳐서 신시(申時) 무렵 집전을 하였고, 그날 동이 틀 때에 패주하여 도망쳐서 각처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위 글은 금구 현에

동학농민혁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전투를 계기로 조정도 더 이상 동학농민군을 쉽게 여기지 않았다.

한편, 동학농민군은 기세를 몰아 정읍을 점거, 전라도 서남해안 일대를 점령하고, 장성 황룡촌에서 ‘경군’을 격파하였으며, 마침내 4월 27일 전라감영이 있던 전주성에 무혈 입성하여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였다. 동학농민군을 쫓아온 초토사 홍계훈의 경군을 맞이하여 동학농민군은 전주성에서 수성하고, 경군은 풍남문 및 전주천 남쪽 완산 용머리고개에 진을 치고 공성하여 전투를 벌였다. 동시에 관군은 격문을 보내 동학농민군과 화약체결을 시도하였는데, 동학농민군은 27조목과 신변 보장을 조건으로 철수조건으로 걸었으며,¹⁰⁾ 초토사도 홍계훈이 이를 수용하고 물침표(勿侵標)를 발급하는 등 마침내 5월 7일 전주에서 화약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동학농민군은 자진 해산하며 제1차 동학농민혁명은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제1차 혁명의 주요 촉발 계기는 조병갑, 이용태와 같은 탐관오리들의 폭정이었다. 보국안민, 폭제구민이 사건의 가장 큰 계기 중 하나였다. 여기에 더해 신분제가 폐지된 사회 구현 의지를¹¹⁾ 보여줌과 동시에 실제 ‘화약 체결’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보인 대사건이다. 이런 맥

서 신시 4월 초 7일 오시(13:00~14:59)에 낸 보고이다. 글에서 서술하고 있는 ‘진을 옮기고 접전을 한 신시(申時, 15:00~16:59)’는 그 전날인 6일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늦은 오후 무렵부터 전투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날인 7시 동틀 무렵에 전투가 끝난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 전투의 전개과정을 보면, 대치 과정에서 서로 포를 주고 받기도하고, 4월 6일 오후부터 7일 새벽 동틀 무렵까지 전투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번역 오하기문』에서도 7일에 관군이 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0) 『동학관련판결선고서 東學關聯判決宣告書』, 「제37호 판결선고서원본 전봉준(全捧準)」, “...이에 초토사가 격문(檄文)을 지어 성안으로 던지며, “피고들의 소원을 들어줄 터이니 속히 해산하라”고 타일렀는데, 피고들이 27조목을 가지고 임금에게 올려주기를 청원하기를, “...(중략)...” 그래서 초토사가 바로 그것을 승낙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그 해 5월 5~6일에 흔쾌히 무리를 해산하여 각각 생업에 나아가게 하였다.”

11) 『동학사초고본』, 「집강소의 행정」, “폐정개혁 12조.”

락에서 벌어진 ‘황토현 전투’는 동학농민군의 전투 대상은 조선 정부가 파견한 전라감영군, 부상군, 향병 등으로 구성된 진압군이었고 이들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반면, 제2차 혁명에서는 청·일 양군의 상륙으로 인한 외세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면서, 구국 충절 정신, 반외세적 저항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2. 황토현 전투에 관련된 진영별 주요 인물과 군의 규모

1) 동학농민군 측 주요 인물

황토현 전투의 세부적인 전개 과정을 알아보기에 앞서, 황토현 전투에 관여된 주요 인물들의 정보와 황토현 전투 당시 그 행적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주요 인물들은 앞서 조사 대상으로 정리한 문헌상에서 직접 언급된 인물들로 추렸다.

〈표 2〉 이외에도 ‘최경선’, ‘김덕명’, ‘서두환’, ‘차기석’, ‘권병덕’, ‘이상진’, ‘이유형’, ‘차치구’, ‘정진구’ 등은 당시 동학의 대접주이자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인물들로 확인된다. 또한 오지영의 『동학사초고본』에 수록된 포고문과 격문 등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황토현 전투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조사 범위 내 1차 사료에서 황토현 전투 당시의 구체적 활동이 확인되지 않아 〈표 2〉에는 수록하지 않았다. 한편 「완영에서 작성한 전라도 고부민란 시초(1894년 4월)」에는 황토현 전투 당시 주고받은 격문 속 인물로 ‘정일창’, ‘이일해’, ‘노성범’ 등이 등장한다. 그러나 해당 문헌은 사료적 신뢰성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¹²⁾

12) 「완영에서 작성한 전라도 고부민란 시초(1894년 4월)」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14세 정일창을 상장군, 30세 전봉준을 부장, 이일해를 모사, 노성범로 서술하고 있는데, 전봉준은 당시 대장이었으므로 완전히 다른 사실이다. 따라서 이 사료의 신빙성은 매우 낮다. 그러므로, ‘정일창’, ‘이일해’, ‘노성범’이 실제 존재한 인물들이었는지는 또한 확인이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가 이 문헌과 해당 인물

〈표 2〉 황토현 전투 관여 인물 동학농민군 측 주요 정보 및 행적

이름	주요 정보 및 행적	근거 문헌
전봉준 (전명숙 전녹두)	호서대접주로 동학농민군의 수장이었으며, 동학농민혁명의 최고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 “백립(白笠, 흰 베로 만든 갓)을 쓰고 흰옷을 입어 아버지의 상(喪)을 표시했는데, 그 길이가 7척(七尺)이 되지 않았다.”라고 묘사된다. 황토현 전투 당시에는 가짜 부상군을 만들어 지시하여 관군 후미에 침투시키는 전술을 사용하였고, 동학농민군 본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동학사 초고본』 -『종리원사부동학사』 -『오하기문』 -『김낙봉이력』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 -『전라도 고부민요일기』(무로다 요시아야;파계생, 신국역총서 16권). -『완영에서 작성한 전라도 고부민란 시초(1894년 4월)』
손화중	손화중은 정읍 태생 무장의 대접주였다. ‘김개남’과 함께 총사령 중 하나로 추대되었으며, 전봉준과 함께 무장기포와 백산결진을 주도하였다. 황토현 전투 직전 4천여 명을 이끌고 부안을 점거하였으며, 부안 현감 이철화를 해하려 하였으나 김낙철의 설득으로 이를 중단하였다. 황토현 전투 당시 동학농민군 본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동학사 초고본』 -『종리원사부동학사』 -『오하기문』 -『김낙봉이력』 -『완영에서 작성한 전라도 고부민란 시초(1894년 4월)』
김개남	태인의 대접주이자 전봉준·손화중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의 3대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 황토현 전투 직전 동학농민군이 부안과 태인 방면으로 나뉘었을 때, 태인과 금구 원평 방면으로 진격한 부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이후 황토현에서 전봉준·손화중 본대와 합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학사 초고본』 -『종리원사부동학사』 -『오하기문』

들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황토현 전투 직전 대치 상황에서 동학농민군이 관군에 보낸 격문이라 전해지는 아예 무시하기에는 어려운 사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문헌에서 “정일창은 장검으로 지휘하여 송봉호(송사천)과 격돌하였고, 송사천이 정일창을 감당해내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다. 또, 일본 측 문서에서도 직접적으로 황토현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정씨 혹은 장씨성을 가진 소년 장수가 있었다고 기록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런 신화적인 스토리는 황토현 전투를 각색하거나, 황토현 전투를 재구성함에 있어서 대중적 흥미를 끌어들이거나 풍부함을 더해주는 이야기적 요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요소라 생각된다.

이름	주요 정보 및 행적	근거 문헌
김낙철	김낙봉의 형으로 부안의 접주였다. 또한 백산결진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부안현감 이철화의 요청으로 도소를 설치해 치안을 유지하였으며, 손화중을 설득해 이철화를 살려주었다. 다만 황토현 전투 당시에는 동학농민군 진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김낙봉이력』

관련 자료에 나타나는 동학농민군 측 주요 인물로는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이 있다. 이들은 백산 결진 이후 각각 병력을 이끌고 진군하였는데, 전봉준과 손화중은 본대를 이끌고 부안을 점령하였으며, 김개남은 금구와 원평 방면까지 진군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낙봉이력』에 따르면 전봉준과 손화중의 본대는 부안군수 이철화를 붙잡아 처형하려 하였으나, 부안 접주 김낙철의 설득으로 이를 중단하고 이철화를 풀어주었다. 같은 기록에서 손화중이 부안의 세력, 즉 김낙철 측과 합세하는 조건으로 도교산으로 진을 옮기겠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그리고 나서 김낙철은 부안 세력을 이끌고 황토현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반면 김낙봉은 전투에 직접 참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2) 동학농민군의 규모

다음은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황토현 전투에 참전한 동학농민군의 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황토현 전후 시기의 동학농민군은 크게 부안을 점령한 부대와 금구·태인 방면까지 진격한 부대가 동학농민군의 중심이었다. 또, 전투의 세부 과정에서는 매복병과 가장군(假將軍)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먼저 부안을 점령한 부대는 전봉준과 손화중이 이끌던 동학농민군 본대였다. 부안 접주 김낙철의 동생 김낙봉이 저술한 『김낙봉이력』에 따르면, 4월 3일 당시 손화중 전봉준이 “약 4천 명” 정도 무리를 이끌고 부안 성읍으로 들이닥쳤다고 한다. 또한 『동비토록』에 따르면, 감영

에서 진압군을 파병할 당시에도 초기 동학농민군의 규모를 “3~4천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다.¹³⁾

한 편에서 태인과 금구를 점령한 부대 역시 수천 명 규모로 기록되어 있다.¹⁴⁾ 이후 이 두 부대가 황토현에서 합세하면서 동학농민군의 규모는 최소 6천 명 이상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 『동학도종역사』에서는 “손화중·전봉준 두 포의 도유(徒儒)의 합이 만 명”이라고 기록하기도 한다.¹⁵⁾ 또한 『김낙봉이력』에는 손화중이 부안 점령 이후 도교산으로 이동하면서 부안 접주 김낙철 측에 합세를 요구하였다는 내용도 확인된다. 이에 따라 실제 병력 규모는 초기 4천 명보다 더욱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오지영의 『동학사 초고본』에 따르면, 부안에서 백산으로 이동한 뒤 다시 도교산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동학농민군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한 부대는 도교산으로 이동하였고, 다른 부대는 부안 방면으로 향하였다. 이후 부안 방면으로 이동한 병력 역시 황토현 전투 개전 이후 뒤늦게 합류하여 수백~수천 명 규모의 매복병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음은 가장군의 규모에 관한 기록이다. 『남원군 동학사』, 『동학사 초고본』의 동학농민군 측 기록과 『갑오조선내란시말』의 일본 기록에 동시에 나타난다. 전봉준은 기지를 발휘하여 무장 혹은 남원 원병으로 위장시킨 가장군을 투입했는데, 그 규모는 30명, 50명 혹은 수십 명 정도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가장군은 약 30~50명 규모의 소수 병력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투 이후에는 동학농민군의 규모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 기록인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에는 황토현 전투 직후 흥덕에서

13) 『동비토록』, 「15일 진시 전라감사의 비밀전보 [十五日辰時 暗電惠堂宅完伯].

14) 『수록』, 「4월 초 8일 계초 [四月初八日 啓草].

15) 『동학도종역사』, 제12장 갑오동학당혁명과 청일전쟁[第十二章 甲午東學黨革命及日清戰役].

취사를 제공받은 농민군의 수가 약 1만 8천 명에 달하였다는 증언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시천교종역사』에서는 장성에 이르러 그 수가 수만 명 규모로 확대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종합하면 황토현 전투에 참전한 동학농민군의 규모는 보수적으로는 약 4천 명, 많게는 1만 명에 가까운 대규모 병력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당시 기록에는 과장된 수치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동학농민군, 관군, 지역 유생, 일본 측 기록 등 서로 다른 계통의 자료에서 유사한 규모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로 판단된다.

3) 관군 측 주요 인물과 진압군의 규모

(1) 관군 측 주요 인물

관군 측 주요 인물과 행적을 종합하자면 <표 3>과 같다. 전라감사 김문현, 군사마 최영년 등이 감영군을 총괄하는 입장이었다. 이경호는 백산으로의 출병 및 황토현 전투의 지휘를 맡은 자로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 측의 핵심 인물이다. 경군으로 파견된 양호초토사도 홍계훈은 직접적으로 참전은 하지 않았지만, 황토현 전투 전 김문현, 최영년 등과 마주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황토현 전투 관여 인물 관군 측 주요 정보 및 행적

이름	주요 정보 및 행적	근거 문헌
김문현	황토현 전투 당시 전라감영의 총원수로 전라감사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라도 일대의 총책임자였다. 이경호를 백산으로 출병시켜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고자 하였으나, 음력 4월 7일 이경호가 이끌던 감영군이 황토현 전투에서 패하였다. 이후 음력 4월 18~20일경 파직되어 거제도도 유배되었다.	-『동도문변』 「백산패적변」 -『김기술문서』 -『시천교종역사』 -『동학도종역사』

이름	주요 정보 및 행적	근거 문헌
이철화	당시 부안 현감으로, 황토현 전투 이전 전봉준과 손화중의 무리에게 붙잡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으나, 평소 교류가 있던 부안 접주 김낙철이 손화중을 설득하여 풀려났다.	-『김낙봉이력』 -『수록』 「4월 초 8일 계초」 -『수록』 「영문에서보낸 기별」
홍계훈 (홍재희)	당시 양호초토사로, 동학농민군 토벌을 위해 조정에서 파견된 경군의 수장이었다. 이후 장성 황룡촌 전투와 전주성 공략 과정에서 동학농민군과 대치하였으며, 전봉준과 전주화약을 체결한 인물이기도 하다. 다만 최영년의 기록에 따르면, 음력 3월 28일 전주에 도착한 뒤 4월 1일 장성과 무장 방면으로 출병하였기 때문에, 황토현 전투에는 직접 참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록』 「영문에서보낸 기별」 -『수록』 「4월 17일」 -『양호초토등록』 -『동도문변』 「백산패적변」 -『동비토록』 「4월 13일」 -『임하유고』 -『갑오약력』 -『영상일기』
이경호 (이곤양; 이광양; 이근창; 이비장)	급위대장 이장렴의 아들로 장수 집안 출신이며, 백산 출병과 황토현 전투 당시 '별장'으로 임명된 감영군의 핵심 인물이었다. 문헌에 따라 '이곤양', '이비장' 등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이경호는 “좁은 입구를 파수하여 나루터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산 입구에 병사를 주둔시켜 양곡의 길을 끊으면 10일도 안 되어 우두머리를 잡을 수 있다”고 하며 관군을 평지에 주둔시켰다. 이후 전투 중 동학농민군과 치열하게 교전하다 화살과 탄환, 총칼에 맞아 전사하였다. 조정에서는 이를 충용하게 여겨 규례에 따라 병조참의로 특별 추증하였다.	-『동도문변』 「백산패적변」 -『수록』 「영문에서보낸 기별」 -『수록』 「4월 17일」 -『동비토록』 「초 10일 초토사」 -『양호초토등록』 -『임하유고』 -『오하기문』 -『갑오약력』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 「전라도 고부민요일기」(무로다 요시아야;파계생, 신국역총서 16권).
최영년	최영년은 황토현 전투 당시 전라감사 김문현의 군사마로, 일대 진영의 형세를 살피기 위해 현장을 둘러본 바 있으며, 별장 이경호가 구축한 진영을 보고 깊은 우려를 표한 인물이다. 또한 황토현 전투의 내용을 담은 주요 저술인 『동도문변』 「백산패적변」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동도문변』 「백산패적변」

이름	주요 정보 및 행적	근거 문헌
이은승 (이돈승)	이은승은 당시 서기였으며, 비록 낮은 관직에 있었으나 황토현 전투에서 이경호와 함께 끝까지 자리를 지키다 전사하였다.	-『오하기문』 -『수록』 「영문에서보낸 기별」; -『수록』 「4월 17일」
유상문	당시 서기로, 황토현 전투에서 이경호를 수행하다 전사한 것으로 기록된다. 문헌에 따라 이은승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동도문변』 「백산패적변」
유병직 (유영호)	태인의 전 감역이자 행부보상의 반수로, 부상군을 이끌던 인물이다. 황토현 전투 당시에는 부상군을 이끌고 군의 후미에 배치되었으나, 진문에서 창과 칼에 찔려 전사하였다. 「백산패적변」에서는 ‘유영호’로 표기된다.	-『오하기문』, -『수록』 「4월 17일」 -『동도문변』 「백산패적변」
김암희 (김화형)	황토현 전투 당시 이경호 곁에 있었으며, ‘유서기’의 시신을 수습한 인물로 기록된다. 『수록』에서 ‘서기’를 ‘김화형’으로 표기한 점을 고려하면, 두 인물은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	-『동도문변』 「백산패적변」 -『수록』 「영문에서보낸 기별」;
국인목	담양의 수성 별장으로 주요 방어 거점들을 살폈다. 황토현 전투에서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수록』 「4월 17일」
정창모 (정창권)	당시 집사였으며, 황토현 전투 당시 자위하여 몸을 던져 적에게 나아갔으나 별다른 공을 세우지는 못하였고 달아나 돌아왔다.	-『수록』 「영문에서보낸 기별」; -『수록』 「4월 17일」
이재한 (이재섭; 이재혁)	신영대관으로 황토현 전투 당시 대관직책으로 고부군에서 탄약 수송 임무를 맡았으나 목숨을 도모하고자 도주하였다. 마찬가지로 최영년의 「백산패적변」에 따르면, 황토현 전투 시 김달관과 함께 감영군 좌익을 맡았으며, 공을 앞다투어 먼저 동학농민군을 공격하였다는 기록도 존재한다.	-『동도문변』 「백산패적변」 -『갑오약력』 -『수록』 「영문에서보낸 기별」; -『수록』 「4월 17일」 -「완영에서 작성한 전라도 고부민란 시초(1894년 4월)」

이름	주요 정보 및 행적	근거 문헌
김달관	황토현 전투 당시 중군 및 신영병방을 겸대 맡았으나 적세를 살피지 않고 도주하여 물러갔다. 백산패적변에서 황토현 전투 시 이재환과 함께 감영군 좌익을 맡았으며, 공을 앞다투어 먼저 동학농민군을 공격하였다는 기록도 존재한다.	-『동도문변』 「백산패적변」 -『수록』 「4월 17일」
유판근 (유수근)	황토현 전투 당시 신영대관 직책으로 이재섭과 함께 고부군에서 탄약 수송 임무를 맡았으나 목숨을 도모하고자 도주하였다.	-『수록』 「영문에서보낸 기별:」 -『수록』 「4월 17일」
김명수	금구의 군수이며, 전투를 잘 모름에도 여러 번 동학도와 나가 싸우기를 청하였다. 황토현 전투 당시에는 향관 직책으로 ‘군량 조달을 잘하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동도문변』 「백산패적변」
백경찬 (백낙유)	당시 ‘교장’으로 참전하였다. 전투 당시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달아나 전라감영으로 돌아왔다.	-『수록』 「4월 17일」
육용규	교장으로 참전하여 군졸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멀리서 바라보고 도망갔다	-『수록』 「4월 17일」
진영교	백경찬과 함께 ‘교장’으로 참전하였다. 마찬가지로 도주하여 전라감영으로 돌아왔다	-『수록』 「4월 17일」
송봉호 (송봉암)	황토현 전투 당시 전라 좌우도의 보부상 도반수로 관군 측의 이경호와 함께 황토현 전투를 이끌던 주요 인물로 언급된다. 적의 군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 사천 군수로도 언급되어 ‘송사천’, 송봉암이라고도 언급된다.	-『수록』 「4월 17일」 -「완영에서 작성한 전라도 고부민란 시초(1894년 4월)」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 「전라도 고부민요일기」(무로다 요시아야:파계생, 신국역총서 16권).
김기술	태인 대접주 김개남과 동본인 태인 출신 유생으로, 동학농민군이 아닌 동학농민군 토벌을 위한 항병에 자원하여 황토현 전투에서 감영군의 증원군으로 참전하였다. 황토현 전투 당시에는 태인현감에게 보고한 뒤 황토현에 도착하여 새벽에 진중에 들어갔으나, 급습한 동학농민군의 공격을 받고 도주하였다.	-『김기술문서』

이름	주요 정보 및 행적	근거 문헌
패잔병1 (부상군)	기쿠치 겐조가 취재한 인물을 표현한 것이며, 부상군으로 전투에 참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황토현 북방 소나무숲으로 도주하여 백산에서 배편을 구해 아산으로 도주했다.	-외솔회. 1974. 동학혁명실화자료 (기쿠치 겐조 보부상 취재기록과 동일)
패잔병2 (줄포원병)	파계생이란 줄포 근방에 거주하던 일본인이 발견한 자로써, 줄포 인근에서 배를 태워달라고 애걸하였다.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 「전라도 고부민요일기」 (무로다 요시아야;파계생, 신국역총서 16권).

이경호를 중심으로 김달관, 이재한, 육용규, 백경찬, 유상문, 이은승 등의 감영군 장수들과 담양의 국인목 등 타 지역 장수들이 합세하였다. 또한 관군 측의 또 다른 축이었던 부상군은 송봉호(송사천), 유병직 등이 이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패잔병 1 역시 부상군 계열 인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줄포·무장·남원·태인 등 각 지역의 영병과 향병이 합세하였으며, 패잔병 2는 줄포에서 온 원병으로 추정되고, 김기술은 태인 지역 향병으로 동학농민군 토벌을 위해 의용군에 참여한 인물이었다.

전투 과정에서 이경호, 유서기, 이은승 등은 전사하였으며, 김암회는 유서기의 시신을 수습하여 후퇴하였다. 부상군 도반수였던 유병직 역시 전사하였고, 담양에서 합세한 국인목은 전투 중 치명상을 입었다. 반면 정창모, 김달관, 이재한, 유판근, 백경찬, 육용규, 그리고 부상군의 송봉호 등은 도주하여 생존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관군과 부상군, 향병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퇴각하였다.

김기술과 패잔병 1·2 역시 이 과정에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패잔병 1은 황토현 북방의 소나무 숲을 거쳐 백산 서쪽에서 배편을 구해 아산으로 이동하였으며, 이후 기쿠치 겐조에게 황토현 전투 상황을 전한 인물로 추정된다. 한편 패잔병 2는 도주 과정에서 줄포에 있던 파계생을 만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기술은 태인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2) 진압군의 규모

다음은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진압군의 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당시 진압군은 감영군, 부상군, 향병 및 의용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전체를 포괄하여 기록한 경우가 많다. 전봉준은 『전봉준공초』에서 “감영병 약 만여 명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부득이 고부에서 접전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¹⁶⁾, 『임하유고』에서도 만여 명이라 기록하였으며, 『석남역사』에서는 “전주 병정 몇 소대가 부상군 수만을 이끌고”라고 기록한 바 있다. 『오하기문』에서도 진압군 규모를 “약 6천여 명”이라 기록하였다.

군대의 세부적 구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록들도 존재한다. 일본측 기록인 비서류찬 교섭자료에서는 “영병 250명을 중견으로 하여 무려 7,000~8,000명의 고용병을 이끌고”라고 기술한 바 있으며, 『갑오조 선내란시말』에서는 “영병 200명, 향병 3천 명”이라 기록하였다. 전주 유생 정석모는 『갑오약력』에서 “무남영 병사 300명을 파견하였는데... 보부상 도반수 송봉호가 보부상 수천명을 거느리고 군대를 따랐는데”라고 기록하였다. 아울러, 동학농민군 측 기록인 『남원군동학사』, 『시천교종역사』, 『동학도종역사』에서는 “포군 2,000명과 부상군 1,000여 명을 이끌고”라 기록한 바 있어 영병은 200~300여 명, 부상군과 향병이 그 숫자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최영년의 「백산패적변」에 따르면, 이경호의 군대는 본대·좌익·우익·후방으로 나뉘어 진을 형성하였다. 좌익에는 김달관과 이재섭이 수천의 병력을 거느렸고, 후방에는 유병직이 부상군 천여 명을 이끌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기쿠치 겐조가 취조한 패잔병 1 역시 후방 부상군 진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가 목격한 관군의 수만 약 2천 명이었다고 증언하였다. 추가로 김기술은 태인 지역 의용군 약 100여 명이 황토현 진

16) 『전봉준 공초 全捧準供草』, 「개국 504년 2월 9일 동도죄인 전봉준 초초 문목」.

중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향병 역시 군읍별로 수백 씩 모였으며, 황토현 전투 전에는 수천 명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규모 역시 상당하였다. 사료에는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사망자를 셀 수 없었다”는 기록이 반복된다. 죽고 부상당한 숫자는 천여명에 이른다는 기록은 『오하기문』, 『시천교종역사』, 『동학도종역사』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영병 사망자는 『임하유고』에서는 수백명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갑오조선내란시말』에서는 영병 130명이 사망하였고, 향병은 그 수를 셀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양호전기』에서는 부상당한 영병의 숫자를 70명이라 보고했다. 또한 부상군 출신 패잔병은 자신의 동료 약 780명이 전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영상일기』에는 세부적이지만, 남원 속오군 8명 가운데 1명이 전사하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기록도 확인된다. 『비서류찬 교섭자료』에서는 “사망자를 헤아릴 수 없고,” “줄포에서만 200여 명”의 진압군이 “도주”하는 것을 목격했다.

종합하면 진압군은 동학농민군과 마찬가지로 수천에서 많게는 1만 명에 가까운 규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병의 숫자는 200~300명 수 정도였을 것이며, 향토의병 및 부상군을 합친 숫자는 수천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패배와 함께 십분의 일에서 절반에 가까운 진압군이 사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 천여 명이 전사하고, 수백~수천 명의 패잔병이 사방으로 흩어져 퇴각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황토현 전투는 양측 모두 약 수천에서 만여 명 규모의 병력이 충돌한 대규모 전투였다고 볼 수 있다.

3. 황토현 전투의 전개 (1894.04.06.~1984.04.07.음)

황토현 전투에서 양 군은 어떻게 진형을 갖추었고, 또 전황은 어떻게 흘러갔는가? 전투 전황에 대해서는 다양한 저자들이 기록한 바 있다. 황토현 전투 전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조광환(2020)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2. 황토현 전투에 관련된 진영별 주요 인물과 군의 규모를

바탕으로 한 이해와 더불어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일지」(1894년 3~5월),¹⁷⁾ 그리고 관련 1차 사료를 재분석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황토현 전투 전후의 상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894년 3월 25~27일 무렵 백산에서 결집하였던 동학농민군은,¹⁸⁾ 두 갈래로 나뉘어 4월 1~2일경 서쪽으로는 부안(扶安) 동쪽으로는 태인(泰仁) 및 금구 원평(院坪) 인근까지 점령하였다.¹⁹⁾ 전주(全州)에서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감영군이 출병하였고, 전라도 각 군과 읍에 격문이 내려져 사방에서 동학농민군에 관한 추격을 이어갔다. 전주에서 만여명의 진압군이 출동한 사실을 들은 동학농민군은 부안과 태인 둘로 갈라진 병력을 다시 합세하여²⁰⁾ 고부 뒤편의 '도교산(道橋山)'에서 관군에 맞서고자 하였다.²¹⁾

전봉준과 손화중이 있던 동학농민군 본대는 부안 점거 후 백산으로 다시 모였다가, 감영군과 잠시 대치한 것으로 보인다. 관군은 화호리 나무터 인근에 진을 치고, 동학농민군은 백산에서 대치하였다. 이후 동학농민군은 백산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후퇴하였고, 천태산(天台山)을 지나 두승산(頭僧山) 동쪽 '황토(黃土)재' 부근으로 진영을 옮겼고,²²⁾ 감영군은 이를 추격하였다.²³⁾

1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일지」,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https://www.e-donghak.or.kr/archive/?menu=136&time=61517#>), 2026.04.01.

18) 위의 자료.

19) 『번역 오하기문』, 「首筆 고부전투와 관군의 패배」; 『동비토록』, 「15일 진시 전라감사의 비밀전보 [十五日辰時 暗電惠堂宅完伯]」; 수록, 「4월 초 8일 계초 [四月初八日 啓草]」.

20) 『김낙봉이력』, 「갑오(1894년) 4월 3일」.

21) 『번역 오하기문』, 「首筆 고부전투와 관군의 패배」; 『동비토록』, 「15일 진시 전라감사의 비밀전보 [十五日辰時 暗電惠堂宅完伯]」; 『수록』, 「4월 초 8일 계초 [四月初八日 啓草]」.

22) 『석남역사』, 「1894년 1월」.

23) 『동학사초고본』, 455~466쪽.

고부 도교산에 이른 동학농민군은 황토현 하봉에 진을 쳤다. 뒤따라 온 감영군은 넓은 평지와 ‘황토현 상봉’ 일대에 진영을 구축하였고, 후방이었던 ‘상상봉’에는 부상군을 배치하였다.²⁴⁾

동학농민군은 높은 세 봉우리를 점거하였으며, 그 형세는 마치 ‘쟁반’ 혹은 ‘술발’과 같았다고 전한다.²⁵⁾ 반면 관군은 평지와 낮은 봉우리에 진을 쳤다. 황토현 전투 당시 관군의 총대장이었던 이경호는 나루터로 향하는 좁은 길목을 차단할 수 있는 평지에 본대를 배치하였으며, 좌우익에는 이재섭과 김달관의 군을 두었다. 또한 후방에는 유병직 등이 이끄는 부상군을 배치하였다.²⁶⁾

아울러 보부상군과 향병들이 고부·줄포·남원·무장 등 각지에서 황토현으로 합류하여 진지를 구축하였다.²⁷⁾²⁸⁾ 김기술을 비롯한 태인 지역

24) 『동학사초고본』, 455~466쪽.

“義軍(의군)은 벌써 黃土峙(황토치) 中峰(중봉)에 올라가 結軍(결군)을 하고 있었다. 義軍(의군)을 쫓던 官兵(관병)은 다만 義陣(의진)을 바라볼 뿐, 그 山(산) 밑에 가까이 가지 못할 줄 알았다. 할 수 없이 멀리 그 山(산)을 돌아, 그 山(산)과 距離(거리)가 稍遠(초원)한 上峰(상봉)에 올라 陣(진)을 쳤다. 이제 官兵(관병)의 後援(후원)으로 負商軍(부상군) 數千名(수천명)이 淳昌(순창) 潭陽(담양) 等地(등지)로부터 들어와 官兵(관병)의 뒤를 따르며 그 山(산) 上峰(상봉)에 올라가 함께 陣(진)을 치고 있었다.” 『남원군종리원 외 南原郡宗理院 外』, 「남원군동학사」.

“백산(白山)을 거쳐 원평에 이르러 영군(營軍) 3만 여명이 쫓아오거늘 백산으로 되돌아가 진을 쳤으나 영군이 점점 다가오니 고부읍 뒤 두승산(斗升山) 황토현 하봉(下峰)에 진을 치고 백포장을 치고 있었는데 영군이 황토현 상봉에 진을 치고 연이어 포를 쏘니 때인즉 황혼이라. 진봉준이 장정 30명을 가려 뽑아 신평양립(新平壤笠)에 목화송이를 달고 바람을 지어 영군 중에 들여보내며 약속하되 무장(茂長) 부상군(負商軍)이라 하고 들어가 상상봉에 있다가 밤 3경(三更, 자정 전후) 접전 시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한 후 3경에 백포장을 들고 포를 쏘며 싸움터로 나가 상봉을 향하여 올라가니 영군도 대응하여 포를 쏘며 싸움터로 나와 두 진영의 포성(砲聲)에 산천이 뒤집힐 듯 할 때에 위 장정 30명이 상상봉에 서서 영군을 포살하니 죽은 자가 추풍낙엽이라.”

25) 『동학당의 상황』, 「전주민란의 근황」.

26) 『동도문변』, 「백산패적변」.

27)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 秘書類纂朝鮮交涉資料』, 「전라도 고부민요 일기」.

향토의용군 역시 새벽에 당도하여 진중에 들어갔다.²⁹⁾ 이때 전봉준은 기지를 발휘하여 본격적인 전투에 앞서 용감한 자 30~50명을 선발한 뒤, 목화송이를 꽃아 무장·남원 원병으로 위장한 가짜 부상군을 적 후미에 미리 침투시켜 두었다.³⁰⁾

전투 직전 저녁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주변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관군은 소나무를 베어 진영을 밝게 비추었으나, 이로 인해 연기와 안개가 뒤섞이며 오히려 사방을 분간하기 어려웠다고 전한다.³¹⁾

이내 늦은 저녁 무렵 동학농민군은 황토현 남측의 높은 세 봉우리 가운데 한 곳만 불을 남겨두고, 나머지 두 봉우리의 불은 끈 채 잠든 것처럼 위장하였다. 이를 보고 동학농민군이 잠든 것으로 판단한 이재섭·김달관·송사천 등 관군 장수들은 공을 세우기 위해 앞다투어 세 봉우리 중 한 곳을 야습하였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이미 진을 비워둔 상태였고, 오히려 공격해 온 관군을 역습하였다.³²⁾

농민군 진지에 진입한 관군은 매복해 있던 동학농민군에게 삼면에서 포위되었다. 이에 감영군은 고립되어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격퇴되었다.³³⁾ 이후 산 위에 있던 동학농민군은 산 아래 관군 진영으로 일제히 돌격하여 본진을 습격하였다. 여기에 가장군까지 관군 후방에서 공격을 가하면서 전세는 급격히 기울었다.

28) 외솔회, 1974, 『동학 혁명 실화 자료 - 황토현(黃土峴) 전투 기록』, 나라사랑, 15, 209~209쪽.

※이 자료는 기쿠치겐조 보부상 취재 기록과 동일한 내용이다.

29) 『김기술문서』, 「1894년 12월 일 태인 고현내면 백성」.

30) 『동학사초고본』, 456~466쪽;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 祕書類纂朝鮮交涉資料』, 「전라도 고부민요 일기」.

31) 『번역 오하기문』, 「首筆 고부전투와 관군의 패배」.

32) 『동학사초고본』, 456~466쪽;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 祕書類纂朝鮮交涉資料』, 「전라도 고부민요 일기」; 외솔회, 1974, 앞의 문헌.

33) 『동학사초고본』, 456~466쪽;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 祕書類纂朝鮮交涉資料』, 「전라도 고부민요 일기」.

전투 중 관군의 총대장이었던 이경호는 큰 소리로 군을 독려하며 동학농민군 수십 명(혹은 일곱)을 베었다고 전하나, 끝내 활과 돌, 총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동학농민군은 보부상군이 주둔하던 후방까지 돌입하였으며, 잠들어 있던 부상군 역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사방으로 흩어져 도주하거나 격퇴되었다. 관군은 수천의 사상자를 냈고, 부상군 대장 유병직 또한 진문에서 창에 찔려 전사하였다. 국민묵은 치명상을 입었으며, 이재섭·김달관·김명수·백경찬·육용규·유판근·진영교·송봉호 등은 도주하였다.³⁴⁾

동학농민군은 ‘감영군과 등에 붉은색 도장이 찍혀있던 부상군들을 중심으로 원수 갚듯이 찔러 죽였으며, 흰옷을 입고 있던 향병은 살려두었다’.³⁵⁾ 패잔병들은 ‘산 아래 너른 들녘에는 봄갈이를 끝내고 물을 받았는데, 아득하니 넓었다. 물을 보고 뛰어들었지만 물은 깊었고, 진흙은 질어 허우적거리다가 내리치는 창칼에 맞아 피가 땅을 적시고 눈물을 붉게 물들었으며, “도주한 관군이 버린 군수물자가 인근 도로에 가득하였다”’.³⁶⁾ 보부상군은 ‘잠자는 도중에 칼을 받아 사망’하거나 ‘사방으로 도망쳤는데’, 패잔병 중 일부는 ‘북쪽 소나무 숲으로 도망쳐 겨우 목숨을 구하였다.’ ‘또 동쪽으로 도주하던 군은 셋강을 만나 건너지 못하였을뿐더러, 동쪽 태인에서,³⁷⁾ 서쪽 부안에서 합세하던 동학농민군을 만나 모두 격퇴당하였다’.³⁸⁾

34) 『동도문변』, 「백산패적변」; 『수록』, 「4월 17일 [四月十七日]」.

35) 『번역 오하기문』, 首筆 고부전투와 관군의 패배, 보부상군 생존자 증언과 그리고 『김기술문서』를 교차 검토해 보면, 동쪽으로 달아난 보부상 동료는 대부분 사망했다고 하였는데, 같은 방향으로 달아났던 ‘김기술’은 향병이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이지 않을까 추측해 본다.

36) 『번역 오하기문』, 「首筆 고부전투와 관군의 패배」.

37) 외솔회, 1974, 앞의 문헌

38) 『동학사초고본』, 455~466쪽;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 秘書類纂朝鮮交涉資料』, 「전라도 고부민요 일기」; 외솔회, 1974, 앞의 문헌.

전투를 종합하면, 백산에서 부안과 태인 방면으로 나뉘어 진군하였던 동학농민군은 추격해 온 감영군과 전라도 각지에서 집결한 관군에 대응하기 위해 고부 도교산 일대 황토현의 높은 세 봉우리에 진을 구축하였다. 반면 관군은 평지와 상대적으로 낮은 봉우리에 진영을 형성하였다. 이후 관군 일부가 동학농민군이 주둔한 봉우리 한 곳을 야습하며 전투가 시작되었으나, 이를 미리 파악하고 매복해 있던 동학농민군이 역습에 나섰다.

이어 전봉준이 후방에 침투시켜 두었던 가장군이 관군 본진과 보부상군을 공격하며 신호를 보냈고, 동학농민군은 삼면에서 일제히 공격을 가하였다. 결국 관군은 보부상군이 있던 후방까지 밀려 격퇴되었으며, 패주하던 패잔병들 또한 태인과 부안 방면에서 뒤늦게 합세한 동학농민군에게 궤멸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 장에서는 1차 사료와 지도, 주요 자료를 검토하여 이 전투가 벌어진 공간적 배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황토현 전투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Ⅲ. 황토현 전투 문헌에 소개된 지명과 지형에 관한 주요 자료 검토

1. 황토현 전투가 벌어진 장소를 지칭하는 ‘명칭’ 재검토

다음으로 문헌상 언급된 장소에 관한 자료 검토를 진행하였다. ‘황토현 전투’에 관한 서술은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각자의 입장에 따라 기록되어 있으며, 그만큼 내용과 용어 사용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특히 저술자의 주체와 소속, 실제 해당 지역 출신 여부에 따라 어떤 지명을 사용했는지 알아보는 것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황토현 전투에 관한 기록은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 동학농민군 측에서 기술한 문헌, 둘째, 지역 유생이나 지식인들이 남긴

저술, 셋째, 관아의 기록, 전라감영군 및 양호초토등록 등 관군 측이 작성한 문건, 넷째 일본 측에서 사건을 듣고 기록하였거나, 공식적으로 보관한 문건 등이 있다. 분석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토현[黃土峴]’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황토재[黃土岾]’, ‘황토치[黃土峙]’, ‘황토고개’로도 불렸으며, 더 확장된 표현인 ‘황토산[黃土山]’으로도 표현된다. 또, ‘도교산[道橋山]’, ‘두승산[斗升山]’, ‘두등산[頭巖山]’, ‘승두산[僧頭山]’으로도 거론되기도 한다. 심지어 ‘백산[白山]’으로³⁹⁾ 잘못 표현된 경우도 많다. 이를 종합하여, 저술자의 출신 지역과 사용 용어에 따라 다음 표 4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표 4〉 저자 구분에 따른 문헌과 전투지 표기 (사료아카이브 문헌 전체 종합)

전투지(산)의 이름표기		저자 구분에 따른 문헌 목록			
		동학농민군 측	지역 유생	관군 측	일본 측
(1)황토 [黃土]	황토현 [黃土峴]	남원군종리원 (천도교 남원군 종리원) 갑오동학란 (권병덕, 청주)	『김기술 문서』 (김기술, 태인), 김낙봉이력 (김낙봉, 부안)		보부상 증언 (기쿠치 겐조, 일본, 전투참여자 취재)
	황토재 [黃土岾] 혹은 [黃土재]		『석남역사』 (박문규, 고부)		
	황토치 (황토고개) [黃土峙]	『동학사』 (오지영, 무장)	『임하유고』 (김방선, 부안) 『오하기문』 (황현, 광양)		

39) 예컨대 일부 문헌에서는 ‘백산’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황토현 전투를 지칭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동도문변』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용어 혼용 및 오기는 황토현 관련 연구를 진행할 시 자료 해석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전투지(산)의 이름표기		저자 구분에 따른 문헌 목록			
		동학농민군 측	지역 유생	관군 측	일본 측
	황토산 [黄土山]		『오하기문』 (황현, 구례)	『수록』 (무주 관아) 『동비토록』 (전라도 각지방) 1894년 영문에서 보내는 기별 (조선정부)	비서류찬 조선교섭자 료, 전라도 고부민요 일기 (무로다 요시아야; 파계생, 당시 출포거주)
(2)도교산, 두승산	도교산 [道橋山]			양호초토등 록 (홍계훈, 서울), 『수록』 (무주관아), 양호전기, 『동비토록』 (전라도 각지방)	
	두승산 [斗升山] (승두산 [僧頭山])	남원군종리원 (천도교 남원군 종리원)	영상일기 (김재홍, 남원) 『남유수록』 (이복영, 부여)	『동비토록』 (전라도 각 지방)	
	두등산 [頭嶺山]의 안산 [案山]			완영에서 작성한 전라도 고부민란의 시초 (전라감영)	
	백산 [白山]		『갑오약력』 (정석모, 전주) 『동도문변』 (최영년, 전주) 『금성정의록』 (이병수, 나주)		갑오내란실 기-동학당의 상황, 백산의 교전 (일본)

1) 황토현, 황토고개, 황토재, 황토치, 황토산, 상봉, 상상봉, 하봉, 기슭

전투의 배경이 된 장소의 명칭으로 ‘황토현(峴)’, ‘황토치(峙)’, ‘황토재(岨)’, ‘황토고개’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 중 실제 전투에 참여 하였던 자들의 기록에서 대부분 ‘황토현’에서 사용되어 이 전투를 대표 하던 용어로 보인다. ‘동학농민군’ 측에서는 「남원군동학사」, 관군 측에서는 황토 의병으로 참여했던 ‘김기술’, 부안 대접주 김낙철의 동생이었던 ‘김낙봉’ 또한 ‘황토현’이라고 표현하였다. 또, 기쿠치 겐조가 취재하였던 ‘황토현’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부상군 또한 해당 지역을 모두 ‘황토현’으로 직접 언급하고 있다.

‘황토현’ 이외에 ‘황토고개’, ‘황토재’, ‘황토치’와 같이 ‘고개’를 지칭하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황토현 전투가 벌어진 바로 인근 고부군 궁동면 석지리에 일평생 거주했던 고부의 ‘박문규’는 ‘황토(黃土)재’라고 표현하였다. 또, 무장 출신 ‘오지영’의 『동학사 초고본』, 부안 출신 ‘김방선’의 『임하유고』, 구례 출신 ‘황현’의 『오하기문』에도 ‘황토치’ 표현되어 있다.⁴⁰⁾

‘고개’보다도 확장된 개념인 ‘산’으로 표현된 경우도 존재한다. 황현의 『오하기문』에서는 ‘황토치’로도 기술하였지만, ‘황토산’으로도⁴¹⁾ 표현했다. 또, 줄포 인근에 거주하던 ‘파계생’이라는 필명을 쓰던 일본인도 여기서는 관군과 동학농민군의 전투가 일어난 곳을 ‘황토산’이라고 언급하고 있다.⁴²⁾ 즉, 실제 전투에 참여했던 자들과 인근에 거주자(고

40) 따라서 유생·지식인들의 기록은 전투지를 특정하는 데 혼란을 줄 수 있으나, 동시에 각 지역 사회에서 황토현 전투가 어떻게 기억되고 전승되는지를 알 수 있다.

41) 『번역 오하기문』, 「首筆 고부전투와 관군의 패배」, “7일. 관군은 적을 추격, 고부 황토산까지 왔다가 연달아 패하였다.”

42)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 祕書類纂朝鮮交涉資料』, 「전라도 고부민요 일기」 “아침 패주하여 온 병사들이 빈번히 배를 구하려고 애걸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얼마 안 있어서는 자신이 타고 있는 배에도 왔는데, 처음에는 어느 편의 군대 인지도 모르

부, 줄포)들은 황토가 포함된 단어로 서술했으며, 하나의 봉우리가 아니라, 여러 봉우리, 나아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서술한다.

2) 도교산, 두승산, 승두산, 두등산의 안산

관군 측 기록(『수록』, 『동비토록』, 『양호초토전기』, 『완영에서 작성된 문건』)에서는 전투지가 더욱 포괄적인 단어, 즉 ‘산’으로 표현한 것이 많이 발견된다. 수록, 『동비토록』 등의 문헌에서는 ‘도교산(道橋山)’, ‘두승산(斗升山)’ 혹은 ‘승두산(僧頭山)’으로 나온다.⁴³⁾ 또 신되도는 낮은 문헌으로 평가받지만, 완영에서 작성한 문건에서는 ‘두등산(頭燈山)’의 안산(案山)’으로도 표현되어 있다. 또한, 관군 측 문서였던 『동비토록』의 「13일 진시 완백」 문건에서는 “황토산이 바로 도교산”이라고 밝히는 대목도 확인이 된다. 이는 황토현의 위치가 두승산의 동측 지류에 위치하는데, 이에 따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⁴⁾

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언덕으로 도망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작은 길로 달음질쳐 오는 자 등 그 수가 200여 명이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30리쯤 떨어진 고부의 황토산(黃土山)에서 격전이 벌어졌는데 경군이 대패하여 사상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걸어서 도망친 병졸은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는 것이다. 도망쳐 온 패잔병들은 이날 아침 우연히 세미(稅米)를 실으러 온 조선 기선에 구조되어 그날 인천으로 출발하였다. (해제 : 황토현 전투와 패잔 정부군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43) 두승산이 도교산이라고 불렀다는 의견도 있는데, 두승산의 다른 이름은 영주산 혹은 도순산 등으로 불렸다. 이런 의견은 다른 지명에서는 찾을 수 없고,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의 ‘해제’에서만 나온다.

44) 『동비토록』, 「13일 진시 완백 [十三日辰時 完伯], “영관(領官) 이하의 사망자는 바로 계문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연이어 해당 지방관에게 지시하여 상세하게 적간(摘奸) 해보니 모두 114명이었고, 그 밖에 감영에서 알아 본 이들은 모두 평민병사·보부상·수성군(守城軍)·각 읍의 포군(砲軍)·백정들인데 흩어져서 모이지 않아 아직 실제 죽거나 산 자의 숫자를 구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계(修啓)가 이 때문에 지체되었습니다. 지금 각각 해당 읍에 감결(甘結)을 보내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읍의 군기는 대부분 빼앗겨서 지금 양쪽 보부상에게 내어 줄 것이 없습니다. 군기를 빼앗기지 않은 읍은 지금

3) 백산(白山)

황토현 전투의 배경이 된 장소로 ‘백산(白山)’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다. 표현은 백산으로 되어있지만, 실제 내용은 황토현 전투를 이야기하는 문헌들이 존재한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오기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백산’으로 표현한 기록의 저자들은 대부분 ‘전주 지역’ 출신 유생들과 ‘일본’ 측 기록에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황토현 전투 당시 전라감사 ‘김문현’의 군사마였던 ‘최영년’이 저술한 『동도문변』 중 「백산패적변」 역시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문헌은 당시 황토현 전투의 패배에 관해 자신과 김문현에 관한 변호를 기록한 것인데, 전투가 벌어진 지명을 ‘백산’이라고 잘못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동도문변』의 「백산패적변」 내용을 살펴보면, 최영년은 김문현의 지시에 따라 황토현 전투 당시, 진영을 실제 방문하여 둘러보았고, 이에 대해 책임자였던 ‘이경호’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이 기록에서 황토현 전투의 상황과 진영의 형상과 전쟁 당시의 모습을 매우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갑오약력』을 저술한 전주의 유생 정석모, 『금성정의록』을 저술한 나주 출신 이병수 또한 마찬가지로 ‘백산’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백산’이라고 기록된 일본 측의 기록은 『갑오조선내란시말』-「백산의 교전」과 『동학당의 상황 중 전주민란의 근황』에서도 전투의 배경이 된 곳을 ‘백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추측건대, 이러한 착오는 앞서 밝혔듯 전주 지역에서 감영군이 농민군 토벌을 위해 ‘백산’을 향해 출병하여 화호리 나루터에서 최초 대치를 한 데에서부터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 이것이 전라감영 및 정부 측 공식 문건에 백산이라고 전달되면서 일본 측에도 백산으로 전달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그 읍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습니다. 황토산(黃土山)이 바로 도교산(道橋山)입니다. 이미 계문하였으니 저들의 실정을 정탐하는 대로 수계하겠습니다. 경군의 군량은 공곡(公穀)과 공전(公錢)에서 나눠 줄 생각입니다.”



2. 주요 지도 자료 분석

1) 조선 시대 작성된 과거 지도

황토현 전투가 벌어진 시점과 장소와 가까운 조선 시대 지도를 분석한 결과, ‘황토현’이라고 표현된 지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 황토현 위치 인근에는 주로 ‘두승산’과 ‘망제산’ 문구가 기재된 모습이 발견된다.⁴⁵⁾ 여기서 1차 사료에서 왜 관군 측이 이 지역을 표현할 때 ‘두승산’, ‘두등산의 안산’이라고 표현했는지 이해해 볼 수 있다.⁴⁶⁾

다만, 현 황토현 위치에 지류의 형상은 그려놓은 것이 확인된다. 대부분 두승산의 동측 줄기가 확인된다. 아울러, 고부와 태인을 잇고, 고부와 정읍을 잇는 길들이 표기가 되어있는 위치이다. 또 동진강과 정읍천, 덕천천 등 주변 물길 또한 그려져 있다.

〈표 5〉 고지도 자료 검토결과

표현 부분	 <p style="text-align: center;">비변사인방지도 (備邊司印 方眼地圖, 1740년대)</p>	 <p style="text-align: center;">광여도 (廣輿圖, 1737-1776)</p>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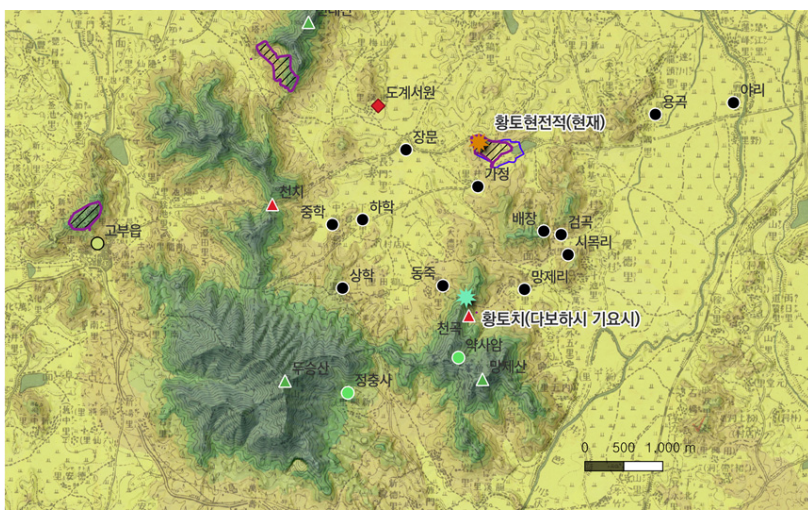
45) 도교산이라는 명칭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46) 비변사인방지도를 보면 가정에서 고부로 넘어가는 고개의 표현으로 ‘天峙(천치)’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고갯길에 ‘치’를 사용한 지점이 바로 인근에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앞서 검토하였듯, 황토현뿐만 아니라 황토‘치’, 황토‘재’, 황토‘고개’, 황토산 등의 언어가 혼용된 것에 단서를 제공한다.

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황토현 지명 표기 X 2) 천치와 도계서원, 달천면과 우일면을 잇는 도로가 모이는 곳이 현사적지의 위치로 파악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황토현이라는 지명 자체는 없음 2) 인근 지점 '두승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정충사가 함께 위치한 것으로 보았을 때 지도상으로 상당히 많이 축약되어 있음
	 <p>해동지도(海東地圖, 1750년대 초) 고부 지도</p>	 <p>여지도(輿地圖 중 2권 조선 도별도, 1789-179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황토현이라는 지명 자체는 없음 2) 인근 지점 '두승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정충사가 함께 위치한 것으로 보았을 때 지도상으로 상당히 많이 축약되어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황토현이라는 지명 자체는 없음 2) 인근 지점 '두승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정충사가 함께 위치한 것으로 보았을 때 지도상으로 상당히 많이 축약되어 있음
표현 부분	 <p>지승(地乘, 1776-1787) 중 고부군</p>	 <p>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1861)</p>
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황토현이라는 지명 자체는 없음 2) 인근 지점 '두승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정충사가 함께 위치한 것으로 보았을 때 지도상으로 상당히 많이 축약되어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황토현이라는 지명 자체는 없음 2) 마찬가지로 '두승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음 두승산, 망제산(망제봉) 등이 표기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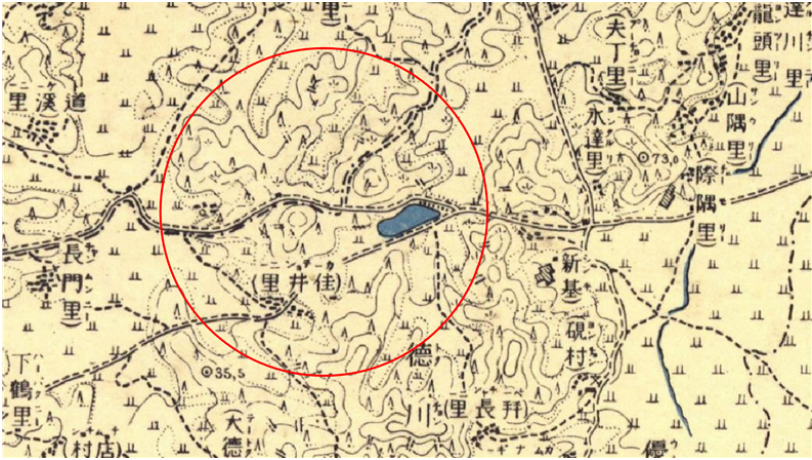
표현 부분	 <p style="text-align: center;">1872 지방지도(1872年 郡縣地圖, 고부)</p>
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황토현이라는 지명 자체는 없음 2) 시목, 가정, 동죽, 우덕면, 등 주변 지형과 지명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으나 황토현 지명 표기 없음

여기서 표기된 위치들과 현 사적 영역의 범위를 오늘날 지도에 옮겨 위치를 표기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조선시대 지도에 기입된 주요 지명, 시설, 산과 현 사적지 그리고 새로이 표기된 황토치 위치 (출처 : qgis로 연구자가 작성)

2) 조선지형도(1914~1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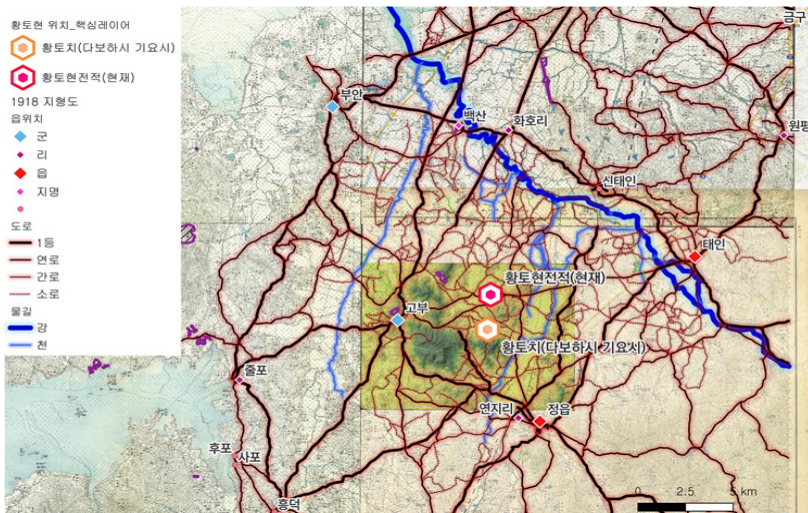
〈도면〉 1918 조선지형도 정읍지역 황토현 전적지 부지 표기 수준 (1:5000)

2일제가 작성한 조선지형도는 1894년과 20년 정도의 시간차를 가지고 작성된 지형도로 도로, 지형, 건물지 등 위치 파악에 용이하다. 여기에 침엽수림, 강, 못, 건물 및 마을의 위치 등이 파악할 수 있다. 해당 지도의 범례를 기반으로 당시 지형을 추정하였다. 지도상에서 현재 황토현 전적 봉우리가 등고선 형태로 확인되며, 태고선이 과거 간선도로 기능을 했던 ‘연로’들, 그리고 ‘소나무 숲’ 등이 표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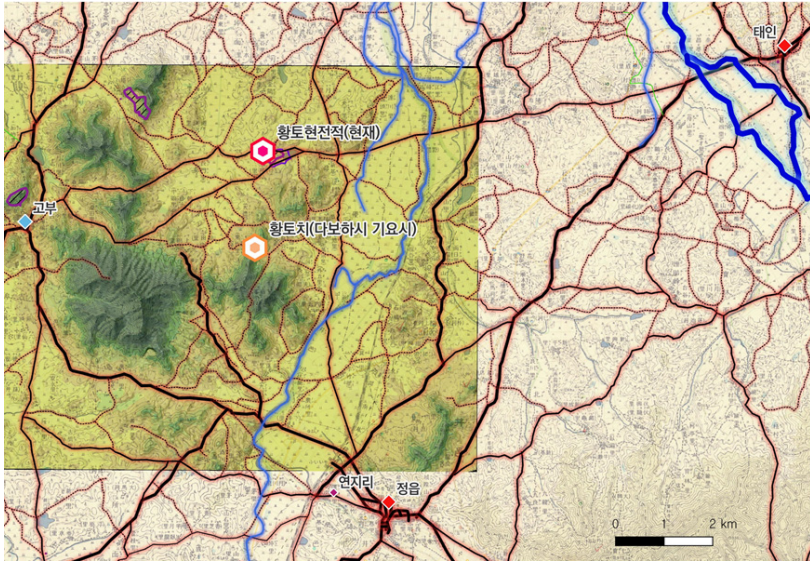
〈표 6〉 조선지형도 정읍 지도 내 주요 범례

지도상 범례	
<p>가장 왼쪽 '왜송지(矮松地) (작은 소나무 군락),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침엽수림'(鍼葉樹林)을 뜻하는 범례</p>	<p>도로의 표기 : 위부터 연로, 간로, 소로</p> <p>산의 형상 표기 : 산암, 퇴암, 로암, 봉암, 우열, 류토, 자독급</p>
<p>축퇴부(築堆部)(좌) 이등도로(二等道路)(우)</p>	
<p>위부터 면계(面界), 지류계(地類界)</p>	

이를 GIS 상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황토현 전적 인근 주요 광역 도로체계 및 지형 분석
(출처 : qgis로 연구자가 작성)



〈그림 5〉 황토현 전적 인근 주요 읍 간 도로체계 및 지형 분석
(출처 : QGIS로 연구자가 작성)



〈그림 6〉 황토현 전적 인근 지형 체계 분석
(출처 : QGIS로 연구자가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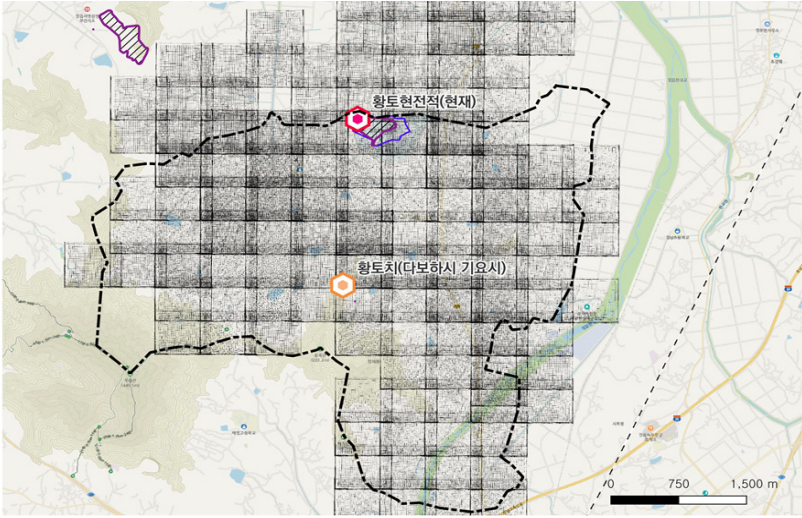
현 황토현 전적지 위치에 있는 주요 도로는 북으로는 백산, 화호리 나루터, 이평면 궁동 석지리와 연결되는 도로였다. 서와 동으로는 고부관아와 태인현 관아를 잇는 태고선이 지나간다. 반면 사시봉 추정지와 연결되는 천곡, 소리개재 우덕면 등에 위치한 도로는 고부관아에서 가정리를 거쳐 망제리를 거쳐 정읍, 나아가 순창 및 담양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위치하는데, 이곳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 1915 지적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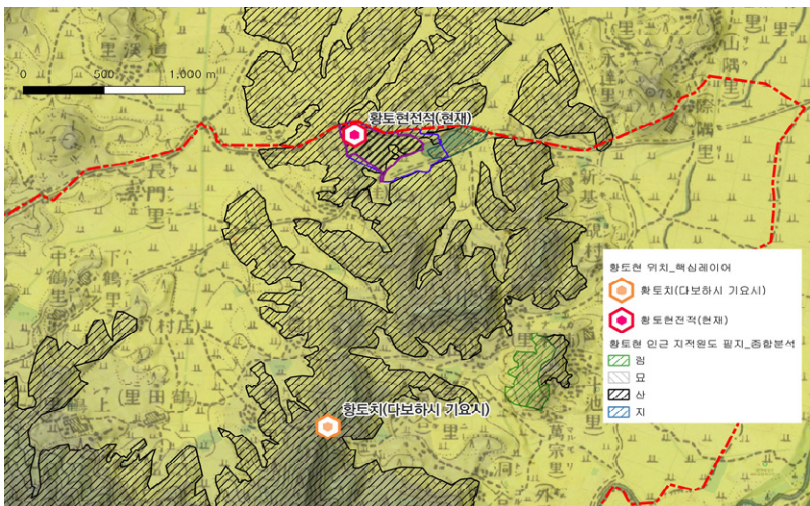
다음은 조선토지임시조사국이 제작한 1915년 지적원도에는 ‘토지소유자명’과 ‘지목’이 적혀있다. 지목 차원에서는 논(畓), 밭(田), 대지(垸), 못(池), 임(林), 산(山) 등이 적혀있어 사람 활동 차원에서 훨씬 구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또 필지 경계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구역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지적원도를 확인할 때 주의할 점은, 1914년 행정통합조치로 인해 고부군이 면으로 격하되고 정읍시로 편입되면서 그 체계가 달라 1894년 당시의 기록과 현 행정구역상 차이를 인지해야 한다. 전투의 중심이 되었던 황토현은 기록에 따라 ‘이평면’과 ‘우덕면’에 있는 산으로 이해가 되는데, 특히 1894년 당시 우덕면은 현재 기준 상학리, 하학리, 우덕리, 망제리가 포괄된 영역이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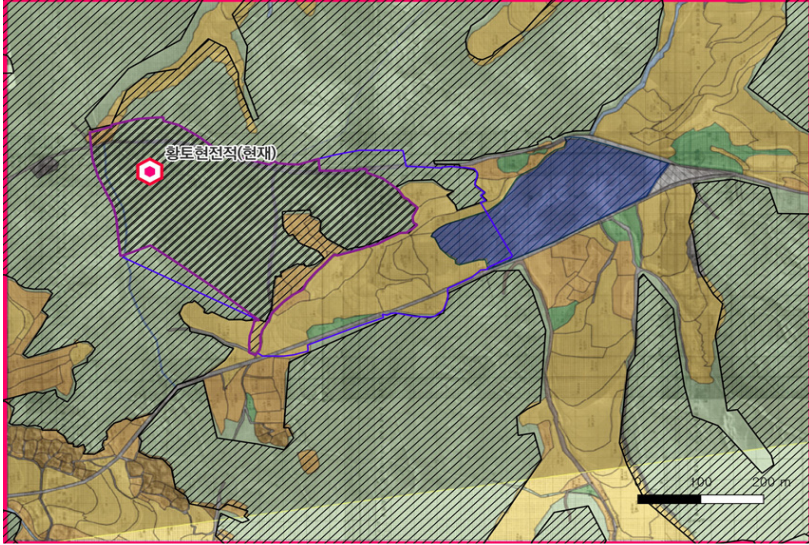
본 분석에서는 전투의 중심이 산이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목에 ‘산’으로 기재되어 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 경계선을 작성하였다. 근거리 차원에서는 현재 사적지 황토현 전적 인근에 집중하여 ‘모든 지목’을 구분하여 세밀하게 분석하여 다른 색상으로 나타냈다.



〈그림 7〉 1915 지적원도 분석 총 156장 전수 분석
 (우덕리 30장, 하학리 25장, 상학리 19장, 망제리 32장, 신월리 22장, 도계리 28장), 검은색 일점쇄선이 과거 1910년 고부군 우덕면 시절 행정구역을 뜻한다.
 (출처 : QGIS로 연구자가 작성)



〈그림 8〉 지적도상에서 산(山) 표기된 곳(빛금 표기)
 (출처 : QGIS로 연구자가 작성)



〈그림 9〉 지적원도 근거리 표현 푸른색은 지(池)이며, 노란색은 논(畓), 주황색은 밭(田), 갈색은 대(垓), 녹색은 임(林), 연두색+빗금 표현은 산(山)
(출처 : QGIS로 연구자가 작성)

분석 결과, 구체적인 산의 영역이 드러났다. 현 황토현 전적도 포함되며, 우측 부분에 넓게 못(지)이 형성되어 있는 것 또한 발견했다.

4) 1954 항공사진

다음은 항공사진 분석이다.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항공사진의 연도는 1954년도에 촬영된 사진이다. 앞서 살펴본 지적도와 '지' 부분에 물이 아주 넓게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매봉'과 '감녕이골' 인근 도로에서 흘러온 흙탕물들이 못 부분에 넓게 퍼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황토현 전적 영역과 1954 항공사진 대조
(출처 : 연구자가 QGIS로 주요 지점 중첩 표기)




〈그림 11〉 황토현 전적 영역과 1954 항공사진 대조
(출처 : 연구자가 QGIS로 주요 지점 중첩 표기)

5) 1960~90년대 지도

다음은 현대 지도이다. 마찬가지로 국토지리 정보 플랫폼에서 1953~1990년대 지도를 구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7〉 해방 이후 제작된 지도 자료(1960-1990)

(출처 : 국토 지리 정보 플랫폼, 종이지도)

표현 부분	 <p>1960년대, 표기 수준 25K (1967)</p>	 <p>1970년대, 표기 수준 25K</p>
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황토재의 이름이 현재 사적지 북쪽에 표기 2) 대상지 우측에 논물이 모이는 곳이 축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황토재 표기가 여전히 대상지 북쪽에 표기 2) 논물이 모이는 영역은 사라졌으나, 물길은 유지
표현 부분	 <p>1980년대, 표기 수준 25K</p>	 <p>1990년대, 표기 수준 25K</p>
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황토재 표기가 대상지 인근으로 표기 2) 논물이 모이는 영역은 사라졌으나, 물길은 더욱 분명하게 표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황토재 표기가 태고로 바로 위로 표기 2) 인근에 전북학생교육원 표기

흥미로운 점은 크게 두 가지 발견된다. 하나는 ‘검곡방축’이라는 지명이다. 앞서 살펴본 조선 지형도, 지적원도, 그리고 항공사진에서 모두

확인되었듯이 1960년대까지는 존재하다가, 1970년대 이후에는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사적지 북쪽을 ‘황토재’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된다.⁴⁷⁾ 현 사적지 영역에서 이평면 방향으로 올라가는 산 사이의 고개에 ‘황토재’라는 이름이 표기되어 있다.

6) 현 지도상 주요 봉우리와 표고 분석 (현재 지명과 봉우리 추출)



〈그림 12〉 현재 지명 및 주요 지점의 표고 현황
(출처 : 연구자가 QGIS로 주요 지점 표기)

주요 봉우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오늘날 지도 및 지명을 기반으로 위치와 표고를 분석하였다. 표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근 지명 물통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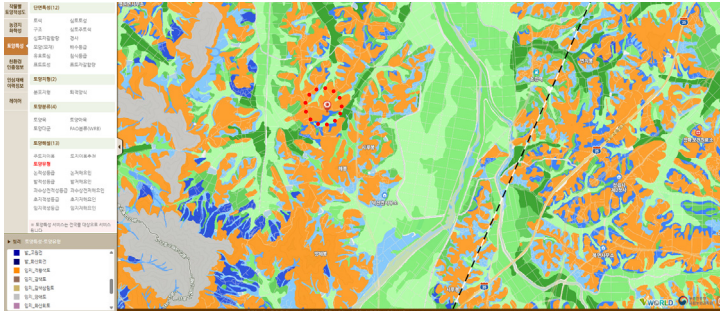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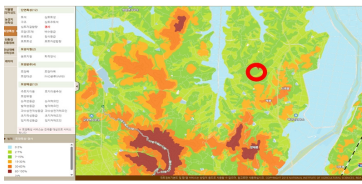
47) 이 부분을 본 연구자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단순 오기일 수 있으나, 당시에는 ‘황토현’, ‘황토재’가 그 위쪽 영역으로 인지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속 분석에서 깊이 다루도록 한다.

견쟁이골, 소리개재, 천곡사지, 감땡이골, 배장골 등을 추가했으며, 카카오 지도 기반으로 위치를 표기했다.

DEM 분석 결과 황토현 전적은 50m로 산출되었고, 인근에 낮은 구릉 표고는 45m였다. 황토현 전적 남쪽으로는 매봉(118m), 시루봉(102.3m), 90m 고지가 존재함이 확인된다. 아울러, 소리개재 인근 고지는 85m 소리개재와 천곡 사이는 115m 고지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⁴⁸⁾

7) 토양 및 토질환경

〈표 8〉 토양 환경 분석표(홍토람 토양 환경지도에서 캡처)

<p>표현 부분</p>		
<p>결과</p>	<p>토양유형이 두승산부터 서측부는 암쇄석, 동측부는 적황색토로 나타난다.</p>	
		 <p>주요 봉우리 중 망제봉, 매봉과 시루봉 산악지로는 황토현 전적이 위치한 곳은 구릉지와 꼭간지/선상지로 이루어져 있다.</p> <p>60%가 넘는 급경사지는 망제봉과 동죽산 자락으로 보이며, 매봉과 시루봉 또한 30~60%에 해당하는 경사를 갖고 있다. 황토현 전적의 경우 구릉지로 표기되어 있다.</p>

48) 별도 문헌에 따르면 갑오동학농민혁명 기념탑의 높이는 35.5m로 알려져 있다. qgis상에서 15m 높게 책정된 것일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제공하는 ‘흙토람’은 토질과 토양, 경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이를 통해서 해당 지형이 어떤 곳인지 지형을 확인해 보면, ‘두승산’, ‘백산’, 그리고 ‘천태산’은 ‘암쇄토’로 표현되고, ‘망제봉’부터 ‘황토색(적황색)’으로 된 토양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 산악지와 급경사지(붉은색, 주황색)로 판명되는 곳은 ‘두승산’, ‘망제봉’과 ‘매봉’, ‘시루봉’ 일대이며, 현 사적지 영역은 ‘구릉지’(녹색)로 표현된다.

3. 황토현 전투 전개 중 언급된 주요 지점과 지형의 모습에 관한 표현

1차 사료 및 구전 등에는 전투 중 주요한 장소의 지점과 지형의 형태적 묘사도 발견된다. 이를 앞에서 분석한 자료들을 토대를 추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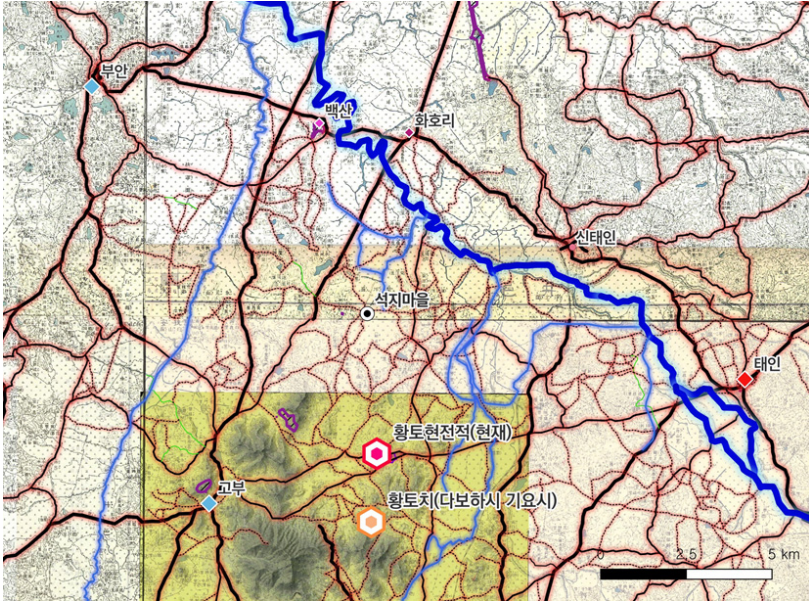
1) 1차 사료에서 언급된 주요 위치와 지형 표기

(1) 황토현 전투 시작 전 관군의 주요 이동 동선 : ‘화호리 나루터’, ‘궁동면 석지마을’

『석남역사』의 저자 박문규는 자신이 살던 ‘마을’에 동학농민군을 추격하던 ‘관군’이 당도하였고, 이들을 위해 마을 사람들이 식량과 식수를 마련해주었다는 기록을 남겼다.⁴⁹⁾ 이 마을은 석지마을로 ‘고부군 궁동면 석지리’에 위치하는 곳이었다. 현재 주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로, 이는 관군이 주둔했던 ‘화호리 나루터’(정확한 위치 표기 x)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평야 중간에 위치하는 마을이다. 이 위치는 관군이 백산에서 대치한 이후 동학농민군 본대를 쫓아 “평탄 대로

49) 『석남역사』, 「1894년 1월(甲午年正月)」.

를 따라 남하”하였다는 『동학사초고본』에서의 오지영의 서술과 동선상 부합하는 장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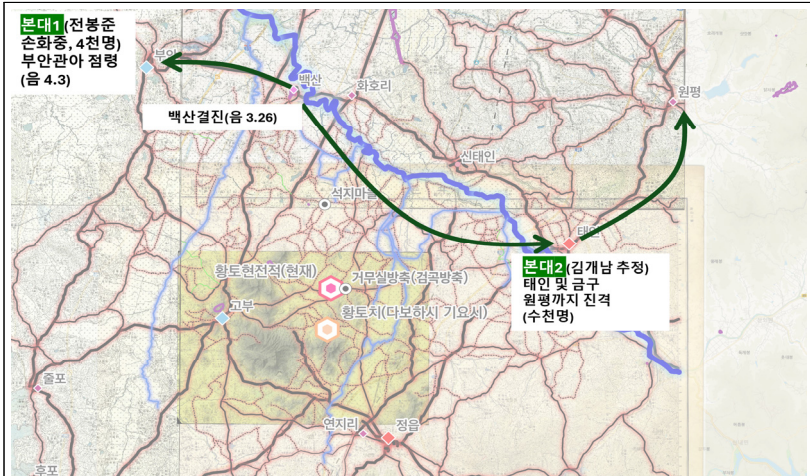
〈그림 13〉 조선지형도 주요 도로선과 함께 표기한 화호리 위치와 석지마을의 위치

(출처 : 연구자가 QGIS로 주요 지점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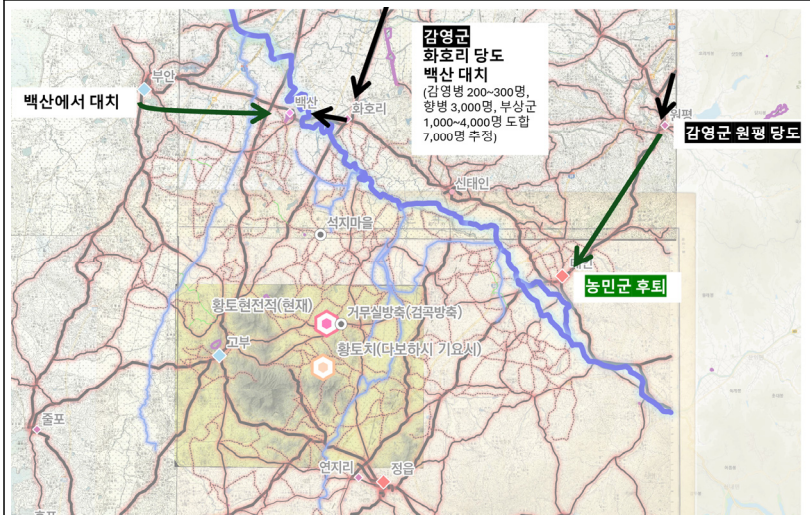
화호리는 전주에서 출병한 감영군이 백산으로 뒹 남하할 수 있는 주요 도로선이 위치한 곳이었다. 아울러, 황토현 전적의 위치 중심부에 박문규가 살던 석지마을이 도로선 중간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더욱 상세한 관군의 이동 동선 추정에도 도움이 된다 〈그림 13〉. 이를 토대로 각 군의 군대 이동 동선을 재검토하면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석지마을 위치와 주요 지형도를 통한 황토현 전투 전 농민군 및 관군의 이동 동선 추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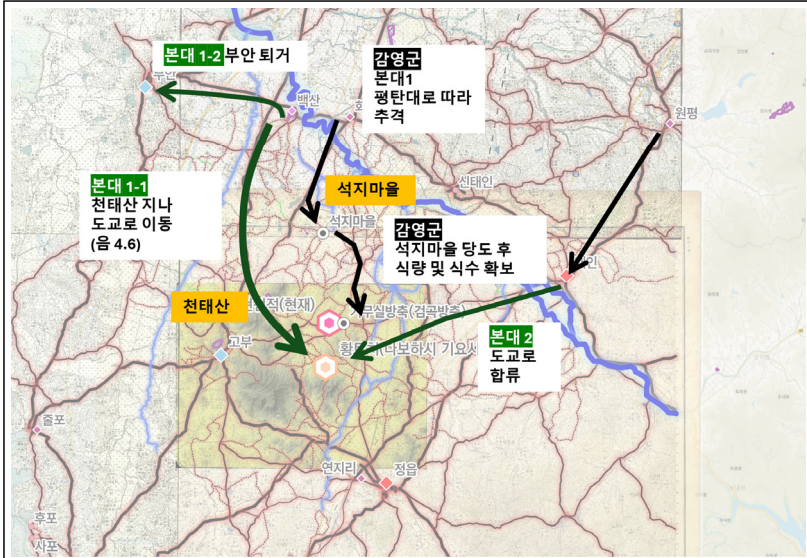
(출처 : 문헌 토대로 저자가 QGIS 활용하여 작성)



1. 백산결진(3.26) 이후 농민군 이동 경로 추정



2. 감영군 화호리 출병 및 농민군 이동 경로



3. 농민군 도주로 및 감영군 추격 (농민군 -천태산 경유, 관군 화호리 경유)



4. 황토현 진지 구축 및 각 군 읍에서 감영군, 향병 및 보부상 군 합세

(2) 여러 봉우리(농민군)와 평지(관군)의 표현

문헌에 따르면 농민군은 지형이 더 높은 곳 여러 봉우리에 진을 쳤다. 관군은 평지에 진을 치고, 동학농민군의 진지보다는 지형이 낮은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동학농민군 측 문헌에서는 황토현의 ‘상봉’ 및 ‘상상봉’으로 표현되곤 한다. 구체적으로 “증봉에 접근하기 어려워 거리가 초월한 상봉에 진을 구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농민군이 주둔했던 지형의 모습은 ‘솔밭’, ‘쟁반’, ‘손소락등’(孫小落登) 등으로 표현된다. 『동비토록』 「15일 진시 전라감사의 비밀전보 [十五日辰時 暗電惠堂宅完伯]」에서는 동학농민군이 점거한 곳을 ‘쟁반’ 같다는 표현도 발견된다.⁵⁰⁾ 이후 설명할 ‘사시봉’을 먼 발치에서 황토현의 전체 산세를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또 일본 측 사료에서는 산의 모습을 표현할 때 ‘솔밭’, ‘정족(鼎足)’이라 표현했다.⁵¹⁾ ‘정족’이란 고사에서 주로 3명이 사이좋게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많이 활용된다.⁵²⁾ 황현은 『오하기문』에서 ‘손소락등’(孫小落登)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여기서 손소락이란 어린아이의 손가락을 뜻한다. 이를 동학농민군이 세 봉우리를 점거하고 있던 형상을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고, 지도상에서 실제 세 부분이 돌출되어 나온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를 말하

50) 『동비토록』, 「15일 진시 전라감사의 비밀전보 [十五日辰時 暗電惠堂宅完伯]」, “순창 수령의 협록(淳昌倅夾錄) 이 달 3~4일 사이에 동비(東匪)가 금구와 태인 땅에서 부안과 고부 등지로 후퇴하여, 관군이 추격해서 고부와 정읍의 경계 지역인 승두산(僧頭山), 두승산 아래에 이르렀는데, 그 산의 모양이 쟁반과 같았습니다. 저들이 산 위에 진을 치고 밖으로는 흰 베로 둘러싸고 몰래 토성(土城)을 쌓은 뒤에 안에 마른 풀을 깔아 그 아래에 몸을 숨기고 포를 쏘았습니다.”

51) 『갑오내란실기』 「동학당의 상황 中 전주민란의 근황」 앞의 문헌.
“8일 동학도는 솔밭(鼎足)처럼 생긴 백산의 높은 언덕을 점거하여 세 군데에 진을 쳤으나, 그들이 지니고 있는 병기 중에는 원래 군대의 총도 다수 있었습니다. 영병은 이날 백산 기슭에 진을 치고 대치했으나 아직 싸우지는 않았습니다(후략).”

52) 국립국어원, 『솔밭』, 표준대국어사전(<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2026.04.01

는 것인지 현재 자료로 명확하게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다수의 봉우리를 지칭하고 있음은 알 수 있다.

동도문변에 따르면 관군의 지형은 낮은 평지로 나루터로 가는 좁은 입구를 파수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또 이경호가 있던 본대 중심으로 ‘좌우익에는 이재섭-김달관, 후미에는 유병직을 필두로 한 부상군을 매복했다’고 기록되어 있다.⁵³⁾ 또 오하기문에 따르면 관군이 진지를 구축하고 소나무를 베어 불을 환하게 켤 수 있는 곳이어야 했는데, 황토현 전적 영역은 이와 부합하는 장소이다.

(3) ‘너른 들녘과 넓게 펼쳐진 물’, 검곡방축, 거무실방축, 그리고 ‘검사봉’(劍死峰)

관군의 진지는 평지였다. 또 주변에는 논이 있어 봄철이라 밭아놓은 물이 매우 넓게 펼쳐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투지 일대에 못, 저수지, 제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황현’의 『오하기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또 산 아래 너른 들녘에는 봄갈이를 끝내고 물을 받았는데, 아득하니 넓었다. 패잔병들은 물을 보고 뛰어들었지만 물은 깊었고, 진흙은 질어 허우적거리다가 내리치는 창칼에 맞아 피가 땅을 적시고 눈물을 붉게 물들였다.”⁵⁴⁾

현 사적지 동쪽 편으로 조선지형도와 1957년 지도에는 큰 물웅덩이가 확인된다. 지적원도에서 확인한 ‘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1963년 지도를 살펴보면 ‘검곡방축’이라는 용어가 기재되어 있다.

류태길(2014)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한 바 있다. 이곳은 지역

53) 『동도문변』, 『백산패적변』.

54) 『번역 오하기문』, 『首筆 고부전투와 관군의 패배』.

사람들에게 “거무실방축”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으며, 이 땅은 “고래실논” (고래실논) 및 저수지였다고 전한다.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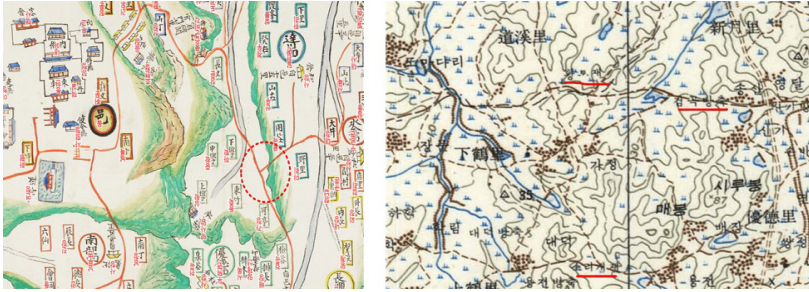
〈그림 14〉 거무실방축과 주변 인근의 주요 체계
(출처 : 연구자가 qgis로 주요 지점 표기)

여기서 ‘고래실논’이란 ‘바닥이 깊고 물길이 좋은 기름진 논’인데, 일반 논은 물의 깊이가 20~30cm인 것에 비해 60~90cm에 달하는 깊은 물이 고이는 장소이다. 이 장소는 오하기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전투 상황과 완벽히 부합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이 검곡방축의 존재로 인해 근처 지역의 이름이 ‘검곡’이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검곡이란 지명은 현재 지도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1872 지방지도 고부군에 ‘검곡’(檢谷)이라는 지명이 ‘배장’, ‘시목’ 바로 옆에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검곡방축’ 인근

55) 류태길, 2014. 앞의 문헌.

낮은 봉우리에 관군이 진을 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고부 출신 박문규의 『석남역사』에 따르면 관군은 ‘검사봉(劍死峰)’에 진을 쳤다가 패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와 크게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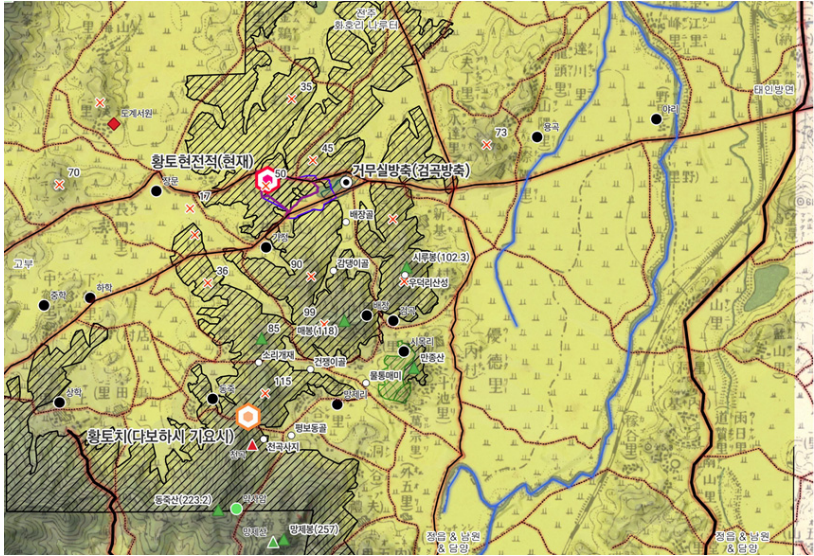


<그림 15> 1872년도 지방지도에 표기된 황토재 인근 배장, 시목, 검곡(좌), 1963 지도에 표기된 황툃재, 검곡방축의 위치(우)

(4) ‘도로변에서 이루어진 전투’

황현의 『오하기문』에서는 “관군이 버린 군수물자가 도로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전투지 인근에 주요 도로가 위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지형도에서 파악하였듯이, 현 사적지는 고부-태인을 잇는 ‘태고선’(연로, 당시 간선도로 역할)이 지나가는 연로와 마주한 곳이다. 북으로는 말목장터와 도계를 잇는 도로선 또한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이다.

이는 향병과 부상군이 원병으로 합류하기에도 말이 맞는 곳으로 보인다. 태인에서는 현 사적 영역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 부상군은 고부, 정읍, 줄포, 남원 등에서 합류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학농민군이 현 사적지 남측 편 사시봉 및 여러 봉우리 등을 점거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특히 정읍, 남원 등은 소리개재와 천곡 고갯길로는 진입이 거의 불가하였을 것이다. 이에 따라, 동측면 용곡에 해당하는 태고선을 따라 황토현 진중에 들어갔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적지 인근의 도로들이 전투의 중심 장소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6〉 주요 도로선과 지명 표기 분석 자료

(5) 황토현 북방 소나무 숲과 동쪽의 작은 셋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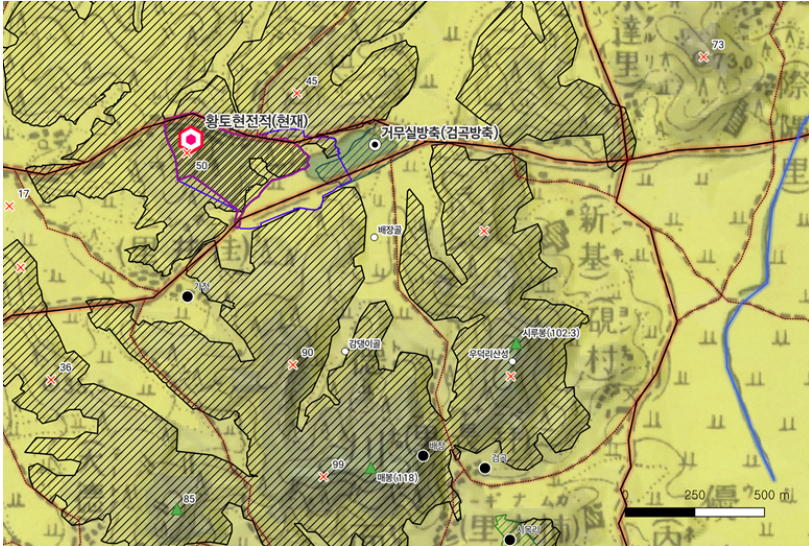
기쿠치 겐조의 황토현 전투 참여 보부상 취재기록에 따르면, 도주로 를 언급할 때 ‘황토현 북방 소나무 숲’을 지나 목숨을 건졌으며, 동측으 로 도주한 다른 부상군은 셋강을 만나 건너지 못하고, 동방에서 합류하 던 타 부대 (태인으로 추정) 동학농민군에게 격퇴당했다고 전한다.

“나는 황토현 북방 소나무 숲 가운데 숨었다가 겨우 길을 찾아 백산 서 쪽 해안까지 달아나 배편으로 아산 방면으로 나와 목숨을 건졌다. 동방 으로 달아난 자는 동학농민군 타 부대의 습격을 받았고, 도처의 수리(水利) 크리이크로 인해 건너지 못해 7일 미명경까지 패망, 살해당했다.”⁵⁶⁾

〈그림 17〉 볼 수 있듯, 황토현 전적의 위치상에서 북측에 산 부분 사

56) 외솔희, 1974, 앞의 문헌.

자 표기로 침엽수림대가 표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소나무 대 수림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현 사적지 동측에는 셋강 및 실개천 등이 확인된다. 따라서, 보부상 도주 시 마주했던 지형지물 또한 확인되는데, 이러한 문헌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크며, 현 사적지 영역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그림 17〉 셋강과 소나무 숲의 위치 (출처 : 연구자가 qgis로 주요 지점 표기)

(6) 바위 낭떠러지

「종리원사부동학사」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두승산 동측 여러 층으로 쌓인 바위 낭떠러지로 무너져 도망가니 사상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더라.”로 기록되어 두승산 동쪽에서 낭떠러지로 뛰어 내려 사망한 자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홀토람에서 파악한 바위산 영역은 동죽산, 망제봉 등인데, 이곳에서도 유해 등이 발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혹은 사시봉의 동측면이나 매봉, 시루봉, 급경사지를 지칭했던 표현일 수 있다.

2)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데이터베이스 및 주요 향토 구술자료

(1) '사시봉'

'사시봉'은 '동학농민군 진지'로 유력하게 언급되는 곳이다. 이 위치는 황토현 전적 남쪽, 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뒤편에 존재하는 봉우리며 우덕리 52일대로 알려져 있다. 매봉 서측, 망제봉 북측에 존재하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적 정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황토현 전투 당시 진압군은 황토재에, 동학농민군은 사시봉에 진을 치고 있었다. 현재 사시봉에서 전투 당시 사망자들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증언이 있어 유해 발굴의 필요가 제시되고 있지만 현재 사시봉은 사유지로서 축사와 방목장, 과수원 등에 둘러싸여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⁵⁷⁾

아울러 사시봉에 대해 정읍시 이평면 백년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사시봉은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와 우덕리 사이에 있는 산이다. 조망이 매우 양호한 지리적 조건으로 황토재의 관군과 대치하기 위하여 수천명의 동학농민군이 집결한 곳이다. 전해오는 이야기로 동학농민혁명 당시 현 도학초등학교에서 사시봉까지 흰옷을 입은 행렬이 줄지어 서있었다고 한다.”⁵⁸⁾

한편, 지금 기념탑이 있는 현재 황토현이 예전에 진짜 사시봉이었다는 일화가 존재한다.

57)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읍 사시봉 동학농민군 주둔지」, 동학농민혁명 아카이브-유적지정보 (<https://1894.or.kr/main/?menu=95&mode=view&no=310&keyword=%EC%82%AC%EC%8B%9C%EB%B4%89>), 2026.04.01.

58) 이평면지편찬위원회, 2022, 「1부 이평의 자연과 인문환경」, 『이평면 백년사』, 정읍시청, 122쪽.

“사시봉은 현 기념관 뒤 남쪽 해발 76m의 봉우리로 시목리 바로 뒷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황토현 바로 아래 가정리 마을 고노들은 그 곳이 아니고 기념탑이 서 있는 황토봉을 사시봉이라고 다른 주장을 한다. 여기에는 한 일화가 전해내려오는데, 관군이 남쪽 고지대에 진을 치려고 하니 인근 주민들이 거짓으로 그 곳이 사시봉(死屍峰)이니 죽을 곳이라며, 일부러 진짜 사시봉인 황토봉에 관군이 진을 치게 하여 패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일대는 사시봉(死屍峯), 진두골(鎭鬪골)등 당시의 치열했던 전투를 말해주는 지명이 많다. [고증 : 가정마을 이환수 씨 74세]” 59)

(2) ‘동학농민군 우물’⁶⁰⁾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서측편 가정마을에는 1864년 조성된 우물이 또한 존재한다. 이 우물은 동학농민군이 식수와 취사에 사용하였었다는 마을 어르신들의 증언이 존재한다. 해당 위치는 현 사적 영역 남서쪽으로 1km, ‘사시봉’에서 서북쪽으로 약 1km 이내 거리에 매우 가까이 존재하고 있다.

(3) 도마다리(도계교)와 도교산

‘도마다리’ 혹은 ‘도계’(道界) 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다리’는 도계리와 하하리 경계이자 황토현 전적의 서측 부분 태고로가 실개천인 덕천천을 가로지르는 곳에 위치한 다리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옛 다리가 존재한다.⁶¹⁾ 조광환(2020) 또한 도교산의 위치가 ‘도마다리’와 관련 있을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관군의 기록인 『동비토록』에서 직접

59) 류태길, 2014, 앞의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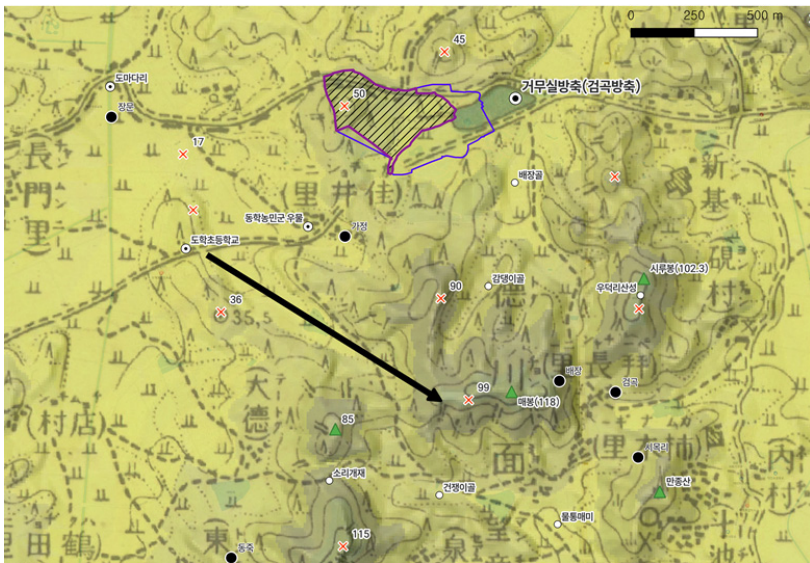
60)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읍 덕천면 동학농민군 우물」, 동학농민혁명 아카이브-유적지정보 (<https://1894.or.kr/main/?menu=95&mode=view&no=311&keyword=%EB%86%8D%EB%AF%BC%EA%B5%B0%20%EC%9A%B0%EB%AC%BC>)

61) 뿌리기픈, 2010, 「우리고장, 정읍이야기-도마다리와 도계마을」, 티스토리 블로그 (<https://ppuril.tistory.com/16900472>), 2026.05.11.

‘도교산(道橋山)이 황토산(黃土山)’으로 정의하는 대목이 있다. 62)

실제로 도계리 도계서원 뒤편에도 ‘도계산’이 존재한다. 정읍시에서 발간한 이평면 백년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도교산은 지명 없는 산으로 당시 농민군이 집결한 곳은 황토현에서 서쪽으로 1km 떨어진 구릉지대였다. 도계마을 앞 도교(도마다리) 동쪽의 황토재를 이르는 또 다른 이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63)



〈그림 18〉 황토현 전적 서편으로 도마다리, 동학농민군 우물, 도학초등학교 등의 위치표기 (출처 : 연구자가 qgis로 주요 지점 표기)

62) 『동비토록』, 「13일 진시 완백 [十三日辰時 完伯].

참고로 ‘도교산’의 명칭에서의 도교의 한자가 ‘道橋’로 ‘길 도’와 ‘다리 교’자를 쓰고 있다.

63) 이평면지편찬위원회, 2022, 앞의 문헌.

IV. 충청남도·전라남북도 사료채방 복명서 (조선사 편수회, 1934) 자료 분석

다음으로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사료채방 복명서 자료를 분석하였고, 이 자료에서 언급된 내용과 위치가 얼마나 차이를 갖는지 확인하였다.

1. 지도상 '황토치'에 표기 내용



〈그림 19〉 다보하시 기요시의 사료채방복명서
(황토치(黃土峙)와 현 사적지 위치 저자가 붉은색 표기)

다보하시 기요시는 ‘황토치’를 고부 동죽리에서 망제리로 이어지는 길로 적어두었다. 다만, 고부-태인으로 가는 태고로를 표현하다가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는 1918년도 지형도에 태고선은 매우 굵게 표현된 것과 대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지형도와 거의 유사하여 해당 지형도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2 ‘황토치’에 관한 주요 언급 내용

다음은 왕현종의 연구(2024)에서 사료채방서의 원문을 번역하여 수록해 두었는데, 이 부분 중 황토치에 관한 내용 부분은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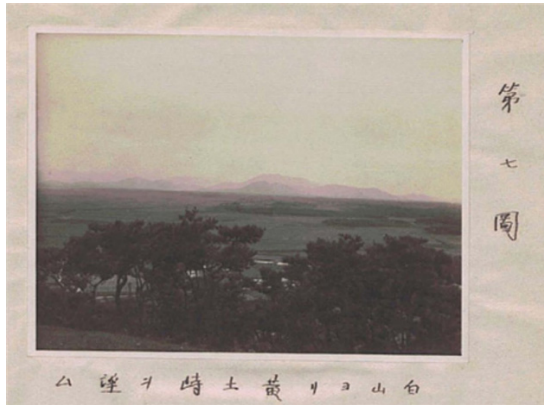
“고부면 사무소에 가서 면장 은필성씨의 안내를 받아 부안군 백산면 백산에 도착하였다. 백산은 약 46.7미터의 구릉으로 동진강 일대의 옥야가 내려보이고, 갑오동학당비란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만석보(萬石湫, 정읍면 이평면(梨坪面) 두전리(斗田里 부근에서 북쪽의 용북면(龍北面)에 이른다. 옛날에는 답내면(沓內面)이라 칭하였다), 동도(東徒)와 전주감병이 처음으로 충돌한 지역인 황토치(黃土峙, 덕천면 동죽리, 망제리에 이르는 도로에 위치한 고개로서 망제봉의 북부에 있다)가 손짓하여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은필성 면장과 백산의 노인 조상근으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청취했다.”⁶⁴⁾

3. ‘황토치’ 사진 자료

위의 언급과 함께 다보하시 기요시는 ‘7번 그림’에서 ‘황토치를 바라본 사진’을 수록해 두었다. 이 사진을 확인해 보면, ‘백산’에서 ‘황토치’를 멀리서 바라본 채로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황토치를

64) 밑줄 및 굵게 표시는 본 연구자가 진행한 것이다.

직접 방문하였다기보다 당시 고부면장이었던 은필성과 노인 조상근으로부터 백산 위에 선 채로 원경에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20〉 다보하시 기요시의 사료채방서 내 사진, “7번 그림 -백산에서 황토치를 바라본 사진”이라고 쓰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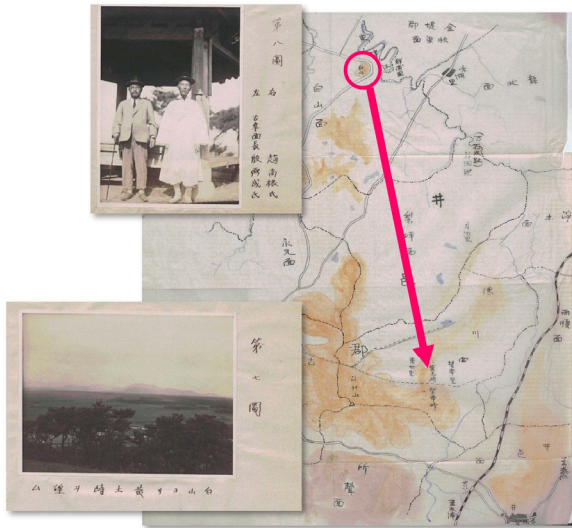
4. 사료채방복명서 자료 분석 결과

전체 내용을 종합하여 확인해 보면 다보하시 기요시가 문헌상에서 표현한 문장 “손짓하여 부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란 ‘백산’을 기준으로 동학의 주요 사건이 있었던 ‘만석보’와 ‘황토치’가 눈에 보일 만큼 가깝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다보하시 기요시와 답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황토치 현장을 생생하게 관찰하여 작성했다기보다 ‘백산 위’에 서서 ‘원경’에서 당시 고부면장이었던 은필성과 노인 조상근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진의 시선으로 보면 현재 황토현 전적이 위치한 봉우리, 표기한 위치의 황토치, 그리고 망제봉이 일렬로 나열되기 때문에 사진상으로는 이 영역 모두가 관망되는 상태로 보인다.

또 문제 되는 부분은 황토치의 위치를 직접 언급한 부분이다. “황토치 (黄土峙, 덕천면 동죽리, 망제리에 이르는 도로에 위치한 고개로서 망제

봉의 북부에 있다)”라는 설명과 함께 도로선과 함께 위치를 기재해 놓았다. 이 말은 망제봉과 동죽산 사이로 흘러나오는 지류의 해당 고개 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표기한 오늘날 지도 위치와 비교해 보면 ‘소리개재’ 혹은 ‘천곡사지 석탑’과 ‘천곡’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비록 권위 있는 자가 실제 답사를 통해 기술하여 그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나, 황토치의 위치가 기존 사적지와 다르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선부르다고 생각한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기재한 위치라기보다 멀리서 관망한 상태에서 지도에 표기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설명의 맥락으로 보아, 망제봉 북부 도로 사이에 다수의 봉우리와 고갯길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다보하시 기요시와 은필성 면장, 조상근 노인이 말한 황토치가 사시봉 및 매봉 일대를 아울러 종합적으로 지칭한 것일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천곡’이라고 조선시대부터 이름이 존재해 왔던 곳을 ‘황토치’였다고 규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된다.



〈그림 21〉 다보하시 기요시가 은필성 면장과 노인 조상근과 함께 바라본 영역 추정



〈그림 22〉 다보하시 기요시가 기재한 곳은 오늘날 천곡의 위치이다.

V. 황토현 전투 전개 과정과 위치 재검토 종합 분석 결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주요 위치를 표기하고, 논란이 불거진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논란 부분 중심으로 재검토 결과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1. 황토현 전투의 재검토 결과

황토현 전투의 전개 과정 재검토를 통해 문헌을 종합하여 언론 및 학술논문에서 의문이 제기된 것에 관한 본 연구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누가 먼저 공격하였는가? : 관군이 동학농민군 진지를 먼저 공격

문헌을 종합해 보면, 관군 측과 동학농민군 측 모두 관군이 동학농민군을 야습하여 선제공격했 것으로 기술한다. 이를 알고 있었던 동학농민군이 오히려 역습했기 때문에 동학농민군 진지에서 먼저 전투가 먼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⁶⁵⁾ 이는 동학농민군 진지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사시봉'에서 유해가 나온다는 증언은 문헌과 맥락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전투는 황토현이 아니라 사시봉에서 이루어졌나? : 실제 그 장소가 맞다면, 사시봉(동학농민군 진지)도 맞고, 황토현(부상군 진지)도 맞다.

'사시봉'에서 전투가 이뤄진 것이 맞다. 특히, 문헌상 살펴본 것과 같이 관군과 동학농민군은 '서로 다른 봉우리' 세 곳에 진을 쳤고 관군이 선제공격한 그중에 한 곳이 사시봉이었을 것이다. 문헌상 관군 일부가 동학농민군 진지를 야습했으나, 이를 알고 있던 농민군이 진을 비웠다가 도리어 야습한 관군의 삼면을 에워싸 격퇴하였다. 그렇게 관군이 전투 초기에 궤멸당한 곳이 사시봉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후방에 부상군이 잠자고 있던 곳도 함께 공격해서 부상군 또한 격퇴당했다. 김기술 및 후미에 있던 보부상 부대의 증언을 따르면, 선제공격의 사실을 모른 채 잠을 자다가 습격을 받고 궤멸되었으며, 사방으로 도주하였다. 그러므로 보부상 부대가 있던 장소 또한 당연히 전투지이다.

이렇듯, 황토현 전투는 이 부근 여러 장소들에 걸쳐 치뤄진 대규모 전투이다. 즉, 과거 고부군 시절 우덕면의 산 일대가 전투지였다. 실제

65) 『동학사 초고본』에서는 오히려 가장군이 이를 앞서 나섰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찌 되었든 관군이 선제공격하였다.

로 황토현 전투라 칭해지기 이전에는 ‘고부 접전’, 혹은 ‘고부 전투’라고도 불린 바 있다.⁶⁶⁾ 여러 봉우리를 점거하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며 공격하는 방식은 동학농민군이 선호하는 방식이었기도 하다.⁶⁷⁾ 이런 점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학자들 또한 ‘사시봉’ 일대를 동학농민군이, 현 사적지 일대가 ‘보부상 부대’가 진을 쳤던 장소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림 23>.



<그림 23> 조광환 연구(2020)가 수록된 2020년 학술대회 표지 이미지(좌) 2014년 류태길 황토현전투의 재구성 작전 추정도 (우) 모두 황토현 전적지 아래 부분을 황토현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로 이해하고 있다.

66) 류태길, 2014, 앞의 문헌. “지금 통칭하는 황토현 전투는 혁명 당시에는 고부접전이라고 했다. 화포장으로 황토현 전투에 참전했던 필자의 증조부(류희원 柳希源)는 전주화약 직후 정훈했던 아들의 혼례를 치르면서 “내가 고부접전에서 죽었다더라면 이러한 영화를 못 보았을 것이다”하시며 기뻐하셨다는 말을 어린 시절 조모로부터 들었다.”
 67) 신영우, 2018, 「북접농민군의 전투방식과 영동 용산전투」, 『동학학보』 48, 동학학회, 45~108쪽.

3) 문헌 종합 검토상 황토치와 사시봉, 그리고 황토현 전적과의 관계. 전투 정황상 큰 문제가 없음

황토현 전적 남쪽으로 동학농민군 주둔지였던 ‘사시봉’이 존재하고, 황토현 전적 기준 남서쪽에 동학농민군이 식수를 구했던 ‘가정마을’ 내 동학농민군 우물⁶⁸⁾이 존재한다. 또 ‘태고로’가 지나 도로가 확보되어 있고, 넓은 들이 있던 곳이다. 황토현의 길목은 화호리 나루터로 가는 좁은 길을 파수하기 위한 적절한 장소였다. 아울러, 현 황토현 전적 사적지 동측 편에 고래실논이자 저수지(池)였던⁶⁸⁾ ‘거무실방축(검곡방축)’이 존재한다. 이 ‘검곡방축’은 『오하기문』에서 서술하고 있는 넓고 깊은 물의 내용과 일치한다. 또, 부상군의 패주로 북편으로 ‘소나무 숲’으로 들기 편하고, 동측으로는 셋강이 존재할뿐더러, 이 방향으로 도주하던 부상군이 태인에서 합류하던 농민군을 만나 패퇴하기에 적절한 곳이다.

다보하시 기요시가 문헌에서 기록한 장소와 위치는 이보다 망제봉 쪽 남쪽 영역이며, 현재 자료로 파악하건대, ‘사시봉’은 이보다 북쪽으로 약 600m 떨어진 곳이다. 이 때문에 다보하시 기요시가 언급하는 문장은 동학농민군이 점거했던 세 봉우리 중 하나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현재 학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이다. 다만, 앞서 밝혔듯이 ‘천곡’이라고 과거부터 불리어왔던 곳을 ‘황토치’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다소 동의하기가 어려운 지점 중 하나이다.

2. 황토현 지명에 관한 확장된 이해의 필요성

그렇다면, 이렇게 황토현 관련 장소 진위와 논의가 불거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를 진행하며 느낀 것은 황토현 전적에 관한 현존하는 주요 정보들이 황토현 전투 장소의 범위를 하나의 봉우리로만 너무 좁게 이해하도록 기술하고 있는 점이 많이 발견된다. 황토현 위치 논란이 불

68) 池, 물을 모아둔 곳. 해자. 성곽의 주위로 둘러 있는 못. 물길. 도랑.

거진 논란에서 또한 격전지가 기존 황토현이 아니라 ‘사시봉’이 아니냐는 논지 또한 봉우리 하나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전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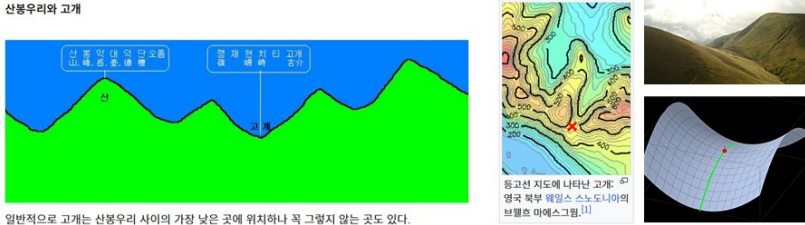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재차 강조했듯이, 우리는 사시봉이나 황토현 전적 한 곳이 모든 전투가 일어난 한 곳이 아니라 고부군 우덕면 범위 두승산 동쪽 편 산 전체가 전투지였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황토현은 단순히 한 봉우리가 아니라 여러 봉우리와 고개, 그리고 지역 일대로 생각된다. 1차 사료들에서 전투를 표현할 때 동학농민군-관군의 진지를 하봉-상봉, 혹은 중봉-상봉-상상봉으로 서술했다는 점에서, 황토현에 여러 봉우리가 포함된 확장된 장소임을 알 수 있다. 또, 1915년 지적원도 상에서 황토현 전적을 포함한 남북 일대 모두가 (山, 산)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그리고 1963년도 지도에서는 ‘황토재’는 현 사적 영역보다 훨씬 북쪽의 길로 기술되어 있기도 하다. 다보하시 기요시는 조상군 노인의 말을 듣고 이보다 남쪽인 동죽리와 망제리를 잇는 고개라고 적었다.

이런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황토현 전적지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 일대가 작은 봉우리 수준이 아니라 ‘황토치’, ‘황토산’으로 불렸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본 저자의 견해이다. 흙도람에서 확인했듯, 대부분의 고지 영역 황토로 뒤덮인 영역이었다. 이렇게 전투의 배경들이 당시에 황토산, 황토재, 황토치로 모두 불리면서 ‘다수의 봉우리’를 아우르는 ‘고개’, ‘산’ 등으로 이해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면, 현재 엇갈리는 증언의 많은 부분이 설명된다.

우리말에서 ‘현(峴)’ ‘치(峙)’, ‘재(岨)’는 “언덕, 높은 언덕, 우뚝 솟다”를 뜻한다. 그러나, ‘고개’를 의미하기도 한다. ‘고개’란 “산이나 언덕을 넘어 다니도록 길이 나 있는 비탈진 곳”, “길이 나 있어서 넘어 다닐 수 있는” 곳으로 표현한다. 즉, 봉과 봉 사이 가장 낮은 부분에 길이 형성된 부분이 ‘고개’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⁶⁹⁾ 이렇게 ‘현(峴)’ ‘치(峙)’,

69) 산바람과함께, 「산과 고개 명칭」, 티스토리 블로그 (<https://best1dr.tistory.com/7494269>), 2026.04.01.: “고개”.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

‘재(帖)’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로부터 의미 이해에 대해 충분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24〉 산과 고개 명칭
(출처 : 산바람과함께, 앞의 자료. (우) 위키피디아 “고개” 검색)

황토현 인근 지역의 치(峙) 혹은 재(帖)의 지명을 가진 곳 또한 그러하다. 1872년도 지방지도와 1914년 조선지형도에서 두승산 서쪽 고부관아로 넘어가는 고갯길에 ‘천치(天峙) 라는 지명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다. 또, 망제리에서 상화리로 넘어가는 곳의 이름은 ‘소리개재’이며, 우덕리 용전마을에서 감냉이골로 매봉과 함께 넘어가는 고개 이름은 ‘매봉재’이다. 이렇게 봉우리 이름+재, 즉, ‘재’와 ‘치’는 인근 지역에서도 ‘봉’과 구분하여 불리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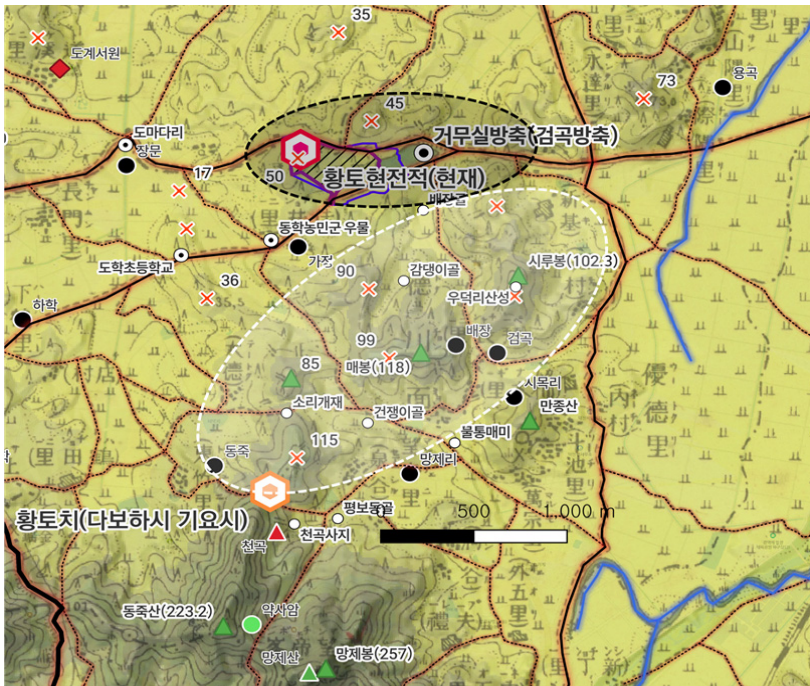
따라서, 황토치란 단순히 봉우리만 솟아 있는 곳이라기보다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평지보다는 높은 능선 중 길로 사용되는 곳 중 가장 완만한 곳을 의미하거나, 고개 전체 혹은 하나의 산을 의미할 수 있다.⁷⁰⁾ 즉, 황토현, 황토치, 황토고개, 황토산이

⁷⁰⁾ 실제로 ‘고개’라는 뜻은 영어로 번역하면 ‘mountain press’로, 길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 이처럼 현, 재, 치는 봉우리뿐만 아니라 ‘길’의 개념을 포함한다. 이들 모두 봉우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봉우리 사이와 사이를 잇는 길을 포함한 완만한 능선들이다. 이는 산, 악, 그리고 봉이라는 단어와 구분되기도 한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언어들에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장소의 개념이 단순히 한 봉우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두승산에서 동측으로 뻗어나오는 지류 ‘고개’와 ‘산’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이해하는 것이 사건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 더욱 유용한 관점으로 판단된다.

맺음말

본 연구자의 종합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자는 ‘다보하시 기요시’의 기록이 권위 있는 사료로 언급되기는 하나, 멀리서 전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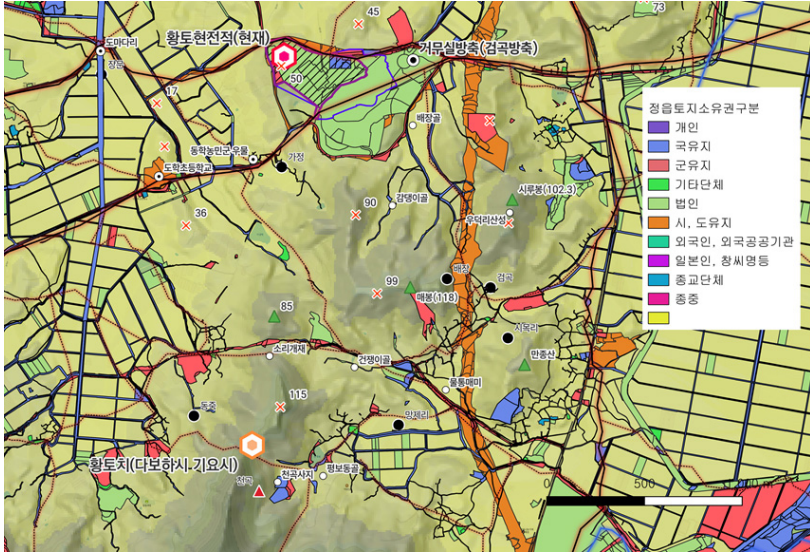
〈그림 25〉 현 사적지 황토현 전적 인근은 관군 진지, 매봉, 사시봉, 소리개재 등 여러 봉우리에 동학군 진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보하시 기요시의 발견에 따라 이러한 사실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로 보이기에 오늘날까지 축적된 학술 성과, 지역민의 구전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사료로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명서에서 언급된 황토치의 현재 위치는 ‘천곡’ 혹은 ‘소리개재’라는 지명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황토현 전적 남쪽이 동학농민군 진지였음을 강화하는 소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북명서 사료는 ‘망제봉’ 위에 ‘황토치’를 적어줌으로써 두승산 동쪽에 황토치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어 다른 오해를 방지해 준다. 또, 현재 사적 영역으로 지정된 ‘황토현 전적지’는 부상군 진지로서 도주료와 문헌상에서 표기된 내용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존과 신규 사료를 통합하여 황토현과 사시봉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기 위해 망제봉 북쪽에서 황토현 전적 북쪽에 이르는 일대 전체, 과거 고부군 우덕면의 산에 해당하는, 즉, 두승산 동측 지류 전반을 ‘황토치’, ‘황토산’으로 불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황토현 전투는 과거 고부 전투, 고부 접전이라 불릴 만큼 더 큰 전쟁 사건이었으며, 일대 지역 전방위에서 이루어졌다. 양군의 진지는 문헌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 황토현 중봉, 상봉 등 북수의 봉우리를 포함하는 넓은 영역으로 보인다. 문헌에서 황토현 뿐만 아니라 산, 치, 현, 봉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는 점, 1915년 지적원도에서 일대 모두를 산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점, 1934년 북명서에는 망제봉 바로 북부를, 1963 지도에 황톿재가 현 사적지 북부에 기입되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동측 지류 영역 전체가 황토치, 황토산, 황토현으로 불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앞서 언급하였듯, 황토현 전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일대에 관한 지표조사가 시행된다면 더욱 분명해지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자가 지도에서 시각화한 자료를 보면, ‘사시봉’을 비롯해 ‘천곡’, ‘소리개재’, ‘매봉’, ‘시루봉’과 더불어 이름 없는 다수의 봉우리와 고개가 확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영역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표조사를 진행하기를 권한다.



〈그림 26〉 황토현 전적 인근 국,군,시도유지 현황
 위 영역에서 표기한 필지 이외는 대부분 개인, 종중, 그리고 미구분 땅이다.
 (출처: 공공데이터 활용하여 저자가 qgis 통해 표기)

지표조사의 주요 방법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범위 인근을 중심으로,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며 ‘금속탐지’를 선제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한다. 문헌상에서 보이듯이, 사상자들이 매우 많았다. 또, ‘총’과 ‘포’를 주고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당시의 ‘탄환’, ‘화살촉’, ‘대포알’, ‘창’, ‘검’ 등의 출토가 예상된다.⁷¹⁾ 또 깊으로 가성을 만들고 ‘토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어, 토성의 흔적들이 발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지표조사를 실시할 때 범위를 엄밀하게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전투지로 여겨진 특정 영역을 정하고 금속탐지를 통한 지표조사로 계속 확인하고, 점차 그 영역을 정교화해 가면서

71) 호남읍지(1871, 1895, 1899), 고부군읍지(1812) 등의 자료를 확인하면, 당시에 확보하고 있던 관병의 무기를 확인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역사 전문가, 동학 전공자 및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전문가들과 협력팀을 구성하여 진행할 것을 권한다.

지표조사의 장소는 과거 1910년 기준 고부군 우덕면 구역 내 산의 지류였던 모든 곳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럼에도 문헌으로나 증언으로나 동학농민군 진지로 ‘사시봉 일대’가 가장 명확한 유구가 발견될 수 있는 장소로 유력해 보인다. 우덕리 산 52 주변의 지표조사가 진행된다면 황토현 전투에 관한 주요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사유지이므로 무리하게 사시봉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오히려 재단소유지나 국공유지부터 시행하는 편이 좋아 보인다. 본 연구자가 공공데이터를 통해 제작한 토지소유권 구분 지도 <그림 26>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가까운 곳은 매봉이며 다보하시가 인접한 ‘황토치’ 위치인 ‘천곡사지’도 국공유지이다. 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일대’는 현재 국·공유 및 기념재단법인 소유 부지이기 때문에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황토현 전적지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일대는 성역화 작업이 진행되어 많은 부분이 변형된 점이 확인되는데, 이 때문에 유의미한 조사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아울러, 해당 시기 군사 및 역사 전문가들의 황토현 전투 관련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경호가 친 진영이 최영년에 의해 문헌상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진형을 추정하는 연구들도 황토현 전투를 이해하는 데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향토 지명과 장소에 대해서 증언들이 엇갈리고 있어 지명 및 구술 채록 확보를 통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실제 여러 봉우리 중 어떤 봉우리가 전투의 중심 지역이었는지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본 조사 결과가 황토현 전투지에 관한 이해 증진과 정비 방안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투고일 : 2026. 4. 4. 심사완료일 : 2026. 4. 28. 게재확정일 : 2026. 5. 12.

참고문헌

<자료>

- 『갑오약력』(甲午略歷), 「1894년 봄(甲午春)」,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26r_002), 2026.04.01.
- 『갑오조선내란시말』, 「동학당의 상황-전주민란의 근황」,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keyword=%EC%A0%84%EC%A3%BC%EB%AF%BC%EB%9E%80%EC%9D%98+%EA%B7%BC%ED%99%A9&mode=view&code=prd_0186r_015), 2026.04.01.
- 『김기슬문서』(金箕述 文書), 「태인 고현내면의 백성 김기슬 [泰仁古縣內面 民 金箕述]」,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62r_045), 2026.04.01.
- 『김낙봉이력』(金洛鳳履歷), 「갑오(1894년) 4월 3일(甲午四月初三日)」,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37r_006#), 2026.04.01.
- 『남원군종리원 외 南原郡宗理院 外』, 「남원군동학사」,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166r_002_001), 2026.04.01.
- 『동도문변』(東徒問辨), 「백산패적변(白山敗績辨)」,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32r_005#), 2026.04.01.
- 『동비토록』(東匪討錄), 「13일 진시 완백 [十三日辰時 完伯]」,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29r_031), 2026.04.01.
- 『동비토록』(東匪討錄), 「15일 진시 전라감사의 비밀전보 [十五日辰時 暗電惠堂宅完伯]」,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29r_033), 2026.04.01.
- 『동학농민혁명 관련 고문서(東學農民革命 古文書)』, 「완영에서 작성한 전라도 고부민란 시초(1894년 4월)」,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183_006#), 2026.04.01.
- 『동학도중역사』, 「제12장 갑오동학당혁명과 청일전쟁[第十二章 甲午東學黨革命及日清戰役]」,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https://www.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164r_002_012), 2026.04.01.

- 『동학사(東學史) 초고본』, 455~466쪽,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index&code=prd_0002), 2026.04.01.
- 『동학사(東學史) 초고본』, 「집강소의 행정」, 우리역사넷 (https://contents.history.go.kr/mobile/hm/view.do?levelId=hm_117_0030), 2026.04.01.
- 『수록(隨錄)』, 「영문에서 보낸 기별 [營寄]」,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24r_001_006), 2026.04.01.
- 『수록(隨錄)』, 「1894년 4월 초 8일 계초」,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24r_001_005), 2026.04.01.
- 『수록(隨錄)』, 「1894년 4월 17일」,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24r_001_006)
- 『양호초토등록(兩湖招討謄錄)』, 「승정원에서 열어보십시오(1894년 4월 9일)」,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keyword=%EB%8F%84%EA%B5%90%EC%82%B0&mode=view&code=prd_0027r_006), 2026.04.01.
- 『양호초토등록(兩湖招討謄錄)』, 「승정원에서 열어보십시오(1894년 4월 12일)」,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keyword=%EB%8F%84%EA%B5%90%EC%82%B0&mode=view&code=prd_0027r_008), 2026.04.01
- 『양호전기(兩湖電記)』. 「1894년 4월 초 갑인」,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keyword=%EB%8F%84%EA%B5%90%EC%82%B0&mode=view&code=prd_0028r_006), 2026.04.01.
- 『임하유고(林下遺稿)』, 「1894년 9월(甲午九月)」,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21r_001#), 2026.04.01.
- 『영상일기(嶺上日記)』, 「1894년 4월(甲午四月)」,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07r_011), 2026.04.01.
- 『석남역사』(石南歷事)』, 「1894년 1월(甲午年正月)」,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20r_003#), 2026.04.01.
- 『번역 오하기문』, 「고부전투와 관군의 패배」, 한국의지식콘텐츠 (<https://www.krpia.co.kr/viewer?plctId=PLCT00004881&tabNodeId=NODE03922124&af>

- fectType=product-main#none), 2026.04.01.
- 외솔회, 1974, 「동학 혁명 실화 자료 - 황토현(黃土峴) 전투 기록」. 『나라사랑』, 15, 209-209.
-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祕書類纂朝鮮交涉資料)』, 「전라도 고부민요일기」, 신국역총서 16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212r_006), 2026.04.01
- 『비변사인방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https://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M99998_00&vol_no=0000&target=area), 2026.04.01.
- 『광여도(廣輿圖)』, 「고부」,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https://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R33611_00&vol_no=0000&target=area), 2026.04.01.
- 『해동지도(海東地圖)』, 「고부」,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https://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R33489_00&vol_no=0001), 2026.04.01.
- 『여지도(輿地圖)』, 「고부」,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https://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R33505_00&vol_no=0000&target=area), 2026.04.01.
- 『지승(地乘)』, 「고부」,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https://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K15423_00), 2026.04.01.
-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R33432_00), 2026.04.01.
- 『1872년 지방지도(郡縣地圖)』, 「고부」,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https://kyudb.snu.ac.kr/book/text.do?book_cd=GM99999_00&vol_no=75601&target=area), 2026.04.01.
- 조선총독부 임신토지조사국, 1915,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우덕리 지적원도』(0-30), 지적아카이브 (<https://theme.archives.go.kr/next/acreage/viewMain.do>), 2026.04.01.
- 조선총독부 임신토지조사국, 1915,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하학리 지적원도』(0-25), 지적아카이브 (<https://theme.archives.go.kr/next/acreage/viewMain.do>), 2026.04.01.
- 조선총독부 임신토지조사국, 1915,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상학리 지적원도』(0-19), 지적아카이브 (<https://theme.archives.go.kr/next/acreage/viewMain.do>), 2026.04.01.
- 조선총독부 임신토지조사국, 1915,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망제리 지적원도』(0-32),

- 지적아카이브 (<https://theme.archives.go.kr/next/acreage/viewMain.do>), 2026.04.01.
-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1915, 『전라북도 정읍군 덕천면 신월리 지적원도』(0-22), 지적아카이브 (<https://theme.archives.go.kr/next/acreage/viewMain.do>), 2026.04.01.
-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1915, 『전라북도 정읍군 이평면 도계리 지적원도』(0-28), 지적아카이브 (<https://theme.archives.go.kr/next/acreage/viewMain.do>), 2026.04.01.
- 조선총독부. (1914-1924). “정읍지도”. 『조선오만분일지형도(井邑 群山三號 陸地測量部 大正13年)』.
-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 (종이지도 중 과거지도, 1960, 1970, 1980).
- 1954 항공사진. 국토정보플랫폼 <https://map.ngii.go.kr/mn/mainPage.do>

〈논문〉

- 류태길, 2014, 「황토현 전투의 재구성」, 『녹두꽃.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2014년 여름 6호.
- 신영우, 2018, 「북접농민군의 전투방식과 영동 용산전투」, 『동학학보』 48, 동학학회, 45~108쪽.
- 왕현중, 2024, 「충청남도·전라남북도사료채방복명서(조선사편수회, 1934)」, 『동학농민혁명 연구』 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3~40쪽.
- 조광환, 2011, 「황토현 전투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동학농민혁명 성격규명과 기념사업 학술대회』, 85~105쪽.
- _____, 2020, 「황토현전투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 『동학농민혁명 126주년 기념 학술대회-전투로 살펴본 동학농민혁명』, 1~29쪽.
- 조성운, 2013, 「황토현전투의 전개와 역사적 의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73~108쪽.
- 홍상표, 2023, 「1894년 황토현 전투의 재구성」, 『2023년 제2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349~387쪽.

〈단행본〉

- 신순철·이진영, 1998,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 이평면지편찬위원회, 2022, 『이평면 백년사』, 정읍시청.

<기타>

- 국립농업과학원. 「토양환경지도」, 흙토람(<https://soil.rda.go.kr/>), 2026.04.01.
-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고지도」,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https://kyudb.snu.ac.kr/main.do?mid=GZD>), 2026.04.01.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읍 덕천면 동학농민군 우물」, 동학농민혁명 아카이브-유적지정보 (<https://1894.or.kr/main/?menu=95&mode=view&no=311&keyword=%EB%86%8D%EB%AF%BC%EA%B5%B0%20%EC%9A%B0%EB%AC%BC>), 2026.04.01.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읍 사시봉 동학농민군 주둔지」, 동학농민혁명 아카이브-유적지정보 (<https://1894.or.kr/main/?menu=95&mode=view&no=310&keyword=%EC%82%AC%EC%8B%9C%EB%B4%89>), 2026.04.01.
- 뿌리기쁜, 2010, 「우리고장, 정읍이야기-도마다리와 도계마을」, 티스토리 블로그 (<https://ppuri1.tistory.com/16900472>), 2026.05.11.
- 산바람과함께, 「산과 고개 명칭」, 티스토리 블로그글 (<https://best1dr.tistory.com/7494269>), 2026.04.01.
- 「고개」.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EA%B3%A0%EA%B0%9C>), 2026.04.01.

〈Abstract〉

Reexamining the Course of the Battle and the Location of the Hwangtohyeon Battlefield

Cheong, Soohwan*

Although the Hwangtohyun Battlefield was designated as a National Historic Site in 1981, its precise location remains a subject of debate due to limited historical records and conflicting oral traditions. Consequently, multiple interpretations coexist regarding the actual site of the battle. Recent debates have intensified following the 2024 rediscovery of the “Report on the Collection of Historical Sources in Chungcheongnam-do and Jeollanambuk-do” (1934), along with related academic and media discussions suggesting that key Donghak Peasant Revolution sites, including Hwangtohyun and Manseokbo, may have been misidentified.

This study reexamines the geographical context of the battlefield by synthesizing existing literature and primary sources. It reassesses the roles of the officially designated historic site and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Park within the spatial framework of the battle. Particular attention is given to the “Hwangtochi” described in the 1934 report, examining its spatial implications as well as its divergence from prevailing academic interpretations.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newly examined historical sources do

* Ph. D. Candidate,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not fundamentally contradict the established academic framework; rather, they support the interpretation that Hwangtohyun was located along the eastern tributary of Mt. Duseung. In this study, to address and clarify existing misconceptions, it is cautiously proposed that Hwangtohyun should be understood not as a single peak but as a broader spatial entity encompassing multiple ridges and the surrounding landscape.

Through this expanded conceptual framework, the study aims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the Battle of Hwangtohyun, reinterpret the significance of the currently designated historic site, and provide a foundational basis for future heritage conservation and site management

Key word : Donghak Peasant Revolution, Battle of Hwangtohyeon, Hwangtochi, Lee Gyeong-ho,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황토현 전적의 기념사업 추이*

조광환**

〈목 차〉

머리말

- I.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 (1단계 사업)
- II. 갑오동학기념사업회 해체와 ‘전봉준장군 유적정화 사업’의 시작 (2단계 사업)
- III.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3단계 사업)
- IV.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4단계 사업)

맺음말

〈국문초록〉

동학농민군의 최초의 전투지이자 승전지인 황토현 전적지에 1963년 10월 3일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건립되었다. 이후 황토현 전적지는 1981년 12월 10일 사적 제295호로 지정되었으며 1983년 전적지 인근 4만 5,0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그해 말 기념관을 건립하였다.

* 이 논문은 『정읍 황토현 전적 위치 고증 및 기념 공간 재구성을 위한 학술 연구 (2025년 10월)』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동학역사문화연구소 소장

이후 현 기념관 증축 개관, 기념재단 이전, 전봉준 장군 동상 교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등의 변화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로써 황토현 전적은 명실상부한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황토현 전적이 60여 년 동안 어떤 주체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그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이 없어 아쉽게 생각하던 터에 정리의 필요성을 느껴 다음과 같이 ‘황토현 전적의 기념사업 추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정리하였다.

주제어 : 황토현, 전봉준, 동학농민혁명,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기념사업

머리말

황토현 전적은 현재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3번지 일대에 위치한 해발 35.5미터의 황토로 이루어진 언덕으로, 동학농민군이 관군을 상대로 최초의 전투를 벌여 최대의 승리를 거둔 역사적인 장소이다.

1894년 4월 7일(양력 5. 11), 황토현 전투의 승리로 인해 동학농민군의 사기가 크게 높아졌으며, 관망하고 있던 각 지역의 백성들이 자신감을 얻고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게 되어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은 조선정부와 일본군에 의해 철저히 진압되었고 결국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평가는 일제와 관한 사료, 그리고 유림의 기록에 나오는 ‘동학란’ 또는 ‘동학당의 난’ 등으로 왜곡되고 평가절하 되어 왔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도 일부 학자들은 일제의 사상 통제를 피하기 위해 비록 ‘동학란’이란 명칭을 썼지만 그 의미를 새롭게 평가하기도 하였는데 김제 출신의 역사학자인 김상기가 대표적이다. 김상기는 『동학과 동학란(東學과 東學亂)』이라는 제목으로 1931년 동아일보에 36회에 걸쳐 연재하였으며 이를 묶어 1947년 대성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

하였다. 이 책에서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전봉준으로 말미암아 표현된 고결한 혁명사상은 조선민중운동사상에 일대 선구를 이루었다”고 하였다.

해방 이후 1950년대를 거치면서 반봉건 반외세의 기초 위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1958년 김용섭의 「전봉준공초의 분석」이란 논문이 대표적이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4·19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조명의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동학농민혁명의 문학적 형상화 작업에서 가장 획기적인 성과로 꼽히는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런 분위기에 고무되어 1963년 10월 3일 뜻있는 인사들에 의해 정읍 황토현에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건립되었다. 이 탑의 건립으로 동학농민혁명이란 사건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부정적인 시각 대신 긍정과 관심이 커지는 이른바 세인들의 인식의 전향도 가져왔다. 또 이 탑의 건립을 계기로 동학농민군의 황토현 전투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여러 사업이 1983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지금에 이르렀다.

이에 본 발표문은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지난 60여 년 간 다양한 주체에 의해 추진되어온 황토현 전적 기념사업의 전개과정과 현재 남아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시설 현황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황토현 전적 기념사업의 단계별 구분과 현황〉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동학농민군의 황토현 전투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1983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일대에 조성되었다. 황토현전적지를 중심으로 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은 총 4단계에 걸쳐 이뤄졌다.

1단계 사업의 시작은 1963년 10월 3일 황토현에 동학농민군의 승전을 기념하는 최초의 조형물인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건립되면서부

터였다.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건립을 계기로 1967년 12월, 전북지역의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를 발족하여 이듬해인 1968년부터 매년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개최하여 왔다.

2단계, 1980년 5월 11일 제13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개최되었을 당시 야당 지도자인 김대중이 참석하여 정치발언을 했다는 구실로 전두환 신군부세력은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인 이희우를 구속하였고 1980년 12월 1일에는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도 강제로 해체시켰다.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를 해체한 신군부는 민간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억압하는 한편 취약한 정권의 정통성을 동학농민혁명과 연계함과 동시에 지역 민심 수습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에 나섰다.

1981년 2월, 전두환은 영광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한 뒤 정읍군에 들러 당시 정읍군수실에서 기관장 및 지역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자리에서 “전봉준은 우리 전(全)씨이기도 하며 위대한 군인이었다.”라며 전봉준 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의 연차적 추진을 약속했다.

전봉준 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은 1983년 12월부터 시작되어 황토현 동남쪽 기슭에 황토현기념관이 자리하게 되었다. 1987년 12월에는 전봉준동상이 건립되었으며 1992년 12월에 사당(祠堂)인 구민사(救民詞)가 건립되었다.

3단계 사업은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역대 정권에 의해 왜곡되어 온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바로잡고 그 정신사적 가치에 걸맞은 기념사업을 위해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현 황토현 일대에 교육관과 전시관 등의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2004년 3월 5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고 2004년 5월 11일,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번지 일대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새로 개관되었다. 전라북도 청에서 관리사업소를 두고 관리·운영해 오다가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동학농민혁명에 관련된 각종 책자와 문서, 무

기, 생활용품 등을 전시·보존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건립인 것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2014년부터 32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30만1천 329㎡ 규모에 전시실, 추모관, 연구동, 연수동 등으로 조성되었다. 공원 중앙에는 전국 아흔 개 지역에서 탐관오리와 외세 침략에 저항해 분연히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상징하는 아흔 개의 '울림의 기둥'이 세워졌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원과 더불어 2022년 6월 25일, 정읍시는 그 동안 친일작가 작품이란 지적을 받아온 전봉준 장군 동상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동학농민군 행렬을 형상화한 작품인 동학농민군 군상(群像)을 ‘불멸, 바람길’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설치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4단계로 진행된 황토현 전적 기념사업의 추진 과정에 대하여 관련 기록과 참여자들이 남긴 회고록 및 증언 등을 통해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이와 관련해서 그간 왜곡되어 왔거나 자칫 묻혀버릴 수 있는 숨어있는 내용을 찾아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I.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 (1단계 사업)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은 1960년대 이전까지는 전무한 상태였다. 기념사업의 시작은 현 사업부지에 위치한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1963년에 세워지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의 건립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3년 초 전북일보 편집부장 겸 문화부장 이치백은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명예교수인 김상기를 취재하였다.¹⁾ 이 자리에서 김상기가 이치백에게 동학농민혁명을 높이 평가하면서 관심을 가져보라 하자 이에 이치백은 신문에 연재할 글을 부탁하였다. 그 후 김상기는 동학농민혁명

에 관한 글을 200자 원고지로 30매 정도를 써주었다. 이 글은 전북일보에 사흘간 연재되었는데 마무리로 혁명의 의의와 더불어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물을 건립을 제안하면서 끝을 맺었다.²⁾

이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3년 7월 어느 날 오후 7시, 전주 어느 주점에서 이치백은 우연히 김인(金仁) 전라북도 도지사를 만나 합석한 자리에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물 건립 얘기를 꺼냈다. 이에 김인은 즉석에서 전화를 걸어 도공보실장 문필명에게 지시를 내렸다. 다음날 오후 3시경 당시 농협 도지부장 황의선(黃義善), 정음근수 유범수(柳凡秀), 전라북도 공보실장 문필명(文弼炳)이 전북일보 이치백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 자리에서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하 기념탑)을 세우기로 이야기를 모으고 건립추진위원회를 조직했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당시 전북대학교에 재직 중인 가람 이병기(李秉岐)를 선임하고 부위원장에는 황의선(전라북도 농협지부장), 박용상(朴龍相·전북일보사 사장), 황면주(黃冕周·전주지법 부장판사, 향토사학자) 등으로 정하였다. 고문에는 김인(전북지사), 김상기(金庠基·서울대 명예교수), 이홍직(李弘植·고려대 교수)을 추대하였으며 유범수, 문필명, 이치백 등 실무추진위원을 두었다.³⁾

-
- 1) (사)정음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2006, 『최현식과 동학농민혁명사 연구』, 도서출판 갈채, 119쪽. “그가(이치백)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에 김상기 박사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기념탑 건립에 관한 의견이 최초로 나왔다고 알려져 있다.”
 - 2) (사)갑오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2001, 『황톳재의 함성』, 천지문화사, 178쪽. “내가 이같이 동학혁명기념탑 건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동빈 김상기 박사께서 수차례 걸쳐 이 사업에 협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던 차 김인 지사를 만나서 이야기 해 본 것이 의외로 일이 순조롭게 풀려 마침내 이 일이 성사된 것이다.”라고 회고하여 기념탑 건립에 관한 최초의 의견은 김상기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 3) 이치백, 『새전북신문』, 2010.05.20.기사, 「전북의 기억(37) 황토현 갑오동학혁명 기념탑 건립」.

그 후, 수차례 임원회의를 거쳐 1963년 10월 중순까지 정읍 황토현에 기념탑을 건립할 것을 결의하고 곧바로 추진하였다.⁴⁾ 처음에는 건립 장소 선정을 놓고 이견이 있었다. 최현식은 “전주에 기념탑을 세우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안한 장소는 완산칠봉이었다. 완산칠봉이라면 관군이 야포를 설치하고 동학군을 향해 쏘아댄 곳이었기 때문에 전혀 터무니없는 발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동학혁명의 발원지에 세우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쪽으로 마침내 뜻이 모아져 최초의 전투 승리를 기념하는 의미로 황토재를 떠올린 것이다.”라고 하였다.⁵⁾

기념탑 건립기금은 전북도, 도 농협, 정읍군에서 각각 백만 원씩 내놓기로 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교통체신 위원장이었던 박두선(朴斗先)장군(정읍 입암 출신)이 박정희 의장에게 건의하여 백만 원을 얻어와 총 4백만 원의 기금이 마련됐다.⁶⁾

4) 『황토제의 함성』, 179쪽, 이치백은 정읍 황토현에 건립해야한다는 최초의 주장을 한 사람은 황면주였다고 밝히고 있다.

5) 『최현식과 동학농민혁명사 연구』, 120쪽.

6) 이치백의 위의 글. 그러나 이에 대해 이치백은 다른 언론인 전북중앙(2010. 04. 06.)에 다음과 같이 기념탑건립 기금을 4백만 원이 아닌 4천만 원으로 밝혔다. 이는 기억의 혼동으로 보이며 4백만 원을 잘못 말한 것으로 보인다. “1963년 서울대 문리대 학장을 지낸 김제 백산 출신 김상기 교수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 동송동 관사에서 만나자고. 김 교수는 우리나라 국사학계의 거물이야. 나중에 갑오혁명기념사업회 회장도 지낸 분이지. 그래서 이튿날 서울로 갔지. 만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을 펼치는데 전북일보가 자료나 문헌 수집 등을 좀 도와달라는 거야. 전북이 혁명의 발상지이기 때문이지. 당시로서 동학혁명을 다룬다는 것도 역시 혁명적이었지. 그래서 김 교수에게 부탁해 전북일보에 기획 기사를 3회 연재하기도 했지. 그런데 그해 6월 도청 앞에 지금도 영업하고 있는 ‘행원’ 복도에서 도 단위 기관장들과 모임을 하던 김인 도지사를 우연히 만났어. 김 지사는 경북 상주출신으로 현역 군인이었지만 서울공대를 졸업한 엘리트로 다른 군인들보다 사교가 트였던 것 같아. 김 지사에게 말했지. ‘이제 시대가 바뀌어 동학혁명은 말 그대로 혁명이지만 난이 아니다. 혁명발상지인 정읍에 기념탑둘하나 박자’고. 흔쾌히 승낙을 하더군. 다음날 오후 3시께 당시 농협도지부장이던 황의선(예비역 중령, 전남), 정읍군수 유범수(예비역 중령, 완주), 공보실장 문필병(후일 부안, 임실군수 역임)등 세 사람이 신문사로 찾아왔지. 바로 그 자리에서 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지. 당시 농협, 전북도, 정읍시가

이에 대해 당시 서울신문 정읍주재기자였던 최현식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을 위한 재정은 주로 추진위원회에서 각계의 후원금을 얻어 마련했지만(당시 기념탑을 건립하는 과정에는 공화당도 음으로 양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그해에는 형식적이거나 민정 이양을 위한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화당으로는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념탑은 그런 공화당에게 전라도 중부권의 표를 집결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그런 정략적 계산에 따라 20만 원이라는 거금을 공화당은 그 사업에 희사했다.”⁷⁾

즉, 기념탑 건립을 위한 재정은 주로 각계의 성금을 통해 마련했지만 당시 형식적이거나 민정 이양을 위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정략적 계산에 따라 공화당에서 일부 성금을 냈다는 것이다.

마침내 1963년 10월 3일 개천절을 기해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1894년의 농민봉기를 기념하기 위해 18.94m의 높이로 세워졌다. 탑 신부에 한자로 ‘제폭구민(除暴救民) 보국안민(保國安民)’, 기단부에 ‘갑오동학혁명기념탑(甲午東學革命紀念塔)’이란 글씨가 쓰여 있는데 강암 송성룡이 썼다.⁸⁾

탑 원편에는 김상기가 지은 ‘갑오동학혁명기념탑 명문’이 새겨진 비가 있고 그 뒷면에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와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되면 못가보리’라는 구전 참요가 새겨져 있다. 탑 오른편에는 동학농민군 부조상이 있다.

각각 1천만 원을 내놓았어. 이후 최고위원회에서 1천만 원을 보태 총 예산 4천만 원으로 탑을 세웠지. 최고위원회에 있던 정읍출신 박두선씨 도움으로 1천만 원이 더 내려왔지. 아무튼 그해 10월에 열렸던 당시 제막식에 5만 명이 참가했을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어. 바로 이 기념탑 건립으로 인해 이영춘, 김해강, 신석정 등 쟁쟁한 분들이 탔던 ‘전북문화상’을 받는 영광도 누렸다네.”

7) 『최현식과 동학농민혁명사 연구』, 121쪽.

8) 『황톳재의 함성』, 178쪽, 이치백 님 대담 녹취록에서 “제폭구민, 보국안민 기념탑 글씨가 강암선생 글씨고 못쓰신다 하시는 것을 내가 역할해서 받아다 썼고<이하 하략>”라고 하여 강암 송성룡의 글씨임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 '갑오동학혁명의 노래'도 제정기로 하고 노래 글은 시인 신석정(辛夕汀) 선생, 작곡은 서울대 음악대학장 김성태(金聖泰) 교수에게 위촉했다. 이 노래는 기념탑 제막식 나흘 전인 1963년 9월 29일자 전북일보에 발표되었다.

〈갑오동학혁명의 노래〉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징을 올려라 죽창도 들었다
이젠 앞으로 앞으로 나가자
놀려 살던 농민들이 외치던 소리
우리들의 가슴에 어련히 탄다
갑오동학혁명의 뜨거운 불길
받들고 나아가자 겨레의 햇불
오늘도 내일도 더운 피 되어
태양과 더불어 길이 빛내자

기념탑 건립사업은 순조로이 진행되어 마침내 1963년 10월 3일, 황토현 현지에서 제막식을 가졌다. 기념탑 제막은 이날 식전에 임석했던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과 이병기 회장이 나란히 서서 했다. 당시의 제막식 과정을 이치백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63년 10월 3일 개천절 날 황토현에 5만 명이 모였어. 오후 3시에 박정희 의장이 내려왔고 군정 때니 선거직전이지. 박정희 의장 축사에서 우리 아버지도 동학군이었다 이거여. 관군에 붙들렸으나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풀려나서 내가 태어나 오늘 여러분 앞에 섰다고, 대구 사람이고 천도교가 경주에서 시작했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 세 번을 말했어. 어떻게를 ...”

이상의 기념탑 건립과정을 종합해보면 처음 제안자는 역사학자 김상기였다. 김상기가 먼저 전북일보 기자인 이치백에게 만남을 요청하자

이치백은 서울 동승로에 있는 김상기의 숙소를 찾아가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상기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을 펼치고자하는데 전북일보가 나서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이때 김상기가 말한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이란 기념탑 건립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전주로 내려온 이치백이 사석에서 우연히 만난 김인 전북도지사에게 “발상지인 정읍에 기념말뚝하나 박자”는 제안을 하였다. 김인지사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자 기념탑 건립사업은 이내 급물살을 타 다음날 전북농협도지부장 황의선, 정읍군수 유범수, 전라북도 공보실장 문필병이 이치백의 전북일보사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여기서 이들은 기념탑 건립사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고 마침내 1963년 8월 25일 전주에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후 건립추진위원회가 전북일보에 기념탑 건립 취지 기사와 더불어 성금 모금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자 이에 공감하는 뜻있는 사람들이 성금을 기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사업의 결실이 맺어져 황도현에 1963년 10월 3일 1894년의 농민봉기를 기념하기 위하여 18.94m의 높이로 기념탑이 세워졌고 제막식을 개최하였다.

한편 기념탑 제막 전, 박정희의 대통령 출마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활동하던 박두선⁹⁾은 전북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념탑 건립 사업에 대한 정보를 박정희에게 전하며 이 사업에 동참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호남 표를 의식한 박정희는 약간의 건립성금을 기부하고 개막식 행사에도 참석하여 기념사까지 하였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민간 중심으로 추진된 기념탑 건립사업의 전말을 잘 모르는 몇몇 인사들이 박정희가 건립성금의 일부를 기부하고 개막식 행사에도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였다는 사실

9) 박두선은 일본 도쿄항공대학교와 국방대학원을 나와 1962년 공군 준장으로 예편한 뒤 국방부 인사국장을 거쳐 한국광업제련공사 사장을 지낸 뒤 1967년 민주공화당 소속으로 국회에 진출했다.

만 가지고 기념탑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 추진되고 건립되었다는 추측성 언급을 마치 사실인냥 단언하거나 심지어 언론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엄혹한 시절 모두가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했던 선배들과 성금을 낸 분들의 순수한 열정을 모독하는 발언임을 이 기회를 통해 밝히며 이와 같은 일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물론 “박정희 정권이 동학농민혁명을 반란에서 혁명으로 개념화하고 일정한 기념시설을 통해 표상화하고자 한 것은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동학혁명에서 혁명의 정통성을 찾고자 한 것이다.”¹⁰⁾라고 지적한 김양식의 말처럼 박정희 정권은 불법적인 5·16 군사쿠데타를 동학농민혁명과 동일시하여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이 기념탑의 건립으로 이때까지만 해도 ‘동학란’으로 불려진 이 사건이 ‘혁명’으로 격상되는 계기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묻혀있던 동학 관련 자료가 새롭게 발굴되기 시작하였다.¹¹⁾ 또 이를 통해 전국 각 동학농민혁명전적지에 동학농민군 후손이나 천도교 측에서 적극 나서 기념탑 등 조형물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10) 김양식, 2022,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원의 의미와 미래비전」, 『동학농민혁명 미래의 중심이 되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31쪽.

11) 최현식의 앞의 책, 124쪽에 “당시 5·16 쿠데타세력은 자기들의 행동을 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미화시키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바로 그런 그들의 생각과 동학이 일정하게 접점을 찾아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학란을 동학혁명으로 격상시킨 겁니다.”라고 하였다.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갑오동학혁명기념탑(우측 부조)



갑오동학혁명기념탑(좌측 비문)



갑오동학혁명기념탑(좌측 뒷면)



박정희 축사(사진: 국가기록원 제공) 기념탑 앞 박정희(사진: 국가기록원 제공)



〈그림 1〉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과 제막식

II. 갑오동학기념사업회 해체와 ‘전봉준장군 유적정화사업’의 시작 (2단계 사업)

1. 갑오동학기념사업회 해체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이라는 목적이 달성된 이후 더 이상 추진되는 사업이 없었다. 당시 정음에서 문학청년이었던 이상비(원광대 교수)가 몇몇 젊은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제를 추진하려다가 동력이 약해 그만두었다. 1년 후 전공우가 최현식을 찾아와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 조직을 제안하였다.¹²⁾ 마침내 1967년 12월 전북지역의 뜻있는 분들 30여 명이 참여하여 기념사업회를 발족하였고 전용필이 초대회장에 선임되었다. 기념사업회의 건립 목적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였기에 제1회 ‘갑오동학혁명기념문화제(이하 기념문화제)’를 정음농고 교정과 황토현 등에서 1968년 4월 25일~26일 양일간에 걸쳐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그러던 중 서울의 봄이라 불렀던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 일주일 전인 5월 11일 ‘제13회 갑오동학혁명기념문화제’는 또 하나의 작은 역사를 남기게 된다. 매년 ‘기념문화제’ 행사 시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에

12) 『황토재의 함성』, 183 쪽, 한명수님 대담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 담겨있다. “그 뒤 더 발전적으로 할 줄 알았는데 황토현비만 건립하고는 그만이어서 2년 뒤에 황면주씨가 변호사할 때 단체를 하나 만들자고 했어. 처음에 이상비 씨가 배영중학교 앞에 살 때 김상성 씨 하고 얘기가 되어서 발기위원으로, 기념사업회 발기위원이 이상비, 김상성, 김순일 그리고 고인이 된 정음사진관 했던 김기동 씨, 오재근 씨(정음극장 전무) 등이 했어. 김상성 씨 집에서 만나다가 최초 모임을 정음사진관 2층에서 했어. 그 후 2차로 발기인에 들어온 사람이 최동문 씨 그리고 성중환 씨 1년 후에 신태근 씨, 성병문 씨 등을 66년도에 추가를 했고 고성주 씨도 2차 발기위원에 들어왔고 이때 기념행사를 정음여중 강당에서 간단히 했던 것 같아. 그 뒤 67년에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초청장을 발송했으나 이때껏 참석자는 없었다.

그러나 그 해 4월 당시 야당 정치지도자인 김대중이 참석의사를 밝혀오자 기념사업회 이사회에서는 야당 대표인 김대중(전 대통령)의 초청문제를 놓고 찬반논란이 벌어졌다. 끝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이희우 회장에게 최종결정을 위임하였다. 이희우 회장은 김대중을 초청하기로 결심하고 정읍 우체국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전주로 가서 초청장을 발송하였다.

비록 초청장을 보냈다 하지만 김대중이 실제로 정읍을 방문할지는 미지수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김대중 측으로부터 기념문화제에 참석하겠다는 답신이 왔다. 1980년 5월 10일 언론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사 참석이 발표되자 정읍경찰서, 안기부, 보안대에서 이희우 회장과 최현식 등을 불러 초청철회 압력을 가하였다.

이러한 압력에 완강히 저항하자 결국 참석은 허락하되 축사를 5분 이내로 제한 할 것, 정치 구호 담긴 현수막 철거 등의 몇 가지 타협안을 내놓았다. 마침내 행사 날이 다가왔고 1980년 5월 10일에는 1974년 호남고속도로가 개통된 이래 가장 차가 밀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정읍으로 밀려들었다.

그날 저녁 6시경 이희우 회장과 최현식은 김대중이 묵고 있는 내장산 명동장 여관을 찾아갔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김대중에게 내일 행사장에 현수막을 걸지 않도록 해줄 것과 축사를 10분 이내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침내 1980년 5월 11일 제13회 기념문화제가 정읍농고에서 개최되었는데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정읍농고 운동장에는 정치 구호가 담긴 수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최현식과 기념사업회 임원들은 일일이 현수막을 떼어냈다. 이는 이후의 파장을 예상하고 이를 최소화하려는 고심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김대중의 당시 연설은 보안대장이 기념사업회 측에 전하기를 18분 동안 진행되었다고 하였다.¹³⁾ 김대중은 동학농민혁명의 현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동학혁명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위대한 혁명입니다. 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것은 3.1운동과 4.19혁명이고, 현재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 정신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의 발언은 서울의 봄을 구가하던 민중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대변한 것으로서, 과거 박정희 정권의 역사인식에 대한 거부였고 신 군부의 집권행보에 맞선 것이었다. 결국 신군부세력은 이 일을 구실삼아 기념사업회 이희우 회장과 당시 정읍군수, 내무과장 등을 구속하였고 일주일 후인 5월 18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연행당하고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마침내 광주에서는 시민항쟁이 전개되었으나 신군부에 의해 잔혹하게 진압되었으며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는 암흑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기념제 행사가 끝나고 5월 말부터 관계기관의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해 12월 기념사업회 문제로 논의하자고 정읍군수실로 기념사업회 임원진을 불렀다. 이 자리에서 박종록 신임 정읍경찰서장은 상부의 지시라며 기념사업회 해체를 요구하였다.

이에 기념사업회 측은 1970년 초반부터 황토현에 기념관의 건립, 추모비와 동상의 제막, 동학군들의 영혼을 모시기 위한 사당 건립 등을 계획했다며 이 사업 추진을 내세워 해체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황토현 사업을 관(官)에서 맡아서 추진하겠다는 회유와 압박으로 결국 1980년 12월 1일, 기념사업회는 강압에 못 이겨 해체되고 말았다.

13) 최현식의 앞의 책, 212쪽.



1980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대중



기념행사에 참석한 인파



기념사를 하고 있는 이회우



최현식과 기념사업회 임원들

〈그림 2〉 1980년 제13회 갑오동학혁명기념문화제

2. ‘전봉준장군 유적정화사업’의 시작

기념사업회 해체 이후 기념문화제와 황토현 기념관 건립사업은 관변 사업으로 이관되었고 황토현 기념관은 국민을 짓밟고 올라선 전두환의 손으로 건립되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펼쳐졌다. 그러나 이 또한 기념사업회 관계자 분들의 기본구상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념사업회를 해체시킨 신 군부는 민간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억압하는 한편 취약한 정권의 정통성을 동학농민혁명과 연계함과 동시에 지역 민심 수습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에 나섰다. 1980년 ‘전봉준 장군 유적 정화 기본계획수립’ 사업을 통해 기념탑 부근을 넘어 처음으로 전적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당시 사업은 남측의 넓

은 대지를 기준으로 대규모 사업을 예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1982-83년도에 ‘전봉준선생 유적정비 1차 공사’사업이 진행되었다.¹⁴⁾

황토현 전적지는 1976년 4월 3일 전라북도의 기념물 제34호로 지정되었다가, 1981년 12월 10일 대한민국의 사적 제295호로 승격, 지정되었고, 2011년 7월 28일 고시로 현재의 명칭인 정읍 황토현 전적으로 변경되었다.

1981년 정읍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명칭을 정읍에서 정주(井州)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정주시와 정읍군으로 행정구역이 이원화되는 바람에 기념문화제를 어디에서 주관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정읍군 덕천면에 황토현과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있다는 이유로 정읍군에서 승계하였다.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이끌어 왔던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황토현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라고 정읍군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1981년 2월, 전두환은 영광원자력발전소 기공식에 참석한 뒤 정읍에 들러 당시 정읍군수실에서 지역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자리에서 “전봉준은 우리 전(全)씨이기도 하며 위대한 군인이었다.”라며 이른바 ‘전봉준 장군 유적지 성역화 사업’의 연차적 추진을 지시했다. 이러한 지시에 의해 황토현 동남쪽 기슭에 황토현기념관이 1983년 12월부터 건립되기 시작하여 1985년 마침내 완공되었다.(부지 63필지(150,597.7㎡)에 연면적 6,066.56㎡)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황토현기념관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시설은 제세문(濟世門)이다. 제세문은 ‘세상을 구제하는 문’이라는 뜻으로 황토현 전적 사역 진입을 위한 외삼문이며, 외부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기념관 입구이다. 3칸 형태의 평삼문으로 건립되어 있고, 지붕은 맞배지붕 형태이다

14)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읍시청 문화행정국 동학문화재과, 2024, 『정읍 황토현 전적 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 170쪽.



제세문(濟世門)



제세문 원경

〈그림 3〉 황토현 기념관, 제세문

황토현 구 기념관의 제세문(濟世門)을 들어서면 좌측에 ‘황토현전적지 정화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이 비는 사다리꼴 모양 위에 검정색 원형 석판을 전면과 후면에 덧대고, 음각으로 비문의 내용을 새겨 넣는 방식으로 건립되었는데 그 뒷면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이 새겨져 있다.

“황토현전적지 정화기념비문(黃土峴戰迹地 淨化記念碑文)

濟世安民(제세안민)과 倭夷殲滅(왜이섬멸)을 旗幟(기치)로 倡義(창의)한 甲午東學農民蜂起(갑오동학농민봉기)는 反封建(반봉건) 反侵略(반침략)의 農民戰爭(농민전쟁)으로서 韓國近代史(한국근대사)에서 찬연히 빛난다. 위대한 先覺者(선지자) 全瑋準(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農民軍(농민군)은, 東學(동학)의 조직과 힘을 통하여, 王朝末(왕조말)의 구조적인 矛盾(모순)을 개혁하고, 外勢(외세)를 驅逐(구축)하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높은 理想(이상)을 具顯(구현)하기 위하여 封建社會(봉건사회)의 解體(해체)와 民族(민족)의 力量(역량)을 結集(결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겨레와 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자신을 불사른 농민들의 自主精神(자주정신)은, 近代的(근대적)인 民族意識(민족의식)을 胎動(태동)시켜 義兵戰爭(의병전쟁)에로 그 命脈(명맥)이 닿았고, 뒷날 三一運動(삼일운동)으로 이어지는 抗日救國鬪爭(항일구국투쟁)의 큰 줄기를 이루었으니, 그 정신은 앞으로도 民族運動(민족운동)의 熾火(희화)로서 우리 가슴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民族正氣(민족정기)를 드높인 先烈(열사)들의 거룩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全斗煥大統領(전두환대통령)의 諭示(유시)로 큰 싸움터였던 이곳을 淨化(정화)하고 碑(비)를 세운다.”

1987년 10월 1일

國史編纂委員會(국사편찬위원회)

委員長(위원장) 朴永錫(박영석) 지음

書藝家(서예가) 權甲石(권갑석) 씬

이 비와 유사한 양식이 강화도와 제주도 삼별초항몽유적비에서 발견된다. 이 비문은 여러 차례 수난을 겪기도 하였다. 당사객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전두환대통령'과 '정화'라는 글귀에 돌로 쪼아놓거나 긁어놓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새롭게 보수하였고 결국은 그마저 둔기로 쳐서 여러 조각을 내 버렸다. 그리고 근처 하수구 빗물받이로 방치되어 있다가 보존가치가 있다는 여론에 의해 현재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황토현전적지정화기념비(전면)



황토현전적지정화기념비(후면)



금힌 후면 설명문



파손된 후면 설명문

〈그림 4〉 황토현기념관, 황토현전적지정화기념비

제세문을 지나면 내삼문인 보국문(輔國門)이 나온다. 보국문은 제세문과 마찬가지로 3칸 형태의 평삼문으로 건립되어 있고, 지붕은 맞배지붕 형태이다. 그리고 보국문을 들어서면 우측에 황토현기념관(구 기념관, 137㎡)이 나온다. 황토현기념관은 1983년 유적 정화사업 당시 첫 번째로 지어진 건물이다. 기념관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조, 지붕은 팔작지붕 형태에 시멘트 기와를 얹은 형태로 건립되어 있다. 형상은 전각과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단청으로 외부가 치장되어 있다.



기념관



전두환 기념식수

〈그림 5〉 황토현기념관과 전두환 기념식수

시설물 내부에는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기록화 4점’이 주요 전시물로 있다. 기록화를 그린 이의주 화백은 1926년 전북 전주 태생으로 70년대 이후 부산에 뿌리를 내리고 미술교육과 창작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서양화가로 남원 만인의충, 부산 충렬사의 역사기록화를 그렸다. 부산대, 동아대교수를 역임한 그는 국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을 지냈고 국전 대통령상, 늘원문화상, 국민훈장 석류장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기념관 내 역사기록화(3월 농민봉기)



기념관 내 역사기록화(집강소)



기념관 내 역사기록화(척왜 9월 봉기)



우금치전투(일본군과의 격전)

〈그림 6〉 황토현기념관 내부 그림

1985년 11월 15일 호남선 복선철도화가 완공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정읍에 온 전두환은 정읍군청을 순시하여 황토현에 강당과 동상, 사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을 듣고 다시 제2차 사업을 약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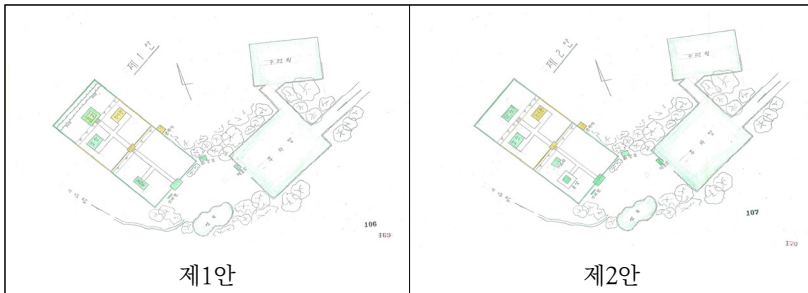
국가기록원 자료에 의하면 1985년 11월 29일 청와대 회의실에서 ‘전봉준장군 유적 정비 관계관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는 청와대 비서관, 내무부와 문교부 국장, 국사편찬위 편사실장, 문공부 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회의 내용은 주로 유적 정비에 따른 자원 마련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문공부와 전북도가 70 대 30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청와대 비서관 오모씨는 “각하지시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말씀이 일본은 없던 것도 만드는데 우리는 있는 것을 잘 조성하여야 할 것이니, 이 유적지는 문공부가 주관하고 다른 부서가 협조하여 잘 정비하도록 하

고, 이 유적지는 90년 전 항일전쟁의 차원에서 보존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셨다.”고 언급하였다.

또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김대중의 저서를 내보이며 “전봉준 장군과 동학란에 대한 역사적 정의가 선결문제로 김대중 등 반체제 사람들이 민중선동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였다. 그리하여 강당과 동상 건립이 시작되어 1987년 완공을 보게 되었다.

원래 기념사업회 쪽에서는 ‘전봉준 선생 동상’ 자리에 사당을 지으려고 하였다. 외삼문과 내삼문을 거쳐 중앙에 사우가 들어서는 것이 전통적인 사당의 모습이다. 정부는 제1안으로 중앙에 ‘전봉준 선생 동상’을 설치할 계획을, 그리고 제2안으로 사당을 건립할 배치도를 놓고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 제1안을 선택하였다. 황토현 기념사업이 ‘전봉준장군 유적정화사업’이란 이름 그대로 전봉준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¹⁵⁾



〈그림 7〉 황토현기념관 설계도면(사진: 국가기록원 제공)

15) 최현식의 앞에 책, 225쪽. “원래 기념사업회에서는 전봉준을 포함해 손화중과 김개남의 3인상을 제작할 계획이었지만 전봉준 동상만이 제작된 것도 그랬고”라고 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당시 중앙일보(1987.12.10.)는 「전봉준장군 유적 정화 마무리」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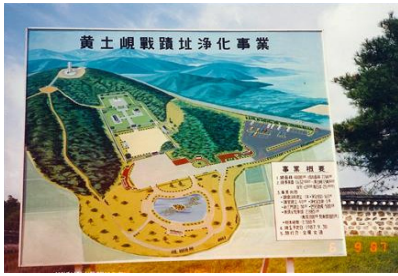
“민족정신 교육도장이 될 녹두장군 전봉준 장군의 유적 정비사업이 마무리되어 9일 준공식을 갖고 일반인에 공개됐다. 동학접주 전봉준 장군은 조선조 고종31년(1894년) 고부군수 조병갑의 폭정에 항거, 「제폭구민」과 「척양척왜」를 외치며 동학교도와 농민들을 이끌고 민중혁명을 일으켰다.

20만 이상의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희생된 채 실패로 끝난 이 혁명은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민중운동으로 꼽히지만 조선조 이래 반란으로 규정, 음지에 묻혀 있다가 60년대 들어 「동학혁명운동」으로 정의, 햇빛을 보게 되었다.

문공부와 전북도는 86년 총 사업비 62억4천2백만 원을 들여 전봉준 장군 유적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착수했다. 주요사업은 7천7백14평의 전적지 경역 내 기념관 맞은편에 한식 맞배지붕의 강당(40평)을 짓고 전봉준 장군 영정을 봉안했다. 기념관과 강당 뒤에 높이 2.9m의 좌대에 몸체높이 2.7m의 전봉준 장군 동상을 세우고 동상 좌우편에 동학군의 활동 벽화와 관련기록을 새겨 놓았다.

황토현 전적지 입구에 2천8백85평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정문인 외삼문을 신설했으며 그 앞에 1천1백 평의 광장을 두어 공간을 확보하고 광장 앞에 5백 평 규모의 연지와 산책로를 닦아 놓았다.”

16) [출처: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80214>



황토현전적지정화사업 조감도



황토현전적지정화사업 계획도



황토현기념관 개막식에 참가한 최현식



전봉준선생 동상

〈그림 8〉 황토현전적지 개막식

1987년에 건립된 '제민당(濟民堂, 135㎡)'은 기념관 맞은편에 있다. 제민당은 계획상 강당의 용도로 지어졌으며, 주요 구조는 목구조이다. 지붕은 맞배지붕에 시멘트 기와를 사용하였고 측면부에 풍판을 덧대 상부 목구조를 보호하고 있는 형식으로 조성하였다.

내부 오른쪽 벽면에는 전봉준 영정(全捧準 影幀)이 걸려 있으며 나머지 벽면에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에 대한 사진들이 액자 형태로 약 20여 점이 걸려있다. 전봉준 영정은 '인물화의 대가'로 평가받았던 정형모(鄭炯謨) 화백의 작품이다. 정형모는 1935년 강릉에서 태어나 수원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한산도 충무사에 봉안된 이순신 장군 초상화(1978년 작)와 권율 장군 영정 등을 그렸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國葬) 영결식 때 사용된 대형(215×151cm) 영정을 그렸으며 역대 대

통령 초상화 중 전두환,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의 초상화도 그렸다.

제민당의 전봉준 영정은 양반만이 착용한다는 정자관(程子冠)을 쓰고 있어서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근엄한 표정을 한 양반 유생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제민당은 현재 ‘규장각소장자료전시관’으로 병행하여 동학의 주요 1차 사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기념관은 정읍시에서 운영해오다 1998년 10월 26일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아 전라북도가 중심이 되어 새 기념관 조성과 함께 관리·운영을 해왔다.



제민당(濟民堂)



전봉준 영정

〈그림 9〉 황토현기념관, 제민당과 전봉준 영정

한편, 1988년, 최현식은 뜻있는 사람들을 모아 ‘사우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황토현에 동학농민군 선열을 모실 사우(祠宇)건립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전라북도와 김원기 국회의원 등을 통해 재원 마련을 도모하였다. 마침내 김원기 의원의 노력으로 2억 원이라는 재정이 확보되어 1992년에 황토현 기념관에 ‘구민사(救民祠, 57㎡)’라는 사우가 건립되었다.¹⁷⁾

구민사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양식으로 내부에는 동학농

17) 『황토제의 함성』, 166쪽.

민혁명 참여자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위패를 모시기 위한 위패 봉안대들이 정면 및 좌우 측면에 함께 배치되어 있다. 위패 전면에는 제향 및 제례를 진행할 수 있는 분향대와 초 등이 놓여 있다. 위패는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에서 제작·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378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갑오동학선열사우건립추진위원회 결성식



구민사(救民祠)

〈그림 10〉 구민사

이때 정읍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문화제를 민간주도 시·군 합동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는 1991년 5월 9일 정읍지역 내 민주단체(정읍농민회, 대우전자부품 노조, 정읍아산병원 노조, 책사랑, 황토마루, 전교조 정주·정읍지부, 한겨레신문 정읍지국)가 중심이 되었다.

이들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강연회를 개최하고 민간주도 시·군 합동 기념문화제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의 시민 서명 작업을 전개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4년 4월 8일, 시·군 통합 정읍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구성되어 1995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주도로 동학농민혁명기념문화제가 추진되고 있다.

III.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3단계 사업)

1995년 6월 3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대중이 정읍을 다시 방문하였다. 당시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회장인 최현식과 함께 황토현 구민사에서 참배를 마치고 기념식수를 하였다. 15년 만에 황토현에 방문한 김대중은 언제 이런 사업을 했냐며 새롭게 단장한 시설에 놀라했다. 이 자리에서 최현식은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이 하나 있다며 황토현에 수련원을 건립하고자 하니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였다. 김대중은 당연히 정읍에 지어야 한다며 염려마시라고 약속하였다.¹⁸⁾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이 당선되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이후 1998년 8월 25일 대통령초도방문이 이뤄졌고 이 자리에서 동학기념관건립 지원을 약속하였다.

1998년부터 추진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설립사업은 문체부의 관심사업으로 기본계획이 추진되었다. 1999년 행정자치부와 문광부에서 박물관 사업으로 국비가 30% 반영되어 총243억 원(문광부 117억, 특별교부세 90억, 도비 36억)의 공사비가 투입되어 2004년까지 1단계 사업이 진행되었다.

마침내 2004년 3월 5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고, 전북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에 10만평 부지에 건물 1,871평(전시관 2개 층 1,155, 교육관, 강당 등 467) 규모의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건립되어 2004년 5월 11일에 개관되었다.¹⁹⁾

18) 『황토재의 함성』, 173 쪽. 그러나 1995년 지방선거는 6월 30일이 아닌 6월 27일에 있었다.

19) 지수걸, 2015, 「국가의 역사독점과 민중기억의 유실」, 『역사비평』 110호, 역사비평사, 179쪽. “특별법 제정 이후 동학농민전쟁과 관련된 여러 전적지들이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었고, 동시에 여러 지역에 기념시설이나 기념물들이 만들어졌다. 현재까지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곳은 황토현 전투 사적지(295호), 우금티 전투 사적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크게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동학농민혁명교육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3,816.56㎡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현재 9종의 448점이 전시되고 있다. 또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어린이전시실, 녹두학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설전시실은 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비롯한 다양한 유물, 사진·자료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과 의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기획전시실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다양한 유물과 자료, 예술품 등을 전시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매년 2회 주제별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린이전시실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전시공간으로 동학농민혁명 관련 대형 그림들과 다양한 전달매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쉬운 이해와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였다. 녹두학당은 다목적 공간으로 어린이 대상 교육체험이 이루어지거나, 관람객 휴게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중 동학농민혁명교육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1,543.76㎡ 규모로 농민의 생활터전인 초가지붕을 입면형태로 응용하여 건립되었다. 현재 283석의 대강의실, 중강의실, 소강의실(4개 실), 영사실로 구성되어 동학농민혁명 관련 각종 교육 행사 및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한편, 특별법 제정 이후 대정부 창구의 일원화를 위해 전국 16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대표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2004년 9월 20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를 거쳐 같은 해 11월 25일 문화관광부로부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부지의 기존시설에 대한 운영은 문화체

(387호), 장성 황룡 전투 사적지(406호), 장흥 석대들 전투 사적지(498호) 등이며, 기념시설로는 2004년에 개관된 황토현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등이 대표적이다.”

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이 맡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2009년까지 전라북도에서 관리사무소를 두고 운영해왔으나 2010년 12월에 기념재단은 전라북도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전라북도로부터 기념관을 수탁 받아 2011년 1월부터 운영(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2조)하고 있다.

〈표 1〉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연혁²⁰⁾

일시	내용	일시	내용
1963.10.03	갑오동학혁명기념탑 건립	2004.03.0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1981.12.10	‘황토현전적지’ 사적 제295호 지정	2004.05.11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개관
1983.12.31	‘황토현기념관’ 건립	2011.01.0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라북도로부터 기념관 수탁 운영
1984.10.15	‘보국문’ 건립	2012.03.23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
1987.06.30	1차 정비사업 완료	2013.08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
1991.12.17	2차 정비사업 완료	2014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설계공모
1995.01.01	관리사무소 명칭을 ‘정읍시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로 개칭	2016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종결보고서 작성
2002.12.25	관리사무소 명칭을 ‘정읍시 동학선양사업소’로 개칭	2022.05.11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관
2003.03.29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관리사업소’ 개소	2022.06.25	전봉준장군동상 철거, 불멸, 바람길 동학농민군 군상 건립

20) 김양식의 앞의 글 34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보충하여 표로 재구성함.



김대중 기념식수 표식



기념식수를 마치고 나오는 김대중1



기념식수를 마치고 나오는 김대중2



동학농민혁명 교육관과 전시관

〈그림 11〉 김대중 기념식수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IV.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4단계 사업)

황토현전적지는 1894년 동학농민군이 최초로 관군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역사적인 장소다. 1981년 12월 사적 제295호로 지정됐다. 이 일대에 2014년부터 모두 3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0만1329㎡ 규모로 기념공원을 조성됐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은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참여 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라북도 정읍시를 중심으로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황토현전적지 일대에 유적지 정비와 시설

확장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설립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의 내용은 전라북도 정읍시 황토현전적지 인근 대지면적 336,992㎡에 유물관, 숙박시설, 묘역, 유물보관소, 연구소, 체험관, 야외광장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²¹⁾

2014년 기념공원 사업 추진에 앞서 2013년도에 기획재정부가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설계공모(2014)를 거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종결 보고서(2016)가 작성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내에는 전국 90곳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상징하는 아흔 개의 울림의 기둥(2022)을 비롯하여, 추모관(2022), 박물관(2022), 연구동(2022), 연수동(2022), 야영장 및 캠핑장(2022), 카페테리아(2022) 등의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사진:정읍황토현전적
종합정비계획(정읍시 제공)

〈그림 12〉 황토현기념관 시설 건립년도 표기와 기념공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시기에 정읍시 주관으로 ‘불멸, 바람길’이라는 제목의 동학농민군 군상이 건립되었다. 이미 이

21)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3, 『2013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장소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사정권 시절인 1987년 10월에 세워진 ‘전봉준선생 동상’이 있었다. 이 동상은 높은 화강암 받침대 위에 짙은 청동색으로 높이 6.4m, 좌대 3.7m, 형상 3.7m 크기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인 김경승(1915~1992)이 제작하였다.

‘전봉준선생 동상’의 몸체는 격문을 들고 투쟁에 앞장선 농민군 지도자이지만 머리는 죄수처럼 맨상투로 만들다 보니 몸체와 머리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경의 부조에 새겨진 동학농민군 모습 어디에도 목숨 걸고 싸움터로 나가는 비장한 농민군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논란이 많은 작품이란 혹평을 받았다.

특히 반일투쟁에 앞장선 동학농민군 지도자를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조각가가 제작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에 ‘전봉준선생 동상’을 철거하고 새로운 조형물 제작을 통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²²⁾

이에 정읍시는 기존의 ‘전봉준선생 동상’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국민의 뜻을 모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높일 수 있는 동상 형태의 조형물 ‘불멸, 바람길’이란 제목의 새 동상을 2022년 6월 25일 건립하였다.²³⁾

22) 박준성, 2009, 「1894년 농민전쟁 기념 조형물의 추이와 과제」, 『농민전쟁 115주년 기념 학술대회 농민전쟁 새로운 시각과 전망』, 역사학연구소, 102쪽. “김경승에게는 엄혹한 우리 근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시대의 모순과 과제를 해결하려 온 몸을 던져본 삶과 사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가까이 지냈던 혼적도 눈에 띄지 않는다. 그에게는 1894년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웠던 농민군의 투쟁의지, 농민전쟁의 의미, 전봉준 장군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형상화 할 수 있는 실천과 경험이 없었다. 전두환 정권의 권력과 김경승의 권위는 쉽게 손잡을 수 있었으나, 그들에 의해 제작된 동상에는 역사는 사라지고 그들을 닮은 형체만 남아 있다.” 라고 평가하였다.

23) 1차 공모에서 5명의 조각가가 선정되었으며, 2차로 5명이 모형작품을 제출받아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평가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임영선(가천대 교수)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임영선 교수의 작품인 이 조형물은 구한말 고부현에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의 행렬 이미지를 부조(평면 위에 높낮이를 만들어 표현)·투조(평면상에 불필요한 여백을 뚫어 표현)·환조(3차원의 입체 표현)의 기법을 활용해



불멸, 바람길. 전면 드론사진

불멸, 바람길. 후면 드론사진

〈그림 13〉 불멸, 바람길 작품제안서와 드론 사진

맺음말

황토현 전적과 주변 공간의 역사적 상징 장소로서 의의

1894년 3월 26일,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의 동학농민군이 백산에 집결했다는 소식을 들은 전라감사 김문현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전라감영군과 보부상군 2,300여 명을 출동시켰다. 1894년 4월 6일 아

제작한 군상 조각이다. 사람인(人)의 형상으로 작품들을 배치해 동학의 인본주의 사상을 표현했다. 또 특정 인물을 강조해 높은 좌대 위에 설치하는 권위적·일방적 형식을 벗어나 행렬 선두에 선 전봉준 장군의 크기·위치를 농민군과 수평적으로 배치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갓을 쓰지 않고 들고 가는 전봉준 장군의 동상은 신분제의 차별을 없애고 불합리한 사회적 모순을 개혁하려는 혁명가 의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침, 동학농민군이 도교산(道橋山, 현재 도계리 도학초등학교 뒷산)에 집결하자 백산으로 출동했던 전라감영군은 그 뒤를 추격하였다.

동학농민군이 현재 정읍시 덕천면 우덕리 용전마을과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사이에 있는 봉우리인 사시봉(謝矢峯 또는 死屍峯)에 진을 치자 뒤를 쫓던 전라감영군은 1894년 4월 6일 해질 무렵, 황토현에 이르러 진을 치고 머물게 되었다. 동학농민군 측은 이날 밤, 관군의 야습을 예측하여 병력을 주위 요처에 잠복시켜 놓고 본진을 비워 두었다.

예상대로 관군과 보부상 연합부대는 어둠을 틈타 동학군 진영을 습격해 왔다. 이때 관군 측에서는 전라중군 김달관과 초관 이재섭이 공을 세우고자 함께 도모하여 앞을 다투어 나가 공격하였지만 매복했던 동학농민군들이 사방에서 공격해 왔다.

동학농민군의 역습에 관군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으며 살아남은 병사들은 본진으로 도망쳤으나 그들 또한 전날 백산에서 불안으로 이동했던 동학농민군의 일부 부대가 매복해 있다가 공격하여 전멸을 시키다시피 하였다. 이어 동학농민군들은 그 여세를 몰아 황토현의 관군 본진을 급습하였다.

우영관(右領官) 이경호(李景鎬)는 병사를 이끌고 혼자서 진을 지켜 가슴에 총을 맞고 얼굴에 창을 찔려 사망하였으며 서기 이은승과 담양의 수성별장 국인묵도 함께 사망하였다. 태인의 전 감역인 유병직은 이미 행부보상(行負樛商)의 반수(班首)였는데, 여러 상인들을 통솔하여 스스로 영관이 된 후 군대의 뒷전에 있다가 창과 칼에 찔려 사망하였다. 보부상(樛負商) 도반수(都班首)인 송병호 등 보부상들은 변변찮은 무기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였다. 탄약 수송 임무를 담당하던 신영대관 이재한과 유판군은 도망을 쳤고 교장 백찬경 과 육용규 등도 도망하여 관군과 보부상 연합군은 크게 참패하였다.

한편 전라도 태인현 고현내면(古縣內面)에서는 유생 김기술을 중심으로 한 100여 명이 민보군을 조직하여 태인 현감 홍면주를 만나 무기를 제공받아 황토현으로 출전하였으나 새벽녘에 동학농민군의 기습을 받

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치고 말았다.

1894년 4월 7일, 황토현 전투의 승리로 인해 동학농민군의 사기가 크게 높아졌으며, 관망하고 있던 각 지역의 백성들이 자신감을 얻고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하게 되어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은 치밀한 계획과 조직으로 전개된 전국적인 항쟁이었다. 이렇듯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인 민중항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동학사상과 조직망, 그리고 지도부의 사전 계획과 준비 등의 다양한 요소가 작용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반 대중이 용기를 내어 항쟁의 대열에 직접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포고문이나 격문보다도 황토현 전투의 승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 역사 속에서 민중들이 정부군을 상대로 해서 이토록 큰 승리를 거둔 적이 있는가? 고부농민봉기 이후 동학농민군과 관군이 맞붙은 최초의 전투이자 동학농민군이 대승을 거둔 황토현 전투야말로 역사성 면에서 살펴보면 혁명의 불길이 전국으로 확산되게 한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황토현’은 문자 그대로 황토로 이루어진 언덕이란 뜻이며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명이었지만 이 사건 이후로 ‘황토현’은 이곳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사에 있어서 황토현이 지니는 역사적 상징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황토현 전투는 전봉준의 동도대장 깃발 아래 김개남, 손화중, 최경선, 김덕명 등 각 지역 동학농민군 부대가 하나가 되어 관군과 직접 격돌하여 최초로 승리를 쟁취했다는 면에서 그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와 같이 황토현 전투가 지닌 역사성과 상징성으로 인해 1963년 10월 3일 전국 최초 동학 관련 조형물인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의 역사적 의미를 인식한 정부는 2004년 황토현 전승지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교육관을 건립하였고, 2010년 동학관련사업을 총괄하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설치하였다.

2022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이 완공되어 정읍 황토현은 1894

년 황토현 전투 이후 현재까지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9년 2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5월 11일)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1894년 4월 7일에 있었던 황토현 전승일(戰勝日)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으로 국가로부터 그 상징성을 공인받은 것으로 그 의미를 더한다.

투고일 : 2026. 3. 18. 심사완료일 : 2026. 4. 27. 게재확정일 : 2026. 4. 29.

참고문헌

<자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1,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전시용역 현장설명회 자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읍시청 문화행정국 동학문화재, 2024, 『정읍 황토현 전적 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
- 정읍시청 문화행정국 동학문화재과, 2023, 『정읍황토현전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자문회의』.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13, 『2013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단행본>

- (사)갑오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2001, 『항토재의 함성』, 천지문화사.
-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2006, 『최현식과 동학농민혁명사 연구』, 도서출판 갈채.

<논문>

- 김양식, 2022,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원의 의미와 미래비전」, 『동학농민혁명 미래의 중심이 되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31쪽.
- 박준성, 2009, 「1894년 농민전쟁 기념 조형물의 추이와 과제」, 『농민전쟁 115주년 기념 학술대회 농민전쟁 새로운 시각과 전망』, 역사학연구소, 102쪽.
- 지수걸, 2015, 「국가의 역사독점과 민중기억의 유실」, 『역사비평』 110호, 역사비평사, 179쪽.

<기타>

-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https://www.1894.or.kr>
- 중앙일보, 1987.1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80214>
- 이병재, 『전북중앙』, 2010. 04. 06. 기사, 「이치백 전북향토문화연구회장」.
- 이치백, 『새전북신문』, 2010. 05. 20. 기사, 「전북의 기억(37) 황토현 갑오동학혁명 기념탑 건립」.

〈Abstract〉

The Evolution of the Hwangtohyeon Battlefield Memorial Projects

Cho, Kwoang-hwan*

The Gabo Donghak Revolution Memorial Tower was erected on October 3, 1963, at the Hwangtohyun Battle Site, the location of the first battle and victory of the Donghak Peasant Army. Subsequently, the Hwangtohyun Battle Site was designated as Historic Site No. 295 on December 10, 1981. In 1983, a site of approximately 148,760 square meters (45,000 pyeong) adjacent to the battlefield was secured, and a memorial hall was constructed by the end of that year.

The site has since evolved into its current state through several key developments: the expansion and reopening of the current memorial hall, the relocation of the Memorial Foundation, the replacement of the General Jeon Bong-jun statu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Memorial Park. Through these changes, the Hwangtohyun Battle Site has firmly established itself as a true sanctuary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However, despite these 60 years of development, there has been a lack of comprehensive documentation detailing which entities were involved and what processes were followed to shape the site into its present form. Recognizing the need for such a record, I have compiled

* Director, Donghak history culture research institute

this article titled "Trends in the Commemorative Projects of the Hwangtohyun Battle Site."

Key word: Hwangtohyeon, Jeon Bong-jun, Donghak Peasant Revolution, Gabo Donghak Revolution Memorial Tower, Memorial Projects

정읍 황토현 전적의 사적 가치 증진을 위한 정비계획 연구*

백 진**

〈목 차〉

머리말

I. 정비계획 연구의 개요

II. 정비계획 연구의 배경

III. 황토현 전적의 현황 분석

IV. 유사 정비 사례 조사 및 기념 방안 검토

V. 사적 가치의 증진을 위한 정비 전략 검토 및 구상

VI. 종합정비계획안 및 대안 계획의 제안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정읍 황토현 전적의 역사적 의미와 장소적 가치를 재검토하고, 이를

* 이 논문은 『정읍 황토현전적 종합정비계획(2023)』 연구 수행결과와 일부이며, 『정읍 황토현 전적 위치 고증 및 기념 공간 재구성을 위한 학술 연구 (2025년 10월)』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바탕으로 전적 공간을 재구성하고 현 기념공원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정비계획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전적이 사당 중심의 성역화 방식으로 조성되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전투 공간을 단일 지점이 아닌 일대의 경험적 경관으로 확장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황 분석, 유사 사례 및 사적 정비 방식 검토를 통해 전적지와 기념공원, 주변 지형을 통합하는 계획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전적지 정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역사적 진정성과 현대적 활용을 결합한 기념공간 조성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 동학농민혁명, 황토현 전적, 사적 정비, 기념공간, 역사적 의미와 장소성

머리말

동학농민혁명의 대표적 전승지인 정읍 황토현 전적은 현재 장기간의 노후가 진행됨에 따라 현황이 악화되고 있어 관리와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사적의 보존관리와 정비는 해당 유산이 지닌 진정성과 역사성, 그리고 장소성의 가치를 유지하며 이를 후세에 전승하는 것을 대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대적 관점에서의 사적 정비는 단순히 물리적 원형을 화석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적 가치의 이해 증진 및 교육적 활용을 통해 창조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하는 이중적 목적을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읍 황토현 전적은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과의 전투에서 최초로 대승을 거둔 상징적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정비 방식은 전승의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¹⁾ 본 연구는 위의 현황 인식에 기반하여 황토현 전적의 물리적 공간을 창조적으로 개선하는 제안 연구를 정리한 것으로, 지난 2024년 6월

1) 본 계획과 연관된 연구용역 수행 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이에는 다양한 이견 역시 존재함을 확인했다.

정읍시 동학문화재과를 통해 발주된 『정읍 황토현 전적 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의 수행 결과물에 기반한다.²⁾

황토현 전적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소하고, 장소적 가치를 증진하며, 동시에 현대적 관점에서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황토현 전투의 역사에 대한 이해는 물론 현재 조성된 공간의 현황이 품고 있는 기억까지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는 황토현 전투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격전지의 의미를 국부적 지역이 아닌 일대의 풍경 전체로 확장할 수 있으며, 단지 지도 위의 위치를 넘어선 체험적 공간을 기념의 대상으로 제시할 수 있게 해준다. 더불어서 현재의 전적 자체가 가진 문제 역시 면밀하게 고찰되어야 한다. 현 전적은 1960-80년대 군사정권 시절의 ‘성역화 사업’, ‘유적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어 일종의 영웅적 인물들에 대한 기념공간으로 조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시 유적지 설계기법의 한계로 인하여 해당 공간은 일괄적으로 ‘유교식 사당’ 중심의 정적인 추모 공간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 구성 방식은 봉건 질서를 타파하려 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천도교 교리상으로도 부적절하다. 또한, 80년대 이후로도 해당 공간이 종합적 마스터플랜이 부재한 상태로 여러 차례·변형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전체 공간 구성의 혼란이 심화되고 관람이나 교육 등 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은 노후 공간이 되었다. 특히 황토현 전적 및 일대의 공간을 검토하여 보면, 1980년대에 건립

2) 본 연구에 기반한 계획안은 2023년 7월 14일 착수보고를 기점으로 황토현 전적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유사 사례들을 파악했으며, 이후 2023년 10월 18일과 2024년 1월 4일 두 차례의 보고회를 통해 정비계획을 보완하여 연차별 사업 계획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는 2024년 자문회의 의견 등을 종합한 보고서를 안을 완료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본고는 이러한 정비계획의 일부와 계획안 제안 부분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본 계획의 상세한 연구 결과는 <정읍 황토현 전적 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정읍시청을 통해 발간되었다. (발간번호 77-4691000-000003-01)

된 구 기념관, 제민당 등 주요 시설은 노후화로 인해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전시 내용 또한 신규 조성된 박물관과 중복되어 행정적·공간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황토현 전적의 장소적 특수성과 사적에 대한 정비기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사적 정비 계획 및 가안의 제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관습적인 사당 중심 성역화 방식에서 벗어나, 역사적 이해를 바탕으로 전승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현대적 기념 공간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다룬다. 서술 구조는 1,2장의 정비계획 연구의 개요와 역사적 배경을 서두로 하며, 3장은 현 황토현 전적의 현황을 파악하고, 4장은 본 계획의 전략 수립을 위한 유사 사례의 분석 및 기념 방안에 대해 다룬다. 최종적으로 5장과 6장은 구체적인 정비계획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적 관점의 구체적 사적 재정비 계획안을 제안함으로써 계획 연구의 완결성을 기하고자 한다.

I. 정비계획 연구의 개요

1. 계획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정읍 황토현 전적은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과 싸워 승리한 역사의 현장이지만 승리의 메시지를 부각하는 기념시설이 아닌 유교적 사당형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승에 대한 기념이라는 해당 전적지의 본래 의미가 퇴색, 변질되어 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최초·최대의 승리를 부각할 수 있는 전승지로서의 공간 구성이 요구되고 공감대를 얻어 정읍시를 통해 2023년 6월에서 7월간 본 저자와 연구팀에 의한 종합정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수행되었다.

현황 그대로 볼 때 황토현 전적은 다중의 사업들이 뒤엉킨 혼란한 공

간으로 파악된다. 1963년 갑오동학혁명기념탑, 1987년 정읍 황토현 전적, 2022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등 점진적으로 기념 공간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정읍시, 전라북도,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종합적인 공간계획 없이 필요에 따라 각각 시설을 설치하여 공간 구성의 부조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황을 전적 정비의 의의를 되살리는 현대적이며 창조적인 방식으로 재정비하는 계획이 요구되는 바이다. 특히, 현재 전적 및 인근의 공간들은 장기간의 노후를 겪었다. 콘크리트 한옥으로 조성된 기념관(1983년)과 이후 건설된 제민당(1987년) 등은 시설의 노후화가 이뤄지고 있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일대 조성된 조경영역의 경우 더욱 심각한데, 이는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용이 불편한 수준으로 노후가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전적 및 그 일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보존관리는 물론 황토현 전적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는 ‘사적의 가치 보존’과 ‘상징적 가치 표현’ 등을 고려한 종합정비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³⁾

2. 계획 연구의 범위

본 계획 연구의 범위는 시간적, 공간적, 내용적으로 한정할 수 있다.⁴⁾ 황토현 전투의 사건과 전적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간 범위로는 과업의 종료 시점인 2024년에서 10년 후인 2033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전적의 수준 높은 개선과 더불어 일대 기념공원 등 시설과의 연계를 위한 단계별 계획을 고려한 것으로 단기(2년)·중기(5년)·장기(10년 이상) 사업을 기준으로 했다. 이어서 공간적 범위로는 정읍 황토현 전적(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일대) 및 그

3) 김철주, 2013, 『사적보존관리와 정비의 이해』, 108쪽.

4) 위의 책, 108~109쪽.

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한정했다. 이는 황토현 전적 자체가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시에 일대가 이미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과 공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단지 전적의 담장 내부만을 계획영역으로 한정할 수 없음을 반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본 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동학농민혁명 최초 전승지 본연의 의의를 부각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을 포함한 주변 지역과의 유기적 연계 방안을 수립하는 등의 사적 가치를 증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사적지의 위치, 형태 및 성격에 관한 현황 자료를 정비했으며,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 정리했다. 특히 1960년대 기념탑 건립부터 1980년대 이후 제민당 및 구민사 조성, 2000년대 전시관 건립, 그리고 2020년대 기념공원 조성에 이르는 시기별 정비 경과를 심도 있게 조사함으로써, 과거 정비사업에서 도출된 공간 구성의 부조화와 기능적 중복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2000년대 이후 추진된 국내외 유사 사적지 및 복합문화시설의 정비 사례를 분석하여, 성공적인 운영 모델을 도출하고 본 계획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했다. 또한, 1987년 정비된 황토현 전적 내 기념관, 제민당, 구민사 등의 활용 가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 시설 노후화에 따른 중장기적 공간 활용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 과정에서 유교식 사당 형태의 구민사가 농민군의 혁명 정신과 배치된다는 학술적 논의를 바탕으로 존폐 여부를 검토했으며, 2022년 개관한 신규 추모관과의 기능적 중복을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 조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고지도, 문헌 자료, 항공 사진 등에 기반한 고증을 통해 황토현 전적의 원지형을 파악하고, 전승지 본연의 경관을 회복하기 위한 건물 배치 및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동학농민군을 담은 군상인 <불멸, 바람길>을 전적지의 핵심 거점으로 설정하여 최초·최대 승리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고, 타 시설과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시설을 계획하고자 했다. 공간적 연계 측면에서는 1963년 기념탑과 1987년

전적지, 2022년 기념공원 사이의 단절된 물리적 환경을 통합하기 위한 진출입로 정비 및 관람 동선 재설계가 제안되었다.

II. 정비계획 연구의 배경

1. 사적정비 계획의 주요 목적 검토

사적의 보존관리와 정비에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들이 존재한다. 국가유산청의 사적정비편람 및 김철주(2013)의 <사적의 보존관리와 정비의 이해>에 따르면 그 주목적은 크게 사적의 보존, 사적의 가치 이해 및 증진, 교육적 활용, 사적의 효용성 증대, 지역 주민의 활력 공간과 휴식의 장소, 지역 활성화, 관광자원과의 연계로 나뉘 볼 수 있다.⁵⁾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는 역시 ‘사적의 보존’이 있다. 사적은 그 자체로 진정성과 역사성, 장소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정된 문화재로 그 원형이 지속 보존 및 관리되어 후세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적 자체를 그저 화석화하라는 것은 아니다. 사적은 보존과 동시에 그 역사적 가치의 이해와 증진과 더불어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비기법을 통해 창조적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사적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은 보존과 활용이라는 이중적 목표를 창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복잡한 목적을 가진다.

5)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사적정비편람』, 13~14쪽; 김철주, 2013, 앞의 책, 13~15쪽.

〈표 1〉사적정비의 주 목적 (출처: 김철주, 2013, 앞의 책)

사적정비의 목적	주요 내용
사적의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은 진정성과 역사성, 장소성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아 지정된 문화재로, 원형을 보존하여 후세에게 물려준다는 대전제 조건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다. - 발굴조사 후 복토와 성토 그리고 잔디식재로 보존한 유구의 경우에도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사적 내 지상에 노출된 역사적 건축물과 구조물 역시 지속적인 보존처리와 수리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지상의 역사적 건축물과 구조물, 지하 유구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비를 통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적의 가치 이해 및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의 건축물 또는 건조물의 경우에는 수리와 보존 처리를 통해 가치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발굴조사에 의해 규명된 지하 유구는 곧바로 복토나 성토를 하게 된다. -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사적이 가진 가치를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사적은 다양한 정비기법을 통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적이 가진 가치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나타내기 위해 취하는 방법이 사적 정비라 할 수 있다.
교육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은 해당 지역의 역사를 알려주는 자랑스러운 문화재이자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문화유산으로서 지역문화의 중심에 서 있다. 또한 다양한 유적 및 유구와 이야기 그리고 이와 연계된 유적지에는 교육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 이처럼 사적을 교육적인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비를 통해 가진 가치를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내고, 전시관이나 박물관 등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사적의 효용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으로 지정된 구역 또는 역사적 건조물 및 구조물은 보존과 관리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매입된 토지는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 한 공지로 남겨져 지역의 황폐화를 가져온다. 발굴조사에 의해 드러난 유구 및 유구의 가치를 공유지로 남겨놓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비를 실시한다. 사적의 정비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와 경제적인 가치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유택한 생활을 위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다.
지역 주민의 활력 공간, 휴식의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된 사적의 활용도는 지역 주민의 50퍼센트를 넘는다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심 또는 지역에서도 잘 정리되고, 숲이 있는 유적공원이나 개발에서 벗어나 자연이 보존되고 있는 사적은 지역 주민에게 휴식과 만남, 커뮤니티의 중심이자 활력을 더해주는 장소로서 가능하게 된다.

사적정비의 목적	주요 내용
지역 활성화	- 역사적 배경을 가진 사적은 정비를 통해서 가치를 드러내게 되며, 정비된 사적은 볼거리와 지식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게 만든다. 또한 사적을 중심으로 관람객의 방문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이 필요해진다. 이로 인해 널리 알려진 사적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준다.
관광 자원과의 연계	- 정비된 사적은 지역의 문화자원으로서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지역의 개별 사적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연계시켜 한 지역 전체를 유적 벨트로 구성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개별 사적에 대한 이해보다는 지역 전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호기심을 자극하여 적극적인 관광자원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

2. 황토현 전적의 역사적 배경

현재 정읍 황토현 전적의 역사적 배경은 두 단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황토현 전적이 기념해야 할 황토현 전승의 역사에 대한 이해이다. 이는 전적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기념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 이에 겹쳐 이해되어야 할 것은 바로 현재의 전적이라는 물리적 현실을 야기한 전적 형성의 역사이다. 현재의 사당형 공간 구성의 당위는 무엇이며 어떤 전개 과정을 통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가 역시 우리 근현대사의 중요한 쉼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1) 황토현 전투에 대한 역사 (1894)

황토현 전투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개괄해 보자면,⁶⁾ 먼저 동학농민군은 1894년 1월 ‘고부’에서 군수 조병갑의 폭정에 항거하기 위해 봉기를 일으켰으나 이는 조병갑의 체포로 마무리되어 2월에 해산하였다. 이후 안핵사 이용태가 파견되었으나 그 역시 농민을 확대하고 약탈하여 무장에서 기포하기에 이른다. 3월 25일 전봉

6)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주요 전개 과정」, 정읍시 홈페이지(https://www.jeongeup.go.kr/culture/index.jeongeup?menuCd=DOM_000000608011017000), 2026. 03. 16.

준, 손화중, 김개남을 필두로 고부의 백산에서 대회를 열며 수천이 운집하고 불안과 태인을 점거한다. 이에 전라감사 김문현이 감영군을 파견하여 토벌코자 하였고, 같은 해 4월 동학군과 관군이 황토현에 맞닥드리며 전투에 이르렀다. 이때 동학군이 관군을 맞이해 대승을 거둔 사건으로 조선 정부는 큰 충격을 받게되었으며 동시에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7)

1893년	11월	고부 농민과 전창혁(전봉준의 아버지) 군수 조병갑에게 수세감면 호소 후 곤장을 맞아 사망	
1894년	1월	전봉준과 고부 농민 1천여명 일어나 고부관아를 점령	
	3월	고창 무장에서 기포 / 창의문의 선포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	고창 무장기포지 (사적, 2022)
		백산대회, 8천 여명 운집후 태인과 부안 관아 점령	
	4월	태인, 부안에 주둔하던 동학군 고부 도교산에서 함세 전라감영군을 황토현에서 대파 (황토현 전투)	황토현 전적지 (원 사적 대상지)
		장성 황룡촌에서 경군 격파	장성 황룡 전적 (사적, 1998)
		⋮	
	5월	청국군 아산만 상륙, 일본군 인천항 상륙	
	6월	일본군 조선 경복궁 침입, 청일전쟁 발발	
	7월	전봉준과 전라감사 김학진, 전주회담 개최	
		⋮	
	9월	전봉준, 김개남 필두로 금구 원형선 농민군 2차 기포, 삼례집결통문	동학농민혁명 삼례농기 역사관광
	11월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격전, 남북집 농민군 2만여명 패퇴	공주 우금치 전적 (사적, 1994)
1895년	1월	대둔산에서 최후항전 후, 동학농민혁명이 막을 내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전라북도 기념물, 2015)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내 '주요사건'을 재참라, <http://www.1894.or.kr/main/?menu=144>

〈그림 1〉 황토현 전투의 전후 과정 및 주요 사적지

(출처 :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홈페이지 '주요 사건' 기반으로 정리)

황토현 전투에 대한 공간적 이해를 위해서는 양측의 이동 경로에 대한 파악 역시 필요하다.8) 문헌 및 사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황토현 전투

7) 이이화, 1989, 「집중연재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 ① 봉기-전주성 점령」, 『역사비평』, 203~252쪽; 신순철·이진영, 2010,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8) 조광환, 2020, 「황토현 전투의 전개 과정과 역사적 의의」, 『동학농민혁명 제126주년 기념 학술대회』; 홍상표, 2023, 「1894년 황토현 전투의 재구성」, 『제2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기조강연』; 『동도문변』; 『수록』 등 종합 참고하여 내용 및 지형도 재작성.

직전 동학군과 관군의 전략적 기동 행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월 백산 대회(음력 3월 25일) 이후 동학군은 태인현과 부안읍으로 전력을 분산하여 관아를 점거하고 군기를 확보하는 등 세력을 확장하였으며, 4월 초에는 김제 원평 일대까지 진격하여 주둔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조정은 흥계훈을 초토사로 임명해 경군을 파병하였고, 전라감사 김문현은 이경호를 필두로 한 감영군을 투입하였다. 관군의 출병 소식을 접한 동학군은 태인과 부안의 분산된 병력을 중간 거점인 고부 도교산(현 두승산)으로 집결시켜 전열을 정비하였다.⁹⁾ 한편, 감영군은 보부상군 및 인근 7개 지역에서 징집된 향토군을 통합하여 동학군을 추격하였으며, 양측은 마침내 황토현에서 조우하여 결전을 치르게 되었다.



<그림 2> 1894년 동학군의 이동 경로 (출처: 1,2차 자료 검토 후 연구진 작성)

9) 『양호초토등록(兩湖招討騰錄)』, 「승정원에서 열어보십시오 [承政院 開拆] 음력 1894년 04월 09일」; 『수록(隨錄)』, 「영문에서 보낸 기별 [營寄]」, 「4월초 8일 계초」; 『동비토록』, 「백산패적변」; 『김낙봉이력』, 「갑오(1894년) 4월 3일(甲午四月初三日)」 이상의 1차 자료들을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온라인)에서 참고하였으며, 참고문헌 부분에 URL 일괄 수록함.

황토현 전투 당시의 형세도 1, 2차 문헌을 바탕으로 개략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먼저 동학군은 도교산 동쪽 부 ‘사시봉’, ‘매봉’, ‘시루봉’ 일대로 추정되는 ‘세 봉우리’를 점거하여 진을 쳤으며, 이는 ‘솔밭(鼎足)’같이 생긴 곳이었다.¹⁰⁾ 관군은 현 사적지 인근 평지에 진을 친 것으로 확인된다. 관군은 넓은 평지에서 좌익과 우익 양진을 펼치고, ‘나루터로 가는 좁은 길목을 막는 형태’로 진영을 형성하였고, ‘보부상군’을 후미 산기슭에 매복시켰다고 한다.¹¹⁾ 여기서 보부상 군이 있던 곳이 ‘황토현’으로 확인된다.¹²⁾

이러한 지형적 형세 속에서 당일 전투의 전개를 이어 살펴보자면, 관군이 먼저 일대 세 봉우리를 야습해 먼저 전투가 일어났으나, 이를 이미 알아챈 동학군이 역습하였고, 전봉준이 후미에 숨어둔 가짜 보부상군이 본진 및 보부상군을 공격하여 신호를 보냈다. 이후 매복한 동학군이 황토현까지 밀고 내려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짓는 형국으로 파악된다.¹³⁾

10) 『갑오조선내란시말』, 「동학당의 상황-전주민란의 근황」, “8일 동학도는 **솔밭(鼎足)처럼 생긴 백산의 높은 언덕을 점거**하여 세 군데에 진을 쳤으나, 그들이 지니고 있는 병기 중에는 원래 군대의 총도 다수 있었습니다.”

11) 『동도문변(東匪討錄)』, 「백산패적변」, “4월 초3일에 이경호는 백산의 아래 십리쯤 되는 곳으로 나아가 진을 쳤다. 감사가 군사마(軍司馬) 최영년(崔永年)에게 가서 진을 친 곳을 살펴보게 하였다. 《군사마가》 이경호에게 물기를 ‘저들은 높은 봉우리에 기대고 있고 우리 진지는 평지이다. 비도(匪徒)가 만약 《거꾸로》 세워놓은 항아리 속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듯한 기세로 내려온다면 장차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경호가 말하기를 ‘마속(馬護)은 높은 봉우리에 기대었다가 패하였고 왕평(王平)은 평지에 진을 쳐서 온전함을 얻었다. 이 또한 하나의 증거이다. 기밀에 이르러서는 오늘 반드시 누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다. 최영년은 마음으로 매우 그렇지 않다고 여기고 돌아와 보고하니, 감사도 그것을 근심하였다. 이때 전라중군(全羅中軍) 김달관(金達觀)과 초관(哨官) 이재섭(李在燮)이 탄정(坦丁, 병정의 오식인 듯) 수천을 거느리고 좌익(左翼)이 되어 십리쯤 떨어진 곳에 매복하고 있었다. 초관 유영호(柳榮浩)는 보부상 부대 천여 명을 거느리고 백산 뒤쪽 30리에 매복해 있었다.”

12) 외솔회, 1974, 「동학혁명 실화 자료 — 황토현(黃土峴) 전투 기록」, 『나라사랑』 15, 209쪽. 이 문헌은 기쿠치 겐조(菊池謙讓)의 보부상 취재 기록과 동일함.

〈표 2〉 황토현 전투의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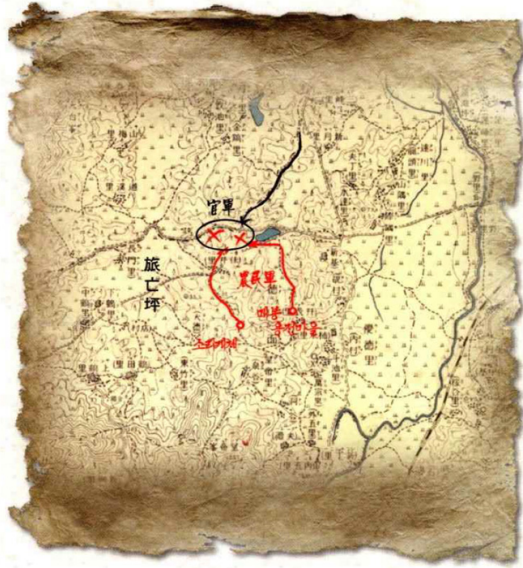
(출처: 조광환, 2020, 위의 책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4월 6일	낮	태인과 부안 농민군 도교산 집결, 백산으로 출동한 감영군이 농민군 뒤를 추격
		동학군 본진 시목리 인근 사시봉에 위치(약간 높은 구릉지대로 현 감영이 끝의 뒷산 '사시봉', 현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남쪽 1.2 km 거리)
		감영군은 농민군 뒤를 쫓아 황토현에 진을 칩
	해질 무렵	농민군은 이에 대응해 황토현 남쪽 시목리 등의 고지대로 분산, 감영군을 3면 포위하는 형태를 이루며 대처
		전봉준은 사전에 장정 30명을 뽑아 무장의 보부상군으로 위장하여 감영군에 잠입
	야간	감영군의 야습을 예측하여 황토현 남쪽 1.3~1.5km의 세 산봉우리에 불을 밝히고 풍물을 치며 함성을 지르다 자정에 가운데 불만 남기고 모든 진영을 비우고 매복
감영군과 보부상부대는 농민군이 잠을 잔다고 여겨 3경 쯤 군사를 출동하여 잠입한 농민군을 필두로 봉우리 아래에 이르렀음		
4월 7일 새벽	감영군의 김달관과 초관 이재섭이 공을 세우고자 앞다투어 나가 공격	
	매복한 농민군이 사방에서 공격, 잠입한 보부상군도 돌변	

13) 『번역 오하기문』, 「고부전투와 관군의 패배」, “6일에 고부의 도교까지 적을 추격했다가 또다시 백산까지 밀고 나갔다. 이때 적이 부안에서 고부의 매교로 이동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드디어 산을 내려가 북쪽으로 적을 추격하였다. 적은 거깃으로 패한 것처럼 꾸며 황토고개에 진을 쳤다. 관군은 밀고 들어가 고개 아래쪽에 진을 쳤는데, 그곳의 지명은 ‘손소락등(孫小落巖)’으로 적과 거리는 5리쯤 되었다. 이때 이미 날이 어두워져 양쪽이 모두 병영을 점검하며 움직이지 않고 다만 군호를 알리는 포성만 들렸다. 밤이 깊어지자 적 진영은 조용해졌고 포성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관군은 의아스러워하며 소나무를 잘라 횃불을 만들고 진영 가득히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붙이자 진중이 마치 대낮과 같았다. 그러나 막사 밖으로는 연기가 자욱하였고 때마침 안개가 크게 끼어 사방을 분간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콩 볶듯이 포성이 들리더니 포탄이 발 밑에 떨어지자 관군은 마치 삼이 쓰러지듯 엎어지고 자빠졌다.”; 외솔회, 1974. 앞의 문헌: 『김기술문서』, 「태인 고현내면의 백성 김기술 [泰仁古縣內面 民金箕述]」

위 사료들을 토대로 부상군과 향토병 참여자 중 황토현에 진을 쳤던 자들의 진술들을 종합해 볼 수 있다. 후방에 위치했던 부상군 진지는 관군의 선제공격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야습을 당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본고는 1,2차 자료의 서술에 바탕하여 이러한 전투의 공간을 재구성해 보았고 이를 위 표와 같이 정리해 봤다(표 2). 결과적으로 위의 전개 양상에 따르자면 현재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교육관 남측에 위치한 세 봉우리가 당시 동학군의 진지였으며, 사적지로 지정된 부근이 감영군 진지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사적지가 조성된 장소는 전투 당시 진의 후미이자 황토현 부근에서 잠자고 있던 부상군이 최종적으로 섬멸된 격전지로 동학농민군이 감영군을 패퇴시키며 승리를 확정짓는 ‘승전의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⁴⁾



〈그림 3〉 동학농민혁명 126주년 기념 학술대회 표지에서 나타나는 전투의 지리적 경과 (출처: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및 동학역사문화연구소. 2020. 『전투로 살펴 본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 126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정읍: 정읍시청 대회의실, 8월 15일.)

14) 전투의 전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조광환, 2020, 「황토현 전투의 전개 과정과 역사적 의의」, 『동학농민혁명 제126주년 기념 학술대회』.

2) 황토현 전적을 둘러싼 역사 (1963)

사적 배후의 역사적 상황만이 아닌 사적 자체의 역사적 상황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해당 공간은 1963년 박정희 의장에 의해 최초로 갑오동학농민혁명기념탑이 설립된 이후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 왔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 등에서 수집된 관련된 자료들을 재구성해 보면 수차례 이상의 전적 및 그 인근에 대한 공간 계획이 실행되었음이 확인된다.¹⁵⁾

〈표 3〉 황토현 전적 일대의 정비 계획
(출처: 국가기록원 등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년도	내용
1963년	박정희 의장에 의해 황토현 언덕 위에 최초로 갑오동학농민혁명기념탑 설립
1978년	전라북도에 의해 탑 북측광장 및 진입계단 조성
1980-83년	기념탑 부근을 넘어 '전봉준 장군 유적 정화 기본계획수립' 사업으로 남측 넓은 대지에 1차 공사가 진행되어 이때 기념탑과 다소 관계가 약한 상태로 남향을 향한 기념관 건립
1984년	1981년 대통령 지시로 진행된 1차 공사에 이어서 2차 공사가 수행되며, 이때 외삼문, 관리사, 부대시설 등이 신축
1985-88년	전봉준 장군 유적정화사업이 준공 (연못, 광장, 주차장, 보국문, 제세문, 제민당(강당), 전봉준 장군 동상 및 황토현 전적 정화비 건립 → 당시 영웅을 추대하는 전형적인 기념 공간의 모습으로 완결)
1990년	동학농민군 참여자 위패를 모시는 '구민사'를 사당형태로 건립, 동상을 기준으로 서측에 추가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
2004년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교육관이 사적지 남측 영역에 준공
2013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계획
2022년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준공,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 일대가 일부복원, 1987년 조성된 전봉준 장군동상을 작가의 친일행적과 고충논란에 의해 철거 및 이전, 새로운 동상을 건립하여 설치

15) 국가기록원 내 황토현 전적을 둘러싼 유적정비, 유적정화 공사 등 전반의 자료를 참고함.

최초의 계획은 당시 박정희 의장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1963년 대상지 내 가장 높은 언덕 위에 ‘갑오동학혁명 기념탑’ 건립 사업으로 시작되었다.¹⁶⁾ 이때는 단순 기념탑만 설치된 것으로 언덕 남서측에 진입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북측에 확인되는 큰 규모의 광장 공간은 1978년 전라북도에 의해 수행된 ‘전봉준 유적 정화공사’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이때 기념탑 주변부 공간이 개선되고 북측으로의 진입로가 새롭게 꾸러졌다.



〈그림 4〉 동학탑 주변 보수준공 사진 (1978).

(출처: 문화재관리국, 1978, 「1978년도 전봉준장군유적정화사업 준공보고」, 국가기록원 소장(관리번호: BA0123270), 4-6쪽)

남사면에 위치한 현재의 사당형 공간에 대한 계획은 1980년대에 정부 주도의 기념사업으로 수립 및 실행되었다.¹⁷⁾ 1980-83년 대통령 지시로 ‘전봉준 선생 유적 정비 1차 공사’가 시행되었다. 이때 기념탑과의 연계가

16) 이지백, 「전북의 기억(37) 황토현 갑오동학혁명 기념탑 건립」, 『새전북신문』, 2010.05.20, (http://www.sjbnews.com/news/news.php?code=li_news_2010&number=407791), 2026.03.16.

17) 원도연, 1999,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기본방향과 과제」, 『1999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방향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 44~45쪽.

논의되긴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남측의 넓은 대지를 활용해 남향을 보는 새로운 공간을 조성, 현재의 기념관이 먼저 자리하게 된다. 이어서 1984년에는 2차 공사가 진행되는데, 예산확보 문제로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규모로 정비, 외삼문, 관리사, 부대시설 등을 신축하고 담장을 추가 설치했다. 최종적인 사당형 공간 구성은 1985년부터 88년의 ‘전봉준 장군 유적 정화 계획’으로 마무리되는데 이때 강당인 제민당, 정화기념비, 전봉준 장군 동상¹⁸⁾이 설치되고 전면의 연못과 광장, 주차장이 조성되는 등 규모를 키운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당시 이미 사당 건립의 요구가 있었으나 문화재 위원장과 천도교 종무원장이 역사적, 종교적 이유로 반



〈그림 5〉 1980년 정화계획도

(출처: 문화재관리국, 1982,
「전봉준장군유적정비기본사업설계승인신청에대한회신」, 국가기록원
소장(관리번호: BA0123480), 178쪽)

18) 작가의 친일 행적 등을 사유로 현재는 철거 이전되어 2022년 신규로 조성됨.

대해 최종적으로 사당 건립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현재의 사당 역할을 하는 구민사(혹은 사우)의 경우 1990년 ‘동학혁명사우건립공사’를 통해 설치된 것으로 당시 기념관, 제민당, 동상 등만 있는 상황에서 농민군 전체를 위한 추모 장소가 요구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6〉 1987년 작성된 황토현전적지 정비사업의 조감도

(출처: 문화재청, 1987, 「전봉준 장군 유적정비 현황 황토현전적지 정비 사업 조감도」, 국가기록원 소장(관리번호: DEU0004090))



전봉준장군유적정비 현황사진첩 (1986)

〈그림 7〉 전봉준 장군 유적 정화 계획(1985-88)의 정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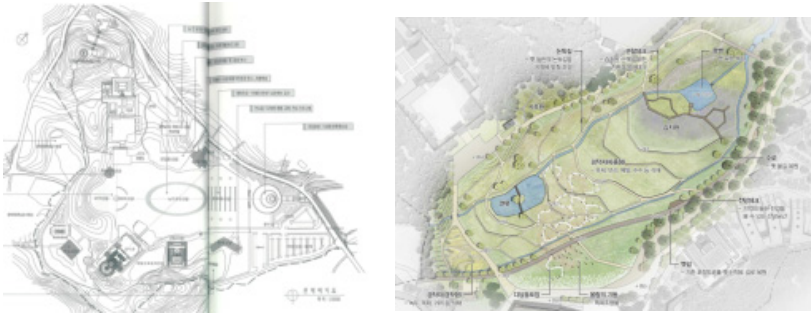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위에 연구진이 표기, 사진은 문화재청, 1987, 「전봉준 장군 유적정비 현황 전경」, 국가기록원 소장(관리번호: DEU0004090))



〈그림 8〉 사우(구민사) 건립 준공 사진

(출처: 문화재청, 1990, 「동학혁명사우건립」, 국가기록원 소장(관리번호: BA0811509), 272쪽)

2000년대는 황토현 전적의 사당형 공간 내부보다 남측 일대 공간에 대한 개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2000년에는 전적 북동쪽 지역을 아우르는 산책로와 무궁화동산이 조성되고 2004년에는 전적과 마주보는 남측 평야에 기념관과 교육관을 신설한다.¹⁹⁾ 사실상 이때 신규 기념관이 형성되며 80년대 지어진 전적 내 구 기념관의 기능이 효용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이후에는 남측 평지 전체에 대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건립사업’이 시작되고 설계 공모를 거쳐 사업이 시행되는데, 이때 이미 대상지 본래의 장소적 특징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지도를 참고한 당시의 논둑, 물길, 옛길 등을 일부 재현하고자 시도했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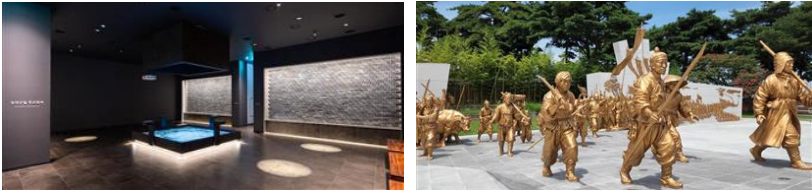


〈그림 9〉 2013년도 사업 계획안 배치도(좌),
2014년도 현상설계 계획안 배치도(우)

(출처: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2013(좌), 라펜트 조경뉴스 내 기사(우))

-
- 19) 백진기, 「[정읍] 황토현 무궁화동산 조성」, 『전북일보』, 2000.12.13., (<https://www.jjan.kr/article/20001213024503>), 2026. 03. 24.; 천도교중앙총부, 「동학혁명유적지」, 『천도교』, (https://www.chondogyo.or.kr/bbs/board.php?bo_table=sub41&wr_id=86), 2026. 03. 24.
- 20)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2013,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건립사업」,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측 내부 자료;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3,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측 내부자료 ; 전지은, 「[당선작]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설계공모」, 『라펜트 조경뉴스』, 2014.10.07., (https://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12808), 2026.03.16.

2022년에는 기념공원이 완성되며 방문자센터, 캠핑장, 연수동, 카페 테리아, 박물관이 대지 남측을 따라 배치된다. 이때부터 북측의 황토현 전적과 남측의 여러 신규시설들이 기념공원의 주동선을 중심으로 줄지어 배치된 상황이 된다. 그러나 그 관리 및 소유 주체가 달라 긴밀한 연계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당시 박물관을 건립하며 그 내부에 추모관을 건립했다는 것이다. 이때 구민사내 모셔진 인원을 포함해 3,000여 명의 동학농민혁명 참가자들을 위한 디지털식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다. 또한, 친일 조각가 등 여러 논란이 있었던 1987년의 기존 동상이 철거되어 정읍시립박물관으로 옮겨지고 신규 공모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만민평등이라는 의미를 담은 군상형 조각이 건립되었다.²¹⁾



〈그림 10〉 박물관 내 추모 공간(좌), 불멸, 바람길 동상(우)
(출처: 직접 촬영(2023.09.19.))

3. 소결

황토현 전적을 둘러싼 역사적 배경은 단지 전투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전적 자체가 1963년부터 겪어온 변형의 역사가 공존한다. 황토현 전투와 관련한 역사는 해당 전투가 현재의 문화재구역은 물론 그 남측의 산지인 사시봉, 매봉, 시루봉은 물론 현재의 기념공원에 해당

2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봉준장군과 동학농민군상(불멸, 바람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적지 정보(<https://1894.or.kr/main/?menu=95&limit=160&mode=view&no=425>), 2026.03.16.

하는 넓은 평야지역까지 아우르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현재 전적을 최후의 격전이 이뤄진 장소로 파악하더라도 그 일대의 풍경 역시 연계된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결과적으로 해당 전적 계획에 있어 주변과의 연계가 가진 중요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또한, 현재 일대의 공간계획 역사는 황토현 언덕, 기념탑에서 기념공원까지의 일대를 일련의 변화과정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특히,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사당형으로 조성된 1960-80년대 사이의 전적 내 부속시설물의 건립 역사는 해당 공간이 당시 시대적 한계로 인해 일률적인 형식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을 밝혀준다.

Ⅲ. 황토현 전적의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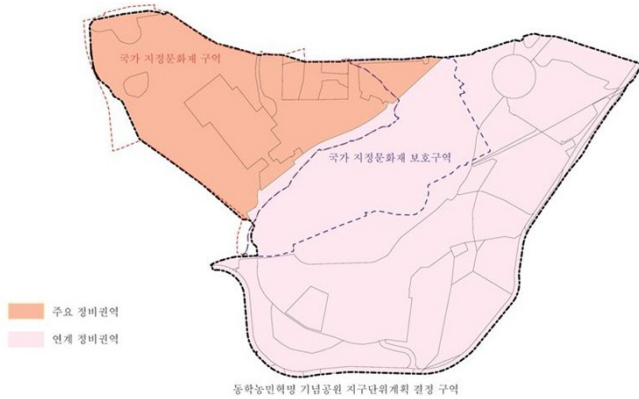
현재 황토현 전적은 숲과 담장에 가려져 인지성이 낮으며, 여러 곳에 조성된 출입구로 인해 동선상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구민사 및 제민당 등의 건축물은 전형적인 ‘사당’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농민혁명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설 노후화와 더불어 전시 내용이 신규 조성된 공원 내 박물관과 중복되는 문제 역시 확인된다. 이러한 현황과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자면 아래와 같다.

1. 문화재 일반 현황

정읍 황토현 전적은 국가 사적 제 295호로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군이 관군을 크게 물리친 격전지이다.”²²⁾ 현재 일대 공간은 문화재와 보호구역으로 구분되어 2009년 고시된 바에 따르면 지정 구역 및 보호구역의

22) 국가유산청(문화재청), 「정읍 황토현 전적(井邑 黃土峴 戰蹟)」, 국가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13335029500>), 2026.03.16.

총 필지는 42개이며, 면적은 164,658㎡이다. 이 중에서 ‘국가 문화재 지정 구역’은 16개 필지, 총면적은 101,721㎡라고 고시되어 있다.²³⁾



〈그림 11〉 주요 현황조사 대상 권역의 구분
(출처: 국가유산보존관리지도 등 참고하여 연구자 직접 작성)

특별히, 본 계획은 국가 지정문화재구역인 사적지 인근 일대를 주요 정비권역으로 보고, 그 남측에 넓게 위치한 기념공원 일대를 연계정비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주요 정비권역에 해당하는 정읍 황토현 전적의 국가문화재구역 내에는 1963년 조성된 갑오동학농민혁명 기념탑과 함께 황토현 전적을 위한 부속물인 편의 및 부대시설들이 조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구 기념관(1983), 제민당(강당)(1985), 구민사(사우)(1990), 보국문(1983), 제세문(1987), 관리사(1984, 1991), 화장실, 주차장 등이 있다. 연계 정비권역에 해당하는 남쪽 영역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관(2004) 및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2022)이 조성되어 있다. 이 일대에는 기념관(2004), 교육관(2004)과 더불어 기억의 들판 및 물길의 복원되어 있고, 올림의 기둥(2022), 추모관(2022), 박물관(2022), 연구동

23) 국가유산청(문화재청), 2009, 「문화재청 고시 제2009-131호」, 2009.1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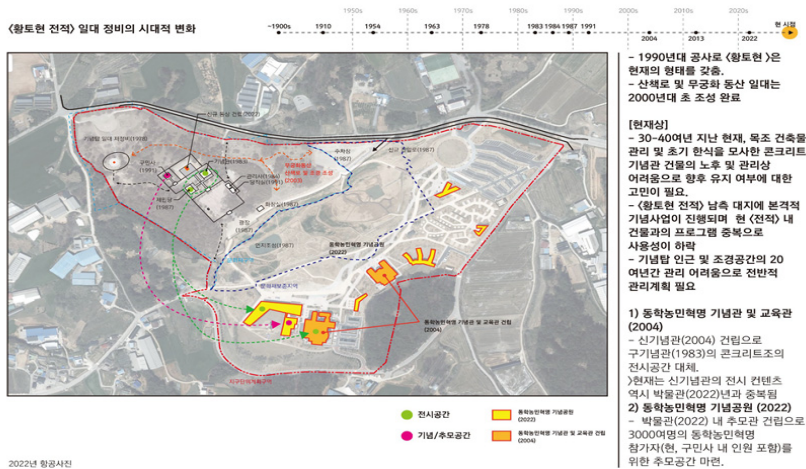
(2022), 연수동(2022), 야영장 및 캠핑장(2022), 카페테리아(2022) 등의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

2. 정읍 황토현 전적

1) 정비경과 분석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990년대의 공사를 바탕으로 황토현 전적은 지금의 모습을 거의 갖추게 되었다. 현재는 약 30~40년이 지나 초기 한식을 모사한 구 기념관 건물의 노후 및 관리상 어려움이 두드러지는 시점이다. 더불어, 황토현 전적 남측 대지에 본격적 기념사업이 2000년대 지속됨에 따라 전적 내 건물과의 프로그램 중복으로 사용성이 하락하고 기념탑 인근의 조경 공간의 경우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장기간 유지됐다. 결과적으로 전적 일대에서 벌어진 다양한 기념사업이 여러 현황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2) 건축물 현황 분석



〈그림 12〉 황토현 전적 일대 정비의 시대적 변화도 (현시점 기준)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13〉 주요 정비권역 내 건축물 표기 (출처: 연구진 작성)

주요 정비권역 특히 황토현 전적 내의 대부분의 건물들은 보존의 대상이 되는 건조물이 아닌 사적에 대한 부속물이다. 건물들은 1980-90년대 사이에 건립되어 현재는 대부분이 40년 이상의 노후화가 진행되었다. 사당 형태로 조성된 문들은 목조로,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은 건물인 기념관은 한옥을 모방한 콘크리트조로 확인된다. 이러한 건축물은 당시 관 주도의 기념 건축물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 시대적으로도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보존정책과의 2023년도 정기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한옥 혹은 그와 유사한 모방식 건물은 특수한 유지관리 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제세문의 경우 벽체 마감과 당골막이 탈락, 관리사의 경우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소가 이동한 이후 방치, 보국문의 경우는 기단 박석이 들뒀다.²⁴⁾ 특히, 가장 주요한 시설인 기념관, 구민사, 제민당 등은

24)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2023, 『2023 사적정기조사 결과보고서』 내 일부 자료 참고.

기와지붕, 천장 누수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단청 역시 특별한 전문적 유지 보수가 필요하여 비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유지보수의 비용은 한옥 혹은 한옥식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2000년에서 2020년까지의 정비 경과를 종합검토 해보면 그간 유지 보수에 1년 단위로 약 1억원이 소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단청의 유지는 실상 황토현 전투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에 크게 기여하지는 않아 이 역시 재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표 4〉 건축물 개요

(출처: 건축물 대장 상 576.96㎡로 통합되어 기재,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2013,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건립사업」 내 101쪽 참고하여 작성)

NO	건물명	규모(㎡)	건축 년도	구조	지붕
1	구민사	56.42	1990	목조(추정)	시멘트 기와
2	구민사삼문	15.00	1990	목조	
3	기념관	137.44	1983	철근콘크리트조	
4	제민당	135.00	1987	목조(추정)	
5	보국문	28.00	1983	목조	
4	제세문	47.52	1987	목조	
5	관리사무소	50.49	1984	목조	
6	당직실	54.59	1991	목조	
7	화장실-1	52.50	1987	시멘트 벽돌조	판넬
8	화장실-2	48.60	1991	시멘트 벽돌조	
계		576.96			

〈표 5〉 황토현 전적 주요 시설물의 유지 보수 비용 산정

(출처: 문화재 관리대장의 내용 참고 및 통계청 화폐가치 계산 활용)

순번	내용	금액	년도	2022년 기준 (통계청 화폐가치 계산)	2023년 기준 (5%상승적용)
1	경내광장 포장(총 727㎡), 화강석 경계석 설치(220m), 기념관 후면 번와보수(129.6㎡)	169,060	2000	288,416	302,837

순번	내용	금액	년도	2022년 기준 (통계청 화폐가치 계산)	2023년 기준 (5%상승적용)
2	사적지 한식목조건물 단청보수 5동	268,375	2006	380,019	399,020
3	잡목제거 및 협문보수, 보수정비 기본계획 : 잡목제거(A=34,400㎡), 협문보수(A=1.0㎡)	61,600	2017	67,945	71,342
4	기와보수(A=980㎡ / 제세문, 관리실, 기념관, 보국문, 내삼문) 및 안내판 보수	102,000	2018	110,874	116,418
5	황토현 전적 담청보수(8동, A=504㎡ / 제민당, 구민사, 기념관, 제세문, 보국문, 구민사삼문, 관리사, 화장실)	903,200	2020	972,746	1,021,384
20년간 주요 시설물의 유지 보수에 든 비용 합계 (천원)					1,911,001
지난 20년간 1년 평균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천원/년)					95,550

3) 시설물 현황 분석

본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사적 내 시설물은 표지 및 안내판, 벤치 및 파고라, 소방관련 시설, 가로등, 조명, CCTV, 석물 등이 확인된다.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가 진행되어 사용이 어렵거나, 부분적인 보수가 이뤄져 서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도 보인다. 특히, 전적 내 문화재 안내판, 방향 표지판 등은 모두 형태와 서체가 일정하지 않아 가독성과 인지성이 떨어졌다. 이는 전적 공간을 일관된 공간이 아닌 혼란한 상황으로 보이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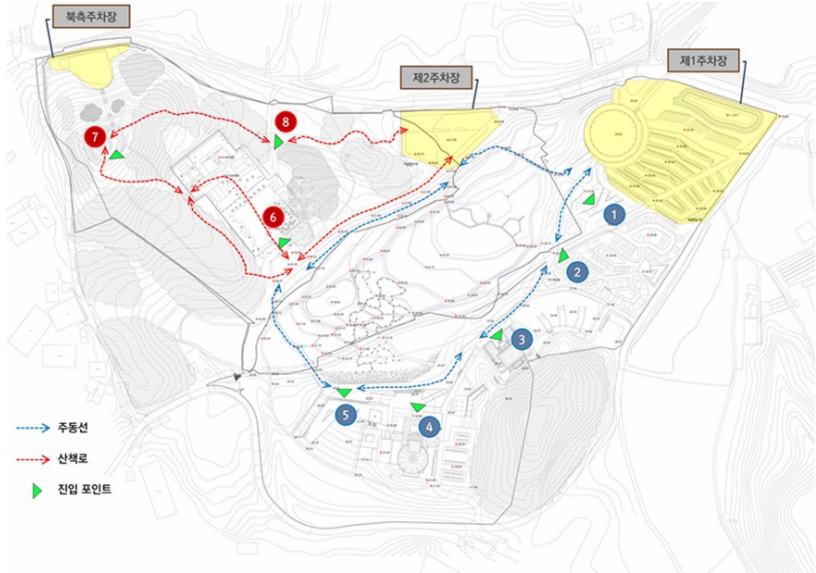
〈그림 14〉 황토현 전적지 주변 문화재 안내판
(출처: 직접 촬영(2023.09.19.))

전적 내 휴식과 전망 공간으로 기능해야 할 벤치 및 파고라 역시 상태가 불량하다. 벤치의 대부분이 전적지 입구 부근에 모여 있고 소나무 군락의 하부에 있어 면밀한 관리 없이는 이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조명 시설의 경우 전적 내부와 언덕의 산책로로 구분되지만 대부분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 장기간 이용이 저조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시설들의 재정비도 필요하지만, 관람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조치 역시 필요하다. 사적지 내부와 공원 일대가 넓은 평지가 많아 그들이 부족하다. 여름철 관람 이용이 어려움으로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늘막, 음수대, 휴게 벤치 등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림 15〉 황토현 전적지 주변 벤치 및 테이블
(출처: 직접 촬영(2023.09.19.))

4) 동선 현황 분석



〈그림 16〉 동선 현황 다이어그램 (출처: 연구진 작성)

현 황토현 전적의 동선 현황은 기념공원과의 관계 전체를 놓고 보아야 한다. 다양한 곳에 위치한 주차장과 출입구의 상황만 보아도 혼재된 계획의 결과가 분명히 나타난다. 기존 황토현 전적 역시 1960-70년대 기념탑을 중심으로 조성한 북측 출입이 있으나 현재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전적 자체로의 출입은 대지 북측 중앙의 제2주차장을 통해서 가능하나 실질적인 방문은 2022년 기념공원의 순환동선을 중심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기존 산책로 중 일부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관리의 필요성이 떨어지고,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 이용이 어려운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를 맞이하고 있다. 2022년 조성된 기념공원의 주출입로를 중심으로 인지성을 개선하고 황토현 전적의 관람이 다른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절실한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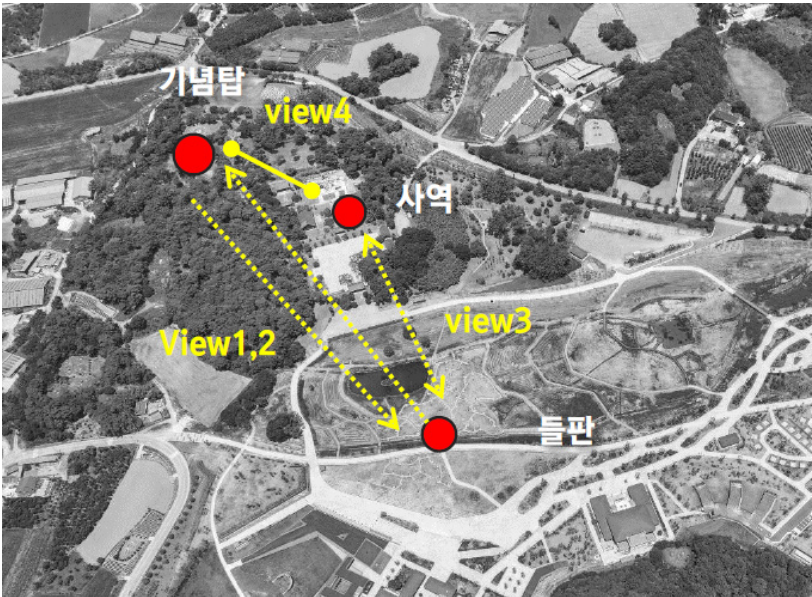
〈그림 17〉 시설물 영역(좌), 구민사 옆 협문(중), 기념탑 오르는 길(우) 현황
(출처: 직접 촬영(2023.09.19.))

황토현 전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6,7,8에 해당하는 동선도 정비가 필요하다. 기념공원의 주동선을 통해 6번 동선과 같이 진입하면 황토 콘크리트의 넓은 마당, 정화 기념비와 관리사를 만난다. 이후 한 단 안쪽으로 진입하면 제민당과 기념관이 등장한다. 정면에는 다시 한 단 위에 2022년 설치한 〈불멸, 바람길〉 동상이 위치한다. 좌측에는 구민사로 연결되는 삼문과 기념탑으로 연결되는 협문이 보인다. 이러한 경사지 내 사당형의 단 배치는 구역 이동시 유모차나 휠체어 등의 방문객 이용을 어렵게 한다. 더불어, 협문 너머의 길은 거의 인지되지 않으며 등산로와 같이 조성되어 주요 역사적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언덕-기념탑은 전적 내 사당 공간과는 다소 분리되어 있다. 이는 전적의 동측에 위치한 8번 동선도 마찬가지로인데 해당 공간은 무궁화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산책길이 조성되어 있으나 토양과 수종이 맞지 않아 생장이 불량하다. 현재는 잡초가 무성하고, 콘크리트 포장에 오염되어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5) 주요 시설 간 연계성 분석

황토현 전적과 그 일대의 시설 간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기념공원 관리자는 물론 정읍시의 공통된 의견이다. 본 연구진의 확인 결과 해당 공간들은 지도에서는 서로 가까이 붙어 있지만 우거진 숲과 언덕, 담장 등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고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언덕 위의

기념탑과 사당형 사역은 무성하게 자란 수풀과 경사, 담장으로 인해 분리되어 있다 (그림 18의 view4). 이는 view1, 2에 해당하는 기념탑과 기념공원 내 들판 역시 마찬가지로이다 (그림 18). 기념탑의 황토 언덕 위는 초기 기념탑 조성 당시 식재된 소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주변의 시야 상당수가 가려진 상황이다. 기념공원에 위치한 들판에서 사역과 기념탑



<그림 18> 기념탑-사역-들판 간의 조망 연계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19> 기념탑 언덕 위에서 기념공원을 향한 조망(그림 18의 view1,2) (좌), 기념공원에서 사역과 기념공원을 올려다본 조망(그림 18의 view1~3) (우) (출처: 직접 촬영(2023.09.19.))

을 볼 때 역시 기념탑이 소나무 숲으로 가려지고, 사역의 경우 역시 높낮이 차와 담장으로 인해 제한적인 출입만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인된다(그림 18의 view3).

앞서 황토현 전투의 역사에서 살폈듯이 현재 전적에 해당하는 황토현 언덕 일대는 격전 후의 전승지로 볼 수 있지만 그 전개 과정을 고려하면 남쪽의 기념공원 일대와 주변 산 전체 역시 연계된 장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현재와 같이 언덕 위의 기념탑, 사역, 들판이 분리된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상황은 사당형 공간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당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조경 및 문, 담장 등에 가리어 기억의 들판 및 주요 산지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품을 수 있는 일대의 경관이 차단되어 있다. 또한, 경사지 내 단형 구성으로 인해 신규 조성한 우수한 조각인 <불멸, 바람길>은 정면에서 인지되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 기념관과 시각적으로 충돌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그림 20〉 기념관 및 구민사 사이(좌), 정문 진입 후 마당(중), 사역 진입부(우) 현황

(출처: 직접 촬영(2023.09.19.))

6) 전시 내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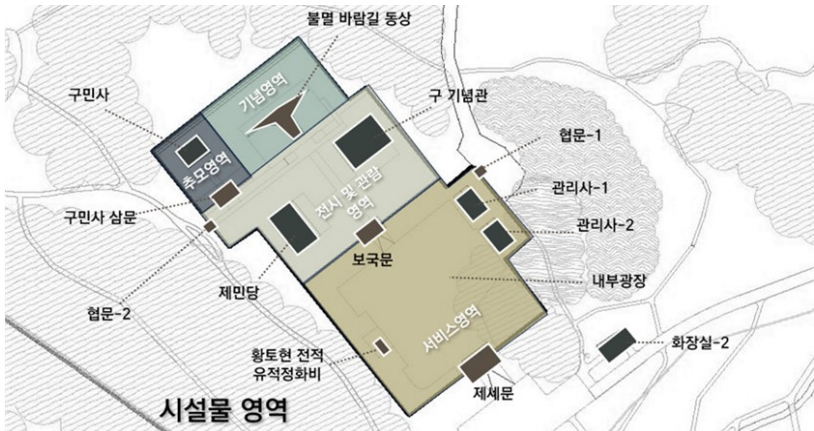
주요 전시시설인 기념관과 제민당의 전시 수준은 장기간 노후화가 진행되었다. 기념관 내 전시 모형은 이미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패널 전시는 대부분 글자 위주로 이뤄져 있어 관람의 흥미가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주요 전시는 이미 2004년과 2022년 조성된 시설들이 대체하고 있어 현재의 전적 내에는 황토현 전투의 의미를 더욱 잘 드러낼 수 있는 특화된 전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 작동되지 않는 구 기념관 내 전시품(좌), 기념관 내 패널 전시(중), 제민당 내 기록물 사본 전시품(우) (출처: 직접 촬영(2023.09.19.))

7) 사적 내 공간의 성격 분석



〈그림 22〉 황토현 전적 내 공간의 성격 분석 (출처: 연구진 작성)

현 시점 전적 내 공간은 한정된 공간 안에 여러 시점의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중첩되어 있어 부조화한 모습을 보인다. 전면의 내부광장으로 기능하는 공간은 ‘서비스영역’으로, 보국문 뒤의 기념관과 제민

당 공간은 ‘전시 및 관람영역’으로, 그 후면에 다시 단을 두고 불멸 바람길 동상이 위치한 공간은 가장 최근에 재정비된 조각 중심의 ‘기념영역’으로, 서측에 나란히 위치한 구민사 공간은 별도의 담장으로 조성되어 동학농민혁명 참가자 위패가 모셔져 있는 사당으로 ‘추모영역’으로 볼 수 있다. 특히나 지적되고 있는 것은 1990년 건립된 사당인 구민사와 2022년 신규 조성된 <불멸, 바람길> 동상의 공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두 공간은 추모와 전승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프로그램이 병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조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불멸, 바람길> 동상의 경우 남동측으로 행진하는 듯한 농민군의 축과 기념관의 기와지붕이 시각적으로 간섭되고 있다는 문제 역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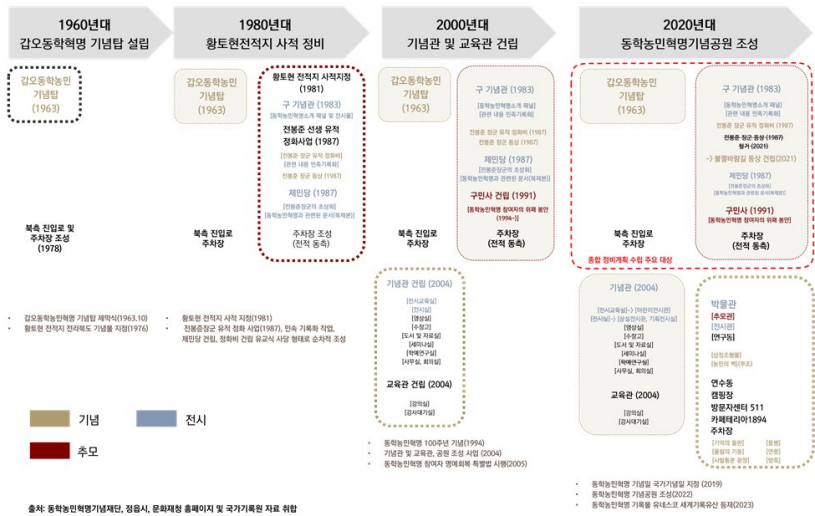
<그림 23> 구민사 전면(좌), 불멸, 바람길 동상 전면(중), 구민사에서 바라본 불멸, 바람길 동상과 기념관(우) (출처: 직접 촬영(2023.09.19.))



<그림 24> 2022년 신규 조성된 <불멸, 바람길> 동상의 측면 (출처: 직접 촬영(2023.09.19.))

8) 주변 시설과의 프로그램 분석

사적 내 시설물과 2000년대 이후 조성된 기념관 일대 시설을 광역적으로 교차 분석한 결과, 기능적 중첩에 따른 문제점이 확인된다. 2000년대 초반 현 기념공원 남측에 기념관 및 교육관이 건립되면서 대규모 전시·교육 프로그램이 해당 시설로 이전되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사적 내 기념관과 제민당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이후 2020년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과 함께 신규 박물관 및 추모관이 건립됨에 따라, 80~90년대 구축된 사당형 공간과 구민사의 추모 기능까지 대체하게 되었다. 이러한 확장과 이전의 과정을 거치며 황토현 전적 내 기존 시설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신규 시설로 흡수되었으며, 현재 사적 내 공간은 시설 노후화와 기능 상실로 인해 이용성이 저하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그림 25〉 주변 시설과의 프로그램 분석도 (출처: 연구진 작성)

9) 조경 현황 분석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일대 식생에 대한 조사 역시 수행하였다.²⁵⁾ 대상지에서는 식물사회학적 조사를 실시했고, 6곳의 위치를 선정하여 3개 조사구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대상지 상당 부분에 소나무 군락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대부분 약 50년 정도의 나이로 1967년경 식재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동학혁명기념탑 건립지 주변 정비사업으로 식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당 주변 토양이 배후 산림지역에 비해 열악하여 향후 소나무림 내 하층식생을 도입하고, 유기물 함량 증가 등과 같은 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최종적으로는 토양의 환경과 향후 정비 방향을 고려한 계획 조성이 필요해 보인다. 시각적 인지 확보를 위해 탑과 사적을 가리는 일부 수종은 이식을 고려할 수 있으며, 계획 없이 혼재된 수종들은 전반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전적 북측의 이팝나무와 2000년 조성된 무궁화동산²⁶⁾은 토양과 맞지 않는 수종이므로 증곰솔, 이대, 구절초와 같은 정읍시 전통 식수 및 조경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기념공원 인근 축사로 인한 악취 역시 확인되는 데 이는 일대 축사 인근 방취림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소할 수 있다.²⁷⁾

25) 식생의 조사는 동국대학교의 오충현 교수, 배제선 겸임교수 팀에 의해 수행되었다.

26) 백진기, 2000, 앞의 기사.

27) 한국일보,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 ‘불멸, 바람길’ 세워졌다」, 『한국일보』, 2023.10.10.,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mp/A2023100917070004704>), 2026.0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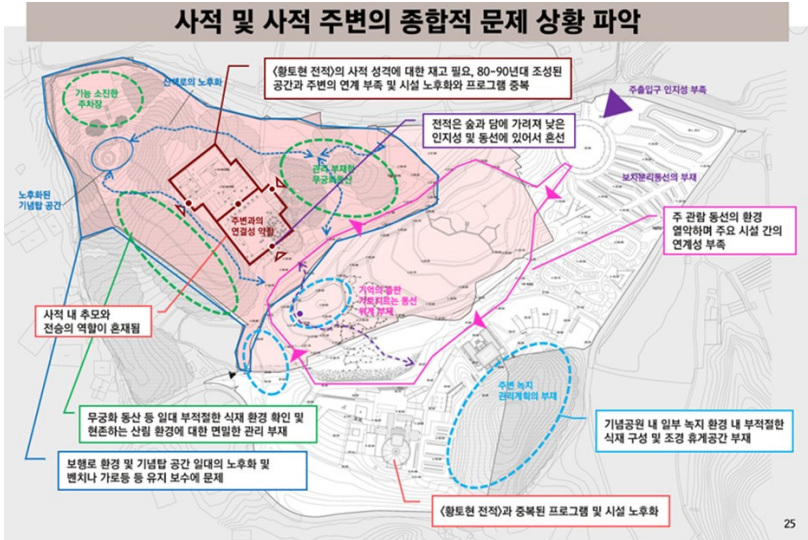
〈그림 26〉 연구대상지 현존 식생도 (출처: 동국대학교 연구팀)

10) 소결: 종합현황분석

황토현 전적 일대의 현황에 따른 문제상황은 장기간 서로 다른 사업에 의해 교란된 전시 동선 및 공간, 일대 시설의 노후화, 연계성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리하자면 아래의 그림을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한 인식을 종합하여 보면 부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현시설을 연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적을 보존하면서도 그 가치를 강화하며 이후 교육적 활용을 고려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3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현 사당형의 전적 내 건물은 부속물이며 한옥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지속 유지 보수 비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대의 다른 시설과 비교해 보면 기능적인 활용도 역시 신규 시설로 대체되고 있어 전반적인 공간적 효용이 다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기념공원과 황토현 전적 사이의 마스터플랜 없이 혼잡한 동선, 주요 시설 간의 연계 시너지가 발생하지 못하여 그 활용도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전적 내부의 경우 40~60년 정도의 세월 동안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조경, 시설, 건축이 모두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림 27〉 사적 및 사적 주변의 종합적 문제상황 현황도 (출처: 연구진 작성)

IV. 유사 정비 사례 조사 및 기념 방안 검토

1. 국내 4대 동학 전적지 사례 조사

국가유산청에서 지정한 국내 전적지는 총 15곳이며 그중 동학 전적으로 지정된 곳은 총 4개소이다. 4대 동학 전적지는 각각 전라북도 정읍시 황토현 전적, 충청남도 공주 우금치 전적, 전라남도 장성 황룡 전

적, 전라남도 장흥 석대들 전적이다. 본 대상지를 제외한 3곳의 동학 전적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8〉 공주 우금치 전적(좌), 장성 황룡 전적(중), 장흥 석대들 전적(우)
(출처: 네이버지도 항공사진)

먼저 공주 우금티 전적의 경우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431-45 등지에 위치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 연합을 상대로 격전을 치르고 패배한 곳으로 현재 시설은 알림터와 화장실의 건물 2동, 위령탑, 기념비, 조형물, 야외광장이 조성되었다. 2020년에는 종합 정비계획에 따라 야외광장과 우금티 전적 알림터(132㎡)를 개관하고 위령비를 새로 세웠다. 장성 황룡 전적의 경우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356-2 등지에 위치했다. 이 지역은 황토현 전투 이후 장성에서 황룡 전투를 벌여 농민군이 관군을 상대로 승리한 전승지로서 현재는 화장실과 쉼터, 승전탑, 순의비, 기념공원이 조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장흥 석대들 전적의 경우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남외리 164-5 등지에 위치했다. 이곳은 우금티 전투 이후 전봉준 등 지도층이 모두 체포된 이후 전투가 진행된 격전지였으며 현재는 기념관과 영회당, 기념탑, 기념공원이 조성되었다.

종합하여보면, 현재 황토현 전적과 같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적은 대부분 현대식으로 간소하게 조성되어 있다. 해당 지역 내 기념공원이나 광장을 설치하고 기념비나 조형물을 둔다. 건물의 경우 최소한의 부속시설들인 화장실, 알림터, 기념관 정도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황토현 전적의 경우 80년대의 기념사업 방식에 따라 사






당형으로 집중 조성되었기에 현재 여타 지역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2. 성역화사업 등에 따른 국가사당 사례 조사

앞서 살폈듯, 황토현 전적의 사당형 공간구조는 1980년대에 집중 조성되었다. 이는 국가의 중요 인물들을 기리는 60~70년대 성역화 사업과 연장선으로 보인다. 이에 국가사당 건물이 지어진 사례 5곳을 함께 비교하여 보는 것으로 그 연관성을 밝혀볼 수 있다.²⁸⁾ 주요 사례 5곳은 모두 조선시대의 사당형을 참조한 공간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²⁹⁾ 이를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6).

〈표 6〉 1960-70년대 설립된 주요 성역화 사업

(출처: 표 내 이미지는 네이버지도 항공사진 나머지는 연구진 작성)

	아산 현충사	서울 낙성대 안국사	예산충의사	충주충렬사	의령충의사
항공 사진					
건립 시기	1966~1969년, 1972~1974년	1973~1974년	1974~1977년	1977~1978년	1977~1978년
기념 인물	이순신	강감찬	윤봉길	임경업	곽재우

28) 은정태, 2005, 「박정희시대 성역화사업의 추이와 성격」, 『역사문제연구』 15, 역사문제연구소, 251~252쪽.

29) 권오현, 2010, 「역사적 인물의 영웅화와 기념의 문화정치: 1960~1970년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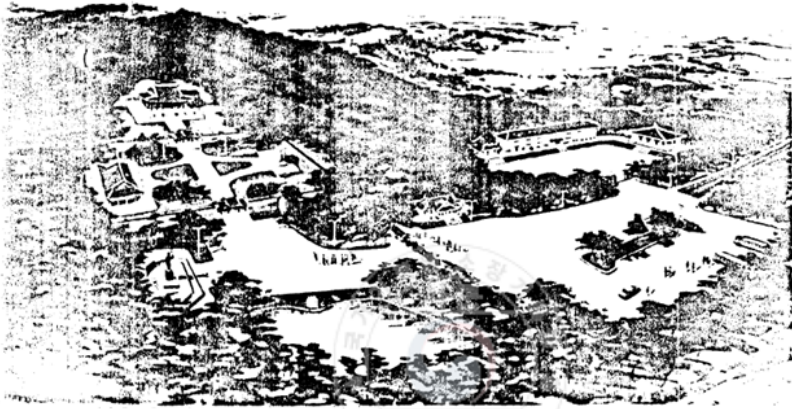
	아산 현충사	서울 낙성대 안국사	예산충의사	충주충렬사	의령충익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성역화사업' •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유적정화사업' [담장+외삼문+사당]+연못 전형적인 사당 형식을 따르고 있음	

황토현 전적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변화과정을 거쳤으나 60년대 당시는 기념탑을 건설하는 수준에 그쳤다. 현 전적의 공간구조는 80년대 유적정화사업의 일환이었으나 위의 성역화사업으로 지어진 국가사당의 사례와 놀랍도록 유사함이 발견된다. 이는 국가 영웅과 같이 추대되는 인물들에 대한 기념비를 형성하는 성역화사업의 공간 형식을 답습한 것으로 담장을 두르고 축을 따르는 동선과 정면의 사당 그리고 입구의 연못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면 현 황토현 전적 공간은 황토현 전투에 대한 전승의 의미보다는 전봉준 장군을 기념하는 사당의 형식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여타 전적과 성격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실상, 1980년대 초에는 사당의 건립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29). 이에 당시에도 논란이 일어났다. 동학농민혁명의 사상적 근간이 되는 천도교 총무원장이 직접 전봉준 장군의 사당 건립을 반대했는데 이는 천도교 교리상 사당 건립하여 제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는 강당이나 기념관을 건립할 것을 요청했다. 문화재 3분과 위원장의 경우도 동상이나 기념관 정도로 건립할 것을 제안했고 사당 건립의 불합리함을 말했다. 국사편찬위원회장의 경우 당시 유적 조성 계획이 “...너무 우람하고 권위적인 것보다는 동학사상의 근본과 같이 소박하고 서민적인 유적으로 조성함이 좋겠음”이라 작성했다.³⁰⁾ 결과적으로 80년대 당시에는 실질적인 사당 대신 기념관과 동상이 세워졌기에 외형만 사당의 형식을 유지하는 것이 되었

으나, 당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추모공간이 부재한 상황이었기에 1990년 같은 공간 내 구민사(사우)라는 사당이 건립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당 건립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졌다.³¹⁾

황토현 전적지 정화계획도



〈그림 29〉 사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1980년 황토현 전적지 정화의 초기 계획
(출처: 전라북도, 1980, 「전봉준장군유적정화기본계획수립보고」, 국가기록원 소장(관리번호: BA0045532), 7쪽)

30) 문화재청, 1985, 「전봉준장군 유적정비 조감도 제작」, 국가기록원 소장(관리번호: CA0015353), 161쪽. 문서 내 쪽수가 수정되어 있어 pdf 문서 상에서는 125쪽임을 밝힘.

31) 김광오, 「[전북]동학혁명기념관 사당건립 논란…단체-전공자 반대」, 『동아일보』, 1999.10.07.,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19991007/7474989/1>), 2026.03.16; 나권일, 「반봉건 투쟁 성지에 사당이라니 …」, 『시사저널』, 1999.12.02.,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514>), 2026.03.16.



〈그림 31〉 독립전쟁과 1956 헝가리 혁명의 기념비

(출처:https://www.tripadvisor.co.kr/Attraction_Review-g274887-d7382146-Reviews-Memorial_to_the_1956_Hungarian_Revolution_and_War_of_Independence-Budapest_Centra.html)

전적지의 사례 역시 그 체험적이고 교육적인 차원이 강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두 가지 사례를 간략하게 제시하여 보자면, 먼저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컬로든 전장 방문자 센터〉(Culloden Battlefield Visitor Centre, Hoskins Architects)를 들 수 있다. 해당 공간은 1746년 영국 내 자코바이트 반란군과 영국군의 사이의 컬로든 전투 현장을 기념하고 있는 것으로 2004년 국제공모 당선작으로 실현된 프로젝트이다. 공간은 단순한 기념시설을 넘어서 전투 공간 전체를 보존하며 관련한 전시, 교육 및 컨퍼런스, 카페와 레스토랑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내부 전시동선과 외부의 전장은 건물을 통해 서로 연계되어 방문객은 지붕에서 전체 격전지를 조망할 수 있게 된다.³²⁾ 또 다른 사례로는 프랑스의 〈베르딩 메모리얼〉(Mémorial de Verdun, Brochet-Lajus-Pueyo, 리노베이션 2016)을 들 수 있다. 이는 1차 대전 중 베르딩 전투의 참전 용사 주도로 1967년에 박물관이자 기념관으로 2016년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내부 공간에는

32) Hoskins Architects, 「Culloden Battlefield Visitor Centre」, Hoskins Architects Projects(<https://www.hoskinsarchitects.com/en/projects/arts-heritage/culloden-battlefield-visitor-centre>), 2026.03.16.

당시 베르딩 전투의 참혹한 현장을 재현하는 전시공간이, 옥상과 신축된 상층부는 파노라마로 격전지의 지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³³⁾



〈그림 32〉 켈로든 전장 방문자 센터(좌), 베르딩 메모리얼(우)
(출처: 직접 촬영(2023.09.19.))

4. 소결: 황토현 전투에 기반한 황토현 전적 정비의 가능성

현 황토현 전적 외의 전적지, 황토현 전적의 공간 형식과 유사한 국가사당의 사례 그리고 현대의 다양한 역사적 사건 기념의 방식을 종합해 볼 때, 오늘날 황토현 전적의 재정비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핵심이 사당의 외형 유지는 아니리라 판단된다. 역사적 사건의 기념에 대한 현대적 접근의 핵심을 고려한다면 본 전적의 가치는 황토현 전투와 승전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에 있다. 더군다나, 오늘날에 와서는 1960-80년대 지어진 한옥 자체가 유적인 것 같은 오인을 불러일으킬 여지 역시 있다. 전통적인 느낌의 건물이 아닌 전적이라는 대지의 의미를 더욱 잘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33) Mémorial de Verdun, 「History of the Memorial」, Mémorial de Verdun (<https://memorial-verdun.fr/en/ressources/ressources-historiques/historique-du-memorial>), 2026.03.16. ; AMC, 「L'enfer de Verdun dans un mémorial rénové」, 『AMC-Archi』, 2016.02.22., (<https://www.amc-archi.com/article/l-enfer-de-verdun-dans-un-memorial-renove>,4458), 2026.03.16.

전적의 장소를 보존하면서 그 의미를 더욱 확장, 심화할 수 있는 현대적 계획 기법이 무궁무진하다. 본 전적은 무언가 뚜렷하게 남기고 보존해야 할 유물이 있다기보다는 장소의 모습을 역사적 가치 속에서 생생하게 재현하는 ‘사적의 가치 이해 및 증진’, ‘교육적 활용’, ‘사적의 효용성 증대’ 등의 차원에서 새롭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사적의 배경이 되는 역사 역시 특정한 유물이나 유적에 기반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재현이나 암시 등을 통해 건축 계획적으로 재창조된다면 황토현 전투의 의미를 시공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V. 사적 가치의 증진을 위한 정비 전략 검토 및 구상

1. 사적정비기법에 관한 기초 검토

종합정비계획의 전략 및 구상에 앞서 황토현 전적이 가지는 사적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사적 정비기법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국가유산청(문화재청)의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및 김철주의 저서(2013) 내용을 종합하여 본 종합정비방안이 갖춰야 할 기본적 정비 내용을 발췌해서 정리해 보면 크게 네 가지 방향이 확인된다.³⁴⁾ 1) 유적 및 유구 정비에 관한 계획으로 유적 및 유구 보존에 관한 계획/배수에 관한 계획/유구의 표현기법에 관한 계획/역사적 건조물 및 구조물의 수리에 관한 계획 등, 2) 주변 정비와 편의·부대시설의 설치방안 등에 관한 계획으로 안내·해설에 관한 계획/

34) 김철주, 2013, 앞의 책; 국가유산청, 2024,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문화재청예규 제341호)」, 2024.05.13.,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6.03.16.

조경 및 식재에 관한 계획/편의시설에 관한 계획/전시시설에 관한 계획/주변 지역 보전에 관한 계획 등, 3) 소방/방재시설 설치 방안, 4) 문화재의 활용, 홍보 및 유지관리 방안이 그것이다. 본 계획에서 주로 확인하고 고려한 부분을 색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 10).

〈표 7〉 1) 유적 및 유구 정비에 관한 계획으로 유적 및 유구 보존에 관한 계획/배수에 관한 계획/유구의 표현기법에 관한 계획/역사적 건조물 및 구조물의 수리에 관한 계획 등

대분류	소분류	주요 방법	
사적의 보존기법	법면 보존 정비	법면녹화	말뚝 보강공사
			잔디 식재
			옹벽을 통한 경사면 보존
			전통석축쌓기
			단애보존
	드잡이		
	성토		모래
			토목섬유
	보존처리		보존처리
			보존환경 개선
식재			
사적의 표현기법	유구 전시		유구 노출전시
			유구 노출전시 + 보호각
			유구 전사전시
			유구 복제전시
	유구 표시		평면표시
			입체 표시
			부분 복원
	복원		지형 복원
			식생 복원

〈표 8〉 2) 주변 정비와 편의·부대시설의 설치방안 등에 관한 계획으로
 안내·해설에 관한 계획/조경 및 식재에 관한 계획/편의시설에 관한
 계획/전시시설에 관한 계획/주변 지역 보전에 관한 계획 등

대분류	소분류	주요 방법
전시 및 교육시설	전시관	유물 전시
		모형 전시
		패널 전시
		영상 전시
		컴퓨터 이용 전시
		체험 전시
체험학습 시설		상설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편의시설	관람로	황도 포장
		생태매트 및 토사 성토
		야자매트
		박석 포장
		데크
		잔디매트
		경계책
	주차장	쇄석깔기
		주차블록
		시멘트
		잔디블록
	화장실	콘크리트+한식 지붕
		현대적 디자인 + 위치에 관한 고려
		전통식 화장실
	정자쉼터	전통 한옥 형태
		향토적 형태
		현대적 디자인
	벤치	사적과 어울리는 방향으로 추가 설치
	음수대	사적과 어울리는 방향으로 추가 설치
	조명	바닥 조명
		가로 조명
가로등		

대분류	소분류	주요 방법
		야간 조명
	그 외	휴지통, 자판기, 그늘막, 우산 및 양산꽃이 등
안내시설	안내소	전통적 디자인
		향토적 디자인
		현대적 디자인
	안내판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길찾기 안내판
		개별 안내판

〈표 9〉 3) 소방/방재시설 설치 방안

대분류	소분류	주요 방법
보호시설	보호각	전통적 디자인
		현대적 디자인(기능만 강조)
	펜스, 인제책	펜스
		경고문
방재시설	화재경보 시설	불꽃 감지기
		비상통보설비
	소화 시설	소화기
		소화전
		트렌처
		스프링클러
		방수처
	방법 시설	감시카메라
		침입감지센서
	방제	병충해 및 생물 화학적 작용에 의한 훼손 방지책

〈표 10〉 4) 문화재의 활용, 홍보 및 유지관리 방안

대분류	소분류		주요 방법
문화재 활용방안	관광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형 (학교와의 연계, 예절, 한자 등)
			체험형 (발굴체험, 고고학체험, 병영체험, 농어산촌체험, 만들기, 스테이 등)
			답사형(사적 코스 답사, 현장설명회, 현장안내 가이드, 지역의 문화 유산 답사 등)
			안내형(현지설명회, 해설사 설명)
			축제형(각종 이벤트, 강연회, 축제)
	스토리텔링 개발/ 콘텐츠 구축/ 전시공간 이용 활성화		학술발표대회 개최
			지역 및 지명에 관한 향토 구술 수집 사업
			웹툰 및 드라마 제작 및 배경 제공
	주요 홍보방안		SNS홍보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점검 및 유지 조치	직접 관리	일상적 유지관리(시설 점검 및 순찰)
			정기적 유지관리(청소, 제초, 보존 처리, 병충해 방제,
			임시적 유지관리(재해재난 및 행사 활용, 현상 변경)
	위탁 관리		일반 관리(순찰, 제초, 청소, 잔디 제초, 겨울 양생)
			전문관리(공조 및 설비, 보존처리업자, 방제 정비업자, 조경업자, 경찰서 및 소방서 관계기관 연락, 경미한 수리 및 현상 변경 업무)
사업추진체계 구축			주요 부처 간 연계 체계 구축

위의 네 가지 항목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우선, 사적 내 주요 유구에 관한 정비기법으로 크게 사적의 보존 기법과 사적의 표현기법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법들은 문화재 보존 및 사적의 가치증진 차원에서 핵심 요소이다. 둘째로, 사적 내 주요 유구에 관한 정비기법만으로 사적의 가치를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사적을 보조할 수 있는 주요 전시, 편의, 안내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로, 사적 및 문화재에 관한 보호 차원에서 보호시설이나 방재시설의 설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문화재가 지역민과 국민들에게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관리 및 유지방안 또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사적 정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유구에 대한 정비는 일반적으로 보존을 기본으로 하고 그에 더해 여러 사적의 의미를 증진할 수 있는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대상인 황토현 전적의 경우 ‘인물/사건 유형’에 대한 정비이다. 이는 해당 공간에 물리적인 유물이 있기보다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서 의미를 가지는 공간이다. 이러한 ‘인물/사건 유형’에 대한 정비의 경우 청에서 권장하는 방법이 부재함으로 사적의 역사적 가치를 증진하는 창조적 정비가 요구된다.³⁵⁾ 김철주(2013)에 따르면, “사건 유적은...대부분 전적지이며, 인물 유적과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터로서 지정되었다. 또한 대부분 상징탑을 세우고 있는데, 현대의 사적정비에서는 높이가 높은 상징물보다는 수평적인 상징물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³⁶⁾ 해당 내용으로 확인되는 바, 황토현 전적과 같은 유형은 대부분 현대의 상징물을 중심으로 재해석된 터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구에 대한 특별한 보호 대책이 요구되거나 보존이 중심이 되는 여타 유형과 달리 본 황토현 전적의 경우 ‘인물/사건 유형’으로 황토현 전투를 중심으로 한 터는 유지하되 비교적 창의적인 기법을 통해 해당 사건의 의미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사적 가치 증진을 위한 정비 전략 구상

본 연구팀에 의한 종합정비계획은 위의 현황에 대한 분석과 사적정비기법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부분적인 유지보수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황토현 전투를 둘러싼 사적의 근본적 가치를 보존 및 강화하

35) 사적정비편람에서는 8개 유형 소개하고 있으나 전적지 등은 없다.

36) 김철주, 2013, 위의 책, 284쪽.

는 창의적 계획 전략을 수립하고자 했다. 이에 3가지 기본 전략을 제시하였다. 1) 동학농민혁명 최대의 전승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증진하는 기념 공간으로 전환한다. 이는 기존 추모나 전시 기능과 혼재된 공간이 아닌 승리의 의미를 강조하는 상징적 터로서 해당 공간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공간 계획으로 이뤄질 수 있다. 2) 역사적 이해에 기초해 주변 자연 지형 및 기념공원과 공존함으로써 사적의 진정성을 증진한다. 앞서 황토현 전투의 역사에서 살폈듯, 전적의 물리적 경계 자체만으로는 전승의 역사를 온전히 기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주변 자연 지형, 특히 남측의 기념공원 및 산지와 적극 연계하여 사적의 의미를 더욱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현대화된 공간 및 시설 도입으로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활용도를 높인다. 수십 년의 노후를 감당하고 있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기존의 한옥식 부속 건물들을 대신하여 최소한의 현대 공간을 도입함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효율화하여 해당 전적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1) 동학농민혁명 최대의 전승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증진하는 기념 공간으로 전환

과거 여러 계획의 혼재로 인해 현재의 황토현 전적은 승전의 역사적 실체와 유리된 전형적인 사당의 형태에 머물러 있다. 사적지는 특정 유물의 보존에 국한되지 않고 사건의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 풍부한 계획적 가능성을 내포한다. 특히 과거 60~80년대의 획일적인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현대적인 창조적 공간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 다양한 국내외 기념 공간의 사례는 공간적 연출이 역사적 기억을 얼마나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보증한다. 황토현 전적 역시 기존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창조적 재해석이 필요하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점인 ‘승전’의 의미를 대지에 새기고, 방문객이 그 시대의 장소성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기념 공간으로 재정비함으로써 타 전적지와 차별화된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2) 역사적 이해에 기초해 주변 자연 지형 및 기념공원과 공존함으로써 사적의 진정성을 증진

현황을 통해 밝혔듯이 1960년대부터 수차례 이어진 일대의 관련 계획들은 종합적 마스터플랜의 부재 속에서 혼란한 동선, 프로그램 충돌 등을 빚고 있다. 특히, 1963년 건립된 기념탑, 1980-90년 사이의 사당형 유적정화사업, 2004년 동학농민혁명 기념관과 교육관의 준공, 그리고 2022년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건설 과정에서 여러 계획 당시의 동선이 중복되고, 기념/추모, 전시공간 등이 이중으로 중복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황토현 전투의 역사를 미루어볼 때 이는 일대 지역 전체에 걸쳐 있는 사건으로 보아야 더 풍부한 의미를 얻게 된다. 현재 사당이 건립된 특정한 한 장소로는 그 과정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 기록에 따라 남측의 산에서부터 현 기념공원, 기념탑이 있는 언덕까지의 연속적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 계획 내에 이러한 연계를 담아내야지만 사적의 이용성과 진정성을 더욱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계획은 황토현 전적과 기념탑이 위치한 문화재구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문화재보존지역과 기념공원 영역 그리고 기념관 및 교육관 등이 위치한 남측의 영역까지로 확장된 종합적 성격을 보일 필요가 있다.

3)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현대화된 공간 및 시설 도입으로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활용도를 높임

황토현 전적 내 건축물 및 시설의 현황은 노후화의 현실을 잘 보여줬다. 조명은 작동하지 않고 휴게용 벤치는 사용이 어려우며 산책로는 조경 관리의 어려움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기존 부속시설로 건설된 기념관과 같은 콘크리트 한옥과 여타 한옥식 건물들은 특별한 유지관리 비용을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 기와에 대한 관리, 단청 채색, 조경관리 등이 대표적으로 이는 지난 20년간 매해 약 1억원의 비용을 소요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형식적으로 건립된 사당형의 외형과 한옥의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지점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새롭게 이해하고, 그 역사적 과정 중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황토현 전투의 의미를 심도 있게 표현할 수 있는 현대식 건축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공간의 경우 기존보다 규모를 줄이고 시설을 모아 몇 동으로 줄이고, 사적 이용가치 증진을 위한 체험형 전시, 휴게 공간 제공 등의 시도도 가능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애주기비용을 포괄하여 지속가능성의 차원을 고려하는 현대 건축기법을 도입하여 미래 사적의 운영 및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VI. 종합정비계획안 및 대안 계획의 제안

1. 종합정비계획안

1) 전체 사업 개요

본 연구는 위의 배경과 전략에 따라서 전승의 역사적 의미, 진정성, 주변 연계성을 증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다. 종합정비계획안의 세부는 영역별 상세한 사업 종류를 담아 정읍시에 제출한 보고서에 담겨 있어 그 내용 전체를 본고에 담을 수는 없으나, 요약하여 정리하자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1〉 〈정읍황토현전적 종합정비계획〉 사업별 종합계획표
(출처: 연구진 작성)

영역별 분류	사업별 분류	개별 사업명	정비계획상 분류	사업내용
A 황토현 전적 사적 내	A-1 황토현 전적 내 시설물 영역의 정비사업	A-1-1 신규 건립 동상 블렬 바람길의 인지성 개선사업	2) 전시시설에 관 한 계획	- 신규 건립된 동상 의 주변 환경 정비 - 동상 전면 공간의 오픈 - 동상과 주변 건물 간의 관계 재정의
		A-1-2 원지형 및 자연녹지 회복사업	2) 조경 및 식재에 관한 계획, 주 변 지역 보전에 관한 계획	- 1980년대 정비된 마당 공간에 대한 부분적 원지형의 복원을 통해 과거 전투지의 모습을 재현 - 과거 전투지의 경관 으로 파악되는 침엽 수림 등의 향토적 자연녹지 복원
		A-1-3 동선 및 연결부 개선사업	2) 주변 정비에 관 한 계획	- 동선 연결부 확장 및 바닥재, 조경 등 변경을 통하여 주변 지역과 관람 연계를 강화
		A-1-4 안내시설 정비사업	3) 소방 방재시설 설치 방안 2) 안내·해설에 관 한 계획	- 현 시설물 현황 유 지 및 관리 - 전적지 안내 안내 판 개선 및 정비 - 약 10개소 이하
		A-1-5 기존 건축물 관련사업	1) 역사적 건조물 및 구조물의 수 리에 관한 계획, 2) 편의, 전시시설 에 관한 계획	- 기존 건축물 활용/이 진/철거 등 향후 계 획에 대한 안전조사 및 학술대회 진행 (대안) 전체 건축물 유 지 관리 비용 (대안) 기존 건축물 및 프로그램 개선 (대안) 기존 건축물 철 거/이진

영역별 분류	사업별 분류	개별 사업명	정비계획상 분류	사업내용
		A-1-6 기타 연계사업	4) 문화재의 활용 방안	- 황토현 전투 관련한 학술 세미나 통해 미 래 황토현 전적의 활 용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자료 확립
			4) 문화재의 활용 방안	- 황토현 전적 활성 화 프로그램 개발 - 관련 활성화 사업 실행
			-	- 황토현 전적 종합정 비 계획에 대한 현상 설계공모 추진
	A-2 황토현 전적 주변부 정비사업	A-2-1 부속시설 신축	2) 편의, 전시시설 에 관한 계획	- 전적 및 주차장에 분 리 설치된 기존 화장 실 2동, 폐 컨테이너 (전적 동측) 2동, 폐 탱크 1ea 등 노후 시 설물의 확인과 철거
				- 기존 사무실 및 화 장실 대체, 및 신규 어메니티(소규모 음식점 및 기념품 점) 신규 보조시설 건립
				- 전시실 전시컨텐츠 기획 및 설치
		A-2-2 보행로 환경개선	2) 조경 및 식재에 관한 계획	- 산책로 신규 포장 및 전기배선공사(정 비), 발목등형 조명 설치 등 환경 정비
				- 산책로 내 안내판 설치
		A-2-3 기념탑 전망공간화	2) 조경 및 식재에 관한 계획, 안 내·해설에 관한 계획	- 기념탑 인근 높게 자란 식재 변경하 여 전망공간 확보 - 바다포장(바닥형 방 위표 설치)

영역별 분류	사업별 분류	개별 사업명	정비계획상 분류	사업내용
	A-3 황도현 전적 일대 조경환경 정비사업	A-3-1 기존 대나무숲 확장 및 관리	2) 조경 및 식재에 관한 계획	- 이대숲 확장하여 영역확정 및 관리
		A-3-2 무궁화동산 환경정비	2) 조경 및 식재에 관한 계획	- 일대 식재 변경 및 관리하여 소나무 등의 연속된 숲 조성
		A-3-3 자연녹지복원	2) 조경 및 식재에 관한 계획	- 기존 포장 제거 후 소나무숲 복원
		A-3-4 현행 숲 관리	2) 조경 및 식재에 관한 계획	- 일대 식재 관리(숲가꾸기)
B 기념공원 내 연계사업	B-1 종합 동선 정비사업	B-1-1 기존 동선 재정비	2) 조경 및 식재에 관한 계획	- 기억의 들판 내 동선 재정비
		B-1-2 동선 유도 포인트 설치	2) 조경 및 식재에 관한 계획	- 연지 인근 기존 정자 철거 또는 이건 - 연지 내 동선을 유도하고 휴게 공간이 되어주는 현대식 정자(pavilion) 설치 (디자인)
		B-1-3 주출입구 공간 개선	2) 주변 정비에 관한 계획	- 주출입구 광장 공간개선 - 주차공간 레인가든 변에 징검다리형 콘크리트 블록 설치
	B-2 관람환경 개선 및 연계사업	B-2-1 주동선 내 차양 및 벤치 추가설치	2)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	- 무더위를 피하고 공원의 조망이 가능한 차양 및 벤치 설치
		B-2-2 관람 거점 내 대어 양우산 설치	2)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	- 태양 및 비를 피할 수 있는 양우산 및 우산걸이 설치
		B-2-3 울림의 기둥 시인성 강화	2) 안내·해설에 관한 계획	- 기존 공원 내 설치된 <울림의 기둥>의 시인성 고려하여 박물관 옥상공간 파라펫 위 안내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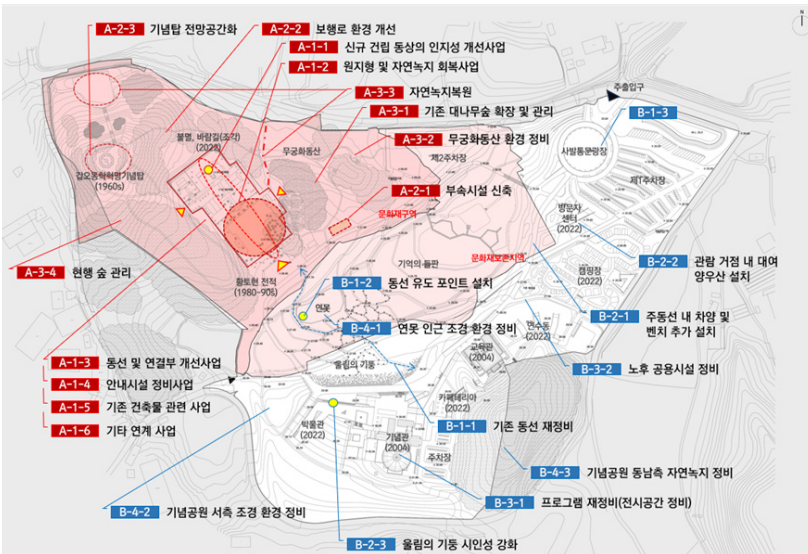
영역별 분류	사업별 분류	개별 사업명	정비계획상 분류	사업내용
	B-3 프로그램 활용 및 노후도 정비사업	B-3-1 프로그램 재정비 (전시공간 정비)	2) 전시시설에 관한 계획	- 기념관(2004) 전시 공간 개선 및 콘텐츠의 노후화 개선 -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에 따라 기념관(2004) 내 전시공간 연출 설계 및 설치
		B-3-2 노후 공용시설 정비	2) 편의시설에 관한 계획	-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1동
	B-4 조경 정비사업	B-4-1 연못 인근 조경환경 정비	2) 조경 및 식재에 관한 계획	- 버드나무류 중심의 수변공간 식재 정비
		B-4-2 기념공원 서측 조경환경 정비	2) 조경 및 식재에 관한 계획	- 무질서한 식재 정비 및 신규 식재
		B-4-3 기념공원 동남측 자연녹지 정비	2) 조경 및 식재에 관한 계획	- 기존 소나무 숲 환경 관리

황토현 전적의 정비계획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된 황토현 전적의 공간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 녹지 및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과의 종합적인 계획을 요구한다. 그러나 종합정비계획의 사업 위계를 고려하여 문화재 구역 내의 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구분하여 전체 계획을 1차적으로는 구역별로, 2차적으로는 사업 내용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전체 계획은 크게 황토현 전적 사적 및 사적 경계 내의 직접적 공간에 해당하는 (A)와 황토현 전적의 실질적 진입로가 되며 그 주변 환경으로 공존하고 있는 기념공원 내의 간접적 공간에 해당하는 (B)로 구분했다.

A에 해당하는 황토현 전적 사적 및 문화재 구역 경계 내의 사업은 다시 3개의 주요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A-1은 황토현 전적 정비사업으로 직접적인 사적 내부 영역의 정비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 다

음으로, A-2는 황토현 전적 주변부 정비사업으로 실질적인 사적의 문화재 구역 내에 위치한 주변 영역 정비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 마지막으로, A-3은 황토현 전적 일대 조경환경 정비사업으로 주변의 자연녹지와 연관된 식재 및 조경 계획이 있다.

B에 해당하는 기념공원 내 연계사업은 다시 4개의 주요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B-1은 종합 동선 정비사업으로 현 황토현 전적과 기념공원 간의 혼잡한 동선 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는 사업을 정리하였다. B-2는 관람환경 개선 및 연계사업으로 현재 기념공원 관람 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B-3은 프로그램 활용 및 노후도 정비 사업으로 황토현 전적 내 있었던 프로그램들을 중복 수용하고 있는 기념관(2004)의 공간 개선 계획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B-4는 조경 정비 사업을 통해 현재 황토현 전적 및 기념공원 주변 영역에 위치한 녹지



〈그림 33〉 〈정읍황토현전적 종합정비계획〉 종합계획도
(출처: 연구자 직접 작성)

공간 등에 대한 관리 계획을 제시했다.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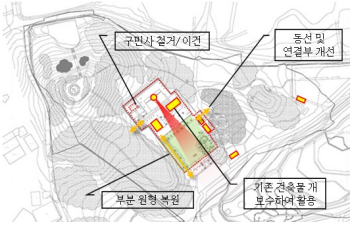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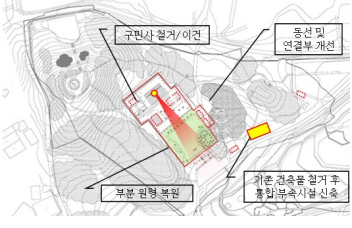
2) 전적 공간의 개선에 대한 대안 검토

전체 계획 중에서 전적 내 사당형 공간의 개선에 있어서는 현재의 공간 준치에 대한 여러 의견을 고려해 대안 비교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는 전체 사업 계획 중 기존 건축물의 준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A-1-5에서의 사업 결정과 신규 부속시설의 건립에 대한 A-2-1의 시행 여부와 관련하여 구분된다.

〈표 12〉 사업추진 대안에 대한 비교검토표 (출처: 연구진 직접 작성)

대안1	주요내용	유지, 보수 및 일부 리모델링 중심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건물들에 대한 유지 및 개보수 진행하여 지속 활용(*구민사 유지/보수 포함) - A-1-5 사업 중 유지 및 개보수 - A-1-2, A-2-1 사업 제외
	대안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시설의 신축, 자연녹지 회복에 대한 비용 부담 없음 - 그러나, 기존 공간의 개보수를 통한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단청 등 한옥 건축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적 부담 지속 - 연간 발생하는 유지 관리 비용은 1년 기준으로 적용 (*지난 20년간 약 연 1억의 비용 사용)
	사업비	낮음

37) 상세한 개별 사업의 계획은 정읍시에 제출한 보고서 내의 내용을 참고. 정읍시, 2024, 『정읍 황토현 전적 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수행).

대안2	주요내용	유지, 보수 및 리모델링 + 부분 원형복원
 <p>구민사 철거/이건</p> <p>동선 및 연결부 개선</p> <p>부분 원형복원</p> <p>기존 건축물 개보수하여 활용</p>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건물들에 대한 유지 및 개보수 진행하여 지속 활용, 구민사의 경우 이건 검토 - 시설물 영역 내 광장 공간에 대한 원지형 및 자연녹지화 사업 수행하여 사당형 공간 구조를 개선 - A-1-5 사업 중 유지 및 개보수, A-2-1사업 제외, 구민사 개선 비용 제외 및 철거/이건 비용 추가
	대안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속시설의 신축 비용 부담 없음 - A-1-2 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원지형의 역사적 의미를 회복할 수 있으나, 기존 건축물의 지속 활용으로 인해 실내 공간 개선에는 한계가 있으며, 단청 등 한옥 건축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적 부담 지속 - 연간 발생하는 유지 관리 비용은 1년 기준으로 적용 (*지난 20년간 약 연 1억의 비용 사용)
	사업비	중간 (관리비용 높음)
대안3	주요내용	일부 개보수 및 철거 또는 이건 + 부분 원형복원
 <p>구민사 철거/이건</p> <p>동선 및 연결부 개선</p> <p>부분 원형복원</p> <p>기존 건축물 철거 후 통합/부속시설 신축</p>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건물들의 철거/이건을 적극 고려, 여러 필수 프로그램인 사무실, 전시실(황토현 전투 관련), 화장실 통합 부속시설 신축 - A-1-5 사업 중 철거/이건을 고려
	대안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에 대한 비용 부담 예상 - 그러나, 전승지라는 사적의 의미를 제고하고 일대 문화관광 자원과 적극 연계하여 사적의 교육적 활용도 측면에서의 증진이 기대되는 계획 - 한옥 건축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장기적 비용부담 감소
	사업비	높음

대안1과 2는 현재 건축물들의 유지 및 개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기념관의 경우 내부 전시 콘텐츠를 개선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그러나 대안1의 경우 전체적인 공간구조 역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여 A-1-2의 사업을 제외하였고 추정 사업비를 최소화하였다. 대안3의 경우 현재 건축물들에 대한 적극적 철거를 검토하였고, 그에 따른 전면적 공간 재구성을 계획하였다.

구민사의 경우 철거와 이건 모두 검토할 수 있으나, 우수한 한옥 건축물이며 지난 수십 년간 사당으로 장기간 쓰였던 공간임을 고려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주요 추모 공간으로 이건하는 것으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³⁸⁾ 물론, 현 기념공원 박물관 일대 공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안1의 경우 전체 건축물을 유지/보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구민사의 경우 역시 이건 비용이 아닌 유지/보수의 비용으로 상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결론지어 보면, 대안1의 경우 당장 드는 사업비는 적지만 중장기적인 유지관리 및 이용성에 있어서 부담이 있다. 또한, 앞서 서술 하였던 사적의 의미를 증진하는 차원에서도 다소간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신축에 대한 부담이 있음에도 사적의 전반적 의미와 교육적 활용을 증진할 수 있으며, 최신 건설 기술 및 설계 기법의 도입을 통해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3과 비교적 온건한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안2를 기준으로 디자인이 포함된 대한 계획 디자인을 수립하여 보았다.

38) 주요 이건 부지는 기념사업회,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진은 현재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추모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대피마을 무명동학농민군 추모비 소재지의 인근이 장소적 성격과도 부합하여 추천하는 바이다.

2. 대안 계획의 제안

1) 대안에 기초한 기획안 상세 전략

사적 정비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1)사적의 보존, 2)사적의 가치 이해 및 증진, 3)교육적 활용을 들 수 있다. 본 계획은 여기서 2, 3의 가치가 전승지의 특성에 더욱 적합하다고 파악하였다. 이에는 ‘기념 대상’, ‘이야기’, ‘대지’에 대한 주목이 요구된다. 먼저, ‘기념 대상’은 기존 ‘황토현 전승’이나 ‘전봉준 장군’을 넘어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복수의 주체들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는 이미 2022년 조성된 우수한 조형물인 <불멸, 바람길>을 통해 어느 정도 구축된 바 있으나 주변 공간이 그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다음으로는 ‘이야기’의 공간화가 필요하다. 이는 전투 과정에 대한 역사적 스토리텔링을 특정한 전시 공간과 전시물이 아닌 해당 장소의 공간 자체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대지에 대한 확장된 이해이다. 이는 황토현 전투의 전개 과정을 통해 파악한 바, 사시봉, 시루봉, 매봉, 황토현 등 전체를 아우르는 대지를 파악하고 현재의 사적지라는 한정된 범위를 넘어서 확장된 공간적 이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주로 일대 전체의 조망을 통해 연계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한 정비계획을 넘어서 본 논고는 디자인 계획안으로 다음의 4가지를 추가로 제시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먼저는 ‘최초/최대 승리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황토현 전승기념공간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사당형 공간을 넘어서 황토현 전투의 이야기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 구조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다음은 ‘황토현 전적과 기념공원을 아우르는 진입 거점 공간 계획’이다. 이는 대지 전체와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이야기를 확장하는 공간을 제안하는 것으로, 수평적으로 넓게 펼쳐진 기존의 기념공원 진입 공간에 수직적 조형을 부여 전체 전적과 기념공원을 연계하는 거점을 마련하는 계획이다. 세 번째는 ‘신규 관람 노드 시설 설치 계획’으로 노후 분산된 기존 시설을 현재의 공간구조에

말게 통합하여 재배치하고 새로운 관람 동선을 유도하는 신규 공간에 대한 제안이다. 마지막으로 ‘기념탑 주변 공간 개선 계획’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언덕 위 녹지로 남아있는 기존 기념탑 공간을 역사의 일부로 수용, 전체 공원의 일부이자 또 하나의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장소로 재구성하는 계획이다.

2) 최초/최대 승리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황토현 전승기념공간 계획

전승기념공간 계획의 경우 앞서 대안2, 3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을 취할 수 있다. 대안2의 경우 현행 대상지의 건물을 유지하며 담장이나 문을 제거하고 일대의 공간구조만을 변경하는 계획인 반면, 대안3의 경우 전체 공간구조는 물론 건물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구성이 가능하기에 다시 그 안에서 두 개의 다른 제안을 담았다.³⁹⁾

〈표 13〉 황토현 전승기념공간 계획안 (출처: 연구진 작성)

구분	대안2. 현황유지	대안3a. 열주광장	대안3b. 햇불의 언덕
조감도			
규모	현황유지 (약 11,700㎡)	약 6,740㎡	약 3,820㎡
특징	대상지의 현행 건물 유지 건축물 내 인테리어 및 콘텐츠 개선 조경 환경 개선 및 정비 전면 담장 및 문 제거하여 개방	현행 조각 위치 유지하고 일부 변형하여 전체 공간 구성과 조화 양측 열주를 중심으로 중앙광장 형성, 기념의 효과 강조 중앙 빛, 불꽃 등을 통해 경관 연출	조각상과 함께 걸어가는 체험 중심의 적극적 조각 재배치 조각 위치 변경으로 전체 사업 대상지 축소하여 비용 절감 열주 설치로 기념 강조 및 관람환경 개선

39) 본 논문에 담긴 제안은 전체 공간의 기획 수준으로 최종적인 안은 여타 관련자들의 협의와 현상설계를 통해 발전되어 수행할 필요가 있다.

(1) 대안2 계획

대안 2는 현황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사적 내 기존 건축물 및 시설의 기능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수준의 보수적 접근 방식을 취한다. 이는 신축 공사 없이 최소 자본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경제적 이점이 있으나, 장기적인 공간 혁신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본 대안의 핵심적 변화로서 전면 담장 및 게이트의 부분 철거와 수림대(조경)로의 대체를 제안한다. 이는 기존의 물리적 경계가 기념공원 등 주변 공간과 사적지를 단절시키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담장 철거를 통해 <불멸, 바람길> 조형물로부터 남측 들판으로 이어지는 시각적 통경축을 확보함으로써 공간의 연속성과 개방감을 극대화하였다.



〈그림 34〉 황토현 전승기념공간 계획의 대안2 조감도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35〉 황토현 전승기념공간 계획의 대안2 기념공원에서 본 투시도
(출처: 연구진 작성)

담장의 제거 또는 변경은 역사적 유적 등의 접근성, 교육적 가치 등의 재고를 위해 수행된 선례가 확인되는 사업이다. 이를테면, 대전 둔산 선사유적지의 경우 기존 600m 길이의 담장이 유적 내부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트려 2008년 북쪽면 300m 담장을 철거하고 조경을 보완하였다.⁴⁰⁾ 또, 박팽년 선생 유허비의 경우 기존 담장으로 닫힌 공간이 관람을 어렵게 하고 우수유출 민원이 있어 이를 2020년 정비계획 수립하고 2023년 사업을 진행해 담장을 철거하고 산책로와 벤치를 조성했다.⁴¹⁾ 부여 정림사지의 경우 1982년 사적지를 둘러싼 1.9m 한식 담장이 가시성과 접근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인지되어 2023년 정비사업을

40) 윤희일, 「대전 둔산선사유적지...7년 담장 허물고 시민 걸으며」, 『경향신문』, 2008.06.08., (<https://www.khan.co.kr/local/Chungcheong/article/200806081841265>), 2026.03.16.

41) 이연지, 「대전시 기념물 1호 박팽년 선생 유허,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충남일보』, 2023.10.16.,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8481>), 2026.03.16.

통해 1.2m로 낮추고 주변 지역과 시각적으로 연계하였다.⁴²⁾ 이처럼 담장 철거 및 조경 정비의 경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14〉 담장 철거가 진행된 유적지 사례 (출처: 연구진 작성)

구분	대전 둔산선사유적지	박팽년 선생 유허비	부여 정림사지
사진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317번길 9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326번길 28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600m 길이 담장이 유적 접근성을 떨어뜨려 300m 담장 철거 - 조경수 등 보완하여 주변 경관 개선, 휴식시설 추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담장으로 닫힌 공간이 관람을 어렵게 하고 우수유출 민원이 있었음 - 2020년 정비계획 수립하고 23년 사업을 진행해 담장 철거하고 산책로와 벤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2년 사적지 둘러싼 1.9m 한식 담장이 가시성, 접근성이 저해된다는 문제 존재 - 2023년 정비사업으로 1.2m 담장으로 높이를 낮춰 지역과 연계
출처	장영래. 2008.06.09. 충청타임즈	대전광역시 중구청	김기태. 2023.09.15. 중도일보

(2) 대안3 계획

대안3의 경우 두 개의 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는 2022년 설치된 〈불멸, 바람길〉 동상을 최대한 활용하는 안으로 하나는 동학 농민군이 남측의 들판과 산을 바라보는 대안3a와 전투의 승리 이후 동학농민군

42) 이현순, 「정림사지 오층석탑, 담장 높이 확 낮춘다」, 『로컬투데이』, 2023.08.21., (<https://www.loc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19>), 2026.03.16; 김기태, 「정림사지 담장 낮추기 '신의한수'...닫힌 문화재 활짝」, 『중도일보』, 2023.09.15., (<https://m.joongdo.co.kr/view.php?key=20230914010004185>), 2026.03.16.

과 함께 북쪽을 바라보며 행진하는 듯한 대안3b를 들 수 있다. 이를 각각 ‘열주광장’과 ‘횃불의 언덕’으로 이름 지을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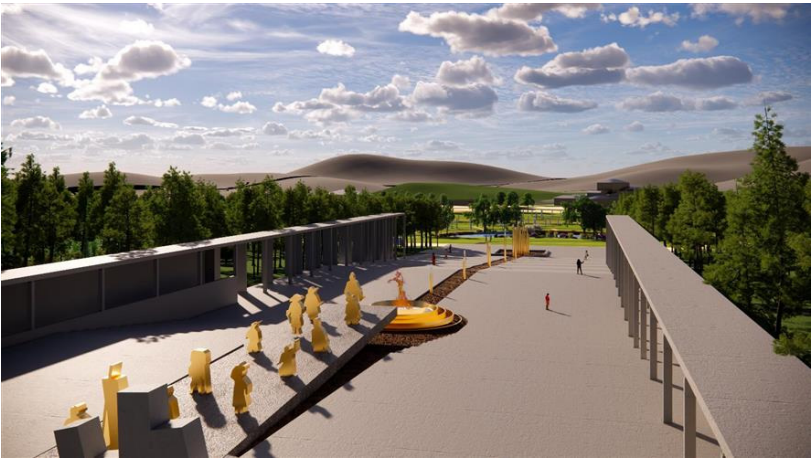
먼저, 대안3a인 열주광장은 <불멸, 바람길>을 중심으로 뻗어가는 전승의 공간을 형성하는 계획이다. 현재의 조각 위치와 방향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 조각의 위치를 조정하여 영역을 확장한다. 양측에는 열주랑을 설치하여 전승으로서의 기념 효과를 극대화한다. 조각의 후면에는 일대에 존재하는 대나무 숲을 확장하여 배경을 채움으로 상징적인 조경 경관을 형성한다. 중앙에는 거친 돌과 빛을 활용해 길게 뻗은 조경 공간을 만들어 평등과 자유, 동학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걸어온 험난한 여정을 상기한다. 최종적으로는 남동측으로 전진하는 군상을 중심으로 하는 대칭적인 공간을 구성, 조각과 기념공원을 개방감 있는 광장과 같이 연결하여 남측의 들판과 산으로 연결되는 조망을 확보한다.



<그림 36> 황토현 전승기념공간 계획의 대안3a 조감도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37〉 황토현 전승기념공간 계획의 대안3a 기념공원에서 본 투시도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38〉 황토현 전승기념공간 계획의 대안3a 열주광장에서 기념공원을 바라본 투시도 (출처: 연구진 작성)

대안3b인 햇불의 언덕은 기존 사당 내 폐쇄적 공간에 배치되었던 <불멸, 바람길> 조각의 범위를 확장하여 방문객이 황토현 언덕을 조각 군상과 함께 등반하며 전투의 일원이 되는 체험적인 서사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기존 인물상의 규모를 확대하고 신규 군상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공간의 밀도와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며, 이를 통해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고 다양한 기념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재편한다. 특히 조각 군상의 후면에는 기존 대나무숲을 광범위하게 확장 조성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적 경관을 구축하고, 야간에는 인물상 사이사이에 배치된 햇불 형태의 조명을 통해 당시 전투의 역동성과 승고함을 시각적으로 재현한다. 주요 체험 동선인 언덕 위 조각군과는 별개로, 전체 공간을 조망할 수 있는 열주 형태의 관람 동선을 확보하여 공간의 위계와 이용자 편의성을 동시에 도모한다. 기존 지형보다 가파른 경사를 활용하여 조성된 상부 평탄면은 황토현 전투지 일대를 부감하는 전망대 역할을 수행하며, 그 종단에는 상징적 햇불 조형물을 설치하여 전승지의 장소적 중심성을 시각화한다. 조각이 배치된 경사면 하부 지하층에는 황토현 전투의 전개 과정을 특화한 기획 전시 공간을 마련하며, 실내의 어두운 환경을 활용한 몰입형 미디어 아트를 도입함으로써 방문객에게 전투 현장의 긴박함과 역사적 실재감을 전달하는 생동감 있는 교육공간을 제공한다.



〈그림 39〉 황토현 전승기념공간 계획의 대안3b 조감도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40〉 황토현 전승기념공간 계획의 대안3b 기념공원에서 본 투시도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41〉 황토현 전승기념공간 계획의 대안3b 중 북향을 향해 올라가는
체험형 언덕길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42〉 황토현 전승기념공간 계획의 대안3b 언덕길 하부 체험형 전시 콘텐츠 기획공간 위치 (출처: 연구진 작성)

3) 황토현 전적과 기념공원을 아우르는 진입 거점 공간 계획

황토현 전적지와 기념공원을 아우르는 진입 거점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분산된 동선 체계를 2022년 조성된 기념공원의 주 출입구로 단일화하는 통합 거점 동선 전략을 제안한다. 현재 기념공원의 출입공간인 사밭통문광장은 평탄한 대지 조건으로 인해 가독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평면적 구성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높낮이 계획을 통한 체험형 공간으로 재구축한다. 이는 관람객의 자연스러운 진입을 유도함과 동시에, 전승지 전체의 역사적 맥락을 관통하는 서사적 기점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43〉 기념공원 진입공간인 사밭통문광장의 현황 (출처: 연구진 촬영)



〈그림 44〉 기념공원 내 주 진입공간의 위치

진입부의 핵심 요소인 사발통문의 정체성은 조형적 재해석을 거쳐 ‘기울어진 철제 원반’ 형태의 구조물로 형상화한다. 이 원반형 조형물은 평면적인 원형 광장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돌출된 공간으로 광장의 중심을 점유하며 주변 유동 인구를 흡수하는 시각적 초점으로 작용한다. 특히 황토현 기념탑과 같은 고지대 조망 시 독특한 기하학적 형태를 통해



〈그림 45〉 사발통문의 이름을 담은 대형 철제 원반형 구조물
(출처: 연구진 작성)

일대의 정체성을 강렬하게 각인시킨다. 공중에 부유하는 듯한 원반 하부에는 주변 지표면보다 낮은 선큰형의 전시 공간을 조성하여, 기념공원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몰입형 전시 환경을 구축한다.

상부 구조물인 철제 원반에는 사발통문에 기록된 역사적 주체들의 성명을 타공 처리하여, 투과된 자연광이 바닥면에 ‘빛의 이름’으로 새겨지도록 설계한다. 이와 동시에 하부 바닥면에는 동학농민운동의 주요 연표를 기록한 타임라인을 배치함으로써, 상부의 부유하는 이름들과 하부의 역사적 사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교차하는 특별한 공간적 체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건축적 장치는 전체 기념공간의 입구가 방문객으로 하여금 단순한 통로를 넘어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가치를 내면화하는 전이적 공간으로서 기능하도록 한다.



〈그림 46〉 타공된 철제 구조물(좌), 빛의 이름과 역사적 사건의 겹치는 체험형 전시 공간(우) (출처: 직접 촬영(2023.0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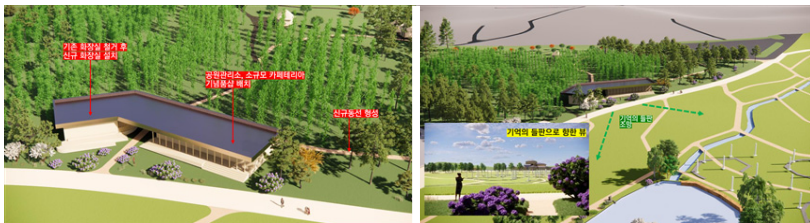
4) 신규 관람 노드 시설 설치 계획

기존 황토현 전적 내 부속시설들을 철거하고 외부 공간화할 경우, 전적 자체의 유지와 운영에 필수적인 실내 공간들이 요구된다. 이에 기존 시설의 프로그램 중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모아 신규 시설을 설치한다. 이 시설은 사당형 담장 내부가 아닌 외부의 동측에 신설하여, 기념공원 및 주차장과의 관계에서 관람 동선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위치에 배치한다. 일대 주요 시설들 사이에 위치함으로 관람 노드 및 휴게 공간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림 47〉 전체 공간 내 신규 관람 노드 시설의 위치도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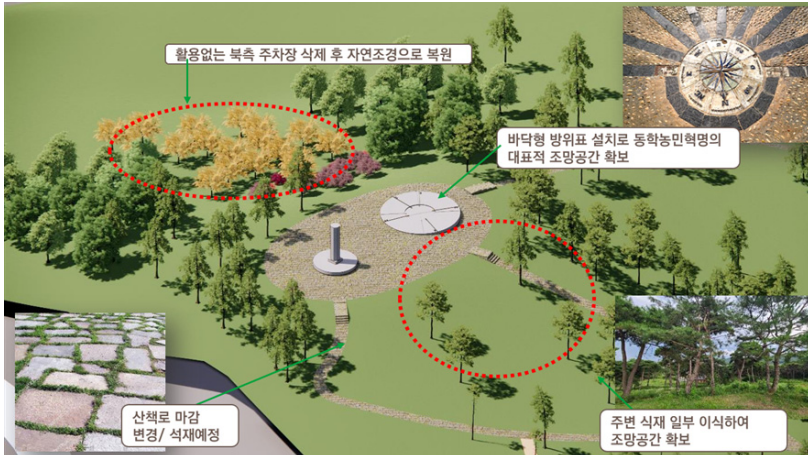
내부 프로그램으로는 기존 화장실 및 관리소를 새롭게 조정하여 배치하고, 주차장과 연결되는 신규 산책로를 조성하고 건물 내로 관통시켜 통합되도록 계획한다. 남측으로는 낮고 깊은 처마를 설치하여 기념공원 내 핵심적 공간인 기억의 들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관람 포인트이자 무더운 여름철 휴게 공간으로 기능한다. 재료는 목재, 내후성 강판 등과 같이 시간의 흐름에 자연스러운 거친 재료를 활용하여 배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건축으로 계획한다.



〈그림 48〉 신규 관람 노드 시설의 예시 조감도(좌), 신규 관람 노드 시설과 기념공원의 관계(우) (출처: 연구진 작성)

5) 기념탑 주변 공간 개선 계획

1960년대 형성된 기념탑 공간도 주변에 대한 개선 계획이 필요하다. 기념탑 인근의 노후화된 인공 구조물을 정비하고, 지형적 이점을 활용하여 황토현 전적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역사적 전망 거점’으로 재조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기념탑 건립 당시 조성되었으나 현재는 기능이 쇠퇴한 북측 주차장 및 진입 계단을 과감히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인근 산자락과 연계된 자연녹지로 복원함으로써 기념탑 주변의 장소적 순수성을 회복한다. 이는 파편화된 대지 흐름을 일체화하고, 기념탑을 일대 경관을 통합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그림 49〉기념탑 주변 공간 개선을 위한 계획도 (출처: 연구진 작성)

현재 기념탑 주변은 1960~70년대에 식재된 소나무 군락이 과밀하게 성장하여 하부 기념공원 및 전적지와 시각적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차폐 현상은 기념탑의 인지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탑 위에서 주변 격전지를 조망하는 데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수목의 선별적 이식 및 정비를 통해 기념관, 기념공원 내 ‘기억의 들판’으로 이어지는 시각적 축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기념탑은 하부 공간뿐만 아니

라 멀리 두승산 산자락까지 한눈에 포착되는 광역적 경관의 중심점으로 기능하며, 전승지의 역사적 위상을 시각적으로 증명한다.



〈그림 50〉 기념공원에서 바라본 정비된 기념탑(좌), 정비된 기념탑에서 내려다본 기념공원 및 일대 산지(우) (출처: 연구진 작성)

기념탑이 위치한 고지대에는 황토현 전투의 주요 거점과 역사적 사건의 발생 지점을 기록한 ‘바다형 방위표’를 설치한다. 방문객은 이 방위표를 지표 삼아 실제 지형과 역사적 기록을 대조하며 조망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풍경 관람을 넘어 당시 농민군의 전략적 이동과 전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교육적 체험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기념탑 일대는 과거의 고립된 기념비적 공간에서 탈피하여, 황토현 전투의 전개 과정과 지형적 맥락을 통합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역사 경관의 핵심부로 거듭난다.

맺음말

본 연구진이 제안하는 정읍 황토현 전적 공간의 재구성 및 기념공원과 연계한 활용 방안은 단순한 시설의 물리적 개보수를 넘어,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승리의 서사와 역사적 진정성을 장소에 투영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황토현 전적이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전적지라는 점에서 그 해석의 가능성이 여타 유적보다 개방적이라는 연

구진의 판단에 근거한다. 본 연구진이 지향하는 사적 정비의 본질은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를 재해석하여 후대에 전달하는 교육적 실천에 있다. 본고에서는 그 결과로서 전적 일대에 대한 전략과 계획안을 소개하였다.

현행 황토현 전적은 1960년대부터 이어진 지속적인 관심으로 다층적인 정비의 역사를 품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다층의 계획들은 황토현 전투 자체의 정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에 한계로 작용해 왔다. 특히 과거의 봉건적 건축 형식을 빌려 봉건적 영웅으로 대상화한 사당형 중심의 정비는, 평등과 자유를 향해 나아갔던 농민군들의 역동적인 에너지와 현대적 의미를 담아내기에 부적절하다는 학술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본 계획안은 이러한 형식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전적지와 기념공원 그리고 주변의 자연 지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2024년에 수립된 종합정비계획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 이행 과제이며, 이번에 제안된 네 가지 핵심 가안은 해당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학술적·계획적 상상력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대안 2는 기존 담장을 정비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전적 공간과 기념공원의 물리적 연계를 도모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간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으며, 대안 3의 각 안은 조각 군상을 중심으로 공간을 전면 재구성하여 전승의 역사적 의미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대안3b의 경우 전적지 일대를 체험적 공간으로 재편함에 따라, 관람객은 〈불멸, 바람길〉의 조각상을 따라 언덕을 등반하며 전투의 주체로서 역사적 사건에 동참하게 되는 적극적인 계획을 담고 있기도 하다. 또한 사발통문 진입공간에 위치한 상징적 조형물은 투과되는 빛을 통해 관람객을 역사의 현장으로 인도하며, 기념탑 상부에서 전장을 조망하는 경관 개선안은 동학농민혁명의 거대한 흐름을 직관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서사적 공간 체계를 구축한다. 실제의 과업 수행에 있어서는 본고의 이 제안들이 하나의 초석이 되어, 국제적 수준의 역사적 가치를 창출하는 완성도 높은 계획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진의 제안이 정읍시, 국가유산청은 물론 동학농민혁명에 관련된 단체, 기관과의 협력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의 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를 통해 황토현 전적이 고립된 유적지를 넘어 지역 주민의 활력 공간이자 세계적인 역사 경관의 명소로 거듭나고,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이 이 장소의 공간이 담는 서사를 통해 영구히 전승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투고일 : 2026. 4. 3. 심사완료일 : 2026. 4. 27. 게재확정일 : 2026. 4. 29.

참고문헌

〈사료(史料)〉

- 『영문에서 보낸 기별 [營寄]. 『수록(隨錄)』. (1894).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사료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24r_001_006, 2026.04.01
- 『전주민란의 근황』, 『동학당의 상황』, 『갑오조선내란시말』,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keyword=%EC%A0%84%EC%A3%BC%EB%AF%BC%EB%9E%80%EC%9D%98+%EA%B7%BC%ED%99%A9&mode=view&code=prd_0186r_015, 2026.04.01
- 『김기술문서(金箕述 文書)』 「1894년 12월 일 태인 고현내면 백성 김기술」.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keyword=%EA%B9%80%EA%B8%B0%EC%88%A0&mode=view&code=prd_0062r_007,
- 『김낙봉이력』, 「갑오(1894년) 4월 3일」,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keyword=%ED%99%A9%ED%86%A0&mode=view&code=prd_0037r_006, 2026.04.01
- 『동도문변』, 「백산패적변」,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keyword=%EC%9D%B4%EA%B2%BD%ED%98%B8&mode=view&code=prd_0032r_005, 2026.04.01.
- 『번역 오하기문』, 「고부전투와 관군의 패배」, 한국의지식콘텐츠(<https://www.rpia.co.kr/viewer?plctId=PLCT00004881&tabNodeId=NODE03922124&affectedType=product-main#none>), 2026.04.01.
- 『양호초토등록(兩湖招討謄錄)』, 「승정원에서 열어보십시오(1894년 4월 9일)」,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keyword=%EB%8F%84%EA%B5%90%EC%82%B0&mode=view&code=prd_0027r_006), 2026.04.01.
- 『양호초토등록(兩湖招討謄錄)』, 「승정원에서 열어보십시오(1894년 4월 12일)」, 동학농민혁명 사료아카이브 (https://e-donghak.or.kr/archive/?menu=132&keyword=%EB%8F%84%EA%B5%90%EC%82%B0&mode=view&code=prd_0027r_008), 2026.04.01

<저서 및 논문>

- 권오현, 2010, 「역사적 인물의 영웅화와 기념의 문화정치: 1960~1970년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철주, 2013, 『사적보존관리와 정비의 이해』, (주)놀와.
- 신순철·이진영, 2010,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 외솔회, 1974, 「동학혁명 실화 자료 — 황토현(黃土峴) 전투 기록」, 『나라사랑』, 15, 209쪽.
- 은정태, 2005, 「박정희시대 성역화사업의 추이와 성격」, 『역사문제연구』 15, 역사문제연구소, 241~277쪽.
- 이이화, 1989, 「집중연계 전봉준과 동학농민전쟁 ① 봉기-전주성 점령」, 『역사비평』 9, 역사비평사, 203~252쪽.

<기타 자료(보고서, 지침, 기사 및 웹사이트)>

- 국가유산청(문화재청), 「정읍 황토현 전적(井邑 黃土峴 戰蹟)」, 국가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1333502950000>), 2026.03.16.
- 국가유산청(문화재청), 2009, 「문화재청 고시 제2009-131호」, 2009.12.30.
- 국가유산청, 2024,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문화재청예규 제341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및 동학역사문화연구소. 2020. 『전투로 살펴 본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 126주년 기념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정읍: 정읍시청 대회의실, 8월 15일.
- 김광오, 「[전북]동학혁명기념관 사당건립 논란…단체-전공자 반대」, 『동아일보』, 1999. 10.07.,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19991007/7474989/1>), 2026.03.25
- 김기태, 「정립사지 담장 낮추기 ‘신의한수’...달한 문화재 활짝」, 『중도일보』, 2023.09. 15., (<https://m.joongdo.co.kr/view.php?key=20230914010004185>). 2026.03.25
- 나권일, 「반봉건 투쟁 성지에 사당이라니 …」, 『시사저널』, 1999.12.02.,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514>). 2026.03.25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봉준장군과 동학농민군상(불멸, 바람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유적지 정보(<https://1894.or.kr/>). 2026.03.25.
- 문화재관리국, 1978, 「1978년도 전봉준장군유적정화사업 준공보고」, 국가기록원 소

- 장(관리번호: BA0123270).
- 문화재관리국, 1982, 「전봉준장군유적정비기본사업설계승인신청에대한회신」, 국가 기록원 소장(관리번호: BA0123480).
- 문화재관리국, 1982, 「전봉준장군유적정화설계승인」, 국가기록원 소장(관리번호: BA0123480).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2023, 『2023 사적정기조사 결과보고서』, 문화재청.
- 문화재청, 1985, 「전봉준장군 유적정비 조감도 제작」, 국가기록원 소장(관리번호: CA0015353).
- 문화재청, 1985, 「전봉준장군 유적정비(계획)」, 국가기록원 소장(관리번호: CA0015353).
- 문화재청, 1987, 「전봉준 장군 유적정비 현황 전경」, 국가기록원 소장(관리번호: DEU0004090).
- 문화재청, 1987, 「전봉준 장군 유적정비 현황 황토현전적지 정비 사업 조감도」, 국가 기록원 소장(관리번호: DEU0004090).
- 문화재청, 1990, 「동학혁명사우건립」, 국가기록원 소장(관리번호: BA0811509).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사적정비편람』, 정부간행물발간등록번호(11-1550011-000491-01).
- 백진기, 「[정읍] 황토현 무궁화동산 조성」, 『전북일보』, 2000.12.13., (<https://www.jjan.kr/article/20001213024503>), 2026. 03. 24.
- 원도연, 1999,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기본방향과 과제」, 『1999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방향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
- 윤희일, 「대전 둔산선사유적지…7년 담장 허물고 시민 걸으로」, 『경향신문』, 2008.06.08., (<https://www.khan.co.kr/local/Chungcheong/article/200806081841265>). 2026. 03. 25.
- 이연지, 「대전시 기념물 1호 박팽년 선생 유허, 휴식공간으로 재탄생」, 『충남일보』, 2023.10.16.,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8481>). 2026. 03. 25
- 이치백, 「전북의 기억(37) 황토현 갑오동학혁명 기념탑 건립」, 『새전북신문』, 2010.05.20., (http://www.sjbnews.com/news/news.php?code=li_news_2010&number=407791). 2026. 03. 24.
- 이현순, 「정립사지 오층석탑, 담장 높이 확 낮춘다」, 『로컬투데이』, 2023.08.21., (<https://www.loc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19>). 2026. 03. 25.
- 전라북도, 1980, 「전봉준장군유적정화기본계획수립보고」, 국가기록원 소장(관리번호: BA0045532)

-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주요 전개 과정」, 정읍시 홈페이지(<https://www.jeongeup.go.kr/>), 2026.03.24.
- 정읍시, 2024, 『정읍 황토현 전적 종합 정비계획 수립 용역』,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발간번호 77-4691000-000003-01).
- 조광환, 2020, 「황토현 전투의 전개 과정과 역사적 의의」, 『동학농민혁명 제126주년 기념 학술대회』.
- 천도교중앙총부, 「동학혁명유적지」, 『천도교』, (https://www.chondogyo.or.kr/bbs/board.php?bo_table=sub41&wr_id=86), 2026. 03. 24.
- 한국일보,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 '불멸, 바람길' 세워졌다」, 『한국일보』, 2023.10.10.,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mp/A2023100917070004704>). 2026.03.24.
- 홍상표, 2023, 「1894년 황토현 전투의 재구성」, 『제2회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 기조 강연』.
- Hoskins Architects, 「Culloden Battlefield Visitor Centre」, Hoskins Architects Projects(<https://www.hoskinsarchitects.com/>). 2026.03.24.
- Hugron, Jean-Philippe, 「L'enfer de Verdun dans un mémorial rénové」, 『AMC Architecture』, 2016.02.22., (<https://www.amc-archi.com/article/l-enfer-de-verdun-dans-un-memorial-renove,4458>). 2026.03.24.
- Mémorial de Verdun, 「History of the Memorial」, Mémorial de Verdun(<https://memorial-verdun.fr/>). 2026.03.24.

〈Abstract〉

A Study on the Maintenance Plan for Enhancing the Historical Value of the Hwangtohyeon Battlefield in Jeongeup

Baek, Jin*

This study aims to reexamin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and sense of place of the Hwangtohyeon historic site in Jeongeup and to propose a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based on this analysis. It begins from the recognition that the existing site, developed in 1980s through shrine-centered monumentalization, has not fully reflected the spirit of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ccordingly, the study reconceptualizes the battlefield not as a single location on the map but as an experiential landscape encompassing a broader spatial context. Through site analysis, case studies, and a review of existing heritage conservation approaches, an integrated plan is proposed that connects the historic site, memorial park, and surrounding topography. The study suggests a new direction for historic site conservation and demonstrates the potential for creating commemorative spaces that integrate historical authenticity with contemporary use.

Key word : Donghak Peasant Revolution, Hwangtohyeon Battlefield, Heritage Conservation, Commemorative Space, Historical Significance and Sense of Place

* Professor, Dep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일반논문 ▣

근대 전환기의 불안현의 모습과 새로운 인간형의 출현
- 기행현의 『홍재일기』를 중심으로 -
전경목

근대 전환기의 불안현의 모습과 새로운 인간형의 출현*

- 기행현의 『홍재일기』를 중심으로 -

전경목**

〈목 차〉

- 머리말
I. 근대 전환기 불안현의 모습
II. 새로운 인간형의 출현
맺음말

〈국문초록〉

필자는 본고에서 기행현의 『홍재일기』를 분석해서 근대 전환기에 불안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일기를 쓴 기행현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를 밝히려고 한다. 일기에 나타난 근대 전환기 불안의 모습을 살펴보면, 고을의 중대한 일은 정부의 지시를 따르되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이 모여 서로의 이해관계를 좇아 다른 의견을 표출하고 숙의(熟議) 과정을 거쳐 결정했다. 수령은 정부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전달

* 이 논문은 『2025년 부안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부안 동학농민혁명, 세계로 가다! (2025년 8월)』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만 하지 않고 지역민을 대면해서 설득하려 노력했다. 고을에 부과된 각종 요역과 세금 등은 양반과 평민이 공동 분담하기도 했다. 또 수령은 학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주민은 이에 호응하여 향학열을 고취했으며 정기적으로 모여 시회(詩會) 등을 개최했다. 이러한 결과, 부안은 동학농민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적은 고을이 되었다.

기행현은 어려서부터 전통적인 유교 교육을 받고 성장했으며,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유명한 스승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따라서 그는 기본적으로 개혁적이거나 혁신적인 생각을 품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고을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의 시장을 두루 돌아다니며 물가를 알아보고 값이 싼 곳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으며 자신이 생산한 농작물을 값비싼 시장에 내어다 팔았다. 가족과 노비 및 고공 등 다양한 노동력을 이용해 자신 소유의 토지와 남에게서 빌린 땅을 경작해서 부를 축적했다. 양반과 아전 및 평민 등과 신분이나 계층을 가리지 않고 함께 어울리고 숙식을 같이 했다. 그의 사랑방에 찾아와 서책을 빌리려는 인물이 적지 않았는데 그중에는 평민으로 추정되는 사람도 있었다. 이처럼 그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전의 양반에게서는 볼 수 없는 색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새로운 인간형이었다. 그는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계명성(鷄鳴聲)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기행현, 홍재일기, 부안현, 동학농민전쟁, 새로운 인간형

머리말

행초서(行草書)로 작성된 『홍재일기』는 발굴된 후 여러 연구자의 각고의 노력 끝에 일차적으로 정서본이 공개되었다. 그 후 상당 기간 공동 작업을 통해 우리말로 번역까지 이루어졌다.¹⁾ 국역본이 간행된 후 많은 연구자들은 『홍재일기』를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선행연구로부터 크게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²⁾

1) 한문종, 2022, 「『홍재일기』 해제」, 『국역 홍재일기』,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 참조.

2) 김철배, 2015, 「전라도 부안 士族 奇幸鉉의 『鴻齋日記』와 19세기 후반기 부안의 경제

그러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홍재일기』에는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기 및 일제 초기를 거치는 동안 이제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부안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모습들이 다른 고을에서는 보이지 않고 부안에서만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펴볼 과제이지만,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거론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기행현이 기록한 이 시기를 근대 전환기라 상정하고 이때 부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으며 이에 대해 지역민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일기 작성자인 기행현의 행적을 분석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막연하게 파악해 왔던 조선 후기의 양반상 또는 조선시대 시골 선비상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모습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의 모습이 개혁적이거나 혁명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면에서 새로운 인간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 근대 전환기 부안현의 모습

조선 후기 지역사회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한 막대한 전란의 피해와 거듭되는 흉년으로 지역민들은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재정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지방에 파견되어 직접 백성들을 대면하던 수령들은 중앙정부와 백성과의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전달하

사정」, 『전북사학』 46; 임혜영, 2023, 「일기를 통해 본 지방 사족의 일상생활」, 『전북사학』 69; 김영준, 2023, 「19세기 후반 전라도 부안군 훈집(訓執)의 역할」, 『인문과학연구』 77 참조.

거나 조정하여 타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중앙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 지시를 실행하는데 주력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지방행정 실무자인 아전들은 백성들의 고단한 생활을 외면한 채 오로지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는데 몰두했다. 상황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백성은 자신과 직접 대면하는 아전이나 수령에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 후기 민란에서 타도의 대상이 주로 아전이나 수령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지방의 양반에게 향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1. 향회(鄉會)를 통한 의견 수렴과 결정

그러나 『홍재일기』에 나타나는 부안의 모습은 이러한 이해와 사뭇 다른 면이 있다. 지역의 중대사를 향회(鄉會)에서 지역민들이 모여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 예컨대 1866년 9월 5일의 일기를 보면 향회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8일의 향회에서 소군(小軍) 충원의 숫자를 논의하려고 동원(東園)에서 모임을 갖는다 하는데 오늘까지 (몇 명으로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큰 마을은 두세 명, 작은 마을은 한두 명으로 정할 것이라 말한다.³⁾

위 일기에서 언급한 ‘소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지만, 중앙에서 지방에 배정한 군정(軍丁)이 아니라 지방에서 임시로 동원하는 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령이나 아전의 일방적인 지시로 소군을 배당하지 않고 향회를 통해서 그 인원수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 八日鄉會 小軍充數之意 會于東園 至今未決 而大村或二三名 殘村或一二名爲定云(『홍재일기』 1, 1866. 9. 5.)

그 후 이 향회의 결정에 따라 마을 단위의 면회(面會)가 개최되었는데 기행현이 살던 마을에서는 같은 날 송재(宋齋)에서 열었다. 아마 매우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기 때문에 당일 향회와 면회가 순차적으로 열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8일의 일기에 “송재에서 면회를 했다. 소군 2명이 이 마을에 배정되었다고 한다.”는 기록이 있는데⁴⁾ 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고을의 증대사를 결정하는 향회를 주도하는 사람은 진신유사(縉紳有司)였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달 20일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본읍(本邑)에서는 정언(正言) 김양묵(金養默), 만경(萬頃) 고제희(高濟羲), 정언 이규백(李圭白)으로 진신유사를 삼아 각각 읍의 일을 통솔토록 했다.⁵⁾

이들은 모두 부안 출신으로 과거에 합격한 후 벼슬살이를 했던 전직 관료들이었는데 당시에는 관직에서 물러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있었다. 정언은 사간원에 속한 정6품 관직이며, 만경은 만경현령을 가리켰는데 종5품이었다. 부안의 유림은 이들을 고을의 대표로 선정하여 자신과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향회를 통해 처리하도록 했던 것이다.

참고로 김양묵은 1829년(순조 29)의 정시(庭試)에 급제했으며, 이규백은 1846년(헌종 12)의 식년시(式年試)에 합격했다. 이에 비해 고제희는 만가보(萬家譜)에 무과 급제로 기록되어 있으나 정확히 언제 무슨 시험에 합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⁶⁾

한편 이들이 임명된 것이 ‘진신유사’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향회에는

4) 面會于宋齋 小軍二名入于此村云(『홍재일기』 1, 1866. 9. 8.)

5) 本邑 以正言金養默 萬頃高濟羲 正言李圭白 爲縉紳有司 各領邑事(『홍재일기』 1, 1866. 9. 20.)

6) 이들의 과거 합격 사실은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했다.

과거에 합격하거나 관직을 역임한 양반 이외의 다른 임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홍재일기』에는 이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남하향약안(南下鄉約案)에 진신유사가 부사과(副司果) 김양목, 읍서기유사(邑書記有司)가 진사 백학래(白鶴來), 별유사(別有司)가 김병용(金秉鏞), 면서기유사(面書記有司)가 민치정(閔致鼎), 하유사(下有司)가 장달매(張達每)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⁷⁾, 다양한 임원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하는 직책과 인물은 하유사 장달매이다. 그는 양반이 아닌 평민이나 천민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⁸⁾ 조선 후기에는 향회에도 향약처럼 비양반들이 참여했을 것이므로 이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장달매가 하유사라는 직책에 임명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향회와 면회에서 처리한 주요 사안과 시기에 대해 살펴보면, 1868년 10월에 대원군이 경복궁을 건립하며 원납전(願納錢)을 거두어들이고,⁹⁾ 1869년 10월에 파선(破船)의 세미(稅米)를 다시 납부하도록 한 때였다.¹⁰⁾ 또 1870년 11월에 동포(洞布)를 거두어들이거나,¹¹⁾ 1871년 9월에 서원복설(書院復設)을 상소하고,¹²⁾ 1881년 9월에 향교의 만화루(萬化樓)를 중수할 때 등이다.¹³⁾

7) 見南下鄉約案 則緝紳有司副司果金養默 邑書記有司進士白鶴來 別有司金秉鏞 面書記有司閔致鼎 下有司張達每(『홍재일기』 1, 1866. 12. 27.)

8) 조선 후기에는 향약에 비양반 출신들이 참여하자 그 대표를 선발해 하유사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9) 本面主人 又傳下帖 大院位分內 營建之役 去益浩大 內而京城五部 外而八道四都大小 民人 與緝紳家 班戶廊屬免身役之人 每員每人 當百錢一葉式 願納之意 營門甘結付邑官家 以今二十三日鄉會之意 下帖(『홍재일기』 2, 1868. 10. 19.)

10) 季叔父 自鄉會所來臨 聞則般破稅米 還徵民間之意 鄉會 各從其畜主徵納云(『홍재일기』 2, 1869. 10. 27.)

11) 下帖出來 洞布事 鄉會日子 定于來月初四日云(『홍재일기』 2, 1870. 11. 27.)

12) 今日鄉會 復院伏閣云(『홍재일기』 2, 1871. 9. 24.)

이처럼 국가나 지방의 크나큰 일들은 향회나 면회를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관행적이지 않거나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 등은 반드시 향회나 면회를 거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중앙정부가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증가하는 안건을 이처럼 향회나 면회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다른 시각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향회나 면회의 개최는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를 통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자치적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어도 양반은 물론 평민과 천민까지 참여하는 향회나 면회를 통해 지역민들의 의사를 묻고 속의를 통해 현안을 처리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근대 전환기 부안에서 주목할 만한 상황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2. 지역주민을 대하는 수령의 태도 변화

중앙이나 지방의 현안을 지역주민이 향회나 향약 등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수령이 그만큼 자신의 권위나 권한을 내려놓고 지역민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물론 부안에 부임했던 모든 수령이 다 그러한 것도 아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령이 무능해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향회나 향약에 미루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근대 전환기에 부임했던 몇몇 수령은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역민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한 수령 중의 한 명이 이재영(李載英)이다. 그는 부임한 직후 중앙정부에서 유학전(幼學錢)을 책임지고 거두어 납부하라 지시하자, 자신이 직접 지역을 돌아다니며 지역민과 대면하여 효유하겠다고 공표했

13) 鄕校萬化樓重修事面會 儒學成冊 故往會于禮齋 成冊未修而來(『홍재일기』 3, 1881. 9. 27.)

다.14) 당시 중앙에서는 전국의 생원진사와 유학으로부터 원납전 1냥 1전을 걷어 성균관을 중수하려 했는데, 이때 걷어 들이는 원납전을 ‘유학전’이라 불렀다.15) 그러나 그 명칭과 수납 형태가 어찌 되었든, 본질은 중앙으로부터 각 고을에 일방적으로 배당되었기 때문에 지역민은 이에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생원과 진사 합격자는 성균관에서 시험을 치렀거나 아니면 합격 후 이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나마 직간접적으로 성균관과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이 원납전에 조금이라도 호의적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유학에게는 또 하나의 경제적 부담이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이재영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백성을 직접 대면하여 효유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부안의 수령 중에는 이재영과 같이 지역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권위적이지 않고 설득하며, 지역주민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지역주민의 칭송이 잦았다. 1867년(고종 4) 1월에 기행현의 친구인 허용(許瑢)은 수령에 대해 “힘써 민정(民情)에 뜻을 두니 대동(大同)을 볼 수 있다”고 평했다.16) 당시 부안현감은 이필의(李弼儀)였는데 지역주민의 어려운 점들을 보살피 주고 의견을 귀 기울여 청취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필의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관이었던 전라감사 서상정(徐相鼎)으로부터도 ‘피폐해진 고을을 완전히 소생’시켰다는 극찬을 받았다. 『승정원일기』에 실려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14) 見新官下帖 則以幼學錢責納事回諭云(『홍재일기』 2, 1869. 8. 12.)

15) 聞京奇 則成均館重修之意 生進幼學願納一兩一錢式爲之 而今聞再修云矣(『홍재일기』 2, 1869. 7. 22.)

16) 來時入許瑢氏家 談論極矣 本官評曰 力留民情 可觀大同云(『홍재일기』 1, 1867. 1. 18.)

전라감사 서상정의 장계에, ‘부안현감(扶安縣監) 이필의가 6년 동안 고을을 다스리면서 많은 폐단을 다 바로잡아, 아전들은 그의 청렴과 현명함에 감복하고 백성들은 그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구를 수선하고 관청의 청사를 수리하는 데에 모두 자신의 봉급을 출연하였고, 움[窰]을 설치하여 모곡(耗穀)을 받아서 특별히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였고, 일이 있는 곳마다 사비를 낸 것 등을 이루 다 손으로 꼽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전에 거의 피폐해진 고을이 이제 와서는 완전히 소생하게 되었는데, 한 번 임기가 찼다고 보고하고부터 백성들의 유임(留任)을 청하는 소청(疏請)이 날마다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임(仍任)시키는 일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도록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도신(道臣)의 장계(狀啓)가 이미 이러하니, 부안현감 이필의를 우선 영임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고 하였다.¹⁷⁾

이필의는 무려 6년간을 부안현감으로 재임한 후 부교리(副校理)로 승진했는데,¹⁸⁾ 그가 중앙으로 돌아간 후 향교를 중심으로 지역민이 나서서 공적비를 세우자고 제안했다.¹⁹⁾ 이처럼 부안현감으로 부임한 수령들은 대체로 지역주민과 잘 어울리고 그들의 고충을 듣고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양반과 평민이 경제적 공동 분담

조선 후기 내내 국가의 재정이 여러 요인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정부는 각 지역의 부민(富民)을 파악해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

17) 『승정원일기』, 고종 6년 3월 11일.

18) 弘文館啓曰 新除授副校理李弼儀 時在全羅道扶安縣任所 經筵入番事緊 請斯速乘駟上來事 下諭 答曰 許遞(『승정원일기』, 고종 6년 7월 4일.)

19) 鄕校接人出來 傳回文 本官李雲弼碑役錢事 明日齊會云(『홍재일기』 2, 1868. 6. 8.) 이운필(李雲弼)은 이필의(李弼儀)와 동일인으로 원래는 이운필이었으나 이필의로 개명했다(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참조).

들로부터 원납전을 거두어들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868년(고종 5) 4월에 재정적 압박이 심해지자 각 고을에 부자(富者)의 명단을 작성하고 쌀 1섬을 당백전 12엽(葉)으로 환산하여 납부하라는 조령(朝令)을 내렸다. 부안에 배당된 액수는 총 900석(石)이었는데 이문영(李文永), 신공수(辛公守), 김양묵(金養默), 이운기(李運基), 임행진(林幸振), 신응환(辛應煥), 신극현(辛極賢) 등이 분납했다.²⁰⁾

따라서 당시 부안지역에서는 이문영 등 7명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간의 조사를 통해 신분이 확인된 사람은 김양묵과 신응환이다. 김양묵은 부안의 대표적인 양반 가문인 부안김씨 출신으로,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29년에 문과에 합격한 후 벼슬길에 올라 여러 관직을 역임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는 남하향 약안과 향회에서 거듭 진신유사로 선정되었다.

신응환은 부안의 대표적인 아전 가문인 영산신씨(靈山辛氏) 출신으로 글 짓는 능력이 탁월해 서림정계(西林亭契)에서 여러 차례 장원으로 선발되고 시집을 남기기도 했다.²¹⁾ 그는 넓은 땅을 소유한 지주로 기행현도 그의 토지를 병작하고 있었다. 예컨대 1869년(고종 6) 9월에 추수할 무렵이 되자 작황을 살펴보기 위해 신응환이 병작지를 둘러보고²²⁾ 기행현이 두 달이 지나도록 병작료를 내지 않자 이를 독촉했다.²³⁾ 그래도 납부하지 않자 10일 후 다시 사람을 보내어 거둬 촉구했다.²⁴⁾ 신응환은 바로 이 해에도 전년처럼 원납전을 냈는데 이때 1만 냥을 납부할 정도

20) 朝令 各邑富者成冊 米一石當百錢十二葉換納云 故扶安九百石 李文永辛公守金養默李運基林幸振辛應煥辛極賢諸人 各分納云(『홍재일기』 2, 1868. 4. 8.)

21) 應煥 字興三 號雲夫 純祖乙亥生 有詩集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慶熙宮衛將 誠先保族 孝行純至 再三綱錄 乙巳命旌 癸未一月十九日卒(『靈山寧越辛氏大同譜』 7, 243~244쪽.)

22) 辛應煥看坪來到(『홍재일기』 2, 1869. 9. 4.)

23) 辛應煥促捧畚稅次 送人出來(『홍재일기』 2, 1869. 11. 5.)

24) 辛應煥畚稅促捧次 送人出來矣(『홍재일기』 2, 1869. 11. 15.)

로 부유한 지주였다.²⁵⁾

1868년에 원납전을 낸 7명의 부자 중 겨우 두 사람의 신분만 확인되었는데 이문영과 이운기 및 임행진은 김양목과 같은 양반 출신으로 추정된다. 신공수와 신극현은 신응환과 같은 아전 출신으로 미루어 짐작되지만, 정확한 사실은 더욱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고을에 배당되었던 원납전을 부유한 양반과 아전들이 중심이 되어 납부하는 관행은 점차 확대되어 지역에 부과되던 여러 종류의 경제적·군사적인 부담도 함께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 이전의 양반들은 으레 이를 분담하지 않고 평민과 천민에게 미루었다. 그러나 향회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면서부터는 양반과 비양반이 함께 분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예컨대 1870년 12월에 향회를 열어 가복채(加卜債)는 양반과 평민을 구별하지 않고 8전씩 내기로 하고 동포(洞布)는 매 호(戶) 당 1냥 6전 4푼씩을 내도록 했다.²⁶⁾

가복채는 가복전(加卜錢), 또는 줄여서 가복(加卜)이라고 하며 원래는 관아의 하리(下吏)가 불법적으로 조세율을 높여 거두는 세금을 의미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합법적으로 하리가 거두어들이는 일종의 수수료와 같은 잡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회에서는 이 가복채를 인구 1명 당 8전씩, 그것도 평민이나 양반의 신분 구별없이 모두 납부토록 의결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재산이 많은 양반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일도 있었다. 예컨대 1871년 11월의 일기를 보면 “고복서원(考卜書員)이 나와 고복을 하고서 고채(考債)를 반호(班戶)는 1전, 민호(民戶)는 5푼씩으로 다시 정하고 걸복(乞卜)은 1결당 1부 6속씩으로 완정하였다고

25) 禮洞金文來臨 聞富者願納更出 本邑辛應煥萬兩…云(『홍재일기』 2, 1869. 8. 21.)

26) 聞鄉會事 加卜債無民班八錢式爲之 洞布每戶一兩六錢四分式云(『홍재일기』 2, 1870. 12. 8.)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²⁷⁾

조선시대에는 농사를 짓는 토지의 크기나 비옥도 등에 변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해마다 추수할 때가 다가오면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조사를 했다. 이 조사 행위를 고복(考卜)이라 하고 담당 구실아치를 고복서원(考卜書員)이라 했다. 이때 구실아치들은 토지소유자로부터 일종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고복채(考卜債)이다.²⁸⁾ 그런데 이 고복채를 양반호에는 1전, 그리고 비양반인 민호에는 그 절반인 5푼을 받았다.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그 대상의 신분에 따라 수수료가 이처럼 달랐던 것이다.

4. 수령의 흥학 정책 실시와 주민의 향학열 고취

조선시대 수령들은 대부분 부임 후 흥학(興學)을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했다. 수령칠사(守令七事) 즉 수령이 재임 중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업무 중의 하나가 학교를 세우고 학풍을 진작시키는 일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수령들은 부임한 첫날 향교의 대성전(大成殿)에 가서 공자의 위패(位牌)를 봉심(奉審)하며 낡은 향교 건물을 보수하고 자신의 봉급을 털어 훌륭한 훈장을 초청토록 하였다. 또 백일장 등을 자주 개최하여 문풍(文風)을 진작시키려 노력했다.

부안의 풍속은 ‘숭문학(崇文學)’ 즉 글 짓고 공부하는 것을 숭상하였으며 ‘호순후(好淳厚)’ 곧 온순하고 인정이 두터운 것을 좋아하여 ‘군자향(君子鄉)’ 이른바 군자의 고을로 알려져 있었다.²⁹⁾ 그래서 부임하는

27) 考卜書員出來考卜 而考債更定 班戶一錢 民戶五分式 乞卜 每結 一負六束式 完定云(『흥재일기』 2, 1871. 11. 8.)

28) 황현은 고복채에 대한 폐단이 유독 전라도에서 심했다고 주장했다. 民間舊有考卜債之例 而湖南吏尤橫 故考債尤重 每一結 有至徵租十斗者 至是 令民考卜 勿落吏手 然民習積威 尙听吏考 吏亦稍戢 每結徵錢一二百文 邑各不同 民情稍紓 然通國而計 湖南猶爲最重 而守令畏吏 過於平民 熟級不敢詰 或有反爲之地者(『梅泉野錄』, <考卜債>)

29) 風俗 崇文學(出地志) 好淳厚(上同) … 君子鄉(金慕齋安國 按湖南 聞風俗之美 因名其鄉)

수령마다 학문을 진작시키고 공부하는 풍조를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현재 향교 앞에 있는 비석 27기(基) 중 흥학비(興學碑)가 무려 7기로 다른 지역에 비해 유독 많다. 이 비석들은 향교의 유림이 중심이 되어 설치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1868년(고종 5)의 『홍재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향교에서 접인(接人)이 나왔기에 회문(回文)을 보니, 선사백일장(選士白日場)은 이달 23일이며, 전임 현감 조연명(趙然明)의 흥학비전(興學碑錢) 5전 5푼씩을 가지고 낙영재(樂英齋)로 모이라고 하였다.³⁰⁾

향교의 접인이 나와 회문을 전했는데, 본 고을 수령 이운필(李雲弼)의 비역전(碑役錢)에 관한 일로 내일 모두 모인다고 한다.³¹⁾

부안의 유림은 수령 중에서 향교를 증수하거나 자신의 봉급을 덜어 내어 유명한 훈장을 초치하여 관내(管內)의 자제를 교육시키거나 혹은 백일장을 자주 개최하여 문풍을 진작시킨 현감의 업적을 기려 불망비를 세워주었다. 현재 향교 앞에 서 있는 조연명과 이운필의 흥학비는 1868년 4월과 6월에 각각 위와 같이 건립을 위한 모임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수령들의 노력으로 고을 내에서 흥학의 분위기가 크게 진작되었다. 관아와 향교가 있는 읍내의 자제가 시를 짓고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암자를 찾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1866년(고종 3)의 일기를 보면 기행현이 칠성암(七星菴)에서 동문과 과거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 읍내에 사는 아동 유의열(兪宜烈)이 줄포에 사는 두 명의 김동

曰 君子 林石川億齡詩曰 甕井多君子 金門聚德星(『扶安邑誌』 1, 〈風俗〉)

30) 校中接人出來 視回文 則選士白日場 今月二十三日 前等趙永夏興學碑錢 五錢五分式 佩會于樂英齋云(『홍재일기』 2, 1868. 4. 12.) 그런데 '永夏'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를 '淵明'으로 고치라고 되어 있으나 '淵明'은 '然明'의 誤이다.

31) 鄉校接人出來 傳回文 本官李雲弼碑役錢事 明日齊會云(『홍재일기』 2, 1868. 6. 8.)

(金童)과 함께 이곳에 들렀는데, 그들이 지은 풍축(風軸)을 살펴보니 아름다운 시구가 매우 많았다고 한다.³²⁾

그런데 기행현이 유의열을 소개하면서 굳이 읍내에 사는 아동이라는 뜻으로 ‘읍동(邑童)’이라 칭한 이유는 단순히 그가 사는 곳만을 밝힌 것이 아니라 그의 신분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관아가 있던 읍내(邑內) 혹은 읍중(邑中)에는 양반들이 거주하지 않고 대부분 아전 등 구실아치들이 살았기 때문에 읍내 혹은 읍중에 산다고 하면 자연히 그의 신분이 양반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런데 당시 읍내의 아동까지도 시를 쓰는 열풍이 널리 퍼졌고 또 자신들이 쓴 시를 축(軸)으로 만든 후 지니고 다니면서 여러 사람에게 두루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풍습으로 굳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점인(店人) 장학규(張學奎)가 기행현에게 와서 가끔 『시전(詩傳)]을 빌려가기도 했는데 그가 살던 곳이 옹점(甕店)이었다.³³⁾ 옹점은 사기 그릇 등 토기를 굽는 곳으로, 이곳에 사는 장인은 원래 훈련도감(訓練都監)이나 어영청(御營廳)의 군병(軍兵) 및 여러 상급 관사나 궁가(宮家)의 사내종이었다.³⁴⁾ 더군다나 옹점이 있는 곳은 토기 빚기에 적당한 흙과 이를 구울 수 있는 좋은 찰감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궁벽한 곳에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히 글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지배자에게는 가장 교화(教化)하기 어려운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천주교도가 탄압받자 이러한 곳을 찾아 도피한 것은 바로 그러한 점을 역이용했기 때문이다.³⁵⁾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사는 사람에게도 조선 말기에는 시 짓는

32) 邑童俞宜烈苗浦兩金童來到而今年去 探其風軸佳句甚多(『홍재일기』 1, 1866. 10. 9.)

33) 店人張學奎 詩傳第三卷借去(『홍재일기』 1, 1866. 9. 26.); 瓮店張學奎來到 詩傳第七卷俱解三卷借去(『홍재일기』 2, 1868. 9. 7.)

34) 瓮店匠人 勿論兩局軍兵 及諸上司諸宮家奴子所屬 以陶爲業者 自本曹收稅取用(康熙戊午承傳)(『典錄通考』, <受教輯錄>)

35) 민경은, 2005, 「옹기점의 민속학적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3~63쪽.

열풍이 불었다. 그래서 장학규는 기행현에게 와서 『시전』을 가끔 빌려가곤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광경은 근대 전환기에 조금씩 달라지는 부안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5. 양반과 아전이 함께 참여한 시회(詩會)

근대 전환기에 부안의 풍속이 이처럼 변화하자 부임한 수령들은 더욱 문풍 진작을 위해 노력했다. 1847년 7월에 부임한 조연명은 시계(詩契)를 조직하고 문사(文士)들을 서림정(西林亭)에 불러 모아 시회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그러나 그의 체임 후에는 한동안 이 시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이운필이 현감으로 부임해서 이를 부활시켰다. 1867년(고종 4) 11월에 기행현은 이 시회에 참여하기 위해 개최 전날, 읍에 도착했고 다음 날 시회가 성대하게 열리자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15일: 부안 서림정 앞에 도착했다. 태수 조연명이 만든 계(契)가 있었기
… 때문에 현임 수령 이운필이 이를 중수하여 다시 계를 이어가고
자 하려는 뜻으로 계의 날짜를 내일로 정하였다. 밤에 읍내에 있는
남하주인(南下主人) 이복(李福)의 집에 이르러 잤다. …

16일: 온 고을 (사람들이) 다 모여 서림정에서 수계(修契)를 했다. 생황
과 노래가 떠들썩하여 이날은 천하가 즐기는 날임을 알게 했다.
신구 계첩(契帖)을 살펴보았다. 계장(契長)에는 정언 김양목, 그
다음은 진사 이겸술(李兼述), 이관술(李觀述), 이동식(李東植), 진
사 백학래(白鶴來), 만경(萬頃) 고제희, 주서 채대영(蔡大永), 정언
이규백(李圭白), 송방식(宋邦植), 허희(許禧), 김규혁(金奎爨), …
책실(冊室) 이현오(李玄吾), 엄석귀(嚴錫龜) … 읍내 계원으로 신응
환(辛應煥), 신동직(辛東稷), 신학조(辛鶴祚), … 신종두(辛鍾斗), …
신재명(辛在明) 김명준(金明俊) 등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모두
기록할 수 없다.³⁶⁾

‘서림’은 ‘관아의 서쪽 숲’이라는 의미이며 부안현의 주산(主山)이자 관아의 바로 뒤쪽의 성황산(城隍山)에 있었다. 현감 조연명이 1848년(헌종 14)에 서림 주변의 풍치(風致)가 매우 아름다워서 이곳에 정자를 짓고 서림정계(西林亭契)를 조직하여 매년 봄가을에 한 차례씩 문인(文人)을 불러 모아 시회를 개최했다.³⁷⁾ 서림정계가 개최되는 날에는 부안현의 문인이 모두 모여 글을 짓고 풍악을 울리며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사실은 이때 모인 문인이 양반 출신뿐만 아니라 수령의 참모인 책실과 읍내 계원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기행현이 기록한 계첩의 계원 명단을 통해 알 수 있다. 양반 출신 계원으로는 계장인 김양목 등을 비롯한 이겸술, 이관술, 이동식, 백학래 등이었으며 수령의 참모로는 책실 이현오와 엄석귀 등이었다. 읍내 계원인 신응환, 신동직, 신학조 및 신재명 등은 모두 아전 출신이었는데 신응환과 신재명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였다.

읍내 계원 중 신씨들은 대부분 『靈山辛氏大同譜』에서 찾아지는데 여기에 ‘유시집(有詩集)’ 즉 시집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모두 작시(作詩)의 재능이 뛰어난 인물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명준은 진주김씨(晉州金氏) 출신으로 영산신씨와 함께 이 지역의 대표적인 아전이였다. 이들은 서림정계에서 종종 양반 출신의 문사를 제치고 장원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과 전주부 등지에서 실시하는 백일장 등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되어 문명(文名)을 날리곤 했다.

36) 十五日 扶風西林亭前到 太守趙然明…之所作有稷故 時倅李雲弼…重修 更欲修稷之意 定日子于明日 故夜到邑底南下主人李福家宿 … 十六日 一郡畢集 修稷於西林亭 笙歌鼎沸 因知此日天下同樂之日也 見新舊稷帖 稷長金正言養默 其次李進士兼述 李觀述 李東植 白進士鶴來 高萬頃濟義 蔡主書大永 李正言圭白 宋邦植 許繕 金奎燦 … 冊室 李玄吾 嚴錫龜 … 邑中稷員 辛應煥 辛東稷 辛鶴祚 … 辛鍾斗 … 辛在明 金明俊… 不可盡記(『홍재일기』 1, 1867. 11. 15~16.)

37) 西林亭 在衙舍西 憲廟朝戎申 縣監趙然明草創 後有栞台 北有惠泉 … 因設稷 而每年春秋一次唱和(『扶安邑誌』 1, 〈樓亭〉)

근대 전환기의 부안은 이처럼 신분상 차별이 완화된 면이 있었다. 그래서 양반과 향리 등 전 주인이 어우러져 사회를 개최하기도 해 전통 시기의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점은 기행현이 사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날 읍에 도착하여 남하면 주인(南下面 主人)인 이복의 집에서 머문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다.

II. 새로운 인간형의 출현

『홍재일기』를 쓴 기행현은 근대 전환기의 여러 역사적인 사건을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살아온 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행적을 분석해 보면 전통 시기의 면모를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근대적인 인물의 모습도 드러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일기에 나타나는 기행현의 일생을 살펴보면, 크게 세 차례 변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어느 시점을 계기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서로 중첩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크게 구별해 보면 초년에는 과거시험을 준비하고 중년에는 집강(執綱) 등이 되어 향촌 실무에 종사하며 말년에는 농사에 치중해 재산을 축적하는 등 집안을 일으키는 일에 몰두한다.

우선 과거 준비생으로서의 모습은 주로 1866년(고종 3) 3월부터 1869년(고종 6) 6월까지의 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일기를 작성하기 이전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기를 쓰기 시작한 1866년에 그의 나이는 24세였는데, 가난하고 한미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유학을 공부하고 과거시험에 대비했다. 그러던 삶이 변곡점을 맞이한 것은 조선시대 대부분의 양반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사망과

관련이 있다. 부친이 생존했을 때에는 과거시험을 준비했지만 사망 후에는 과거를 포기하고 대신 가장(家長)으로서 현실에 맞는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이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866년 3월부터 그는 김병용(金秉鏞)과 백학래(白鶴來)를 스승으로 모시고 동문과 접(接)을 구성하여 예재(禮齋)와 칠성암 및 김재(金齋) 등에서 과거 응시를 위한 공부를 했다. 같은 해 8월에 광주에서 개최되는 향시(鄕試)에 응시하고 1867년 9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정시(庭試)와 구일제(九日製)에도 참여했으나 좋은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³⁸⁾ 그러다가 1869년(고종 6) 6월에 아버지가 사망하자³⁹⁾ 그 이후에는 과거시험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향촌 사회에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업무에 종사했다. 물론 그는 과거시험을 준비하면서도 향촌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훈집(訓執)이었던 숙부를 돕고 지역 내의 대소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그러다가 1885년에는 직강(直講), 1891년에는 집강(執綱), 1896년에는 사수(社首), 1897년과 1898년에는 훈약(訓約), 그리고 1904년에는 동약장(洞約長)을 맡았다. 아울러 향교의 석전대제나 여제(厲祭) 및 기우제 등의 제관(祭官)을 역임하는 등 지역의 대소사에 간여했다.⁴⁰⁾ 이 시기는 대략 1885년부터 1904년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활동은 신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기행현의 신분은 비록 양반이었지만 그 지체가 부안지역사회에서는 그다지 알아주지 않는 하층 양반이었다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행현의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주목되는 변화는 그가 집안일 그중에서도 특히 농사를 지어 재산을 축적하고 선조를 좋은 묘자리에 묻기 위

38) 전경목, 2023, 「기행현의 과거 준비와 응시 및 인적네트워크」, 『동학농민혁명연구』 1, 참조.

39) 寅時逢喪(『홍재일기』 2, 1869. 6. 26.)

40) 김영준, 앞의 논문, 57쪽.

해 명산(名山)을 두루 살펴보고 다녔다는 점인데 말년에 이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전통 시기의 유학자와는 달리 농사일에 직접 관여하고 어떤 품종을 선정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수시로 시장에 들러 물가를 알아보고 가격의 변동 등을 파악했다. 또 선조를 명당에 묻기 위해 좋은 자리라고 알려진 곳은 원근을 가리지 않고 찾아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집안일이나 농사 등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를 근대 변환기에 나타난 새로운 인간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1. 임원에는 오르지 못하는 하층 양반 출신

조선시대에는 향교에 출입하면 그 지방의 유림으로 인정하였다.⁴¹⁾ 『홍재일기』를 살펴보면 1866년(고종 3) 3월에 기행현의 숙부는 친구와 함께 향교에 출입하고⁴²⁾ 이듬해 정월에 기행현은 사직대제(社稷大祭)의 축문(祝文)으로 임명되었다.⁴³⁾ 이처럼 그와 그의 숙부는 향교를 출입하고 또 향교의 유림이 주관하는 각종 제사에서 제관(祭官)으로 참여했다. 또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과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예재와 칠성암에서 동문들과 설접(設接)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서 그가 부안에서 유림으로 인정을 받은 사실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행현이나 그의 숙부가 향교에 출입하고 각종 행사에서 제

41) 물론 동재(東齋)에 출입해야 유림으로 인정했다. 향교에는 동재와 서재(西齋)가 있었는데 이곳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분이 달랐다. 동재에 출입하는 유생은 양반이었고 서재에 출입한 자들은 중인(中人)이었다. 최윤진, 1987, 「고창향교 동서재 유생안에 대한 검토」, 『송준호교수정년기념논총』; 전경목, 2008, 「조선후기의 교생-책을 읽을 수 없는 향교의 생도」, 『고문서연구』 33, 참조.

42) 將黃昏之際 淳昌金□□字命表來到 與吾季父 卽入校中(『홍재일기』 1, 1866. 3. 10.)

43) 逢內禮洞金永孝氏 問校中執事分正 則 … 社稷大祭首金彥徹 … 祝余云(『홍재일기』 1, 1867. 1. 27.)

관 등을 역임했지만 향교의 임원이 되지는 못했다. 또 서림정계와 같은 사회에 자주 참여했으나 스승인 백학래나 동문 수학한 김영표 등은 계안에 이름을 올린 반면 그의 이름은 등재(登載)되지 못했다. 같은 양반으로 향교에 출입하고 사회 등에 참여해도 백학래나 김영표와 기행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나 유리천장 같은 것이 존재했다.⁴⁴⁾

1868년(고종 5) 2월의 『홍재일기』에 “우리 면의 훈집 임명장이 숙부의 이름으로 발급되었다”⁴⁵⁾고 기록되어 있어서 기행현의 숙부가 ‘훈집’에 임명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훈집은 훈약(訓約)과 집강(執綱)의 통칭(統稱)으로 『부안읍지』에 따르면, 훈약은 각 면에 1명씩 두고, 면민 중 사인(士人)으로 선발하여 임명하며, 풍속의 위법한 것을 자세히 살펴 찾아내고 기강을 바로 잡는 일을 관장하도록 했다. 집강도 이와 같으며 면장(面長) 역시 각 면에 1명씩 두도록 되어 있었다.⁴⁶⁾ 결국 훈집, 훈약, 집강 및 면장이 경우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부르지만 한 면의 실무를 담당하는 직책이며 양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훈집의 담당 업무가 명목상 풍속과 기강을 규찰하여 바로 잡는 일이었지만 실제 담당 업무는 지극히 사무적이면서 동시에 번거로운 일이 대부분이었다. 예컨대 1868년(고종 5) 5월에 수령은 “각 면의 사수(社首)와 훈집을 동헌으로 불러들여 동석시키고서 당백전의 통용에 대해 대면하여 효유하였다. 각자에게 효유문을 주어 보내며 ‘너희 면으로 돌아가 면회를 열고 면민을 효유하라’고 하였다.”⁴⁷⁾

44) 조선시대에는 어느 고을이나 향안(鄕案)이라는 반벌(班閫) 즉 명망 있는 사족(士族)의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면 기행현이 속한 가문이 부안 내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안의 향안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45) 本面訓執差紙 叔父名下出來矣(『홍재일기』 2, 1868. 2. 30.)

46) 訓約(各面各一員 以士人擇差 掌糾檢風俗紀綱事) 執綱(上同 ○以上丁亥誌) 面長(各面一員)(『扶安邑誌』 1, 〈訓執〉)

47) 各面社首與訓執 招致東軒同席 面諭當百錢行用 各授曉諭文一本出送 各歸爾面 面會曉諭云矣(『홍재일기』 2, 1868. 5. 16.)

당백전은 흥선대원군이 주조한 동전인데 경북궁 중건 등으로 인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발행했다. 그러나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자 정부에서 혼집 등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려 했다.

혼집의 업무는 이처럼 번거롭거나 자질구레한 허드렛일이 대부분이었다. 또 가난해서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세금을 수납하는 등의 일이었다. 따라서 지역에서 명망이 있는 양반들은 이를 기피하려 했다.

더구나 여러 가지 잡무로 수령이나 암행어사로부터 호출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심지어는 처벌을 받는 사례도 흔했다.

15세 이상의 원납인구(願納人口)를 성책(成冊)하여 보고하지 않은 일로 하체[下帖]가 나왔는데 “혼집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읍저(邑底)에 와서 대령하라”고 했다.⁴⁸⁾

수령이 혼집에게 읍내에 와서 대기하라고 한 것은 원납인구 성책을 제대로 작성하여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였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수령이 혼집을 처벌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혼집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관아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아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지휘를 받는 일조차 있을 수 있었다. 사인 출신으로 혼집을 임명토록 규정했지만 사정이 이러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양반들은 이를 기피하며 맡으려 하지 않았다. 하층 양반 중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마지못해 혼집을 맡거나 아니면 성공지향적인 비양반 출신들이 맡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48) 十五歲以上願納人口成冊不報之事 下帖 訓執夙夜 來待于邑底云(『홍재일기』 1, 1868. 11. 5.)

기행현의 숙부나 기행현이 훈집을 역임하던 시기에 주로 하층 양반이나 비양반들이 훈집을 맡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록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친구 김성서(金聖瑞)가 향교로부터 와서 수령의 하체를 전하여 말하기를 “효열(孝烈)의 실제 행적은 밖에서 거짓으로 추천할 수 없고 각 면의 훈집 역시 반벌(班閥)이 있고 풍력(風力)이 있으며 물망(物望)이 있는 자로 선택하여 아뢰라”고 한다. 그러한 까닭으로 각 면의 훈집이 일체 바뀔 것이라고 한다.⁴⁹⁾

이 기록의 앞뒤로 자세한 이야기가 전하지 않아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추측컨대 효열을 천거하는 일로 말쑥이 있었던 것 같다. 조선 후기에는 고을마다 효자와 열녀 등을 선정해서 정려(旌閭)를 세워주고 그들의 후손에게는 면역과 면세의 특전을 부여했는데 효열 추천은 기본적으로 면에서 발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효자와 열녀를 면에서 추천하지 않고 외부에서 헛된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추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수령은 그 책임자인 훈집을 명망과 위엄을 갖춘 양반으로 천거하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비양반 출신이거나 명망이 없는 하층 양반 출신의 훈집이 일체 교체될 것이라 전망되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상층 양반들이 훈집으로 임명되는 것을 기피하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기행현은 자신의 숙부가 이에 선출되었을 때의 일기에 “우리 면의 훈집 임명장이 숙부의 이름으로 발급되었다”고 사실만을 건조하게 기록했을 뿐이었다. 결국 훈집은 궁핍한 생활을 하던 기행현이나 그의 숙부에게 궁여지책으로 맡아야 하는 자리였던 것이다.⁵⁰⁾

49) 金友聖瑞自校中來到 言官家下帖內 孝烈實蹟 外不得虛薦 各面訓執 亦以有班閥有風力 有物望之人 擇稟云 故各面訓執 一體改替云矣(『홍재일기』 6, 1898. 3. 5.)

2. 조선시대인에 머문 기행현

기행현의 『홍재일기』를 살펴보면, 그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 모두 전형적인 조선시대인이었다. 그는 친척이나 친지의 상장례(喪葬禮)가 있으면 거리의 원근을 따지지 않고 달려갔다. 또 그는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첩을 얻었다. 자신의 아버지도 궁핍한 생활 속에서 첩을 두어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가정 내의 불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첩을 얻어 얻었다. 부인과 첩이 한 집에서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에 1872년(고종 9) 10월에 선산이 있는 회시동(回柿洞)에 4칸의 초가를 30냥에 구입하고⁵¹⁾ 첩을 이곳에서 살도록 한 후⁵²⁾ 선산을 둘러본다는 이유로 자주 첩의 집을 방문했다.⁵³⁾

또 기행현은 가까운 친족의 단결을 위해 위친계(爲親契)를 조직하고⁵⁴⁾ 매년 봄과 가을에 한 차례씩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행주기씨 출신이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져 크고 작은 문중계(門中契)에도 적극 동참했다. 특히 자기의 조상인 기건(奇虔)의 신도비(神道碑)를 경기도 고양에 세우기 위해 20냥을 거둬 보내기도 했다.⁵⁵⁾ 또 사제 관계를 중시해서 문생계(門生契)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참가했다. 1866년 9월에 백청전(白靑田)의 문하생 30여 명이 모여 스

50) 조선 후기에 지역사회에서 궁핍한 하층 양반이 궁여지책으로 맡던 직책 중 대표적인 자리가 좌수와 별감이었다. 이를 소재로 한 한문소설 <노처녀들을 시집보낸 여사[作善事繡衣繫紅繩]>는 당시의 풍습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이월영·시귀선 역, 『청구야담』, 106~111쪽)

51) 往回柿洞 草家四間 三十兩買得而來(『홍재일기』 3, 1872. 10. 20.)

52) 別家移舍于回柿洞(『홍재일기』 3, 1872. 11. 3.)

53) 待季父 往回柿洞省墓 留宿(『홍재일기』 3, 1873. 8. 9.)

54) 爲親契也 與四五人 暢叙交情(『홍재일기』 1, 1866. 3. 29.)

55) 高陽貞武公神道碑中止事 派錢四百兩內 八十兩門中當 三十兩送扶安 故二十兩備送(『홍재일기』 3, 1881. 5. 25.)

승을 기리는 행사를 하고서 다시 송재(宋齋)에 모여 뒤풀이를 했다.⁵⁶⁾ 백청전은 1859년(철종 10)의 증광시(增廣試)에서 진사에 합격한 백학래를 지칭하는데,⁵⁷⁾ 청전은 그의 호(號)로 부안에서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기행현은 이처럼 효에 바탕을 둔 가족 관계와 예(禮)를 바탕으로 하는 사제 관계에 충실한 조선시대인이었다.

3. 물가에 관심이 많았던 기행현

이처럼 기행현은 전형적인 조선시대인의 사고와 행동을 했지만 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간형의 모습도 갖추고 있었다. 그는 물가에 관심이 많아서 수시로 시장을 출입하여 물가의 동향을 살폈다.

기행현은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의 시장 뿐만 아니라 고부와 정읍 및 김제의 시장 등을 자주 돌아다니며 물가를 알아보고 물건을 짚어지고 가서 직접 판매를 하고 또 손수 구매도 했다. 그는 물가에 관심이 커서 매달 마지막 날의 일기의 끝에 시가에 대한 정보를 기록했다. 그 처음은 1868년 2월이었는데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⁵⁸⁾

시가(時價)는 조(租) 1섬에 혹은 6냥, 혹은 5냥 5전이라고 한다.⁵⁹⁾

나라 1섬에 대한 시가가 6냥 혹은 5냥 5전이었다. 시가가 이렇게 차이가 있었던 것은 물가가 서로 다른 복수의 시장 정보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매달 마지막 날의 일기에는 시가에 대해 반드시 기록하고 있다.

56) 是日 陽山白青田門生稷也 團會三十餘人脩稷 更會宋齋(『홍재일기』 1, 1866. 9. 15.)

57)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참조.

58) 기행현은 1866년 12월 30일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든 노인들도 처음 겪는 큰 가뭄의 해라는 점을 언급하고 봄과 여름에 나락은 1섬에 14냥, 쌀은 1냥에 5되, 참외는 1개에 5, 6푼이었다고 기록했다.(今年都是大旱之年 秋旱冬旱亦太甚 水泉枯渴 山野人民不得飲水 八十老人初見云 春夏租石十四兩米兩七刀 苽一介五六分)

59) 時價 租一石或六兩或五兩五錢云矣(『홍재일기』 2, 1868. 2. 30.)

이처럼 전문(傳聞)을 통해서 물가의 동향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직접 시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같은 해 5월에는 남토(南土) 시장을 직접 방문했다.⁶⁰⁾ 그 후 인근의 사창시(社倉市)를 방문했는데 이때에는 시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매우 상세히 알아보고 직접 매매하기도 하였다.

사창시를 지나다 시가를 알아보니, 햅쌀은 1말 6되 5홉이고 묵은쌀은 1말 2되씩인데 당백전 1냥을 엽전 3전으로 쳐서 서로 매매하였다.⁶¹⁾

그는 시장이 아니더라도 물품이 있는 곳이면 직접 방문하여 시가를 알아보았으며 자신의 집까지 방문한 제주도의 장사치와 흥정을 하다가 시세와 맞지 않자 돌려보내기도 했다.

연동(蓮洞)에 가서 모시 값을 살펴보니 한 대(帶)에 10냥이 넘었다.⁶²⁾

제주 배장사치[賈船人]가 나락 1섬을 당백전으로 6냥, 엽전으로는 1냥 2전씩 사 가려고 왔으나 일이 여의치 않아 빈손으로 갔다.⁶³⁾

그는 부안 내의 시장만 살펴본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인근의 태인, 정읍, 고부, 김제의 시장 등을 두루 돌아다니며 다양한 품목의 시가를 알아보았다.

새벽에 태인에 가서 시장을 둘러보니 목화는 엽전 1냥에는 3근이고 당백전 1냥에는 2근이며 담배는 한 줌에 7, 8전이었다.⁶⁴⁾

60) 往南土市來(『홍재일기』 2, 1868. 5. 6.)

61) 過社倉市 觀時價 則新米一斗六刀五合 舊米一斗二刀式 以當百一兩葉三錢 相爲買賣矣 (『홍재일기』 2, 1868. 7. 19.)

62) 往蓮洞 觀竹價 則一帶過十兩矣(『홍재일기』 2, 1868. 7. 20.)

63) 濟州賈船人 租每石 當百錢六兩 葉錢一兩二錢式 賃去次來到 而事不如意 空去(『홍재일기』 2, 1868. 7. 22.)

뿐만 아니라 그는 우시장에도 관심이 많았다.

소시장에 갔다. 소가 많이 나왔는데 값이 비쌌다.⁶⁵⁾

물가와 시장에 대한 그의 관심은 매우 다양하여 벼, 쌀, 모시, 목화, 삼[麻], 담배, 소를 비롯하여 담뱃대 및 붓과 먹 등 일상생활 용품 등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 전형적인 조선시대인의 사고와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생활을 영위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에 관심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기행현처럼 적극적으로 물가를 알아보고 시장을 일부러 방문하며 또 이를 세세하게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은 흔치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전형적인 조선시대인과는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판단된다.

4. 다양한 영농 형태

기행현은 벼농사에만 커다란 관심이 있는 일반 농부와는 달리 다양한 품종을 심어 가꾸는 밭농사에도 주목했다. 그는 집 뒤에 대나무를 심기도 하고⁶⁶⁾ 물미나리를 기르며 다른 사람에게 종자를 빌려주기도 했다.⁶⁷⁾ 밭에 목화를 파종하고⁶⁸⁾ 콩을 심었다.⁶⁹⁾ 또 밭에 심은 모시를 거두기도 하고 마(麻)를 삼기도 했으며⁷⁰⁾ 무를 심기도 했다.⁷¹⁾ 그는 논과

64) 曉往泰仁觀市 則木花葉一兩三斤 當一兩二斤 南草一把 七八錢矣(『홍재일기』 2, 1868. 8. 10.)

65) 往牛市 牛多出而價高(『홍재일기』 3, 1872. 12. 10.)

66) 家後種竹(『홍재일기』 2, 1869. 3. 3.)

67) 石堤李炳得來臨 借水芹種去(『홍재일기』 2, 1869. 3. 6.)

68) 種木花(『홍재일기』 2, 1869. 3. 20.)

69) 種豆太(『홍재일기』 2, 1869. 5. 19.)

70) 往回柿洞 初苧爲之(『홍재일기』 3, 1874. 5. 15.); 炎麻(『홍재일기』 3, 1874. 6. 15.)

밭 혹은 공한지(空閑地)에 다양한 작물을 심어 소득을 증대하려 했다.

그는 스스로 병작(并作)과 자경(自耕)을 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토지를 갈아먹도록 하는 등 다양한 농업 형태를 영위했다. 우선 그가 궁방전(宮房田)을 병작하는 사례를 살펴보자.

둔감(屯監) 하인이 와서 세금 배분장을 전하기에 보니, 세를 1부(負)에 7전 2푼씩 거두어 내라고 한다.⁷²⁾

둔감 하인이 와서 둔세 납부를 독촉하였다.⁷³⁾

원래 둔감은 둔전을 관리하는 구실아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둔감은 내수둔감(內需屯監)이라고도 칭해지는 점으로 미루어 내수사의 궁방전을 관리하는 구실아치로 보인다. 부안은 조선 후기에 용동궁 소유의 궁답(宮畓)이 많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둔감의 하인이 기행현에게 와서 세금배분장을 전달한 이유는 그가 내수사의 궁방을 병작하기 때문에 그 소작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이를 제때 납부하지 않자 둔감 하인은 다시 와서 독촉하고 있음을 위 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그가 경작하던 궁방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적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개인의 토지도 병작하고 있음을 앞에서 잠깐 살펴본 바 있는데 그는 아전인 신용환의 토지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신재명과 고사심(高士心) 등의 토지도 병작하고 있었다. 1873년 9월의 일기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71) 種菁(『홍재일기』 3, 1881. 윤7. 10.)

72) 屯監下人出來 屯稅排章傳見 則屯稅一負七錢二分式收納云矣(『홍재일기』 2, 1869. 10. 1.)

73) 屯下人來到 屯稅促責矣(『홍재일기』 2, 1869. 10. 8.)

읍내에 사는 신월여(辛月如)가 간평(看坪)하러 다녀갔다.⁷⁴⁾

노적리(露積里)에 사는 고사심이 간평하기 위해 어제 저녁에 와서 자고 오늘 갔다.⁷⁵⁾

추수가 끝날 무렵, 토지를 빌려주었던 주인들은 작황을 살펴보고 그 해의 세금을 거두기 위해 간평하러 왔다. 신월여는 신재명(辛在明)으로 신응환의 아들이며 자(字)가 월여(月汝)인데 잘못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사심도 지주의 하나임이 분명하나 사심은 본명이 아니고 자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일기에는 논주인으로 추정되는 임여홍(林汝弘)⁷⁶⁾과 허석사(許碩士)⁷⁷⁾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는 이처럼 궁방과 여러 사람의 토지를 병작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기행현은 남의 땅을 빌려 부지런히 경작하여 재산을 조금씩 늘린 후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자경(自耕)했다. 우선 그가 토지를 매입한 사례를 살펴보자.

김양언(金陽彦)과 함께 마항(馬項)에 가서 창전(蒼田)에 사는 양상풍(梁相豊)에게 이곳의 논 7두락을 13냥에 매입하고 문서를 만들어 왔다.⁷⁸⁾

저전(苧田) 한 곳을 사두었다.⁷⁹⁾

봉은동(鳳隱洞) 마을 뒤에 선산 금양처(禁養處)를 23냥에 사두었다.⁸⁰⁾

74) 邑內辛月如 看坪來去(『홍재일기』 3, 1873. 9. 4.)

75) 露積里高土心看坪次 昨暮來到宿 今日去(『홍재일기』 3, 1873. 9. 6.)

76) 支石里林汝弘 畚事來去(『홍재일기』 3, 1874. 2. 20.)

77) 昨日城山許碩士 以賭租事來去(『홍재일기』 3, 1882. 6. 3.)

78) 與金陽彦 偕往馬項蒼田梁相豊處 此畚七斗落 以十三兩文 成文而來(『홍재일기』 2, 1868. 12. 9.)

79) 苧田一垆買置(『홍재일기』 2, 1869. 1. 10.)

노적리(露積里)에 사는 고규상(高圭相) 집에 가서 21두락의 논을 155냥에 구입하고서 문서를 받아왔다.⁸¹⁾

기행현은 농작을 통해 수익을 남길 때마다 논과 밭 그리고 산지 등을 구매했는데 논과 밭은 가족과 노비 및 머슴을 동원해서 경작했다.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머슴과 노비가 품팔러 집에 드나들거나 도망한 사실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을 통해 그가 이들을 동원해서 농사를 지었던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머슴[雇奴]으로 13살 먹은 아이 최대성(崔大成)이 어제 저녁 들어왔다가 오늘 나갔다.⁸²⁾

머슴 김용술(金龍述)이 새로 들어왔다.⁸³⁾

머슴 이용업(李龍業)을 얻어 왔다.⁸⁴⁾

사내중 판실(辦實)과 계집종 나금(羅今)이 어젯밤 도망갔다.⁸⁵⁾

기행현은 가족과 머슴 및 노비를 동원하여 자기 소유의 토지와 궁방이나 타인으로부터 빌린 토지를 경작했으며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와 산지 등을 매입한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한편 매입한 토지가 많고 경작할 여력이 없어서 그랬는지를 알 수 없으나 그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병작을 준 사실도 있다.

80) 鳳隱洞村後先山禁養處 以二十三兩買置(『홍재일기』 2, 1869. 1. 30.)

81) 往露積里高圭相家 二十一斗落畚 以百五十五兩 受文而來(『홍재일기』 2, 1870. 1. 27.)

82) 雇奴十三歲童崔大成 昨昏入來 今日出去(『홍재일기』 2, 1869. 1. 27.)

83) 雇奴金龍述新入

84) 雇奴李龍業得來(『홍재일기』 2, 1869. 11. 19.)

85) 奴子辦實婢羅今 昨夜逃走(『홍재일기』 3, 1872, 1. 25.)

백석리(白石里)에 가서 간평하고 왔다.⁸⁶⁾

일기에는 백석리의 토지를 구입했다는 기록이 전해지지 않지만 그가 백석리에 가서 간평을 한 이유는 자신의 논이 그곳에 있으며 그 해의 도조(賭租)를 받기 위해서 일 것으로 추정된다.

5. 개방된 사고의 인간형

기행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서책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시대에는 정부 주도로 서책의 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후기에는 지방에서도 민간출판업자에 의해 서책 간행이 빈번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서책의 시대라고 칭할 정도였지만 실제로 지방에서는 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 서책이 고가였기 때문에 웬만한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면 책을 구매하여 소장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기행현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책을 주위 사람들에게 선뜻 빌려주고 반환을 독촉하지도 않았다. 그가 책을 빌려준 기록이 매우 많아서 이를 다 살펴볼 수 없으므로 1868년 9월과 10월의 기록만 보면 다음과 같다.

옹점(翁店)에 사는 장학규(張學奎)가 와서 『시전(詩傳)』 제7권과 언해(諺解) 3권을 함께 빌려 갔다.⁸⁷⁾

배장흠(裴璋翕)이 『시전』 제2권을 빌려 갔다.⁸⁸⁾

86) 往白石里 看坪來(『홍재일기』 3, 1873. 9. 22.)

87) 翁店張學奎來到 詩傳第七卷俱解三卷借去(『홍재일기』 2, 1868. 9. 7.)

88) 裴璋翕 詩傳第二卷借去(『홍재일기』 2, 1868. 9. 18.)

행산(杏山)에 사는 내당질 김경종(金景種)이 『시전』 초권(初卷)을 빌려 갔다.⁸⁹⁾

배장흡이 『시전』 제 3, 4, 5권과 『언해』 1권 도합 4권을 다시 빌려 갔다.⁹⁰⁾

장학규와 배장흡 및 김경종 등은 기행현이 소장하고 있던 『시전』과 『시전언해』를 빌려 갔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시(詩)를 짓지 못하거나 모르면 행세를 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조선 후기에는 사대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백성 중에도 시를 짓고 읊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시전은 그들에게 반드시 읽고 암송해야 하는 교과서였다. 이외에도 그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책은 『논어』를 비롯하여 『서전』, 『주역』, 『주주벽(周珠碧)』 등이었다. 기행현은 이처럼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서책을 주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빌려주곤 했다.

한편 기행현은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들과 폭넓은 교류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와 절친하게 지냈던 아전 신용환은 면(面)으로 출장 나왔다가 늦어지면 대부분 기행현의 집에서 자고 갔으며, 반대로 그가 읍내에 들렀을 때 신용환의 집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컨대 1868년 10월에 그는 서림정의 시회에 참여했는데 이날은 참여자가 적어서 고을 선비와 아전 10여 명이 겨우 모였다. 그러나 수창(酬唱)을 하다 늦어져 신용환의 집에서 머물렀다.⁹¹⁾ 그는 아전인 김사여(金士汝)와도 절친하게 지냈는데 그 역시 신용환과 마찬가지로였다.

읍에 사는 김사여가 저녁에 비가 내리자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갔다.⁹²⁾

89) 杏山內堂姪金景種 詩傳初卷借去(『홍재일기』 2, 1868. 9. 29.)

90) 裊璋翁詩傳第三四五卷解一券 合四卷更借(『홍재일기』 2, 1868. 10. 2.)

91) 午後 往西林亭 鄉士鄉吏十餘員會 … 夜宿辛應煥家(『홍재일기』 2, 1868. 10. 3.)

92) 邑居金士汝 暮天雨中來宿去(『홍재일기』 4, 1886. 5. 9.)

한밤중에 검세리(檢稅吏) 김사여가 왔다. 함께 백석(白石)에 사는 친구 최태보(崔泰甫)의 집에 가서 잤다.⁹³⁾

검세리 김사여가 본 면의 주인[本面主人]과 함께 와서 잤다.⁹⁴⁾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출입하는 장소가 달랐다. 같은 향교에 출입해도 양반은 동재에서 기거(起居)했으며 비양반은 서재에서 활동했다. 서원도 마찬가지였으며 서당의 경우에는 아예 신분에 따라 다니는 곳이 달랐다. 같은 동네에서도 양반들이 모이는 사랑방과 평·천민이 모이는 사랑방이 달랐다.

그런데 기행현의 사랑방에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양반과 구실아치들이 함께 와서 머물렀다. 이는 그 집주인이 신분에 따라 사람을 가려 기거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또 그 집을 출입하는 사람도 이를 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맺음말

기행현의 『흥재일기』는 근대 전환기의 부안의 여러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를 세밀히 분석할 경우,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많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여러 사료를 통해 동학농민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규명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수많은 연구 성과를 얻었다. 특히 어떤 외적 요인에 의해 동학농민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상당한 규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비록 단기간의 성공으로 끝났지만 전주

93) 夜半檢稅吏金士汝來到 故借性白石崔友泰甫家宿(『흥재일기』 4, 1889. 12. 24.)

94) 檢稅吏金士汝 本面主人來宿(『흥재일기』 5, 1890. 4. 11.)

감영을 점령하여 집강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었던 내적 요인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규명은 충분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홍재일기』를 분석하여 근대 전환기에 부안에서는 지역의 현안을 향회와 면회를 통해 해결했음을 밝혔다. 양반을 위시하여 전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각자 서로 다른 의견을 현출하고 숙의를 통해 이를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은 새로운 경험을 쌓았다. 이것이 훗날 집강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커다란 밑받침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서 조선 후기 내내 중앙정부로부터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을 지역의 부유한 양반과 아전이 앞장서서 해소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동학농민전쟁 발발 후 가장 적은 희생자를 낸 고을로 평가받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기행현의 행적을 분석해 보면 그는 지역 내에서 문명(文名)이 있는 인물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한 후 지방과 서울에서 실시하던 과거 시험에 응시했다. 비록 일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가정이나 서당에서 전통적인 유교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유교 교육을 받고 성장한 그가 개혁적이거나 혁신적인 생각을 품을 수 없었다. 더군다나 그에게는 새로운 문물이나 사상을 접할 계기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는 유교적이라 평가할 수 있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랐으며 심지어는 첩을 얻는 등 구태의연한 모습까지 답습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적이거나 혁명적인 모습을 그에게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고을뿐만 아니라 인근 고을의 시장까지 두루 돌아다니며 물가를 알아보고 값이 싼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고 자신이 생산한 물품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을 받는 시장에 내어다 팔았다. 가족과 노비와 고공 등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토지뿐만 아니라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으며 일손이 부족할 때는 자신의 땅을 남에게 경작하도록 했다. 또 논과 밭뿐만 아니라 공한지 등에 다양한 작물을 심어 소득을 높이는 데 치중했다. 양반과 아전 등을 비롯한 구실

아치 및 평민까지 신분이나 계층을 가리지 않고 함께 어울려 의견을 교환했다. 그의 사랑방에는 양반과 아전이 함께 방문하고 어우러져 숙식하기도 했으며 종종 책을 빌리려 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모습은 이전의 양반에게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새롭고 색다른 유형이었다. 비록 그는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난 한 가운데에 살면서 이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이전의 양반과는 다른 모습을 한 인물형이었다.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계명성과 같은 인물이었다고 판단된다.

투고일 : 2025. 9. 30. 심사완료일 : 2025. 10. 27. 게재확정일 : 2025. 11. 7.

참고문헌

<논문>

- 김병남, 2024, 「부안군 부안읍의 기초 지명 변화 연구」, 『전북사학』 72, 전북사학회, 153~184쪽.
- _____, 2024, 「『홍재일기』를 통해 본 마을 지명의 양상 -부안 주산면을 중심으로-」,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7,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85~118쪽.
- 김영준, 2018, 「19세기 후반 전라도 부안현 호구 및 결과 조사의 실제적 양상 -南下面訓執 奇幸鉉의 『鴻齋日記』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53, 전북사학회, 187~218쪽.
- _____, 2023, 「19세기 후반 전라도 부안군 훈집(訓執)의 역할 -『홍재일기(鴻齋日記)』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77, 인문과학연구소, 55~81쪽.
- 김철배, 2015, 「전라도 부안 士族 奇幸鉉의 『鴻齋日記』와 19세기 후반기 부안의 경제사정」, 『전북사학』 46, 전북사학회, 179~199쪽.
- 이선아, 2019, 「19세기 부안 儒生 奇幸鉉의 『鴻齋日記』와 동학농민혁명의 실상」, 『동학학보』 50, 동학학회, 85~121쪽.
- _____, 2023, 「1894년 이후 호남의 동학여당과 의병의 동향 -부안 유생 기행현의 『홍재일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학사학보』 47, 한국사학사학회, 183~215쪽.
- _____, 2023, 「19세기 부안 유생 기행현의 『홍재일기』와 秘訣의 유행」, 『동학학보』 65, 동학학회, 361~400쪽.
- 임혜영, 2023, 「일기를 통해 본 지방 사족의 일상생활 -『홍재일기』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69, 전북사학회, 179~204쪽.
- 전경목, 2008, 「조선후기의 교생 -책을 읽을 수 없는 향교의 생도」, 『고문서연구』 33, 한국고문서학회, 281~318쪽.
- _____, 2023, 「기행현의 과거 준비와 응시 및 인적네트워크 -1866년~1869년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연구』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55~307쪽.
- 정을경, 2023, 「『홍재일기(鴻齋日記)』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기 부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동학농민혁명연구』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85~212쪽.
- 조성운, 2016, 「부안지역의 동학농민운동과 백산대회」, 『역사와실학』 61, 역사실학회, 323~347쪽.
- 조재곤, 2023, 「『홍재일기(鴻齋日記)』로 본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사회변동」, 『동학농민혁명연구』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13~254쪽.
- 최윤진, 1987, 「고창향교 동서재 유생안에 대한 검토」, 『송준호교수정년기념논총』, 송준호교수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253~287쪽.

〈Abstract〉

The Situation of Buan and the Emergence of a New Human form during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Chon, kyoung-mok*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analyze Ki Haeng-hyun's "Hongjae Ilgi" to reveal what happened in Buan County during the modern transition period and what kind of person Ki Haeng-hyun was who wrote the diary. Looking at the appearance in the diary, local residents of various classes gathered to express different opinions and solve the problem through deliberation, rather than processing the important work of the village according to the unilateral instructions of the leader. The leader did not unilaterally convey the government's policy and tried to persuade the local people face-to-face, and the Yangban and commoners shared various factors and taxes imposed on the village by the government. Efforts were made to promote the academic style of the leader, and the residents responded to this, and the local people gathered together regularly to hold poetry meetings. As a result, Buan became one of the villages with the least conflict and damage, even though it was in the middle of the Donghak Peasant War. Ki Haeng-hyun received a traditional Confucian education from an early age, where he studied with a well-known teacher to take the test in the past. As a result, he was unable to conceive reform or innovative ideas. However, he traveled not only to his village but also to markets in nearby villages, looked for the prices, purchased necessary

* Professor emeritus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goods from inexpensive places, and sold the crops he produced to expensive markets. He used various labor to cultivate his own land and the land he borrowed from others to accumulate wealth. He socialized and stayed with Yangban, Ajeon, and commoners regardless of status or class in his room. Not a few people came to his room to borrow books, including commoners. As such, he was a new human being with a different appearance that was not seen in the previous aristocrats economically and socially. He was like Keimyung-sung (鷄鳴聲) who signaled the arrival of a new era.

Key word : Ki Haenghyeon, Hong Jae Ilgi, Buan-hyeon, Donghak Peasant War, New Human being

▣ 자료소개 ▣

『민장책(民狀冊)』(甲午十二月 日) 해제

조재곤

영인본(影印本)

해제

『민장책(民狀冊)』 (甲午十二月 日)

조재곤*

1.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민원

『민장책(民狀冊)』(21×18cm)은 1894~1895년 전라도 진안현 주민들이 올린 민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모아놓은 기록자료이다. 진안현 이방(수서기)이 작성한 것으로 문서의 형식은 청원자의 거주지와 성명, 청원 내용, 판정 및 처분 결과, 수행을 지시받은 사람이나 직책 순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작성자의 의지가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관계로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것도 있고 소략하게 기록된 것이 있다. 이 책의 부제는 표지에 ‘갑오 12월 일(甲午 十二月 日)’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작성 시기는 갑오년(1894) 12월 17일부터 을미년(1895) 2월 12일까지로 1책, 표지 포함 총 77쪽으로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894년 말 동학농민군 주력의 우금치 전투 패퇴 이후 농민군 진압이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문서가 작성될 수 있었다. 이 문서는 동학농민군을 신속히 수습하여 민심을 추스르고 지방 말단 행정의 원활한 지

*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배를 원했던 고종 정부의 의지가 전라도 관찰사를 통해 관내에 전파되고 실행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라도 관내 대부분 지역에서 이 같은 형태의 자료가 작성되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지만 현재 남아 있는 자료는 진안 외에는 규장각 소장 고창군 흥덕지역과 개인 소장본인 나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 관련 자료만 확인된다. ‘민장(民狀)’이란 ‘백성의 송사나 청원·호소 등에 관한 서류’로 지방정부와 지방관은 당연히 이를 해결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갑오·을미년 민장책의 핵심은 대민 통제와 민심 수습이었다. 조선 후기 이래 진안현은 읍내면 등 17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¹⁾ 이 자료는 각 면에서 올린 민장과 그 처리 내용을 면별·날짜별로 정리한 것이다. 수록 건수는 탄전면 16건, 여면 16건, 두미면 13건, 마령면 14건, 일동면 17건, 남면 10건, 일서면 4건, 이서면 7건, 일북면 4건, 삼북면 7건, 이내면(내면) 10건, 이외면(외면) 2건, 상도면 22건, 하도면 5건, 읍내면 17건, ‘겸읍(兼邑) 임실(任實)’ 49건, ‘타관(他官)’ 6건으로 합계 219건이다. 갑오·을미년 남원 및 진안·무주·장수·용담 일대의 지역 현황과 농민군 활동상 및 이후 수습 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1차 사료 기록이지만 최근에서야 확인된 관계로 그간 자료에 대한 소개나 이를 활용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이 자료에서는 그간 전혀 알려진 바 없던 새로운 동학농민군과 득입(勒入) 또는 전향자도 다수 발견된다. 접주는 구경함(具敬咸)·유집중(劉執仲)·엄성삼(嚴成三)·정창인(丁昌寅)이, 일반 농민군으로는 김창서(金昌西)·김공서(金公西)·손영권(孫永權)·김영범(金永凡)·전군찬(全君贊)·신관오(申官五)·신운선(申云先)·백명서(白明西)·조원보(趙元甫)·문군삼(文君三)·박윤서(朴允西)·엄종여(嚴種汝)·문정팔(文廷八)과 그의 두 동생, 득입자 또는 득입 주장자로는 추내화(秋乃化)·김

1) 『鎭安縣邑誌』, 1791년 이후, 奎.17406.

진두(金鎮斗)·전희권(全禧權 혹은 全熙權)·김서중(金瑞仲)·형달문(荆達文)·배화일(裵化日)·임종권(林鍾權) 등이 확인된다.

2. 진안지역 동학농민군 진압 상황

1894년 11월 8일 진안·고산·진산·금산 등 각 포(包)의 동학농민군 수 만여 명이 북쪽으로부터 용담으로 침입하여 부대를 마주하고 접전하였고, 무주 접주 이응백 세 부자가 수천 명을 이끌고 동쪽으로부터 침입하여 뒤편을 공격하였다. 이 같은 형세로 지방군은 9일에 마침내 패배하였다. 용담현령은 이때 적도(賊徒)가 용담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가는 곳마다 겁탈하여 온 읍이 잿더미가 되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불에 탄 관아 건물이 44칸이고, 인가는 470호이며, 해를 입은 인명은 17명이었다고 보고하였다.²⁾ 이 보고를 받은 조선 정부에는 일본군에 의뢰하여 교도중대와 함께 이들의 격퇴를 기도하였다. 그 결과 11월 13일 후비 보병 제19대대 대대장 미나미 고시로(南小四郎) 소좌는 주력 부대를 이끌고 청산과 옥천을 거쳐 진산으로 향하였는데, 교도중대 병사는 일본군 중위 시라키 조타로(白木誠太郎)³⁾와 함께 행군하여 14일 용담 조림장터에 도착하여 농민군들과 접전하여 30여 명을 사살하였다. 생포한 20명 가운데 서도필·박만호·이만실·조운삼·박치팔·김윤일 등 6명은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총살하고 나머지는 방면하였다. 시라키는 농민군들이 금산 부근에 일본군이 왔다는 것을 미리 알

2) 『巡撫先鋒陣膽錄』, 갑오 12월 14일.

3) 시라키 조타로는 1889년 9월 16일 후비 보병 중위로 퇴역(일본 국립공문서관 자료. 『官吏進退 明治二十二年官吏進退 六·陸軍省 三』 「陸軍歩兵中尉白木誠太郎後備被命ノ件, 明治二十二年九月二十日」, 陸軍大臣 伯爵 大山巖→內閣總理大臣 伯爵 黒田清隆)하였는데,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동원령에 따라 재복무하여 조선에 출동하였다.

고 용담에서 퇴각하여 진안 부근으로 간 것으로 판단하였다.⁴⁾

이들은 15일에 진안읍에 도착하였는데 500~600명가량 되는 진안 농민군은 현의 서북쪽 산 위에 진을 치고 크고 작은 깃발 여러 개를 세웠으며 일본군 지대를 발견하자 즉시 격렬히 사격하였다. 이에 소위 미야모토 다케타로(宮本竹太郎) 지휘로 일본군 하사 이하 약간 명과 교도 중대 3분대를 전진시켜 약 600m 앞까지 근접하여 흩어져서 응사하였다. 이후 다른 2개 소대를 증파시키고 모든 전선에서 전진하여 400m 되는 곳까지 가서 신속하게 사격했다. 전투 결과 농민군은 총과 깃발을 버리고 퇴각했고 오후 12시 10분 일본군은 진안현을 점령하였다.⁵⁾ 접전 당시 13명의 농민군이 사망하였고, 조·일 연합군은 이후 17일 고산 산천리에 도착하여 수백 명과 접전하여 30여 명을 살해하였다. 이들은 18일 고산읍에 도착하여 다시 이 지역 농민군과 접전하여 수백 명을 사살하였다. 이때 생포한 농민군 30명 가운데 고산의 이만학·여관서와 진안의 김치서 등 3명을 잡아 가두고 창성도·임성원·김중이 등 3명은 총살하고 나머지는 풀어주었다.⁶⁾

한편 소모관 일행은 11월 30일 고산에 도착하여 접주 최성호를 체포 효수하여 주민들을 경계하였고, 다음날인 12월 1일 진안에 도착하여 수천 명의 농민군과 접전을 벌여 접주 선윤석과 접사 유상원, 교장 고윤희 등 30여 명을 베어 죽였다.⁷⁾ 이 전투에서 소모관은 조총 21자루, 양총(洋銃) 1자루, 탄환 20여 개, 병정 복색의 친자(親字) 혁대 각 몇 건, 장창(長槍) 15자루, 환도(環刀) 15자루, 화약 80여 근, 철환 5만여 개, 화승(火繩) 1천여 타(朶), 목인(木印) 5개, 도서(圖書) 2개를 노획하

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農山附近 戰鬪詳報」, 1894년 12월 10일, 中尉 白木誠太郎.

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鎭安縣附近 戰鬪詳報」, 1894년 12월 12일, 中尉 白木誠太郎.

6) 『巡撫先鋒陣騰錄』, 갑오 11월 22일.

7) 『甲午軍政實記』, 갑오 12월 10일 「召募官 田東錫 報告」, 진안지역의 전투 상황에 대해서는 신순철, 2020 「진안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의미와 과제」 『진안의 동학농민혁명과 기념사업의 방향』, 진안군/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참조.

였다. 획득한 군수물자들은 모두 소모군의 진중으로 옮겨서 사용하였다. 진안 농민군으로부터 빼앗은 쌀 70여 섬 중 30여 섬은 생활이 어려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40여 섬은 진안 이방에게 전달하였다. 이 12월 1일 전투로 진안의 동학농민군은 모두 무너져 흩어졌고 이후 진안현감은 양호순무선봉진의 비밀 감결에 따라 12월 15일부터 거물급 우두머리와 접주로서 마을에 숨은 자들을 찾아내고 행적을 끝까지 추적 후 엄히 가두고 급히 보고할 계획을 마련하였다.⁸⁾ 이를 위한 기본설계로 『민장책』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통해 농민군 관련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3. 동학농민군과 전향자 처리

먼저 탄전면의 경우 『민장책』에 수록된 동학농민군 수색 처벌 관련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894년 12월 17일 산정리의 구경함(具敬咸)은 유사(有司)로서 호수(戶首)와 체결하여 범포(犯捕) 후 도주하였고 그가 마을에서 거두어들인 것을 공납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풍헌이 보고한 사실이다. 이어 22일에는 향약장과 훈유사가, “동학 접주 구경함이 부근 동민과 함께 약사(約舍)에 도소(都所)를 설치하고 지금에 이르렀는데 용담의 난에 모두 불타버렸고 구민(具民, 구경함)도 이미 도주하였으니 부근 마을의 주민들에게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거두어 다시 약사를 건설할 것”이라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진안현에서는 약사는 비록 마을 밖에 있지만 역시 공공건물이므로 봄이 되기를 기다려 건축하는 방법을 마땅히 조치할 것이고, “3개 리에서 재물을 거두는 논의는 혹 당연한 것 같지만 이는 구경함의 협박에 따를 것인즉 어찌 독단으로 책임을

8) 『先鋒陣呈報牒』, 갑오 12월 15일 「鎮安縣監 牒報」; 『巡撫先鋒陣謄錄』, 갑오 12월 29일 「鎮安縣監 報告」.

넘길 수 있겠는가? 이 3개 리의 백성들은 이미 귀화하였으니 또한 우리의 선량한 백성이다. 비록 전일의 허물이 있지만 참작하여 헤아리지 않을 수 없으므로 처분을 기다릴 것”이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 기록으로 보아 진안의 동학농민군들은 접주 구경함을 중심으로 탄전면 약사에 도소를 설치하고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구경함의 이름은 이 자료에서 처음 보인다. 이후 1895년 1월 23일 시아버지가 비록 비류(匪類)에 이름이 올려져 있지만 과연 폐를 일으킨 것이 없으니 특별히 처분해달라는 구경함 며느리의 호소에 대해서, “죄는 용서할 수 없다”라며 일축하였다.

여면과 외면의 경우 동학농민군 출신 전향자 처리와 인접 지역 민보군의 작폐가 이 지역의 특징적인 사례로 보인다. 먼저 1894년 12월 28일 여면 궁동의 추내화는 자신이 동학에 섞여 들어가 ‘억지로 입도[勒道]’하였으나 지금은 ‘도를 배반[反道]’했으니 별도로 처분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관에 고해 도를 배반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감영에서 신칙이 있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집에서 안업(安業)할 것이다”라며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마령면 방화리 김진두의 경우다. 같은 날 가형 손영권이 부상(負商)으로 고부에서 접전하였으나 지독한 독촉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 입도하였지만 지금은 병기를 반납하고 도를 배반하였으니 자세히 검토해 달라는 외면 간정리 손진권의 호소에 대해서는, “병기를 반납하고 귀가하는 것은 이미 영칙(營飭)에 있으나 침탈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땅히 호소한 바에 따라 감영에 보고할 것이고 우선은 증빙표[捧標]로서 자세히 검토할 것이다”라고 처분하였다.

마령면의 특징적인 사항은 전희권(全禧權 혹은 全熙權) 관련 내용인데, 그 또한 자료상으로 처음 확인되는 농민군이다. 1895년 1월 15일 보고에 따르면, “본 면의 전희권이 위협을 감당하지 못하고 밖으로는 동학에 기대어 지금에 이르렀는데 뜻밖에 감영의 탐문이 지엄하여 분에 넘치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이 죽지 않은

죄를 모든 면에서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에 모두 이 일을 호소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진안현에서는, “비록 탁명(托名)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른바 집강(執綱)이란 이름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미 감영의 단속이 지엄한즉 어찌 감히 함부로 스스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 해당 면에서 보고한 바도 있고 혹여 능히 무죄라고 발뺌할 수 있겠으나 당초에 죄가 있다는 보고가 없었으니 이 무슨 복잡한 사정인가?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회신하였다. 또한 같은 날 강정 유사는, “본 동네의 전희권이 부득이 동도를 거짓 칭하였던 것이 지금까지 수개월이었는데 뜻밖에 이번에 감영의 염탐에 들어 목숨이 하루도 지내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합니다. 무죄가 명백하니 감영에 보고하여 옥석(玉石)이 모두 불타는 탄식이 없기를 바랍니다”고 청원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감영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니 읍에서 함부로 할 수 없다. 보고 중 옥석이 모두 불타는 탄식이 없도록 하라고 한 즉 옥은 알고 돌은 모르겠는가? 옥은 알기 어렵고 돌은 알기 쉬우니 돌을 가리켜 직접 와서 보고한즉, 옥이 가히 불타기를 면할 것이다”라고 회신하였다. 다음 날인 16일에도 강정 유사와 훈유사가 그가 억울하게 감영에 체포되었다고 호소하였지만, 진안현의 회답은 전일과 차이가 없었다. 17일에도 이서면 산주의 전영택이 조카 희권이 지목되어 있지만 죽을죄는 아니니 특별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감영의 신칙이 지엄하니 용서할 수 없다”라면서 일축하였다. 진안의 호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1867년 당시 마령면은 천안 전씨가 74호로 압도적 가구를 이루었고 그중 강정리 총 95호 중 천안 전씨가 24호로 25.3%를 차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⁹⁾ 집단적인 호소가 가능했던 것은 이 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서면과 이서면의 경우를 보면, 1894년 12월 23일 일서면 외관 주민이 연명으로 김서중은 글과 학문을 아는 데 동학에 뒤섞여 들어가 억

9) 金重泰, 1995, 「朝鮮末期 全羅道 鎭安縣의 社會相에 대한 一檢討」 『全州史學』 3, 33쪽.

지로 입도하여 죄명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하였고, 이에 진안현은 김서중에게 스스로 나와 병기를 바치고 귀화토록 하라고 회답하였다. 반면 1895년 2월 12일 옥에 갇혀있는 형달문은 비록 억지로 입도하였으나 애당초 작폐한 일은 없었다는 시동 주민들의 연명 호소에 대해서는, “비록 한 마을에서 돌보고 보호하는 것은 간절하지만 흉악한 행동을 한 정황이 이미 드러났으니 실제 한 마을의 간절함으로 함부로 풀어주기는 어렵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학 혐의로 체포되었으니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1월 17일 이서면 달길동 김공서의 호소에 대해서는 마땅히 유념하여 거행할 것이라고 처결하였다. 반면 같은 달 30일 아버지를 풀어주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벌을 받겠다는 류판구의 호소는 가당치 않다고 일축하였다.

한편 12월 25일 임실현 상차면 신관의 정극호는 아버지가 관에서 ‘집강(執綱)’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뜻밖에 경군과 일본군이 들어올 때 ‘동학 접주’로 오인하여 처형된 억울한 사연을 알렸다. 이에 대해서는, “비록 마을의 보고가 ‘어(魚)’자와 ‘노(魯)’자를 구별하지 못하였고 이미 경군소(京軍所)의 염탐에 걸려 법률로 처형되었으니 가히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도 순무행군소(巡撫行陣所)에 가서 하소연 하라고 지시하였다. 1895년 1월 7일에는 임실 구부면 이현영 등이 선비 박경무(朴敬茂)는 예전 동학으로 타인의 작폐를 보고 곧바로 반도(反道)하고 민보(民堡)로써 면 내에 모임을 개설하여 처음부터 폐단을 막았는데 뜻밖에 순영(巡營)에 백미 100석을 압류당하였다며 억울하다고 집단 청원하였다. 박경무는 임실의 거물급 동학농민군 지도자이다. 이에 대해, “죄가 있는 자는 법률로 처형하고 죄가 없는 자는 혜택을 베풀 것이다. 전후 감영의 신칙이 거듭 반복할 뿐이거늘 박경무가 만약 죄가 있다면 가히 법률로 처형될 것이니 이 어찌 쌀을 압류하는 단서가 있는가? 이는 반드시 무뢰배가 감영의 신칙을 가탁(假托)한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거지가 분명하다. 마땅히 감영에 보고하고 그 무리가 다시 혹은 와서 침탈하면 그 공문을 살핀 후 해당 동에서 압송하여 사실을 조사할

것인데, 만약 혹시라도 완강하게 저항하여 형세 상 압송해 오기 어려우면 그 성명과 거주, 옳고 그름을 보고하여 순영에 전보(轉報)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처결하였다. 한편 같은 날 본 면의 동도가 귀화하였으니 각 리의 검찰 정책을 보내달라는 대곡면 금사원(禁邪員)의 보고가 있었다. ‘금사원’은 다른 지역에는 없는 직책으로 이름상으로 볼 때 진안현 농민군 토벌 과정에서 새로 생긴 직책으로 판단된다. 28일에는 정월리의 문군삼과 박윤서, 두만리의 엄종여는 본시 비괴(匪魁)로 지난달 남원 민보군이 오자 도피하였으므로 그 가산을 동의 두민(頭民)으로부터 압류하였다면서 도적의 물건을 관에서 거두어들여 공용으로 보충하고자 하니 조치하여 달라는 이인면 훈장 겸 금사원의 보고도 있었다.

4. 유표발급과 작통제 실시

농민군 진압 과정에서 민보군은 각 지역에 유회소(儒會所)와 유막(儒幕)을 세우는 한편 일종의 통행허가증인 유표(儒標)를 발급하였고, 지방관은 면리 단위로 ‘5가를 1통’으로 하는 작통제(作統制)를 실시하여 지역민을 통제하였는데 진안현도 예외는 아니었다. 산막 3개 처에 성책(成冊)이 들어가지 않았으니 유표를 특별히 하달해 달라는 1894년 12월 29일 탄전면 상유사의 보고에 대해서는, “유표의 발급은 진실로 백성을 위한 것으로 함부로 분별없이 성책에서 누락하였다. 이에 고하여 신중하지 못한 해당 입장(任掌)¹⁰⁾을 우선 부과(附過)¹¹⁾하고 유표는 수를 상세히 세어 보내고 나누어주어 우리 양민들이 혹시라도 후일 점고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처분을 내렸다. 또한

10) 동네에서 공공사무를 맡아보던 사람으로 여기서는 마을의 통수(統首)와 연장(連長) 등을 가리킴.

11) 관리나 군인이 잘못을 저지르면 기록해 놓았다가 인사고과 등에 참고하는 벌칙을 말함.

추가 처분으로, “작통하는 일로 일전에 순영(巡營)에서 별도의 조치가 있었다. 조만간 마땅히 지휘가 있을 것이니 산막과 토굴·절을 막론하고 여러 마을에 있는 집들은 상세하게 별도로 탐문하여 혹시 한집이라도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라 하여 각 면에서 유표발급과 아울러 작통제 시행에 허술함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두미면에서는 1895년 1월 20일 박화춘과 유명균이 출타하여 행상 계획으로 공문을 작성 발급해달라는 제1통 통수의 호소와 같은 날 자신은 본래 영남 사람인데 족조(族祖)의 병세가 다급하다고 하니 가서 볼 계획으로 공문 발급 요청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훈장과 통수의 품보(稟報) 후 마땅히 첩을 발급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이 같은 이거(移去) 이래(移來) 관련 입지(立地) 발급 청원은 이 지역 외에도 대다수 면에서도 보인다.

일동면의 경우 1월 17일 본 면 소재 환도(還刀)와 창 1자루를 각기 거두어 올린다고 상유사가 품신하였다. 이에 대해, “각 통수(統首)를 지휘하고 통 내에 있는 군물(軍物)을 낱알이 찾아내어 와서 바칠 것이고 만약 덮어두거나 은닉한 사람은 별도로 탐문하여 걸리게 되면 통수와 해당 입장은 감영에 보고하고 엄히 참작 차단하여 결단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라고 처결하였다. 또한 1월 24일 훈장이 오통성책(五統成冊)을 올려보내자, 진안현에서는 유표 636장을 환수하고 다시 성책을 지급할 것이라고 회답하였다. 이에 앞선 성책 2건을 작성해서 올린다는 1월 3일 삼북면의 훈유사 보고에 대해서는, “성책 1건에 첨부하여 되돌려 보낸다. 유표 419장은 수를 세어서 보내니 수통(首統)의 서식에 따라 각 통수를 지휘하여 나누어준 후 내용을 빨리 보고하고 군물과 마필 또한 각 통수로 하여금 통 내의 사람에게 조사해서 알아내어 신속하게 바칠 것이다. 몰래 감추고 숨기면서 바칠 것이 없다고 말하다가 혹여라도 염탐하여 발각되면 해당 통수와 감춘 자는 감영에 보고하여 같은 죄로 처단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뜻을 각 통수에게 미리 타일러 경계하니 후회하는 데 이르지 말 것이다”라고 지시하였다.

용담의 포군(砲軍)이 내면 궁항에서 누군지 모르는 네 사람을 체포하여 본 면을 지나갔다는 같은 달 12일 상유사의 보고에 대해서는, “전령으로 해당 면을 모두 살펴보고 체포된 네 명의 성명·거주 및 동도 인가의 허실을 상세히 정탐하고 급히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전라 초토영이 편찬한 ‘작통조약(作統條約)’에 따르면 당시 진안은 인접한 무주·금산·용담과 함께 4개 지역을 하나의 통으로 묶어 수성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합심하여 농민군의 잔당을 소탕하고 수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 상황을 순무영과 초토영에 수시로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¹²⁾ 상도면의 경우 강세만이 여면 가막치로 이거한다는 1월 12일 유산 통수 전승문의 보고에 대해서 진안현은 그 사실을 작통정책에 옮겨 적고 새로 들어온 백영섭은 애당초 여면 정책에 들어있지 않다면서 상세히 그 거주와 허실을 탐지하여 즉시 보고하되 기존의 유표는 와서 바치고 바꾸어갈 것을 지시하였다. 같은 날 “살아 나갈 방도(生道)를 취하고자 여면 가막치에 이거”한다는 유산 강세만의 호소에 대해, 정책에 옮겨 적되 이거 호, 통수와 본주(本主, 본디 주인) 성명은 해당 통수로 하여금 보고케 하고 유표는 다시 받아 갈 것을 하달하였다. 그러면서 백영섭이 이주해 온다고 하여 여러 작통정책을 살펴보았는데도 찾을 수 없었다면서 본 면의 거주민이 아닌 것 같으므로 사실대로 조사해서 빨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내면의 경우 배화일의 결방[挾室] 사는 김창서는 전주 사람인데 당초에 작통정책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2월 10일 상궁 연장의 보고에 대해, “통규(統規)와 관칙(官飭)이 다만 심상하지 않거늘 이같이 개인을 숨겨주다가 심지어 발각되니 어찌 임장의 도리라 하겠는가? 그 하는 습성을 살피니 매우 통탄스럽다”라면서 마땅히 죄를 논할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12) 『全羅道各邑每四邑作統規模關辭條約別錄成冊』, 奎.17105.

5. 민포와 수성군의 작폐

통상 해당 지역에서 민병대가 구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진안현은 남원과 장수·금산·용담 등 인접 지역의 민포가 이 지역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었다. 1895년 1월 25일의 장수의 민포(民包)라고 하는 최응천이 김응철을 잡아갔다는 여면 국동 연장의 보고에 대해서는, “타읍의 백성이 지경을 넘어 어지럽게 침탈하는 자는 결박하여 잡아 올릴 뜻으로 영읍의 신칙이 다만 지엄하거늘 어떤 두려움과 거리낌이 있어 이같이 행하는가? 이미 장차(將差)를 파견하였으니 처분을 기다릴 것이다”라고 회신하였다. 다른 기록자료를 보면 이에 앞서 장수에서는 동학농민군 수만 명이 현을 불태우고 안의와 거창으로 향하자 순무영 영관 최응규에게 포수 100명을 데리고 토벌에 나서게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¹³⁾ 이때 구성된 민보군 중 일부가 진안현 여면까지 들어와 주민을 체포해 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1월 집안 남편의 형제가 용담에 갔다가 혼수 물건을 빼앗겼고 모두 네 사람이 몰사하였기 때문에 시신을 찾으려고 두 차례나 갔지만 찾지 못하였고 오히려 해당 읍의 수성군(守城軍)에게 전재를 토색 당하였다면서 이를 감영에 보고하여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1월 12일 자 두미면 고약 과부 홍씨의 호소를 접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정황을 들은 즉 매우 참혹하고 측은하므로 호소한 여러 건의 일은 당연히 감영에 보고한 후 결정을 기다려 처리할 것이라고 처결하였다.

장수의 민포가 여면을 침탈하였다면 일동면은 남원로부터 온 민포가 지역 주민들을 체포하는 문제가 주요 사안이었다. 1894년 12월 23일에는 남원 민포가 일동면 주천리에서 세 사람을 잡아갔다는 호소를 접하자 그 사정을 탐문하고 체포해 간 세 사람의 성명도 아울러 조사 보고토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12월 26일에는 가포의 문정팔(文廷八)이 동생 두 명이 동학 접주로 민포에게 잡혀 죽었는데 이번에는 소모진에서

13) 鄭宜默, 『召募日記』, 갑오년 11월 18일.

와서 심상치 않게 침탈한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동생들은 이미 죄가 있어 법률을 적용받았으니 반드시 다시 죄가 없는 형을 침탈할 필요는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히 머물러 살고 내리는 회답을 기다릴 것이다. 혹시 함부로 침탈하는 단서가 있다면 즉시 빨리 보고할 것이다”라며 훈유사와 연서로 회답하였다. 한편 12월 28일에는 문정팔의 두 동생이 동학 참여 혐의로 이미 민포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동생들의 죄로 정팔의 가산집물과 전주 사람이 맡겨둔 물건을 모두 침탈하여 가져갔다는 훈유사의 보고를 접하자, 만약 평민을 침범해서 포학하게 행동한다면 먼저 감칙으로 타일러 금단하고 만약 고치지 않으면 즉시 보고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에 더하여 “얼마 전에 남원 민포가 가면 해당 면에서 죄가 있는 사람을 잡아간다고 들었다”라면서 사정을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듬해인 1895년 1월 23일에는 아버지가 졸지에 비류(匪類)의 죄명을 받아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대신 죽기를 원한다는 문정팔의 딸 최소사의 호소를 접하였지만, “비록 부녀의 정이 간절하나 죄는 옮겨 시행할 수 없다”라며 물리쳤다. 문정팔도 『민장책』을 통해 처음 확인되는 인물로 그의 딸이 ‘최소사(崔召史)’로 기록되어 있는 점은 특이하다.

6. 방화로 인한 주민의 질고

남면 오정리는 동학농민혁명 기간 방화로 마을이 모두 타버린 진안현의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1894년 12월 17일 훈유사는 오정리 방화 후 1천여 가구 정도가 후일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하면서 별도로 증빙 처결 문서(題音)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진안현에서도 이에 대해 처분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처리 사항은 자료상으로는 파악되지 않는다. 당시 출병한 일본군 후비 보병 제19대대 대대장 미나미 고시로외 문서에도 이 지역 출신 대표적인 농민군 접주 이사명과 함께 다음과 같

이 기록하고 있다. “진안 오정리에 사는 접주와 접사가 방금 고부를 향하여 떠났다. 접은 수백 명을 이끌고 있었는데 모두 말을 타고 길을 지나갔다. (그곳에서) 질문을 하였더니 접주는 이사명이라고 하였다. 한참 있다가 오정리로 갔다. 이곳은 본래 거괴(巨魁)가 많은 곳으로 불빛이 하늘에까지 솟구쳤다. 일설에는 금산의 민포에서 불을 질렀다고도 하고 거주민들이 불을 질렀다고도 한다.”¹⁴⁾ 미나미는 오정리에 불을 지른 주체를 금산의 민포인가 지역 주민인가 확정하지 못하였지만 같은 달 28일 다른 읍의 민포가 죄인을 체포한다고 칭하며 본 면에서 못된 행실을 부린다는 훈유사 보고를 보면 금산의 민포가 이 지역을 불태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민군이 자신이 거처하는 집과 고향마을을 불태우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진안뿐 아니라 금산과 용담에서도 방화로 인한 화재가 있었고 이후 1895년 3월 전라도 관찰사는 정부에 1만 9,440냥의 홀전(恤錢)을 요청하였다.¹⁵⁾ 당시 민보군에 의한 마을의 방화는 서천에서도 큰 문제가 되었는데 충청도 관찰사 김홍집은 12월 동지 하루 전날에 김윤식에게 보낸 편지에서, “서천읍이 소실된 것은 경악할 만합니다. 유병(儒兵)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믿어서는 아니 됩니다.”¹⁶⁾라고 하였다.

내면도 동학농민혁명 중 방화로 수많은 가옥이 불탄 경우였다. 1894년 12월 21일 하거석의 화민(火民, 불타버린 집에 살던 주민)들이 동도가 비축해 둔 곡식이 이미 불에 타버렸는데도 군수전(軍需錢)을 배정하여 빼앗고 독촉한다면서 모두 시행하지 말 것을 연명으로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면으로 하여금 바로 되돌리게 할 것이다”라며 원론적인 회답을 하였다. 이 지역 주민들은 1895년 1월 18일에도 작년 실화 시 동도 집강(執綱)으로부터 이전받은[移給] 조곡(租穀)을 찾아 되

14) 南小四郎文書, 『東學徒活動狀況』.

15) 『公文編案』 13, 『全羅道觀察使來牒』, 개국 504년(1895) 을미년 3월 29일.

16) 『錦營來札』(道園).

돌려받고자 한다며 재차 호소하였다. 같은 달 26일에는 거석 훈장이 사실 조사 내용을 보고하면서, “(일부 주민의) 죄는 죽여야 할 것에 해당이 되나 정상이 매우 불쌍하고 가엾다”라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이에 대한 진안현의 처분 사항은 이례적으로 다음과 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몹시 혼란하고 어수선한 때를 틈타 주인이 있는 곡식을 어려움 없이 취식하는 염치와 도리가 없는 것은 어떤 허물이 있는 것인가? 그 행한 습성을 생각하면 만 번 통탄스럽다. 화재로 인해 남은 궁한 백성은 집도 없고 옷도 없어 장차 죽게 될 것인즉 비록 염치가 없지만 부득이하게 취식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지금에 이르러 생각하니 비록 해망하게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매우 다행이다. 그 정절을 되돌아보면 특히 안도해서 곡식의 주인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정황을 모두 깊이 알고 용서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집이 불탄 사람 또한 빠른 보상이 없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과 형세가 궁하여 창출간에 마련하기 어려운 것 같다. 가을의 타작마당을 기다려 획급(劃給)하여 사람을 살리는 은혜로운 행위[活人之惠]를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다.”¹⁷⁾

반면 고금용(高錦龍-고산·금산·용담을 말함) 세 읍의 사람들이 동도에게 빼앗긴 물건이라면서 귀화한 양민을 함부로 침탈한다는 12월 29일 훈유사 보고에 대해서는 “순영의 감칙(甘飭)이 지엄할 뿐 아니라 반드시 용담관의 명령으로 금단하는 것이 없지 않을 것이거늘 어떤 협잡의 무리가 영읍의 단속을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못된 행실을 하는 이들을 모두 잡아들여 옥에 가두고 감영에 보고할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상도면도 방화가 주요 사안이었다. 전주 사람이 세 짐의 물건을 맡겨 놓았는데 ‘용란(龍亂)’에 모두 멸실되었다는 1894년 12월 17일 후사동 박태규의 호소에 대해서는, “읍과 촌에서 화를 입은 것은 차마 말로 다

17) 『民狀冊』(甲午十二月 日), 을미 정월 26일.

할 수 없다. 그때의 광경은 가히 생각하면 말을 할 수 없다. 개인 물건은 고사하고 공공의 물건과 제반 문서와 장부 같은 것도 예전 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하물며 잔촌잔산(殘村殘産)은 어떻겠는가? 비록 공문이 없어도 완인(完人)도 반드시 들어서 알 것이니 어찌 와서 침탈할 까닭이 있겠는가?”라며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회답하였다. 같은 날 “용담 사람의 방화로 빠져들어 갔으니 별다른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후사동 주민의 연명 호소에 대해서는, “읍과 촌이 다 타버린 것은 매우 처참하니 비록 이 같은 하소연이 없더라도 어찌 모두 헤아리지 않겠는가? 마땅히 조치가 있을 것이니 우선 부근 각 마을에 거처하여 쉬게 하여 겨울을 넘기고 후시라도 한 사람도 흠어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 처결하였다. 주목되는 점은 방화의 주체를 ‘용담 동비’가 아닌 ‘용담 사람(龍潭人)’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용담의 민보군 또는 민보군을 가장한 그 지역 주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방화 과정에서 약탈과 살해 사실도 확인된다. 같은 날 안건리에서는 농사 소 다섯 마리를 용담현 사람이 탈취해 갔다는 주민들의 집단 호소가 있었고, 용담의 변(卞)·강(姜) 두 늙이 탈취해 간 소 13마리를 찾아달라는 후사동 주민들의 호소가 있었다. 또한 용담 사람이 지아비와 아들을 살해한 원통함을 설욕할 것이라는 송대 이소사 등의 호소가 이어졌다. 같은 달 20일에는 ‘용난’을 만나 졸지에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26호의 집과 도조(賭租) 400여 석이 불타버렸다는 송대 주민은 연명 청원으로 “공답(公畜)의 세조(稅租)는 특별히 탕감할 것”이라는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1895년 1월 10일 언중리 김학천 등은 애당초 동학에서 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담의 정필현의 아들이 포사(砲士)를 이끌고 소 5마리를 빼앗아 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22일에는 용담 일남 시변리의 김구명 등이 끌고 간 소 12마리를 찾아 되돌려달라는 후사동 백이중 등의 호소도 있었다. 본 리에서 불에 탄 16호에 특별히 호렴(戶斂, 집집마다 물리는 각종 조세)을 감해달라는 같은 달 24일 송대 주민들의 집단 청원에 대해서는, “면에서 반드시 공의

(公議)가 있을 것이고 이번 호령은 실로 감독하여 거두기가 어려우니 다시 분배하여 호소하는 일에 이르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처분하였다.

7. 도조 징수와 재산몰수

『민장책』에 수록된 경제적 문제는 주로 도조(賭租) 관련 내용이었다. 일북면 대동의 김용권은 1894년 12월 17일 송용담(宋龍潭) 집 마름(畝音)이 담당한 도조를 동도(東徒) 회소(會所)에 빼앗겼다가 그들이 해산한 후 되찾았는데 뜻밖에 전라감영의 차인(營差)이 도리어 이를 추심하였다며 제음을 내려 엄히 금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이에 진안현은,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았으니 어느 누가 다시 침탈하겠는가? 즉시 답주(答主)에게 구획하여 줄 것이며 설혹 영차가 내려오더라도 반드시 본 읍에 영칙(營飭)이 있을 것이니 매우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회답하였다. 12월 25일 조(租) 16석을 동도에게 빼앗겼는데 최근 들으니 본 리의 소임(所任) 집에 맡겨두었다고 하니 처결 문서를 내려 찾아달라는 내면 하궁 거주 이창만의 호소를 접하고는 혼유사에게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완인조(完人租, 전주 사람에게 바칠 세금) 21석을 이서면 좌포의 동도 도소에 빼앗겼는데 감영의 교리가 찾아주는 마당에 8석 조를 김성화 등이 끝내 내주지 않는다는 12월 27일 마령면 서비산 신갑주의 호소를 받아들여 사실 조사차 이들을 불러들이겠다고 조치하였다. 같은 달 29일에는 외면 간정리 임종권이 동도의 지독한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논문서(畵文)를 출급하였는데 채주(債主, 빚을 준 사람. 즉 채권자)가 와서 독촉하니 채무를 갚기 위해 공문을 작성해서 발급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요사이 회를 입었다고 칭하는 자가 많다. 그 진위와 속사정을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고 조치하라”고 동의 두민에게 지시하였다.

1895년 1월 10일에는 두미면 반월 금마 주민들이 작년 가을 도조를

동도에게 빼앗겼는데 뜻밖에 답주(畝主)가 세금을 독촉한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진안현은 답주가 세금을 거두는 것은 이치상 당연하지만, “작인(作人)들에게 징수를 미루면 이들은 어찌 한스럽고 억울하지 않겠는가?”라면서 남은 곡식은 감액하여 거두고 혹시라도 가혹하게 추심하면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보호하기 어려우니 현에서도 별도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회답하였다. 1월 25일에는 여면 예니의 문영진이 이사천(李泗川)의 조 7석을 동도에게 빼앗겼는데 뜻밖에 강가(姜哥)와 동도 10여 명이 다시 이를 징수하니 매우 한스럽고 억울하다고 호소하자, “사실 조사차 해당 마름을 보낼 것이다”라고 회신하였다.

당시 진안현감은 임실현감을 겸임하였는데 임실 지역에서도 여러 사안의 민장을 제출하였다. 1894년 12월 17일 동학 접주 엄성삼을 잡아들일 때 장대련의 집에 맡겨둔 조 3석 모두를 빼앗아 갔으니 찾아 되돌려달라는 임실현 신평면 필동 엄문홍의 호소를 접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관예(官隸)가 수색하여 가져갈 때 유치한 조와 팔아버린 것과 가져간 것을 상세히 조사 후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추가로 가장 집물(家莊汁物)을 수색하여 가져간 자를 빨리 보고하고 품목 내용은 하소연한 백성들이 은밀하게 올릴 것을 명령하였다.

기타 경제적인 문제로 12월 29일 못 된 행실을 부린 몇 놈들에게 잃어버린 가산을 거두어 찾아달라는 읍내면 이소사의 호소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물건을 용담에서 지경을 넘어와 못된 행실을 부린 놈들에게 받아내는 것에 관해 장차 조치할 것이니 물러가서 처분을 기다리라고 회답하였다. 1895년 1월 8일에는 임실현 방동의 동도 송가(宋哥)가 빼앗아 간 소 1마리를 되찾아달라는 장영만의 호소를 접하였다. 하도면 단령의 양낙풍은 같은 달 19일 초토영이 본 읍에 말 5필을 분배하여 역마(驛馬)로써 대신 납부하였는데 그중 2필은 전장(戰場)에서 유실하여 말값과 잡비를 구획하여 지급하였다고 호소하였다. 25일에는 경군이 읍내에 들어왔을 때 바친 농우(農牛)를 찾아 되돌려달라는 사양동 주민의 집단 민원이 있었다. 진안현에서는 다른 지역으로부터 온 6

건의 민장도 처결하였는데, 동학농민군 관련 내용으로는 상차면 백금암과 협잡한 전주의 박영목이 동학에 기대어 밤을 틈타 임실에 있는 자신의 선산에 투장(偷葬)했다는 1894년 12월 28일 자 김제의 김기홍의 호소가 확인된다.

南海李成官收以暫接于治下半月里而今還故出為計公文成給事

題內蹤跡之虛稟詳直於其所住主人與該統首後報來向事訓育連長

茂朱張元表以佐浦徐判危勒脅家妾事 題內徐判危與厥女星大從來宜當

向事 將差眼同收民 告全在宜

二分台

全州才人曹昌弘秋以治下許浣處需米一石推給事 題內查察推給次

率來事 秋者 告全夏洪

他官 三月五日

全州金秉容狀以本邑吏金殷俊置塚中容獲事

題內即列掘移向事

將差 告李英澤

三日

金堤金基洪狀以先在於任察而上此有金岩曠囑完人而全州於永默藉其東學乘

夜偷葬事 題內查察督掘次捉待向事 追題內自留鄉曹為先查察是矣累

如所訴即為押付向事

任察留鄉

告李英澤

乙未正月初七日

全州李基聖狀以任察智咸同東麓尚買得置標矣七月長不知人毀標偷葬
事題內待新官到任後更訴向事

十五日

鄉會即宜以敬奉巡營門甘結都副約正與直月薦望擇其可堪之緣由仰稟
狀題內依前不送向事

以本官到任日字為來月初四日故符信費送送鄉包起發題內是果符信費是送

各康關全改任於向鄉向事

留鄉教本邑新安李直履呈狀題首據片佃百高白昭洪令方捧在時及食砲古後也

向事狀題內知老向事進題備字國書亦付古向事

留鄉教以新李李張兩氏處租包古名教查家資狀題內事極模糊向事

留鄉教卓述類白明題元有推稅的實發送今已此解未得捕提狀題由許是處受惟無礙在凡問甚

向事

更前長德禁和負教本面程月異是差朴元等滿是聚糧決七是匪魁南原民臘月良

末到三價進難不得捕之而其家產執留于洞頭民則賦物自官推細以輔公用狀

題內侍本官在任更中措發向事

給事 題內查實推給後形止報來向事 留鄉 告李英澤

二十五日

寒山里張云甫狀以所搭之者煩給事 題內查案措處向事 該書實 告金存寔

二十六日

一道崔台史狀以東徒申云先處見奪錢六百兩推給事 題內捉斂

推給是遣嚴囚報來向事 留鄉公兒首刑吏將差告全是洪

東身前詞者以儒粟派給處分截嚴故沒各里有司別檢捧粟報狀
而村間雖殊里則同閑或有西里同稟錄狀題內知悉是在果各報到付
向身

吏房文耳鉉狀以有新官司主差出新迎吏房舉行事題內知港是在果去臘港是
時軍需所捧錢數各樣物種捧未捧應下件記與諸般之簿在於連田更處矣以為推
考後形止馳教向事

下吏嚴世敏狀以宿病闕啟舉行末由則所帝承啟之任以族人錫珣管代事題內

依訖核差向事

下吏金贊產狀以身病作之所帝軍需舉行末由以所掌該色移空事題內許薦事

二十日

新平訓長洞頸民稟以嚴文洪呈狀題教據查實則極為完枉事

題內雖云完枉遠難出給而新延在即使之更訴本官向事

二十二日

大谷李士元狀以昨年八月良大時居東徒金君贊申官五處所失牛隻推

去言等不報事 題內昨身雖通惠同境之人豈有若是情習身當此之可以還
報而尚有餘將不敘報償身即當將情羅以為查察惟結是矣如或頑拒併押上

事

留鄉首刑吏

告李英澤

下堂巨村金光弼狀以東徒處而身係在於名不知李哥家故給本價還退為言則
反為什情事 題內雖不給價回即還身而況給本價者身免其所習極為駭痛即

列推給是美如或頑拒因報來向事

留鄉 兪 告李英澤

音

新安韓重履狀新平也此洪朱復給價買得矣今忽更侵身價事 題內買賣

似然則豈有若是之舉乎果如所訴事極無據查察推給身等呼訴向事 留鄉
下吏金潤哲狀以疾破舉村末由吏役特為頃下事 題內待官回 在任更訴向事

十八日

本

在任更訴向事

初合

鄉會所

下東五柳姜守永以上檀巖村東徒處見奪隣家牛隻與自己架題下推給事
題內聞其情狀極為矜憐奪去者自在何難還推回當捉教督推是矣本邑
新迎在卽往訴于本官由事

告李英澤

初九日

下檀巨村金文善收以本邑新併水泉里東徒金永九等處所失物件推給事 題
內當時連賊雖屬通惠一境之內官有若是之侵虐豈既有明賊則固當還給
之不暇是乞 延拖時日尤極痛駭固當捉教嚴懲是在東姑先題歸卽為
推給無至更托推日由事

告李英澤

九柳焦浦金進士奴千碩收以東徒處所奪租苞二百餘石案皆推尋之場惟插鄭

以民僅樣設會於面中自初拒契至不意自巡營有米百石執留究程事 題內
 有罪者施律無罪者施惠前後 營飭不情申重是乞朴敬茂差有罪則
 可以施律之不敬是乃官有執米之福此必是無賴輩假托營屬有此區測之系
 明固當報 營是在原厥輩更或來侵考其久後有該洞押上以為查察向
 事此亦中如或有頑拒執難押來探其姓名居住真偽報來以為轉報 巡營
 宜當向事

下吏朴東錫以校官修理色遣窠雁馬色依官題與鄉稟差出之意題下事
 題內前後題音若是昭然念除良既有任切又有例遣鄉稟亦如此則必當有
 效勞而何必煩訴乎按例差送無或違規且無至呼究向事進題內而訴既
 如此又有鄉稟與官題之申明故如是題給然以一時兼任之題未必其能施向事

邑內文昌壽狀以矣父秘錢見奪於東徒之由特為報營事 題內既有前題
 是在果所訴差是縷寸知見奪之宗蹟則勢將報營然新官司至新迎
 在即第待差任後所訴向事

上東訓長報以儒票分派後移去近處之民還接事 題內知悉是在果還接
 人副待本官到任後指名重報儒票以為受去向事

行首軍官太如呈狀以任名頌下事 題內待新官司差任更訴向事

下雲訓長報以五家任統成丹研修上事 題內成丹後者次捧上向事

大谷禁邪負報以本面東徒循面故他而各里檢察成貼下送事 題內依訴差

送向事

九學李憲榮等狀以支朴秘茂以旧東學見其他令作祭仍為反道而不得已

情雖可憫此非言私之時而況有新近在即有難遽通是在果勢先至此則第
待新官自蒞任更訴向事

吏房文漢疎狀以才貧至淺老母待下付公未由任名特為頌下事 題內情勢
之迫迫已呼洞悉而當此搶攘之餘非但邑務之紊亂且今新迎在迫難以遽
通不得不先公後私是在果第待新官司赴任後陳情呼訴向事

右杖長報以步梯次登傳才淳昌而亦無食價事 題內舉字報 營向事

里仁稷長報以空立三還三事 題內儒票三張依票附下事

東邊都訓尹報以訓長以可堪人薦望事 題內儒票既已還推介紹則不可無安

徐之道該訓長付過特為介棟以為仍舊察任是在原望報還下事

東邊都訓尹報以可堪人薦望事 題內既有前題望報還退向事

下北訓長報以張英奎呈訴題者據查宗裡許則張氏果是究枉事 題內事極無

據金漢如或更侵押付本邑留鄉仰向事 告李英澤

三

邑內文昌壽狀以笑及今身由稅色私付而收刑錢一千五百餘兩見失於東徒報 營推

給事 題內莫重公錢私藏見失責所何故有難遞爾報 營待本官

司刑付後更訴向事

告李英澤

鄭益奴順丹狀以笑因產在於治下南面而所捧稅租全明如沮戲事 題內人心雖曰

不古宜有若是之理乎似是舍音稱托做意查宗次該舍音年來向事 告白煥熙

乙未正月初七日

下建晉鏡輝狀以八卷病世下付公末由而帶片長之名特為頓下事 題內

丁昌寅之橫死既已入廩於京軍行陣則難以昏明而大抵毋論真假既接至之施
律則更無生梗之端勿為驚動各安其業向事

告李英澤

此新館丁克鑄狀矣文以官出軌綱孔行矣不意京日渾時以東李接至橫死極為冤
枉事 題內雖有洞報不辯魚魯既入廩入京軍暫而施律則可謂於明無地往訴

于巡撫行陣向事

告李英澤

于香

留鄉而報以下此張英奎呈訴題音據詳查裡許則張民果是冤枉事 題內世或有橫
微之端豈有若是者乎從公議措履無至呼訴之弊是矣金正大如或向來侵以為枉
上向事 追題內稱以官課有此無擾之習極為痛駭即為嚴東禁斷無至侵討於村
民是矣如或向作擾不待更飭定將校抵上向事

告李英澤

事

公兄留鄉

告李英澤

三言

下此張英奎收以金正牛見奪於東徒來侵於民事 題內世或有橫侵豈有如許無
據之端牙詳查裡許報來回事 訓稷長 留鄉 告白煖默

十四日

下東金寡收以東徒來開本里之時而喂牛復本洞諸民貸用矣仍不報給事
題內果如所訴極為裕惻既有一洞之師約則宜稟報之理牙然裏足來訴
則必有層節即為本色還給向事 訓稷長 洞頭民 告白煖默

十五

上此新館居民等收以本里丁昌寅以東徒接主橫死然恐有後慮爰成給事 題內

上東崔鳳基狀以南原權班債給於矣甥侄女婿云柔督非常事 題內非徒無以私

徵族此可謂查之分也豈有是理大抵宗有兩捧當此擾攘之餘有此橫侵不能

安接云者極為駭歎如或有更督之端以為馳報向事 追題內事果理外而若

以督侵則馳報留鄉而有官禁斷而形止馳報向事 訓稷長 告全必憲

姜道玄狀以同邑朴順同處錢與米推給事 題內即為查宗推給是矣如不即

地還給眼同狀民與差使星押上向事 留鄉 告白煖默

崔敬執狀以治下南面朴用目廢生三隻推給事 題內星率待向事 告白煖默

二十日

上東陽地里鄭東旭等狀以沈君五接事既有管帖與官題而叅謀陣卒來侵事 題

既有管門帖文則以此憑考是矣如不施行自官隸依 輪甘辭意以為禁斷向

無邑任宗 七月廿日

新牙筆洞嚴文洪狀以東學接主嚴成三推挺之際張大連家任置租三石牙奪去題下推
 繪事 題內官隸之搜時李君允留置租及張再家留置都數幾許放賣幾許
 輸去詳查密報是遣三石牙之委折并即馳報向事 背題內家庄沐物之搜去
 者亦為馳報是遣稟自段使收民緊封秘上向事 訓稟長洞頭民告李英澤
 下柴村居民等狀以昨在允之柄納上事 題內既已納兵鬼則當報 營以為勿侵是在
 課如或有更推之道遣三搜納向事 告李英澤

二十日

崔鳳炎狀以勒被東李之名既納軍鬼特下處分事 題內軍鬼等物既已自

納當報 營向事

告也煖默

同馬酒與浮費區劃以給事 題內從公區劃以為來告事 田公凡 告全在寔

三書

斜陽洞居民等以此京軍人屯時支供農片推給事 題內從當區處以給事 告全在寔

下道 十月十日

丹嶺金鍾采狀以先少松楸放賣婚需計科令受成給事 題內家長平來白事 告

背題內叔侄之所告既無相左則有何疑慮以此受成給事 叔德主 告李英澤

丹嶺梁洛西狀以無子無依之孀奉孫德吉托身為計令受成給事 題內憑後

次立旨成給向事

告有煖默

乙未正月十日

洞李永先狀以三寸叔父居在丹嶺南居昌地而不幸身死急尋來到

治喪計料往還間憑考次 題下事 題內公文成給向事 告全曼洪

十九日

丹嶺梁洛豐狀以批討營本邑分排馬五匹以驛馬代納矣其中二匹遺失於戰場

事

告全在寔

一 東

二 西

二 洞中承賚收以還接故去全州事

題內依訴受成給內事

告全秉湖

二 洞界化執出統內四不東承賚還故本去翁受成給事

題內依所訴許

施內事

告全秉湖

慶分向事

下吏李東澤狀以野帶牙色致責計料事

題內是承發之例無窠而業已承發呈頓矣勢將差代

則新差承發何窠需帶守前或有生等例而雖無魚任承發新差者無或守訖字從例差而不

向事 初五日 必兄

初十日

張永萬狀以任保房洞東徒宋所慶見奪生復推給事 題內查窠推給次

捉來向事

狀氏

告全承完

十日

四洞趙貴向狀以今春成造次買家於与面君名及其毀來之場李道玄沮戲事

題內查窠報來向事

該洞頭民

訓有司

告全在寔

古林寺僧文贊狀以旧主僧永喜任持欲為還奪事 題內率來對示向

則初來作農令其歸種使農戶檢和詳請在農狀內事

下吏徐洪頌伏以奉以貪寒之致資生無路昨年有良概移外制作農計料頃下事

題內且前有所分付事庶可知悉而因念事体今此來訴極為駭然昨在邑中而作

農今年何處密村而作農乎設或移托免何其汲乎今年亦依昨年作農無妨向

事

下吏金秉湖致洪伏以商董計料頃下事 題內昨日過姑無如何之 處今而敢此

投訴俾圖安逸是何所習且有分付事可以知悉而不顧事体有此煩訴可知其無

牌極為痛駭既有刑吏之任不可頃下是在果當有徵勵音白事

下吏金秉訓以商董計料頃下事 題內昨有分付事可以知悉而今此

來訴是何事体離非頃業既無任事則何妨商董行商問受由似無妨向事

初五日

下吏成漢文伏以承蒙之任煩下事 題內勢雖可悶既已有闕未代者姑竣

役頗下事 題內三班吏被禍出村者非獨汝之二且成冠舉行者又非獨汝

也有何事端而屢煩訟乎若以上冠歸商榷案則所謂通引必無乃

已不得許施是在果此後如有稱托此等事來訴則當有別般懲勵

之道是遣耶謂首通引亦難免嚴絕矣各別知委無至犯科向事 題

內通人中如有所訴之端是去等三通引探其裡許以為來訴事

下吏自煖默狀以既無所任歸農商計料頃業事 題內刑吏豈非所任乎勢雖可閱

不得許施向事 乙未正月初五日

乙未正月初四日

下吏金漢均仗以事勢末由不得不退村農商為業事 題內日昨既有題意而

今日又以此煩訴所習可駭向事

下吏金東俊仗以悞農計料頃下事 題內雜非通案既無任事則有何所好日前

有帶多付事而需當知是與國念重律律執農業誣訴圖免昭昭誠然向事

邑內去月書

高林寺僧文贊狀以牙尾元乃喜處任置物件推給事 題內查察推給次在來

向事

狀僧

告右煖點

建房右東蓋狀以所帶之任特為煩下事 題內當此之時不可不擇差為所變

如是不得已通任向事

追題內立代前依例系行向事

告右煖點

壬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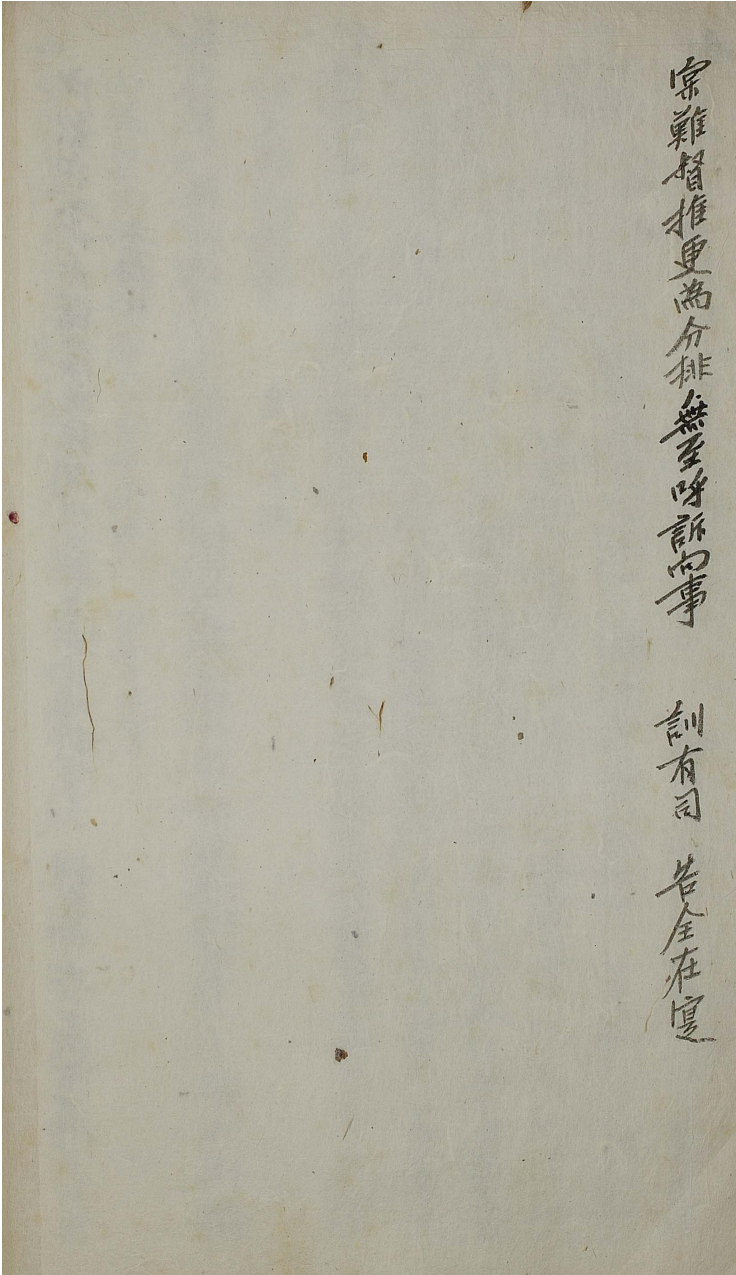
二洞李台史狀以所失家產徵推於邑內作梗之幾漢事 題內雖無此訴既已

洞悉失物諸件欲徵於龍潭越境作梗漢處云者事或當然而將有措處

事退待處介向事

告全載鉉

通引全一均狀以高為業次已為上冠而又遭燒家之災出村許料通引之



戶歛亦不可無顧念念畿許間徒為歸正無益呼訴事 訓有司告李英澤

二百

乳山里文錫弘狀以四寸兄錫基移居龍潭計料公文成給事 題內依訴

公文成給向事 告全秉湖

乳山統首金承文報以二度奉至任錫基還接故去龍潭而金判詰不入統內事查探則

今奉道以徐京信挾家事 題內文錫基儒票捧上是在果公文出給而至於金

判詰初無松登火云云而道以徐京信挾家錄同判詰之行跡經為訝惑從當

別探後儒票出給向事向日背題內金判詰本是松登火云云而初無載錄於火云云

再緣何委折是喻詳查報來向事 訓有司松登頭民 告全秉湖

松登居民等狀以本里火云云特減戶歛事 題內自面中必有公議矣今者不歛

十四日

後寺洞申錫鉉狀以龍潭村會先等濫殺人命之罪報營雪冤事 題內雖

無所訴已所洞悉且業已報營則第待回下措處向事

乳山統首全承文報以被差姜世萬拘去與面加幕時白永變入廢事

題內姜世萬標榜上而待加幕時統首所報出給是在果金判哲初無作

統成丹中甚訝惑其委折查報向事

告全聖勳

二十日

後寺洞白伊仲等狀以龍潭一南市邊里金允明等處屠宰牛隻推給事 題

內從當文移於龍潭官當推給事 告李英澤

松袋後寺洞居民等狀以龍潭人作亂時燒燼四十八戶排斂減下事 題內雖不可無

戶統首與本主姓名使該統首以為報來儒票更為受高事背題內今接
 上道乳山里第三統首稟報內姜世方移去本面是遣其本居下道請白
 未獲移來云故者請作統成丹則初無白哥此何處折白哥如非本面居民而稱
 托於本面耶其裡許查察馳報向事

告金聖勛

十七日

訓長稟以本面房巾里全東烈呈訴題音據詳探查察則一無傷處
 破裂之物以衆論即也徵給西氏私和事題內既欲私和則初何來
 訴固當兩隻俾捉嚴懲是矣此時民情不可安徐之道故特為分棟
 是在果此後無論何許輩如有齟齬之端該統首當與其犯科者
 別般同罪嚴治矣以此措揮於各統首毋至犯科抵罪向事

駭歎查深嚴懲汝為先星火押待是遣被傷人所傷處使洞里女人詳探報
未向事追題內其是非之顛末及董氏仕裡之裡詳亦深報未向事

初旨

考堂金學千等狀以初不犯於東學而不意竟澤丁必賢之子亦其地生年五獲

奪事 題內當文移推給向事

告李英澤

告旨

乳山統首金承文狀以統內姜世芳移去與面加幕時事 題內移錄於作統成丹是

在果新接白永履初無人統於與面成丹則其來歷甚模糊詳探其履任虛

案即為馳報而儒票來納搜去向事

告金聖勳

乳山姜世方狀以取其生道移去與面加幕時事 題內移錄於成丹是在果移去

乳山姜奴貴丹狀以敢斃兒犢埋置之意題下事 題內既不足去皮立本則埋置

無妨向事

告金必慮

三言

後寺洞申茶奎狀以他人教反自己教沒入竟亂燒燼中五者馮後事 題內該里之被
快非但一尾若知物主宜無料理乎此不必來訴律章該者則當有安途之道向事

告丹濟均

彦中里姜寡狀以全吞田無名錢五兩勒徵以差而又為來侵事 題內世宜有如許蔑

理者乎查察嚴治以待其來侵使洞中結縛捉上向事 風憲 告李英澤

乙未正月初旬

彦中里金東烈狀以董景先時習懲治事 題內以兒戲之嫌作此時習極為

言裁所失之物如有可推之道當文移於該縣以為推給向事 告白煖默

松岱李古史等狀以龍潭之人殺父殺子之寃雪報事 題內聞極愁慘尚忍言

裁既有報 營則第當待處介雪寃向事 告白煖默

松岱李古史狀以狀辭題音上同 告白煖默

三白

松岱居民等狀以向遭龍亂橫被十餘傷命而李家產與各賭租四百餘石盡入

燒燼事 題內邑村被禍慘忍言各人賭租段必有當差之措處而如或有勦

捧之端更為未訴自官啟正是遣公查稅租段特為蕩減向事 告白煖默

彥中里董敬水狀以身死堂侄無以結頤下事 題內查陳向事 該書負告白煖默

三白

上道 正月十七日

後寺洞村茶奎收以完人物什首任置於家而沒失於龍亂事 題內邑村之被禍慘

忍言哉此時尤景不言想私物姑捨至若公物及諸般文簿一無如前况殘村殘

產牙雖無公文完人必聞知矣宜有未侵之端即不必慮懼向事 告李英澤

後寺洞居民等收以本軍沒入於龍潭人衝大則別般廢舍事 題內邑村之燒燼極為

愁慘雖無此訴豈不洞悉乎當有措處是在果為先棲息於附近各里以為過

冬無或一民漠敢向事 告李英澤

彦中里居民等收以無罪之村農片五隻龍潭人奪去事 題內當時所遭災獨本

里等然當又移於該邑期圖還推向事 告李英澤

後寺洞居民等收以龍潭不羨兩漢廢片士獲推給事 題內邑村被禍尚忍

訓長柳燦根收以師帶之任改通事 題內許施向事 追題內有文識解事可堪
人約長兼察次單擅望報向事

去首

上有司報以龍潭砲軍內面官項未叙因右提過本面事 題內方傳令該面為
揮志是在原被提與人姓名居任及其東徒之虛案詳細偵探馳報向事 卷九兼湖

十四日

約長色掌等報以產首公凡自官擇用事 題內粘筋已經歲而今終可稟
又若是外雖存體面內案屢責是豈奉公之道乎事極駁歎當有別
般懲勸是矣特姑安恕向事

下水項鄭在信狀以訓長之任改通事 題內此是一面公薦何可遽通事不自行公事

卷九兼湖

三北

副長報以民扶病僅為周年舉行是字則政差之計以可堪也人以為出差事 題內許施向

三北 正月十九日 事

明至報向事同日

廿七日 題內有之識解事 可堪人的長兼密次軍檀

孫谷朴炳恩以是居金七方毆打妹兄金大叔方在危境事 題內事極痛愧全

方段當有嚴處是在果被傷慶詳查摘奸即為馳報向事 訓高 告白收默

乙未正月初首

訓有司報以成丹二件修事 題內成丹二件成貼還下是在果儒標肆百

拾玖張昭數出送依首統書式指揮於各統首以為分給後形止馳報是

遣軍物馬匹亦使各統首這搜探於各統內各人即速輸納是矣私藏隱

區稱以本無納朴是知如以視終於收廉則該統首與該藏之報 營高

罪斷不容貸以此意晚錫於各統首無至後悔向事

初旬

外

外面

三月三日

于井里孫鎮權狀以家况永權以自商赴於古阜接戰而難堪彼輩之困督不得已
 道矣今為納兵及道主者遷後事 題內納兵望家者既有 營飭而勿侵當保所
 訴以為報管是在果為先以捧崇德者向事

告李英澤

二十九日

于井里林鍾權狀以不勝東徒之困督當文出給東徒然債主來督放責報債為
 計及成給事 題內近見之稱托被禍者多雖屬勢然有難專信者存
 詳查其真偽裡許以為報來措處向事 訓有司該洞頭民 告李英澤

內統親官飭不曾尋常是去已若是循私至於現露是豈任障之道乎
究其而習極為駭歎固當論罰是矣特為安想向事 普全致洪

書白

訓長報以在囚裴化日以東徒見殺極為冤枉事 題內書記之稱出於何處
今此而稟極為訝然知至而不知名可乎指石則王出由事

成打場劃給俾存汙之惠宜當向事

三月初旬

上乃項洞報以裴化自雖入勅道毫無蕩亂事 題內然則該洞民中匪黨隨蕩

亂於本境與隣邑者不押待向事

告全載鉉

上乃項李明西等收以在囚裴化自雖入勅道毫無任弊事 題內當有逃法

措處爾等勿煩退去另修各業宜當向事 告全載鉉

初旬

上乃項連長報以本里居全昌西儒票分派前不為移去之意知委事 題內

依前飭毋得擅自移去向事

告全載洪

上乃項連長報以裴化日換淫居全昌西以全州之人初更於作統成丹事 題

龍高錦三邑作梗之漢亦為押上向事

告全泓明

乙未正月十八日

下臣石火民等狀以昨午失火時東徒執綱移給租穀主今欲還推事 題內查宗報

末事 訓長 告全承完

三首

訓長稟以本面石火民訴據查宗則罪在當死然情狀極為矜惻事 題內乘其擔

據之所有是穀無難取食無慮萬理宜有過於此究其而留萬之痛駭然火

餘窮民無家無衣必將就死則雖沒廉恥不得不取食而保命矣到今思之雖駭

保命最幸顧其情勢特姑安徐是在果穀主若深悉其瀆死之情狀則不可無

容貸是祿火之民亦不可無速償之意向而況今四窮窮事勢似難梓辦待秋

丙

内面 靑至日

下居火民等收以東徒而儲穀已為燒燼而排軍需錢今又侵督并為勿施事 題

内自該面改正向事

告右煖煦 訓長

三首

下為李昌方收以租去右見奪於東徒矣近聞任置於本里而任家云題下推給事

題内查深報朱向事

訓有司 告李英澤

三首

訓有司報以高錦龍急之稱云東徒覆失物橫侵於故化良民事 題内 巡管

甘飭不啻截嚴愈除良必不無童潭官飭禁斷是云乙何許扶雜之輩因念

營是之飭有此作梗極為痛惋中因報營次一并捉待向事 追題内

至呼訴回事

告李英澤

乙未正月五日

并答李天順狀以官軍入邑時所供并復區劃以給事 顯內尚有洗連區

覆回事

告全稅法

一此

一此 去月廿日

盛洞金龍權然宋龍潭家舍音擔當而賭租見奪於東徒會而是如何解散之
後推來矣不意營差反為推尋題下嚴禁事 題內失物還推則有誰更侵即
速區劃於儘主是旅設或有營差之來必有營飭於本邑不必深懼向
事 告李英澤

手書

板崎天朴仁煥狀以戶役依例頒給而不意排分云事

題內查察報來向事
訓有司 告李英澤

手書

訓長報以朴仁煥以紙所懸註事 題內知悉是在某戶役毀自面中從公措履無

曾子柳判九狀以放還矣父代父受罪事 題內情雖可悶豁挾姑俟處分向事

二月初八日

告全載鉉

約正稟以書生講試後杜元後錄仰稟狀 題內帖飭徑歲各面尚此寥之惟
在後面數此設講可知勸獎之不倦官飭之慎審豈勝嘉尚豈勝欣幸
倍加勸勉期有終始之察效向事

十一日

下佐連長報以本里四統四戶挾居李泌鉉以筐桶商次出去禮山事 題內依

所報公文成給事

二西

二西 正月 旨

曾子洞金有容收以崔汝一處牛價推給事 題內查原報未寫事 訓長告金必慮

手有

左浦梁露收以完徵無止結頓下事 題內查原故正寫事 該書負 告李英澤

乙未正月 十七日

敬珠全永澤收以矣任照權被捉營廉而果無死罪別般處分事 題內營飭截嚴

不可容貸向事 告全載鉉

達言洞中報以本里金公西以東學被捉究枉事 題內當有措處是在東此三漢處

有指揮事着念舉行向事 告全載鉉

三十一日

二月書

矢洞居民等狀以在凶刑達文雖為勒道初無作弊事
切竹獨情節既以現處宗難以一村之切擅放事
題內雖有一村顧護之

一西

一西 去青至首

外局居民等收以金瑞仲但知文學矣渾入於東學勸道而染被罪名究枉事 題內使
金瑞仲自現納矣故化向事 告李英澤

乙未正月至首

長城洞李秉茂收以書負例給水荏牙即求區里而當而橫侵本里事 題內查

案後移止於求區里是在案長城洞報如或一區之誣訴兩村頭民即為押待向

事 訓有司 告金在價

辛日

上有司稟以伐林內谷戶首王振少順德破產流難改更擇可勘人仰稟事

題內許施向事

盤松里居民稟以本里張應斗呈訴中有金京化捉待之分付而兩人自外私祀事
題內雖云私和固當捉致懲後是矣此時異於他時特為安徐是狂果其
所納軍需錢已為準捧是喻所謂風憲尚無分錢之采納可訝可駭該
洞之所排軍需幾許何日收給風憲昭詳懸錄馳報事

乙未正月辛日

茅若居民等狀以本里金成玉移舍于長水事 題內依所訴公文成給向事

二十三日

告全東湖

東山里鄭致丙狀以兒情致斃事 題內去支之本向事 告全肯嶺

訓長全基述狀以訓任領下事

題內若老成眾望有遽遯向事

三三白

石田朴在洙狀以長水白哥處買得片隻而任察崔敬執稱云渠物評評官庭事

題內非來對贊向事

狀民

告白煖默

三三白

盤松里居民等狀以本里之有司軍需錢收刷之場全京化無分錢推給反為毆打里有

張應斗

司事 題內莫重軍需官敢以頑拒乎究其所習萬痛駭所謂全京化屋

大捉待向事

主人洞頭民

告李英澤

訓有司報以他邑之民危稱捉罪人作梗於本面事

題內已悉於昨今上有司報是在果

方以急足論報 巡管矣芾待下面措處而如或有橫侵之端馳報向事

告全忠憲

南面

南面 十月十日

五亭里崔君仲著狀以矣等不入於東徒則嚴題杜獎事 題內當時漢散客或無狀

既無所犯則必何逃避既有 管飭之申明使散民不日還接即為報來向事

訓有司 告李英澤

訓有司報以五井里火攻後如不餘才恐有後慮別般題下事 題內已題於該

狀向事

告李英澤

新里居民等狀以本里處在大路邊而木小應役擔當未由別般處分事 題內諸

般支供之節不可圖免須日後如有行次之站則各勤私行無至生糧是遣而

費段自面中另設方畧以為措處向事

告李英澤

至旨

酒泉崔鍾翰以東徒慶見奪牛隻推昇於金昌西矣不意辛大仲沮戲事題內
劉曾後決慶次金昌西辛大仲星丸華符尚事 將差

訓長會以王樂仲移去龍七(南)面頭谷呈事 題內依票令受成給事 黃全肯辭

白雲洞金昌國故還故錦計科令受成給事 題內依所訴令受成給事 黃全在實

三首

訓長報以五統成丹修上事 題內成丹併成貼還下送是在果前此出偶票六百五十八

還收米納運為成貼出給事

去有司官以王春初錄

雲橋梁奴尔金狀以任保德靖面沙谷白判名處養生曾牘推給事 題內果如所訴

白判名之不良可知判即詳查推給是矣如或依前頑拒使狀民眼同押上以為杖囚督

捧向事 德靖訓稷長 告全在實

王春

首統內所在軍物一推尋未納是矣如或掩置隱匿入廩於別標之下則該統首與該任傳之報營嚴勘斷不容貸向事

三首

訓長報以本面自雲洞金島因移居錦事題內初不入名於任統成丹而有儒雲是
何委折詳查馳報後受成給向事 新舊訓長 告李英澤

三首

雲橋文正女崔豆史以奚父橫被匪類罪名至於死境則願為代死事 題內雖

切父女之情罪亦移施向事 告金肯齋

昇川王廷述狀以移居龍潭計科受成給事 題內依野訴受成給向事 告金肯齋

昇川統首報以本里王廷述移居龍邑受成給事 題內依稟受成給向事 告金肯齋

酒泉劉漢友收以族任執仲以東存播差之罪各處失物之人來侵於無罪族戚
 事題內 巡營甘結與本邑傳令茲出送如有更侵作梗之端自洞中即為捉
 上俾安民心宜當向事 訓有司 洞任 昔金秉湖

乙未正月十日

藩岩茅益周狀以牙章崔監役以全昌西處債報事請買片隻故居間與成
 才丁烈秋矣同崔監役還奪片隻事 題內此時事雖象中之人必不欲干涉
 而顧其隣誼居間固施者出於彙性之而極是乞乙崔民因念此意使人失物無
 乃登樓去梯者牙事極無義全昌西許字有兩報則不必還推既無去來糸
 則胡不來訴而有此特事耶則即為還給在理當然是任原貧賤之知奇忘向事
 上有司稟以本面兩在深刀介鎗介輸上事 題內捧上人庫是在果指揮於各統

二十八日

訓有司報以文廷八之兩第以東淳已為被死於民邑而以其第罪侵於文廷八家產什物與全州人任置物件盡為擄去事 題內向有依 營甘令飭矣自今以後如有平民橫侵之與先此甘飭曉諭禁斷是矣如不悛信即為報來向事同日追題內向聞南原民邑去時自該面有罪人押去云故以為探報之意有所帖飭而尚此舉云此何委折即為報來向事 皆全載鉉

三十九

蘆村梁基商等以為親需用為計特許一角事 題內米老之需不可無肉固當許施然非但向日官飭即有 營飭至若場布之危一并嚴禁只設官庖一處之意 甘教申重有難許屬是在果米老之需以雞豚代角似好向事

三百

一東

一東 去月十五日

上有司報以南原民邑酒泉里三民捉去事 題內更探委折被捉三民姓名并查報來

白事

告白煖默

二十四日

美時李麟錫狀以匪類之偷去物件依後錄推給事 題內當時所遭可謂通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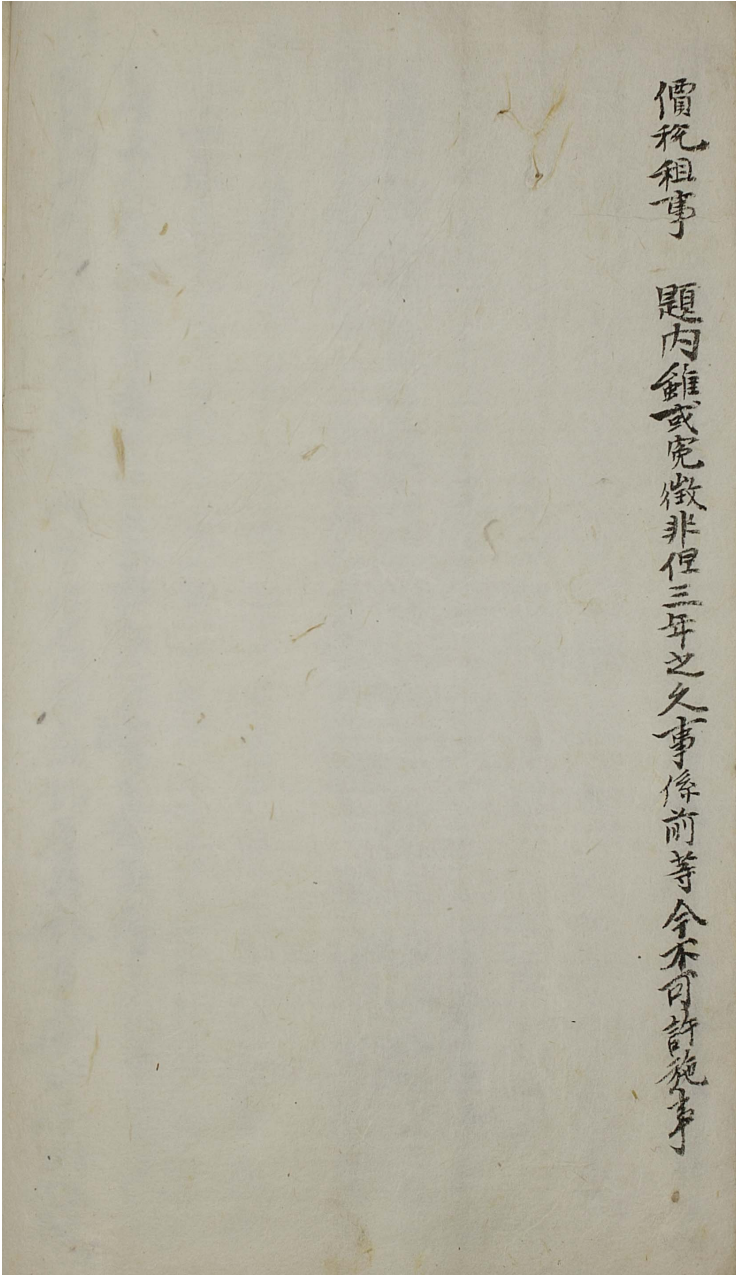
不必縷述而收去之漢既在本面則這推給世至呼寃白事 訓有司告白煖默

二十六日

佳浦文廷八狀以兩併以東各接王被死於民邑中而自召募陣來侵非常事

題內身既有罪被律則必無更侵於無罪之民矣勿為依恨安接要養節待

下面而或有橫侵之端即為馳報白事 訓有司 告白英澤



價稅租事

題內雖或免徵非但三年之久事係前等今不可許稅事

所謂執綱之名出於何處既有營飭截嚴則豈敢據自處之牙後而所
報又有惑焉能言無罪者之發明初無^有罪者之所報是何委折極為訝
然向事

十日

上有司或以補役當作人朴永根兩年稅租愁納事 題內雖稱當稅租不可徑
歲况公田官納豈可愁納至于自年猶以頑拒者極為無嚴稅租星火督納
是遣作人錢移于勤幹察作向事 同日追題內作人以勤幹者移作沒指名馳報
向事

千百

江亭朴永根狀以補役當四斗落癸巳年時作兩後晚種全不掛鐘而今忽督納結

何委折極為訝然向事

江亭有司稟以本里全檣權不得已假稱東徒者今總數殆矣不意今者入
水營廉命在旦夕云以無罪明白報營俾無玉石俱焚之歎事狀
內係是營飭邑不可擅置是在果所報中玉石俱焚之歎然則知玉而
不知石乎玉則難知石則易知指石報來則玉可以免焚向事

十六百

馬靈江亭有司稟以本里全熙權以東徒事被捉營廉果為冤枉事 題內
係是營飭矣邑不可擅處是在果所報中無至玉石俱焚然則知玉而不知
石乎玉則難知石則易知指石報來則玉可免焚向事
訓有司面稟以全熙權以東徒事被捉營廉果為冤枉事 題內雖云托名

乙未正月初白

上有日報各宜有司依報差送事 題內依所報差送事 戶房 告李英澤

危王宋教濬以此私屬牛皮一推給事 題內私屬自是法禁而何許無賴此輩乘

其時擾私自屬是喻究其所留方之駭愧私屬諸漢之姓名這查探報未以

為依律勘處嚴懲其無難之留是遣所訴皮筋一推給危王處中事

十五日

訓長危王

面中稟以本面全權權不堪威脅外托東學于今未幾日不意 營廡之申嚴不

勝惶懼然此人之無死罪一面耶共知故茲以齊稟事狀 題內雖云托名

所謂執綱之名出於何處既有 營飭截嚴則宜敢擅自處之乎該

面之所報又有惑焉能言無罪者之諱明初無有罪者之所報是

西飛山辛申周狀以完人租至右見奪於左浦東徒都而管杖推給之場八名租金成
化等終不出給事 題內查察及乞來向事 收民 告李英澤

示旨

訓有司報以本面內初無聰明俊秀之人事 題內京管申飭不憚鄭重至於官令
又非尋常是去乙啟之文着有此防禦是宣事體乎另擇人不自馳報無或

巡警私行葛藤向事

面申報以建鄉擇人自官處分事 題內官之莅茲雖屬匝岁今年所經無暇察

人之善否愈除良令此以議欲以去私取公而他面則以有薦登是矣惟獨該面忘念
執公之本意拘於面私難於炎涼不能區別此未免崑崙吞枣是可曰公議乎萬
該惑即速公薦向事

馬靈

馬靈 去月壬日

上有司報以馳馬收納事 題內捧上是在東更加探之這收納向事同日追題內溪南
驢者初不淨上是何委折即為覓上向事 扶隸

三言

訪花里金鎮才收以去月日片復折他九兩買得於市邊又兩金至去來言還退
事 題內果如而訴無乃裡外生主少知事理必無是端曾不次奉待是矣居間

人休來待向事

狀民 告白煖點

訪花里金鎮才收以兩名侍下難堪東徒之困督總已入道兩到今反道絕一柄細上
事 題內既為納吳鬼故化則以此意報 營後帖文成給向事 告白煖點

三言

銀川里金明鎰以此遠行計料之文成給事

題內依野訴之文成給事

告李英澤

二十日

仙洞劉京國等以此謀被東徒之推擬其時惟人全順無等處所費錢與
牛後推結事 題內聞極痛駭當不日嚴督推結向事 告全聖勛

事 題內公文成給向事 告全秉湖

半月里采仁吾統內全永佑狀以本以嶺南之人而從祖母病勢危急云故

往見計料憑考次公文成給事

題內該訓長與該統首有稟報後當

出帖向事 告全秉湖

二十四

訓長上有司稟四五統成丹西件修上事

題成丹西件捧上二件成貼遠下送是在果

儒稟三百三十七文之違收以納是卷更為變去向事

訓長稟以半月里全永宇省墓次委往領南計料爰成給事

題內依所報公文成

給是在果該面五統成丹緣何遲滯是喻面長之舉行極為駭忽不日修上母至

生梗向事 告李英澤

銀川里全永萬狀符高為恭公文成給事

題內依所訴公文成給向事

告李英澤

佳林金奴万石故以兒犢復不意致斃埋置題下事 題內既非去皮立本則埋

置宜當向事

告李英澤

銀川里金昌葉狀以所喂兒犢因病致斃事

題內去皮立本事

告金載鉉

十四日

銀川里梁叔并狀以兒犢致斃題下埋置事

題內既非去皮立本則埋置無妨向事

告金在寔

十五日

高岩李乃化狀以所喂兒犢致斃事 題內去皮立本向事 工房告金秉湖

十六日

炭谷弟一統之首李熙鳳狀統內朴化春柳明均出他竹商為詐公文取給

斗尾

斗尾 乙未正月初首

半月金馬居民等狀吐秋賭租見奪於東徒矣不意當主督稅事 題內當主之
收稅理固當然而此時見奪似非誣託當主必當廉知而若以徵推於各作則其
作人豈不冤枉以為除給收其餘數是矣若或極督推尋則民必澳散難
保當有別般措處之道以為押待向事 狀民告李英澤

士百

高名洪憲狀以去月日家夫兄弟到龍潭地見奪婚物什而四人便死
故推屍次而度馳往該邑則守城軍討索錢財推屍亦由報 營雪冤事
題內聞其情狀則極為慘惻所訴諸件事當報營後待 題措處而

事 告金秉湖

報特為放送是在果此漢事更有未訴之端則該洞及省與里有司非但有嚴
 懲方錢亦當督緝四事 告李英澤
 加幕時權順道見擯因病致斃事前呈背題兩片皮亦訴給是遣云庫子勿
 責四事 告全在宣

詳列縣馳報向事

訓有司洞頭民

告全在寔

自洞連長稟以移三長水民包崔應~~不~~捉去金應七事 題內他邑民之越境搶
侵者之結縛捉之意 營邑申飭不啻截廠是乞有何畏憚而未克
行才既有將差斧送姑待處分向事

三台

與泥龜尾文永真相七石再徵事前呈背 題內以平常時論則非但再
徵雖三四次徵給無辭可訴而至若當時事安業若是况今民情尤可當
念即為還給俾此殘氓奠保事 教主舍音 告全在寔

三台

石谷里有司報以金黔才所納已為推捧事 題內同結錢已為推捧則依所

向事

訓有司

告余在寔

石谷鄭永執此以屏近今者之任累難擔當事

題內老成尤極可堪勿煩

向事

告李英澤

吾

石谷奇德祚此以况犢席咬致斃事 題內去皮三本向事 告余兼湖

吾

申泥文永辰此以李泗川租石見奪非東徒矣不意姜哥與東徒十餘名并微

租價極為寬裕事 題內查宗次該舍音非來向事 此以 告余在寔

石谷居民等此以本里金點丁家舍渠矣公納元教次先執矣是居趙貴向

中間沮戲事 題內金點丁先以捉得查宗矣其名結錢與公錢數又昭

乙未正月初言

加幕柳傾道狀以養生兒牘致斃去皮立本之意題下事 題內依所訴去皮

立本向事

告李英澤

十分

外梧村金濟麟等狀以京軍留宿本里時所入籍與外草鞋個個當院枉事 題內所

許支供物個個劃給向事

告金肯舜

方洞河晉州狀以飽犢致斃事 題內去皮立本向事 告金肯舜

五百

宗坪東正先狀以農牛致斃事 題內去皮立本向事

告金秉湖

外梧金濟麟狀以京軍支供而入斃正事前呈骨 題內諸般所入詳查報來

與面

與面 去月手皆

宗輝崔仲玉狀以鄭洛元符向龍潭人氏女奪去樣作梗非常事 題內世或有奪物之賊宜有奪人之賊乎此必是亂類查宗次龍潭民頭領者星大捉待是遣所謂鄭哥體捉來而事 將差 苦全必憲

手皆

及洞秋乃化狀以潭入於東學勒道而今此反道別般慶分事 題內告官反道既有營錫勿為快俱在家安業而事

手皆

宗輝洞中報以砲三柄收納事 題內捧上是在果這、更探搜納則當有施賞

之道向事

告李英澤

侍督捧宣事 上有司 告全在寔

至日

山亭具敬成子婦以父雖被匪類之名果無行弊別般處分事 題內罪

不可容貸向事 告全肯勞

加命時李成春以兒續致敬死事 題內去史去本向事 告全在寔

山亭連長稟以本里張長根勒索人婢之罪極為可痛以匪類指目

被捉寃枉事 題內不准匪徒已所知悉而至若成婚未免挾匪勒索

是豈成婚之禮乎勒行之罪不可不到底嚴懲向事 告全在寔

有令飭是在果所訴又如此以此作結向事

該書員
告全良又洪

訓有司稟以官分付內本面鄉約長以文識解事人單望擅報教是稟乃比三望仰稟指一
處分事 題內單望報來之意有汝惟飭而今忍以三望修報誠甚訝惑更以單望報來事

十四日

上山亭李奴三每林以所喂兒犢致斃事 題內去史文本向事 告全在寔

新田里張景中狀以上道下草川全致自處傳給之鏡正柄橫推民處事

題內全致自眼同末符以為對貧推納向事 該面挾隸 告全在寔

十五日

上山亭里有司報以本里各人所納公錢嚴題督捧事 題內雖或移居

莫重公納豈不収捧乎 這三督捧後形止馳報是遣如或頑拒之弊概

段致張昭教出送即為分給使吾良民無或後考時生頃宜當向事 追題
內以作統事日前有 巡營別飭矣日間當有指揮是在累無論出幕與土
窟僧寺諸村而在不詳另探無或一云見漏內事

乙未正月初音

都尹報以本面民庫錢辛餘兩舊都尹朴元五拔本不殖故利錢寬徵事
題內初不殖本緣何意思此必是犯用而無暇辨故也雖是民庫係是公
用則不可不充數乃已而是舊都尹之責矣即為督推於朴元五處俾懲其
無亂之習是遣以杜後弊宜當向事

初音

貨一里洞中報以年例防結切勿舉論事 題內都結之章施已

龍潭之亂在於燒燼而具民既已逃躲則附近里民人處徵出價文更違約舍
 事 題內約舍館在外村亦是公舍豈可以置之勿問乎此不待開春更違
 結構之方從當有措置是在果三里徵財之論似或當然而具敬咸之九月
 從則奚獨專責於此哉三里之民既已改化則亦吾良民雖有前日之過不無參量
 姑諒處分寧事

告李英澤

示指

訓有司報以今年面下記錢幸餘兩院徵事 題內自面中從公區劃無至煩訴

寧事

告李英澤

上有司報以山第三處不入成丹中則儒標特下事 題內儒標之分給寔出於
 為民而胡不另探漏落於成丹是喻不審之該任掌為先附過是亦儒標

吞田

吞田 去月十日

風憲報以少亭里具敬成以有司與結者犯通逃縣則渠文里執教以充

公納事 題內查實報來向事

訓有司 告李英澤

岱日里居民等狀以去年春偶然失火軍需錢及各項之款擔納完枉事 題

內聞極慘憐所訴之款以為措處是遺火一段摘奸後成丹馳報向事 訓有司 告李英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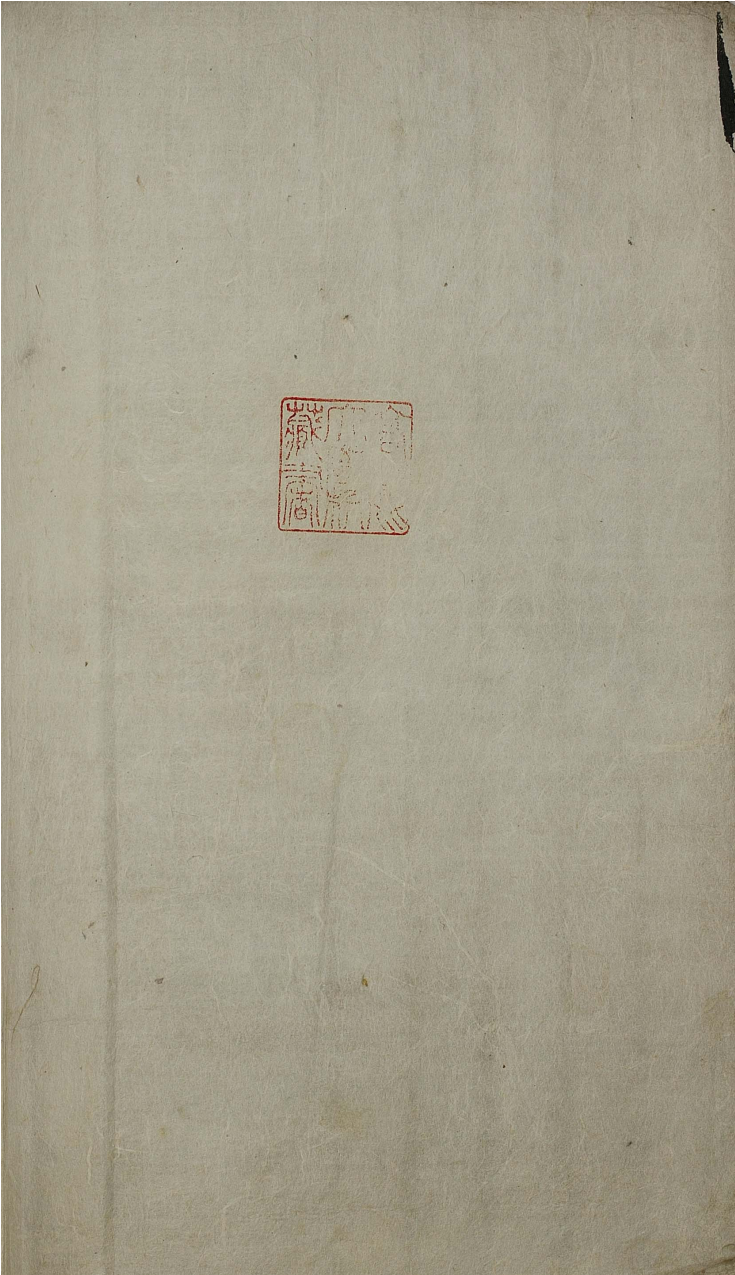
葛規金文殊狀以龍潭不學水處見奪牛推給事 題內既為報營則莽待下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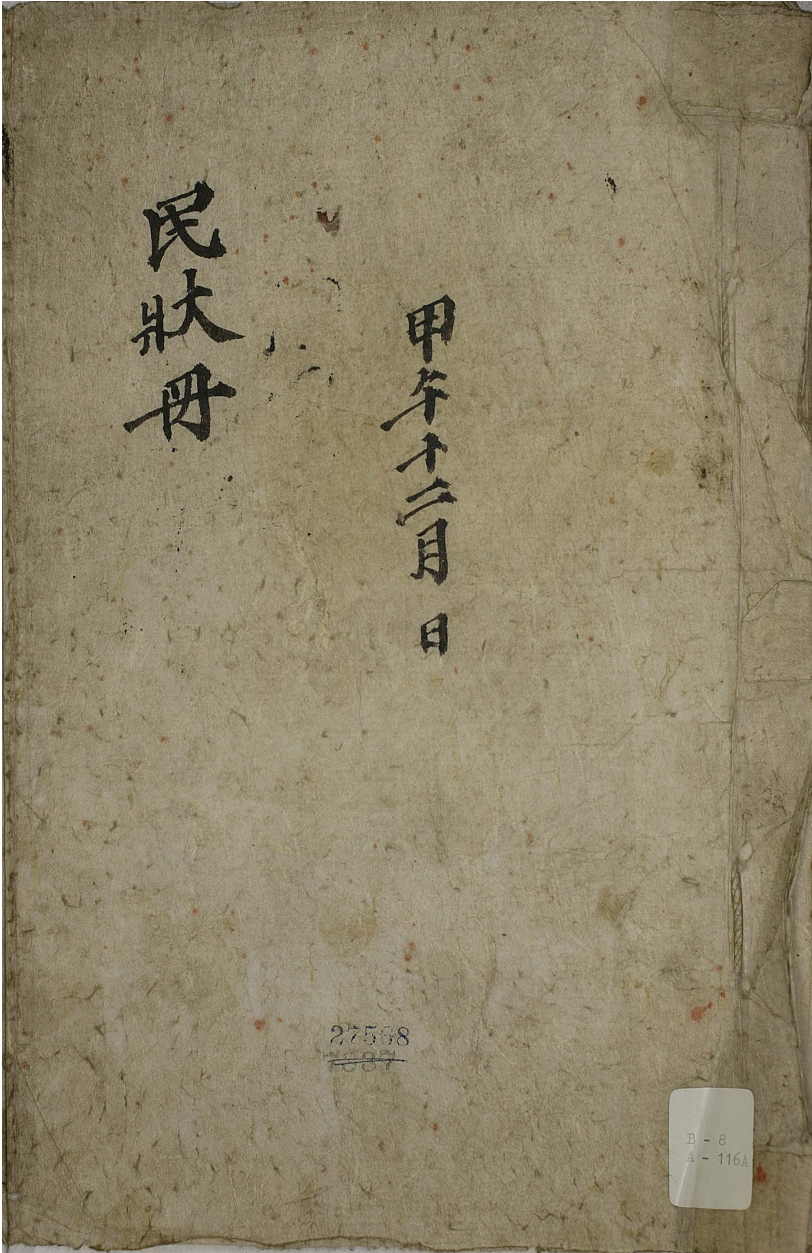
文移推給向事 告白煖點

中基金乘圭狀以與金文水狀內 題辭上同 告白煖點

二告白

鄉約長訓有司報以東學接圭具敬成與附近洞民設都所於約舍之致令此





민*
장
책
(갑오십이월
일)
民
狀
冊
(甲午十二月
日)

* 이 자료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자료를 제공해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감사드린다.

영인본
影印本

▣ 부 록 ▣

연구소 소식

위원회 명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

연구소 발간 자료

연구소 소식

□ 동학농민혁명 저작비평회 개최

- 일시 : 2025. 2. 11.(화) 15:00~18: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
- 주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저작물 : 지수걸(공주대 명예 교수), 2024,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 역사비평사.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 일시 : 2025. 2. 11(화) 14:00
- 장소 : 연구소 회의실
- 참석 : 신영우 위원장(연구소장) 등 위원 10명
- 내용 : 25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및 현안 논의 등

□ 제2대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취임

- 취임일자 : 2025. 4. 1.
- 연구소장 : 김양식(전 청주대 교수)

□ 연구비 기부

- 기부자 : 신영우 (전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 충북대 명예교수)
- 기부액 : 1,000만원(고창 녹두 대상 수상금)
- 용도지정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연구비
- 일시 : 2025. 4. 25(금) 15: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녹두화당

□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4호 발간

- 발간일 : 2025. 5. 31.

□ 정읍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주제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지역별 활동과 성격
- 일시 : 2025. 6. 25.(수) 13:30~18: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대강당
- 주최 : 정읍시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동학농민혁명 연구·창작자 워크숍 개최

- 기간 : 2025. 6. 26(목) ~ 6. 27.(금)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황토현 권역 어울림 센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기 학술대회 개최

- 주제 : 재판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군의 활동
- 일시 : 2025. 7. 24.(목) 14:00~18: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
- 주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부안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주제 : 부안 동학농민혁명, 세계로 가다!
- 일시 : 2025. 8. 20.(수) 14:30~18:30
- 장소 : 부안예술회관 다목적강당
- 주최 : 부안군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7 발간

- 발간일자 : 2025. 8. 30.
- 수록자료
 - 법부 검사국 기안 (法部 檢事局 起案)
 - 법부 형사국 기안 (法部 刑事局 起案)
 - 법부 사리국 기안 (法部 司理局 起案)

□ 제2회 동학농민혁명 영호도회소 기념사업회 학술대회

- 주제 : 영호도회소와 인근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
- 일시 : 2025. 9. 16.(화) 14:00~17:30
- 장소 : 국립순천대학교 박물관 2층 시청각실
- 주최 : 동학농민혁명 영호도회소 기념사업회
- 후원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
- 지원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고창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주제 : 기록과 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
- 일시 : 2025. 9. 30.(화) 14:00~18:00
- 장소 : 고창 청소년수련관
- 주최 : 고창군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전북사학회

□ 정읍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주제 : 정읍 황토현 전적 위치 고증 및 기념공간 재구성을 위한 학술연구
- 일시 : 2025. 10. 23.(목) 14:00
- 장소 : 정읍시청 구절초회의실
- 주최 : 정읍시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태안 동학농민혁명사 학술대회

- 주제 : 태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새로운 모색
- 일시 : 2025. 10. 30.(목) 14:00 ~ 17:00
- 장소 : 태안문화원 2층 아트홀
- 주최 : 동학농민혁명태안군 기념사업회
- 후원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지원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김제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주제 : 김덕명과 김제 동학농민군의 활동
- 일시 : 2025. 11. 06.(목) 13:30~18:00
- 장소 :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 주최 : 김제시
- 주관 :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 일시 : 2025. 11. 20.(목) 16:0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
- 참석 : 김양식 위원장(연구소장) 등 위원 12명
- 내용 : 25년 연구조사 사업 실적 및 26년 주요 사업 논의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학술총서』 3~5권 발간

- 발간일자 : 2025. 12.
- 3권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지역별 활동과 성격
- 4권 : 재판자료로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
- 5권 : 기록과 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

□ 동학농민혁명연구소 운영위원회 워크숍 개최

- 일시 : 2026. 1. 12.(월) 14:00 ~17:20
- 장소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교육관 중회의실
- 참석 : 김양식 위원장(연구소장) 등 위원 8명
- 내용 : 26년 연구조사 주요 사업 논의

□ 고창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주제 :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 고창지역 사회 변동
- 일시 : 2026. 4. 30.(목) 14:00~18:00
- 장소 : 고창군 유교문화체험관 교육실
- 주최 : 고창군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 정읍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 주제 : 고부의 역사와 고부관아터 고증
- 일시 : 2026. 5. 27.(수) 14:00 ~ 17:30
- 장소 : 정읍시청 구절초회의실
- 주최 : 정읍시
-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_왕현중(연세대 교수, 한국근대사)

편집위원 _배항섭(성균관대 교수, 한국근대사)

_강윤정(안동대 교수, 한국근대사)

_남기현(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한국근대사)

_김창수(전남대 교수, 한국근세사)

_박정민(전북대 교수, 한국근세사)

_유바다(고려대 교수, 한국근대사)

_민회수(홍익대 교수, 한국근대사)

편집위원 _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동학농민혁명)
(당연직)

편집간사 _오진경(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주임)
(당연직)

윤리위원회

윤리위원장 _왕현종(연세대 교수, 한국근대사)

윤리위원 _배항섭(성균관대 교수, 한국근대사)

_조재곤(서강대 연구교수, 한국근대사)

_유바다(고려대 교수, 한국근대사)

윤리위원 _이병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동학농민혁명)
(당연직)

윤리간사 _오진경(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주임)
(당연직)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제정 2023. 9. 26.

개정 2024. 2. 23.

개정 2024. 8. 14.

개정 2025. 3. 21.

개정 2026. 3. 26.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국문으로는 『동학농민혁명 연구』, 영문으로는 『Journal of Donghak Peasant Revolution』이라고 표기한다. <개정 2024. 2. 23.>

제2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의 학술지에 수록할 논문·서평·논평·자료 소개 등의 투고심사 및 학술지의 발간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구) 재단은 학술지 발간 및 연구윤리 문제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에 있어서 편집 및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개정 2024. 2. 23.>

제4조(발행인 및 권한 위임) 학술지를 대표하고 학술지 발간업무를 총괄하는 발행인은 재단 이사장으로 한다. 단, 재단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소장에게 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위촉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4. 2. 23.>

제5조(발간일 및 분량) 학술지의 발간일 및 분량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는 연 2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5월 31일과 11월 30일로 한다.
2. 학술지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3,30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저작권) 온라인 논문 제출 시 [별지 1]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위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 시스템의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위임동의서」 내용에 동의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등의 저작권은 재단에서 소유한다. 저작권에는 디지털로의 복제, 배포, 전송권 등이 포함된다. 다만, 게재된 논문 등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 등을 사용할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개정 2026. 3. 26.>

제7조(기타) 본 규칙에 따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운영

제8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8인, 편집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2. 23.>

제9조(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의 위촉 및 권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3.>

1.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위촉하거나 연구소장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1.>
2. 편집위원장은 역사학 분야의 전문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이로서 한다.
 - 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나. 대학의 전임교원 및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 다. 학자로서 명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4.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편집 및 출판 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제10조(편집위원) 편집위원에 대한 위촉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3.〉

1. 편집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연구조사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은 인문학 분야의 전문가로 하며, 소속 기관의 지역을 안배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 2. 23.〉
3.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이로 한다.
 - 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나. 대학의 전임교원 및 이와 동등한 경력을 갖춘 자.
 - 다. 학자로서 명망과 인격을 두루 갖춘 자.

제11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제12조(편집자문위원) 학술지 및 기타 발간물의 편집 및 출판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편집간사)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 활동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둔다.

1. 편집간사는 연구소 소속 연구직 직원으로 한다.
2.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활동을 보좌하며,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3. 편집간사는 학술지 발간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전문 개정 2024. 2. 23.]

제14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3.〉

1.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2. 논문의 심사 및 편집과 관련된 업무
3. 편집위원회 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활동 <개정 2024. 2. 23.>

제15조(편집간사의 임무) <삭제> <개정 2024. 2. 23.>

제16조(편집위원회 회의의 소집 및 개최) 학술지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회 회의를 운영한다.

1.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편집위원이 발의하여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 회의는 서면, 온라인 등의 형식으로도 개최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참여로 성립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궐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지정받은 편집위원이 편집위원장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위임받아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이 학술지에 투고할 경우, 해당 호의 편집위원회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5. 편집위원회 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포함하여 반기별로 1회(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4. 2. 23.]

제17조(편집회의의 권한) <삭제> <개정 2024. 2. 23.>

제18조(편집위원회 회의의 의결) 편집위원회 회의의 제반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반 동수인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 2. 23.>

제3장 원고의 투고

제19조(투고 방법) 원고의 투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재단‘온라인 논문 투고 심사시스템’(<https://submission.1894.or.kr/>)에 회원가입 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 3. 26.>
2. 투고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다.
3. 원고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온라인 투고 시 [별지 2] 「게재심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논문 투고 심사 시스템의 <게재심사신청>에 동의하고 KCI 문헌 유사도 검사를 진행한 파일을 첨부해서 제출한다. 유사도가 20% 이상일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단,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6.>
5. 투고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투고 시 [별지 3] 「연구윤리확약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 시스템의 <연구윤리규정> 및 <연구윤리확약>에 동의한다.
<개정 2026. 3. 26.>
6. 투고 원고에는 필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학위 논문이나 학위 논문의 일부를 게재하는 경우, 학술대회 등을 통해 이미 발표한 원고를 게재하는 경우,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제목에 *표를 달고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예시) 이 논문은 ○○학위논문 ○○○○○을 보완한 것이다.
예시) 이 논문은 ○○학위논문 ○○○○○의 일부를 게재하는 것이다.
예시) 이 논문은 ○○○학술대회에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예시) 이 논문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집필된 것이다.
8.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는 *표를 달고 투고자의 성명, 현재 소속 및 직위를 기재한다. 논문의 제목에 *표를 단 경우에는 **표로 구분한다.

9. 원고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게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발간 60일 이전(4월 1일, 10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 기한을 경과하여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본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 개정 2024. 2. 23.]

제20조(공동저자의 구분) 공동저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고논문이 단독 연구가 아닌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공동저자를 역할에 따라 구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제1저자: 제1저자는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 나. 제2저자: 제2저자는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 다. 제3저자: 제3저자는 논문 첫 장의 필자 이름에 ***표를 하여 구분하고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다.
2. 이외 3인 이상의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상기의 규칙에 따라 ****표 등으로 순차에 따라 구분한다.

제21조(원고 분량) 원고 분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참고문헌을 제외한 전체 논문 분량은 200자 원고지 220매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2. 23.>
2.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은 각각 250단어 내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3. 21.>

제22조(원고 작성 방식) 원고 작성 방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원고는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가. 한자나 외국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 괄호 속에 병기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3.>
 - 나. 인용문은 한국어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문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 한문이나 외국어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다. 모든 종류의 인용문은 그 출처를 밝히고 쪽수까지 제시해야 한다. 재 인용의 경우 원전과 인용서를 최대한 밝혀야 한다.
- 라. 중국 인명의 경우, 1911년 신해혁명 이전의 인물은 한자의 한국어 발음으로, 그 이후의 인물은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HWP)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논문의 본문 중에 인용하는 저자 이름 뒤에 붙이는 존칭(예: 선생, 교수, 박사 등)은 일체 생략한다.
- 4. 형식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개정 2024. 2. 23.>
 - 가. 편집용지: A4용지(세로배열), 위여백(20.0mm / 15.0mm), 아래여백(15.0mm / 15.0mm), 좌우여백(30.0mm / 30.0mm), 제본(0.0mm)
 - 나. 문단모양: 좌우여백(0.0mm), 위아래여백(0.0mm), 양쪽정렬, 줄간격(160%)
 - 다. 글자모양: 제목(바탕체 20Pt, 장평 95%, 자간 0%) / 본문(바탕체 10Pt, 장평 95%, 자간 0%)
- 5. 나머지 원고 작성 방법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의 관례에 따른다.

제23조(논문의 체제) 논문의 체제는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 1. 논문의 구성은 국문 초록-본문-참고문헌-영문 초록으로 한다.
- 2. 목차
 - 가. 장은 I. II. III., 절은 1. 2. 3., 항은 1) 2) 3)으로 기재한다.
 - 나. ‘서론’, ‘결론’ 등의 명칭은 ‘머리말’, ‘맺음말’로 통일한다.
 - 다. 머리말과 맺음말에는 번호나 로마자 등을 기재하지 않는다.
- 3. 표와 그림
 - 가. 표는 표의 위에 번호와 제목, 단위를 달고, 표 아래에 전거를 밝힌다.
 - 예시) <표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지역별 분포(단위: 명)
 - 나. 사진은 사진의 아래에 번호와 제목을 달고, 출처를 밝힌다.
 - 예시) <사진 1> 의안(議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진 제공

4. 각주

가. 인용문의 전거는 각주에서 밝힌다.

나. 전자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전자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자료명칭 등을 기재하고, URL과 접속일자를 표기한다.

예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壬戌」, 『梧下記聞』,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http://www.e-donghak.or.kr/archive/?menu=132&mode=view&code=prd_0001_001_002), 2023. 5. 11.

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제24조(각주의 표기)'를 참조한다.

5. 주제어·참고문헌·초록 <개정 2024. 2. 23.>

가. 국문초록의 말미에는 한글 주제어 5개 내외를 기재한다. 영문초록의 말미에는 영문 주제어(Keywords) 5개 내외를 기재한다.

나. 참고문헌은 단행본의 경우는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책명 또는 잡지명, 출판지역, 출판사명' 순으로 기재하고 논문의 경우는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책명 또는 잡지명, 출판지역, 출판사명, 인용면수'로 기재한다. 단, 출판지역이 국내인 경우는 출판지역 표기는 생략 가능하다. <개정 2026. 3. 26.>

다. 참고문헌 목록 다음에 영문 초록을 첨부한다.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은 국립국어원 제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 한다.

라. 참고문헌과 초록의 분량은 전체 원고 분량에 포함된다.

제24조(각주의 표기) 각주의 표기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

1. 출전 표기 순서

가. 논문 및 저서의 출전은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명, 책명 또는 잡지명 (권수, 호수), 출판지역, 출판사명, 인용면수'의 순서로 기재한다.

나. 단, 출판지역이 국내인 경우 생략 가능하다.

예시) 홍길동, 2023,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대하여」, 『동학농민혁명 연구』 1,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50쪽.

다. 전자 자료의 경우, '저작권자, 「자료명」, 웹사이트명(인터넷주소), 자료의 최종 확인 날짜' 순서로 기재한다.

2. 저자

가. 인용 서적이 편서일 경우 편자의 이름 뒤에 ‘편’, 구미어 편서의 경우 ‘ed.(편자가 복수인 경우 eds.)’를 표기한다.

나.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이름 등 원서의 서지사항을 표기한 뒤 괄호를 한 후 역자명 등 번역서의 서지사항을 표기한다.

3. 출판연도

가. 저자명 다음에 표기하고, 초판이 아닌 경우에는 연도 다음에 ‘판’자를 더하거나 책명 뒤에 괄호로 ‘개정판’임을 명시한다.

나. 출판연도가 2년 이상인 경우는 연도 사이에 가운데 점(·)을 표기한다.

예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21·2022·2023, 『동학농민혁명 연구』(상)·(중)·(하), 출판사.

4. 논문명, 책명, 잡지명

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논문명은 원어를 사용하여 작은 겹낫표(「」)로 묶고, 책명·잡지명은 큰 겹낫표(『』)로 묶는다.

나. 구미어로 된 논문명은 “ ”로 묶고, 책명·잡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시) Akira Iriye, 1981, “Review”, *American Historical Review* 86-1, February, pp.191~193. Martina Deuchler, 1992,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pp.1~5.

다. 논문이나 책의 부제는 ‘ - - ’ 사이에 표기한다.

예시) 저자명, 1894, 「논문명 - 부제 - 」, 『책명 - 부제 - 』, 출판사, 인용면수. 단, 구미 논저의 부제는 콜론(:)으로 표기한다.

라. 책의 편자나 공저자를 명시할 경우, 책명 뒤에 괄호로 묶는다.

예시) 저자명, 1894, 「논문명」, 『책명』(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편), 출판사명, 인용면수.

마. 인용 한문원전의 권수를 표기할 경우, 권수 뒤에 십표를 찍는다.

예시) 『仁祖實錄』 권18, 인조 6년 1월 3일 을축.

바. 잡지나 저서의 권수, 호수, 집수, 통권수 등은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한다.

예시) 3집, 3호, 통권3 등 → 3

12권의 2호 → 12-2

5. 출판지역 및 출판사

가. 출판지역 및 출판사의 표기는 책명 뒤에 쉼표를 하고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단, 출판지역이 국내인 경우 생략 가능)

예시) 『한국사입문』, 한국문화사.

『朝鮮史入門』, 東京: 日本書店.

나. 고서(고문서)의 영인 출판사 및 연도, 소장처 및 도서번호 등은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시) 李昆洙, 『壽齋遺稿』 「書啓」(소장처, 도서번호).

『三國遺事』 高麗大 晚松文庫本(영인 출판사, 연도)

6. 인용면수

가. 면수 뒤에 ‘쪽’을 붙인다.

나. 여러 면이 계속 인용된 경우, 시작 면수와 끝 면수 사이에 물결표(~)를 표기한다.

다.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면이 인용된 경우, 면수 사이에 쉼표를 하고 끝에 ‘쪽’을 붙인다.

예시) 3쪽, 15~18쪽.

라. 한문 고서의 앞·뒷면은 ‘앞면’과 ‘뒷면’으로 표시한다.

마. 구미 논저의 면수 앞에는 ‘p.’ 또는 ‘pp.’를 붙인다.

7. 반복 인용 <개정 2024. 2. 23.>

가. 앞에서 인용했던 문헌은 반복을 피하여 바로 위의 것은 ‘위의 책’, ‘위의 논문’으로, 바로 위가 아닌 더 앞에서 인용한 것은 저자명과 연도를 표시한 뒤에 ‘앞의 책’, ‘앞의 논문’ 등으로 표기한다.

나. 구미 논저가 반복 인용된 경우는 *ibid.* 또는 *op. cit.* 등으로 표기한다.

8. 재수록 <개정 2024. 2. 00.>

가. 동일 연구자의 다른 논문이나 책을 열거할 경우, 콜론(:)으로 연결한다.

예시) 저자명, 1894, 「논문명」, 『책명(잡지명)』: 1989, 『책명』, 출판사, 면수.

나. 이후 다른 연구자의 다른 논문이나 책을 열거할 경우, 세미콜론(:)으로 연결한다.

예시) A 저자명, 1894, 「논문명」, 『책명(잡지명)』; B 저자명, 1989, 『책명』, 출판사, 면수.

9. 사료 원문 인용

가. 사료 원문을 직접 인용할 경우, “ ”로 묶는다.

예시) 『續大典』, 刑典, 禁制. “咸鏡道富寧以北 商賈入居者 以制書有違律論 勿論犯禁與否 竝禁斷 而興販之物 沒官”

10. 기타

가. 각주가 문장형(~이다, ~한다, ~하라 등)으로 끝날 경우, 마침표를 찍는다.

나.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중복 표기할 경우, 바깥 괄호는 중괄호([])로 표기한다.

예시) ~라고 이해한다.[저자명, 1894, 「논문명」, 『책명』(한국사연구회 편), 면수]

제4장 원고의 심사

제25조(심사 의뢰 결정과 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1회 이상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가 투고했을 경우 심사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2. 해당 분야 전문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은 본 재단의 운영위원 여부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3. 투고자와 동일소속기관 연구자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개정 2024. 2. 23.>
4. 재단의 직원 및 편집위원회의 위원이 투고할 경우 재단의 직원 및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배제하며, 심사는 모두 외부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진행한다.

5. 심사 종료 후 지급되는 심사비는 [별지4] 논문심사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6. 심사위원은 일반심사논문의 경우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 긴급심사 논문의 경우 1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별도의 통보 없이 심사 결과 회신이 제출시한을 경과할 경우 다른 심사 위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26조(익명성과 비밀 유지 조건) 심사용 원고는 반드시 익명으로 하며, 심사 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장 책임하에 대외비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심사단계) 학술지의 심사단계는 예비심사와 본심사, 보완심사로 나눈다.

1. 예비심사는 학술지에 제출된 글들의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을 따져 본심사 회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본심사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글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한다.
3. 본심사 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보완심사를 진행한다.
4. 재단의 요청으로 집필된 기획 논문 및 비평 논문, 서평, 연구 동향, 자료 소개, 역주 등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심사 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심사 내용 및 방식) [별지5] 논문심사서에는 심의·검토의견과 종합적 평가 내용을 기재하는 난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위원은 자료활용의 타당성, 논문 작성의 성실성, 논지의 정확성, 연구의 독창성, 학계의 기여도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한다. 각 항목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가. 자료활용의 타당성: 20점
 - 나. 논문 작성의 성실성: 20점
 - 다. 논지의 정확성: 20점
 - 라. 연구의 독창성: 20점
 - 마. 학계의 기여도: 20점

2. 항목별 평가를 감안하여 게재(A: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B: 80점 이상), 수정 후 재심사(C: 70점 이상), 게재 불가(D: 70점 미만)의 4등급으로 평가한다.
3. 수정 후 재심사(C) 혹은 게재 불가(D)로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4. 평가 의견은 투고자에게 공개한다.

제29조(심사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A,A,A)(A,A,B)(A,A,C) - 게재 가능(본호)
 - 나. (A,B,B)(A,B,C)(B,B,B)(B,B,C) - 수정 후 게재(본호)
 - 다. (A,A,D)(A,B,D)(A,C,C)(A,C,D)(B,B,D)(B,C,C)(B,C,D)(C,C,C)(C,C,D) - 수정 후 재심사(차호 이후)
 - 라. (A,D,D)(B,D,D)(C,D,D)(D,D,D) - 게재 불가
2. (A,A,D), (A,B,D), (B,B,D)의 경우 투고자가 반론서를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호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과 결과는 기록으로 남긴다.
3. 수정 후 재심사(차호 이후) 판정을 받은 필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수정 후 차호 재심사 의사를 편집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재심사 의사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차호 재심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논문의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심사를 통과한 논문 편수가 편집중인 학술지 수록 분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 주제가 해당호의 편집 기획에 부합하는 것을 선정하고, 다음으로 심사성적을 기초로 순위를 정한다. 종합평가가 동점일 경우 투고한 일시의 순서로 정한다.
5. 표절 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논문 심사 과정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윤리위원회의 처리 결과에 따른다.

제30조(수정된 원고의 송부) 투고자는 논문심사서를 확인한 후 소정 기일 내에 원고를 수정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제5장 원고의 게재

제31조(게재 여부 결정) 게재 여부 결정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학술지 게재 논문 심사 판정 기준에 의하여 판정한다.
2.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경우 투고자는 수정 원고와 함께 [별지6] '동학농민혁명 연구 원고 수정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수정사항 반영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3. '수정 후 재심사'판정 후 5개월 내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불가로 간주하며, 편집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4. 재심사의 횟수는 총 1회로 제한하며, 재심사 절차와 그 결과에 따른 논문 게재 여부 판정은 본 규칙 제3장 및 제4장을 준용한다. 재심사 결과가 '수정 후 재심사'일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5. 최종 결과 '게재 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은 충분한 수정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1년간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심사결과 반영) 심사결과에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투고자는 이를 수정 원고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제33조(이의 신청) 논문 심사와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200자 원고지 3매 내외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2. 이의 신청을 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수락한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이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여부 및 조치에 대한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계재 증명) 투고자는 투고 원고의 계재 여부가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별지 7] 「논문 계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2. 23.〉

부칙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칙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4.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3.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3.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위임동의서

논문제목

- 국문:
- 영문:

저자는 본 논문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아래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1. 저자는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는 본 논문이 귀 학술지에 게재된 후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확인된 경우 귀 학술지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3. 저자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다합니다.
4.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5. 본 발간물의 발행인은 저자 혹은 본 발간물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6. 저자는 본 논문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복사·전송권 포함) 등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저 자 (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귀중

[별지 2] <개정 2024. 2. 23.> (제19조 제4호 관련)

게재심사신청서

이름	(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우편물 수취 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논문 제목	(한글)		
	(영문)		
	심사 희망 전공 분야		
연구비 지원 논문	연구비 지원기관		
	지원연도/과제명		
<p>본인(기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발간하는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하여 심사를 신청합니다.</p> <p>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인)</p>			

*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일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 논문' 항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4] (제25조 제5호 관련)

논문심사비 지급기준

구분	금액	비고
일반논문심사	50,000원	1건의 논문 심사를 기준으로 하여 1인의 심사위원에 지급함
긴급논문심사	70,000원	1건의 논문 심사를 기준으로 하여 1인의 심사위원에 지급함

[별지 5] (제28조 관련)

논문심사서

심사위원	성명	①	소속, 직위	
	계좌번호			
논문제목				
게재예정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00호	년	월	일 발간
심의사항	심의 · 검토의견			점 수
자료활용의 타당성				
논문 작성의 성실성				
논지의 정확성				
연구의 독창성				
학계의 기여도				
종합의견				종합평가
				(점)

※ 가. 점수: 각 항목당 20점을 배점하며, 총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에 반영합니다.

나. 종합평가: A. 게재(90점 이상), B. 수정 후 게재(80점 이상), C. 수정 후 재심사(70점 이상), D. 게재 불가(70점 미만) 입니다.

※※ 종합 의견 외에 추가되는 평가는 별지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별지 6] (제31조 제2호 관련)

『동학농민혁명 연구』 투고 원고 수정사항

이름		소속	
논문 제목			

심사 사항	수정 위치	수정 내용

※ 작성 요령

- ‘심사사항’란에는 보내드린 종합심사의견의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수정 본문 란에는 본문 내용을 넣으시는 것이 가장 좋으나, 어느 페이지 몇 번째 줄인지만 밝히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 저자께서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심사사항과 그에 해당하는 위치, 수정하지 않는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의 서식에 따라 작성이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의 별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 지

[별지 7] <개정 2024. 2. 23.> (제34조 관련)

논문 게재(예정)증명서

1. 저자

저자 구분	이름	소속	직위	비고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2. 논문 제목 및 게재 학술지

논문 제목	
게재 학술지	

위와 같이 논문을 게재함(게재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윤리 규칙

제정 2023. 9. 26.

개정 2024. 2.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서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이하‘학술지’라 한다)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및 처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3.>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재단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학술·연구행위에 적용된다.

제3조(연구윤리의 기본 원칙) 연구윤리의 기본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서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는다.
4. 연구자는 직접 수행한 연구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5. 연구자는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

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연구실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6. 연구자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논문표절방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8. 연구자는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논문 게재 시 자신의 소속 및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재단에서는 다음의 정보를 연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가. 투고자의 소속 기관 또는 학위 수여 기관
 - 나. 투고자의 소속 기관 내 직위 또는 소속 학교에서의 학적 상태
9. 연구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재단에 알려야 한다.
10. 연구자는 연구윤리 규칙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별지 1] 연구윤리 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가공의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 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연구자가 임의로 변형, 조작,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이용하는 행위.
4. 이미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실린 연구자 본인의 기존 논문을 그대로 혹은 일부 내용을 적절한 인용표시 없이 수정·편집하여 다시 투고하는 행위. 단,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함.
5.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상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역사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8. 기타 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2장 윤리위원회

제5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조사위원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연구 윤리 및 진실성에 대한 제반 사항 및 제4조의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윤리위원회를 임의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위원 4인, 간사 1인으로 한다.
2.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학술지 발간 규칙」 제2장 제9조에 따른 편집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은 연구소 운영위원·편집위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편집간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3.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대해 학술적 전문성을 지닌 조사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의 구체적인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6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제소자 보호 및 피제소자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7조(윤리위원회 회의) 윤리위원회의 회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조사위원들의 서면 보고서를 토대로 심의하여 결과를 판정한다.

3. 판정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6.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며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보조한다. 단 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지는 않는다.

제8조(심의기간) 심의는 제보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9조(제소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 보호) 제소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한다.

1. 제소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으며, 윤리위원회와 조사위원은 제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윤리위원회에서 신원노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제소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피제소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윤리위원회는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이의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2. 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제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소내용
2. 조사 대상 연구 및 부정행위 관련 의혹의 내용
3.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언
5. 조사 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피제소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제12조(판정 및 징계) 윤리위원회의 판정 및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판정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피제소자에게 통보한다.
2.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윤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고,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가. 학술지 게재 취소 및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조치
 - 나. 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5년간 학술지에 논문 투고 금지
 - 다. 부정행위로 판정된 이후 홈페이지 및 최초 발간되는 학술지에 판정 내용 공시
 - 라.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판정 내용 통보
 - 마.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연구윤리 규칙 위반에 대한 세부 사항 통보

제13조(재심의)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불복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 절차는 1심 절차에 준한다.

제14조(조사 기록의 보존과 정보 공개) 윤리위원회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 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2023.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이 규칙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 연구윤리 규칙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연구자는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예외사항)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2024.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동학농민혁명 국역총서』 수록 자료 목록

▶ 1권(2006)

취어(聚語), 양호초토등록(兩湖招討謄錄), 양호전기(兩湖電記), 선봉진일기(先鋒陣日記), 순무사정보첩(巡撫使呈報牒)

▶ 2권(2006)

순무선봉진등록(巡撫先鋒陣謄錄)

▶ 3권(2007)

수록(隨錄), 동비토록(東匪討錄), 김기술 문서(金箕述 文書), 박봉양경력서(朴鳳陽經歷書), 갑오척사록(甲午斥邪錄), 동요일기(東擾日記), 토비대략(討匪大略), 소모일기(召募日記)

▶ 4권(2007)

금번집략(錦藩集略), 홍양기사(洪陽紀事), 남유수록(南游隨錄), 피난록(避亂錄), 동비토론(東匪討論), 임영토비소록(臨瀛討匪小錄), 황해도동학당정토약기(黃海道東學黨征討略記), 갑오해영비요진말(甲午海營匪擾顛末)

▶ 5권(2008)

영상일기(嶺上日記), 석남역사(石南歷事), 임하유고(林下遺稿), 갑오사기(甲午事記), 갑오약력(甲午略歷), 겸산유고(謙山遺稿), 동도문변(東徒問辨), 김낙철역사(金洛喆歷史), 김낙봉이력(金洛鳳履歷), 염기(廉記), 강재유고(剛齋遺稿), 난파유고(蘭坡遺稿), 연파집(蓮坡集), 오남집(吾南集), 사복재집(思復齋集), 복재집(復齋集), 송사집(松沙集), 면앙집(勉菴集), 육유재유고(六有齋遺稿), 담원문록(檀園文錄), 호산집(壺山集), 영회당사집(永懷堂史輯), 영회기(永懷記), 한달문 옥중서신(韓達文 獄中書信), 거의록(學義錄), 취의록(聚義錄), 김상철이력행장(金相轍履歷行狀), 봉남일기(鳳南日記)

▶ 6권(2008)

시문기(時間記), 약사(若史), 경란록(經亂錄), 갑오동란록(甲午東亂錄), 갑오기사(甲午記事), 의산유고(義山遺稿), 복암사집(復菴私集), 금산의병순의비(錦山義兵殉義碑), 흥성금석문(洪城金石文), 갑오일기(甲午日記), 정운경가 동학교문서(鄭雲慶家東學古文書), 세장년록(歲藏年錄), 나암수록(羅巖隨錄), 시경록(時經錄), 기문록(記聞錄), 농산집(農山集), 유하집(柳下集), 백곡지(柏谷誌)

▶ 7권(2010)

양호우선봉일기(兩湖右先鋒日記), 장계(狀啓), 계초존안(啓草存案), 찰이전존안(札移電存案), 금영래찰(錦營來札), 순천부포착동도성명성책(順天府捕捉東徒姓名成冊), 광양현포착동도성명성책(光陽縣捕捉東徒姓名成冊), 광양섬계역포착동도성명성책(光陽蟻溪驛捕捉東徒姓名成冊), 전라도각읍소획동도수효급소착급물명목성책(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爻及所捉什物并錄成冊), 전라도각읍소획동도수효급장령성명명목성책(全羅道各邑所獲東徒數爻及將領姓名並錄成冊)

▶ 8권(2010)

선봉진정보첩(先鋒陣呈報牒), 선봉진서목(先鋒陣書目), 선봉진각읍료발관급감결(先鋒陣各邑了發關及甘結), 선봉진상순무사서(부잡기[先鋒陣上巡撫使書(附雜記)], 이규태왕복서병묘지명(李圭泰往復書並墓誌銘), 순무사각진전령(巡撫使各陣傳令), 선봉진전령각진(先鋒陣傳令各陣)

▶ 9권(2011)

갑오실기(甲午實記), 소모사실(召募事實), 교남수록(嶠南隨錄), 경상도소모영전곡입하실수성책(慶尙道召募營錢穀入下實數成冊), 효유문(曉諭文), 전주부전전라도각읍상납중비류소탈전목미태구별성책(全州府前全羅道各邑上納中匪類所奪錢米太區別成冊), 전라도각읍매사읍작통구모관사조약별록성책(全羅道各邑每四邑作統規模關辭條別錄成冊), 도인경과내력등 문건(道人經過來歷等 文件), 공산초비기(公山剿匪記), 모충사 전망장졸씨명록(慕忠祠 戰亡將卒氏名錄), 호연초토영각읍절의열행인성명성책(湖沿招討營各邑節義烈行人姓名成冊), 남정일기(南征日記), 사정일기(沙亭日記)

▶ 10권(2012)

면양행견일기(沔陽行遣日記), 김약제일기(金若濟日記), 백석서독(白石書牘), 노정약기(路程略記), 선유방문병동도상서소지등서(宣諭榜文並東徒上書所志曆書)

▶ 11권(2013)

동학도종역사(東學道宗釋史), 시천교종역사(侍天教宗釋史), 본교역사(本教歷史)

▶ 12권(2014)

전봉준공초(全琫準供草), 중범공초(重犯供草), 이병휘공초(李秉輝供草), 이준용공초(李峻鎔供草), 동학관련판결선고서(東學關聯判決宣告書), 일본사관함등(日本士官函贈), 곡성군수보장(谷城郡守報狀), 동학당정도인록(東學黨征討人錄), 갑오군공록(甲午軍功錄), 동학당정도약기(東學黨征討略記), 각진장졸성책(各陣將卒成冊), 나주명록(羅州名錄)

▶ 13권(2015)

대선생주문집(大先生主文集), 대선생사적(大先生事蹟), 갑오동학란(甲午東學亂), 천도교서(天道教書)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수록 자료 목록

▶ 1권(2015)

종리원사 부 동학사(宗理院史附東學史), 순교약력(殉教略曆), 고흥군 교구역사(高興郡教區歷史), 균암장 임동호씨 약력(均菴丈林東豪氏略曆), 이종훈 약력(李鐘勳略曆)

▶ 2권(2015)

김산소모사실(召募事實), 창계실기(蒼溪實記)

▶ 3권(2015)

학초전(鶴樵傳) 1

▶ 4권(2015)

학초전(鶴樵傳) 2

▶ 5권(2015)

미나미고시로문서(南小四郎文書)

▶ 6권(2016)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1 ~ 3

▶ 7권(2016)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4 ~ 6

▶ 8권(2016)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7 ~ 10

▶ 9권(2017)

동정일기(東征日記), 이홍장전집(李鴻章全集), 청계중일한관계사료(淸溪中日韓關係史料)

▶ 10권(2018)

별계(別啓), 사법품보(司法稟報)

▶ 11권(2019)

동학농민군 편지(동학농민군 유광화 편지,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 동학농민혁명 관련 고문서(김진휘 등이 보낸 통문, 이병립 등이 작성한 품목, 민영주가 작성한 간찰, 고종이 양호 초토사 홍계훈에게 내린 유서, 수령이 풍헌 등에게 보낸 전령, 완영에서 작성한 전라도 고부민란 시초, 도약장소에서 사사로이 보낸 통문, 민준호가 작성한 간찰, 유학 김영택을 별감으로 임명하는 첩, 유학 김성택을 집강으로 임명하는 첩, 북하면장 홍순철이 작성한 보고, 북하면 도면정 성하동이 작성한 보고, 예산 북하면장 홍순철이 작성한 보고, 순포중군이 집사에게 보낸 전령, 도통장이 작성한 통문, 나주 목사가 발급한 완문, 나주 목사가 홍우전에게 발급한 물침첩, 전라도 관찰사하 한학모에게 발급한 표, 남평 현감이 이정돈에게 발급해 준 물침표, 호남 초토사 민종렬이 작성한 서목, 서산 유희장이 작성한 통문, 해미 염솔면 이석노 등이 작성한 단자, 의정부가 나주 목사에게 보낸 관, 어천면 주인에게 보낸 전령, 구분협 등이 작성한 상서, 수곡리에 거주하는 대소 민인이 작성한 등장, 어상천 면장 등이 작성한 완문, 조호승 등이 작성한 등장, 백기효를 장흥 도방수장으로 차정한 문서 등, 방수장 박모가 작성한 서목, 북삼면 상유사 황모 등이 작성한 첩정, 이서면의 풍헌이 도호부사에게 보낸 첩정, 외귀방의 풍헌이 도호부사에게 보낸 첩정, 강계 도호부사가 작성한 서목, 이재희가 작성한 원정, 고산방의 풍헌이 도호부사에게 보낸 첩정, 이도재가 순천 조 석사에게 보낸 간찰, 호남 초토사 민종렬이 작성한 동오면 의거소 좌목,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서, 담양 사인 구상순이 작성한 통문), 춘당록(春塘錄)

▶ 12권(2020)

1894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문서(현감 하철 5점, 소모관 전령, 1895년 초토사 첩정, 1895년 호남 초토사 서목, 순찰사 효유문, 능주 오면재 문서, 오통절목, 방화적 절목, 의관령 방화적 조목, 화북면 첩정, 각 동 입규 조목, 화북면 품목, 입규 조목, 조약 절목, 화북면 집강 명단, 유희성책, 황해도 강령현민 등장, 영천 안핵계초, 도소 사통, 동학소 입전기, 간찰 6점)

▶ 13권(2021)

〈동학농민혁명 기록문집〉

겸산집, 고당집, 고현유고, 급산집, 당천집, 돈현유고, 동와유고, 방려문집, 병암집, 사남유고, 송재집, 심석재집, 우인당유고, 율은집, 지암집, 청사유고, 취묵현유고

▶ 14권(2022)

〈일본 사료〉

동학당의 상황, 폭민 동학당, 메이지 27년 일청교전 종군일지

▶ 15권(2023)

〈일본 사료〉

갑오조선내란시말, 천우협, 남정여록, 동학당시찰일기, 일청교전록, 일청전쟁실기

▶ 16권(2024)

〈일본 사료〉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 일청전쟁 기간의 제국 주차부대의 행동, 내란실기 조선 사건, 조선폭동실기, 동아선각지사기전

▶ 17권(2025)

법부 검사국 기안(法部 檢事局 起案), 법부 형사국 기안(法部 刑事局 起案),
법부 사리국 기안(法部 司理局 起案)

『동학농민혁명연구소 학술총서』 목록

▶ 1권(2024)

유족 증언을 통해 본 동학 농민군의 삶

▶ 2권(2024)

인제, 동학정신에서 동학농민혁명으로

▶ 3권(202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지역별 활동과 성격

▶ 4권(2025)

재판자료로 본 동학농민군의 활동

▶ 5권(2025)

기록과 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

학술지 『동학농민혁명 연구』 수록 논문 목록

▶ 창간호(2023. 11.)

〈일반논문〉

배항섭, 경상도 예천 지역 농민군의 활동과 반농민군의 탄압
김양식, 전봉준의 생태인본주의 사상과 정치의식
김희태, 나주 동학농민혁명 관련 문화유산 활용 방안
신진희, 경북 예천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적지 현황과 활용 방안

〈특집논문〉

유바다, 『홍재일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
정을경, 『홍재일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제2차 봉기기 부안 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조재곤, 『홍재일기』로 본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사회변동
전경목, 기행현의 과거 준비와 응시 및 인적네트워크

〈자료소개〉

신영우, 갑오일기 해제
갑오일기 영인본

▶ 제2호(2024. 5.)

〈특집논문〉

왕현중, 19세기말 고부지역 수리시설 운영과 만석보 수세 징수
조광환, 만석보의 변천과정과 기념사업의 현황
홍성덕, 1894년 고부 '만석보'의 위치 재검토

〈일반논문〉

조재곤, 고부농민항쟁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
이병규, 군산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
김중규, 군산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특징 및 현황과 활동거점 연구
신영우, 1894년 양호도순무영의 설치와 활동
신순철, 동학농민군의 대둔산 항쟁

〈서평〉

이영호, 우리가 겪은 그들의 전쟁

- 『조선인들의 청일전쟁: 전쟁과 휴머니즘』(조재곤, 푸른역사, 2024) -

〈자료소개〉

이병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소장 고문서

왕현중, 충청남도·전라남북도사료채방복명서(조선사편수회, 1934)

▶ 제3호(2024. 11.)

〈특집논문〉

정경호, 미국의 동학농민혁명 및 청일전쟁 관찰

- 뉴욕 언론지의 동학농민혁명·청일전쟁 보도를 중심으로 -

유바다, 독일제국 외교관의 동학농민군에 대한 인식

김태웅, 조선주재 프랑스 외교관·선교사의 동학농민혁명·청일전쟁 인식과 대응
한동훈, 청일전쟁 전후 러시아의 조선 정세 인식과 삼국간섭

- 동학농민운동 인식을 중심으로 -

권의석, 영국의 동학농민혁명 인식과 영일관계의 변화

〈일반논문〉

녹두팀·박정민, 데이터로 본 동학농민혁명 연구 동향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료(史料) 아카이브 수록 국내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

엄찬호, 『동경대전』 간행터의 기념시설 활용 및 활성화 방안

남경국, 헌법적 관점에서 본 1894년 동학농민혁명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과 예우 논의를 중심으로 -

홍성덕,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화 전략

〈자료소개〉

이병규, 이풍암공신행록(李豊菴公實行錄)

김희태, 포살동도수효급소획즙물병록성책(砲殺東徒數爻及所獲汁物并錄成冊)

- 1894년 4월~11월 나주목 관내 7개지역 동학농민전쟁 기록 -

▶ 제4호(2025. 5.)

〈특집논문〉

김양식, 세계기록유산으로 본 남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전개과정

- 『순교약력』과 『남원종리원사』중심으로 -

성주현, 김동규 기증유물로 본 남원지역 천도교

〈일반논문〉

신진희, 경상도 의흥지역 동학농민혁명

김현선, 자운(紫雲) 이중구(李中久)의 시선으로 본 ‘동학농민혁명’

- 『이중구가 오대 고문서(李中久家 五代 古文書)』 자료의 소개를 중심으로 -

이병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터 고증과 문화유산 지정방안

홍성덕, 완주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전적지 정비·활용방안

〈서평〉

유바다, 농민전쟁을 넘어 어셈블리로

- 『1894년 남북접 동학군의 공주 점거투쟁』(지수걸 저, 2024, 역사비평사) -

▶ 제5호(2025. 11.)

〈특집논문 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지역별 활동과 성격

신진희, 경상남도 동학농민군 참여자의 등록 현황

김양식, 충청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현황과 성격

- 발굴·등록된 참여자를 중심으로 -

김희태, 전라도 서남부지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과 성격

- 무안·함평·영광을 중심으로 -

〈특집논문 2〉 기록과 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

정경민, 고창지역 민보군의 거의(學義) 정당화와 의리론

- 『거의록』과 『취의록』을 중심으로 -

조재곤, 고창지역 영학당과 결세 저항운동

신진희, 『甲午日記』를 통해 본 지례 동학농민군의 활동

최진욱 『이풍암공실행록(李澧菴公實行錄)』의 내용 검토와 사료적 가치 분석

〈일반논문〉

고석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서로 다른 방식의 기억들

지수걸, 남접·호남 중심 농민전쟁론 넘어서기

원도연,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의의와 활용방향

나하나, 임실지역 동학농민혁명과 접주 허선의 가계검토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6호

인 쇄 _2026년 5월 26일

발 행 _2026년 5월 31일

발행인 _신순철

발행처 _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전화_063-530-9432 / 팩스_063-538-2893

편집인쇄 _(주)학술교육원(earticle.net)

인천시 부평구 영성중로 50, 701호

전화_0505-555-0740 / 팩스_0505-555-0741

pISSN 3022-2435 / eISSN 3022-3873

비매품

본 학술지의 판권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